КАЗАХ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Й И МИРОВЫХ ЯЗЫКОВ ИМЕНИ АБЫЛАЙ ХАНА

ЦЕНТР КОРЕЕВЕДЕНИЯ

КОРЕЕВЕДЕНИЕ КАЗАХСТАНА

выпуск 22

Алматы, 2026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Core University Program for Korean Studies***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Korean Studies Promotion Service at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AKS-2021-OLU-2250007)."

ББК 66.4 (519.5 Корея)
К 66

Редакционная коллегия сборника «Кореееведение Казахстана»:

Главный редактор:
Пак Н.С., д.ф.н., профессор КазУМОиМЯ им. Абылай хана, Казахстан

Ответственный редактор:
Чан Ходжон, Ph.D., профессор КазУМОиМЯ, Казахстан

Члены редакционной коллегии:
Пэк Тхэхён, к.и.н., профессор КИЦА, Кыргызстан
Сон Ёнхун, Ph.D., профессор университета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ов Хангук,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Хан Н.Ч., Ph.D., профессор КазУМОиМЯ, Казахстан
Ким У.А., директор Центра кореееведения КазУМОиМЯ, Казахстан
Курманбекова В.А., Ph.D., КазУМОиМЯ, Казахстан
Борантаева Ф.Ж., КазУМОиМЯ, Казахстан

Составители:
Аксаналиева Ж.Н., КазУМОиМЯ, Казахстан
Жайлауова А.Т., КазУМОиМЯ, Казахстан
Слямгажиева Д.С., КазУМОиМЯ, Казахстан

К 66 «Кореееведение Казахстана» вып. 22. Алматы: КазУМОиМЯ им. Абылай хана, 2026. 360 с.

ISSN 2415-7511

В настоящем сборнике рассматривается широкий круг вопросов кореееведения. Представлены статьи исследователей,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докторантов и магистрантов, занимающихся изучением различных областей кореееведения. Статьи публикуются на русском, корейском, английском или казахском языках.

Сборник предназначен для широкого круга читателей, интересующихся Кореей и проблемами кореееведения.

Данное издание выпущено при поддержке Академии Кореееведен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ISSN 2415-7511 *© КазУМОиМЯ им. Абылай хана, 2026*

СОДЕРЖАНИЕ

악사날리예바 자밀랴, 톡타르바예바 아크바얀. 카자흐인과 한국인의 출산 의례 비교 연구: 전통, 신앙 및 문화적 상징성을 중심으로.....5
БАТТӨР ЖАМЪЯН, АЙСЛАН ХОМУШКУ. Движение 1 марта в Корее и Монголии: антиколониальные связи, дискурс прессы и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ий выбор.....12
БИЛИНСКАЯ С., КИМ А.А. Санкционная политика США против КНДР: механизмы, инструменты и эволюция (2001–2021 гг.).....32
БОРАНТАЕВА Ф.Ж. Мультидіни кеңістік жағдайындағы оңтүстік Корея қоғамының мәдени трансформациясы.....47
БҮРКІТБАЙ Г.Ж., РИЗАБЕКОВА Ж.А. Корей және қазақ тілдеріндегі уақыттық қатынастарды білдіру құралдарының салыстырмалы талдауы.....60
장호종. 중앙유라시아 한국학회의 필요성.....69
정인숙. 한국어 학습자의 관용표현 학습 인식과 수업 요구.....78
ХАН Н.Ч. Основы категории вежливости в разноструктурных языках..90
ХАСАНОВ К.Р. Внешняя политика Южной Кореи в условиях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соперничества США, Китая и России: балансирование интересов в многополярной системе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й.....103
КИМ К.М. AI-дипломатия Южной Кореи в условиях глобальной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й конкуренции.....121
КИМ У.А., ПАК Н.С. Средства выражения способов действия в литературном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корё мар и русском языке.....134
뭉흐나란 람후, 바트투야 라흐바둘람. 대한민국 재한외국인의 가족정책 동향-이주노동자와 유학생을 중심으로-.....149
오혜정. 생성형 AI 를 활용한 카자흐인 한국어학습자의 쓰기 피드백 교수 방안 연구.....160
오상호. 카자흐 민족 지식인 집단의 근대화 이념과 실천 - 주요 간행물 소개를 중심으로 -.....169
ROJIBOEV ILKHOMJON. Contraction and Connotational Shifts of Kinship Terms in Modern Korean Society.....183
САКЕНОВА А.М. Мягкая сила как инструмент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ой стратегии Южной Кореи: концепции, механизмы и региональные практики.....196
СЛЯМГАЖИЕВА Д.С. Особенности функционирования эмотивной лексики в современном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на материале социальных сетей).....220
TILEUZHAN A.A. Exploring Phrasal Verbs in Korean: A Linguistic Analysis.....238

ТОКТАРБАЕВА А., ҚАНАПИЯ Қ. Оңтүстік Кореядағы артық жұмыс істеу (overwork) феномені: себептері мен салдары.....246
ЖАЙЛАУОВА А.Т. Роль нейросетей в корейско-русском переводе: качество и проблемы 256

<참고 1> 표기 원칙.....266
<참고 2> 러시아어 외래어 표기법.....268
<참고 3> CIS(구 소련) 인명의 한글 표기 용례.....273
<참고 4> CIS(구 소련) 지명의 한글 표기 용례.....325
<참고 5> 참고문헌 작성 예시.....356
목차.....357

카자흐인과 한국인의 출산 의례 비교 연구: 전통, 신앙 및 문화적 상징성을 중심으로

악사날리예바 자밀랴, 톡타르바예바 아크바얀
카자흐 아블라이 한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알마티, 카자흐스탄

개요: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전통문화에는 오늘날까지도 비교적 엄격하게 계승되고 있는 다양한 출산 의례가 존재한다. 출산 의례는 생애주기 의례의 중요한 단계로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한다. 본 연구에서는 카자흐인과 한국인 사이에서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행해지는 의례와 관습의 의미를 고찰하였다. 또한 양 민족의 전통적 신앙 속에서 산모와 신생아가 지니는 의미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여러 공통점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출산 의례에 포함된 다양한 의식과 관습의 주요 목적은 산모와 아이를 악령, 질병, 부정한 기운, 나아가 죽음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관습, 카자흐 전통, 한국 전통, 돌잔치, 속신(민간신앙), 축제, 의례

Название статьи: Сравнительный анализ обрядов рождения у казахов и корейцев: традиции, верования и культурная символика
Авторы: Аксаналиева Ж.Н., Токтабаева А. КазУМОиМЯ им.Абылай хана, Алматы, Казахстан
Аннотация: В традиционной культуре корейского и казахского народов особое место занимают родильные обряды и обычаи, многие из которых сохраняют свою значимость и соблюдаются по сей день. Родильная обрядность, являясь важным элементом жизненного цикла человека, выполняет значимую социальную и культурную функцию. В статье рассматриваются обряды и ритуалы, сопровождающие беременность, рождение ребенка и послеродовой период в корейской и казахской традициях. На основе сравнительного анализа представлений о роли матери и ребенка в системе традиционных верований двух народов выявляются как общие черты, так и особенности родильной обрядности. Исследование показывает, что основное назначение данных обычаев и ритуалов заключается в обеспечении благополучия роженицы и новорожденного, их защите от злых духов, болезней, неблагоприятных воздействий и угрозы смерти.
Ключевые слова: Обычай, казахская традиция, корейская традиция, толь, примета, праздник, ритуал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민족의 고유성과 국가 정체성을 보존하는 문제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 모든 민족이 그러하듯이 카자흐족에게도 출산과 자녀 양육에 관련된 전통과 관습은 정신문화와 전통적 생활양식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러한 전통은 사회·역사적, 문화·생활적, 이념적, 교육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카자흐인들은 자녀의 출생과 양육에

매우 큰 중요성을 부여하였으며,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준비하는 과정은 이 신성한 행위가 이루어지기 훨씬 이전부터 시작되었다 [1].

출산 의례는 생애주기 의례의 한 부분으로서 한국인에게도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족 집단 전체의 삶에서 중요한 단계였다. 출산 의례는 매우 중요하고 특별한 의미를 지녔으며, 이러한 의례는 종친 집단의 연장자들의 감독 아래 이루어졌다. 또한 가족의 결속을 강화하고 후세대를 교육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2].

한국인과 카자흐인 모두에게 아이의 출생은 수많은 의례, 관습, 그리고 미신과 함께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전통 한국 사회에서는 첫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는 가족과 종친 집단 내에서 일정한 지위를 차지할 권리를 얻게 되었다. 이는 임신과 출산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 이유 중 하나였다. 아이의 출생은 남편 집안에서 여성의 지위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국에는 "삼천 가지 불효 중 가장 큰 불효는 후손을 남기지 않는 것이다"라는 속담이 있다 [3]. 한국 가정에서는 아들의 출생을 선호하였으며, 가문의 번영은 아들의 수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아들 선호는 유교적 가부장제와 관련이 있으며, 남자아이의 출생이 부계 혈통의 계승과 조상 제사의 수행을 보장하기 때문이었다. 또한 아들을 낳는 것은 한국 여성의 중요한 의무로 여겨졌다. 아들의 출생을 기원하는 다양한 의례와 의식이 존재했으며, 이를 '기자(祈子)'라고 불렀다. 이러한 의례는 도교 및 불교 사원, 또는 산속의 바위나 나무, 넓은 강가와 같은 신성한 장소에서 거행되었다.

카자흐 전통에서도 자녀의 출생과 양육은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 중 하나로 여겨졌다.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자녀가 없는 가정은 안타까움과 동정을 받았으며, 자녀가 많은 가정은 존경을 받았다. 민간에서는 자녀가 없는 사람을 '쿠 바스(Ку бас, 민둥머리)'라고 불렀으며, 대규모 축제에서 또래들과 함께 앉을 권리를 갖지 못했다 [1]. 흥미로운 점은 카자흐인들 역시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성지에서 자녀를 기원하는 풍습이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여성에 대한 존경이 그녀가 낳은 아들의 수와 관련된다는 점에서도 유사성이 나타난다. 아홉 명의 아들을 낳아 기른 여성에게는 샤먼이 축성한 말을 탈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이 주어지기도 했다.

양 민족의 전통에는 임신한 여성이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고 순조로운 분만을 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여러 금기와 규범이 존재하였다. 한국과 카자흐 전통의 공통점은 임산부가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운반해서는 안 되며, 항상 가족 중 누군가가 곁에 있으면서 규범과 금기를 지키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에는 조선시대(1392~1897)에 저술된 태교서인 『태교신기(胎教新記)』가 있었다. 이 책은 임신한 여성을 위한 민간 신앙과 실질적 조언을 종합한 일종의 지침서였다. 가족들은 임산부를 세심하게 돌보고 나쁜 소식, 걱정거리, 근심, 다툼 등으로부터 보호해야 했다 [3]. 『태교신기』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 난산이나 조산, 고통스러운 출산 등 여러 불행이 발생할 수 있다고 믿었다.

카자흐 전통에서는 시어머니가 임산부의 순조로운 산전 기간을 책임지는 존재로 여겨졌다. 젊은 며느리를 잘 돌보면 건강한 후손이 태어나고, 반대로 돌봄이 부족하면 친척과 이웃의 비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임산부에게는 악한 시선, 질병, 재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부적이 주어졌다. 또한 밤에 혼자 외출하는 것이 금지되었으며, 머리를 자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겨졌다. 침실에는 늑대의 이빨, 독수리의 부리, 올빼미의 발톱 등을 걸어 두어 악령을 막는 부적으로 사용하였다. 임산부는 상중(喪中)인 집을 방문해서도 안 되었다.

이러한 금기는 한국에도 존재하였다. 한국의 민간 신앙에는 출산을 관장하는 조상신인 '조산신(助産神)'이 있다고 믿었으며, 이 신은 아이가 네 살이 될 때까지 보호한다고 여겨졌다. 임산부들은 조산신의 노여움을 사지 않기 위해 상을 당한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였다. 이는 조산신이 죽음의 영혼들과 대립 관계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니콜라이 이오시포비치 콘라드는 이 신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정해진 기간(즉 임신 기간) 동안 상중인 사람이 집에 들어오면 태어난 아이가 쇠약해진다" [3].

한국인과 카자흐인의 신앙에는 임산부가 부정(不淨)하다고 여겨지는 대상에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는 믿음이 존재하였다. 또한 양 민족의 전통 신앙에서는 음식과 관련된 금기에 큰 중요성을 부여하였다.

한국인들은 오징어, 게, 달걀, 복숭아 등이 임산부에게 해롭다고 여겼다. 이러한 믿음은 다음과 같이 설명되었다. 임산부가 병아리고기를 먹으면 아이의 피부가 병아리처럼 울퉁불퉁해지고, 오리고기를 먹으면 아이가 오리처럼 뒤뚱거리며 걷게 된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임신 중 개고기를 먹으면 아이가 벙어리로 태어나고, 말고기를 먹으면 난산을 겪게 되며, 인삼을 먹으면 아이가 여섯 손가락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다고 믿었다. 깨진 그릇으로 음식을 먹거나 네모난 상에서 식사하는 것도 금지되었다.

반면 카자흐인들은 임신 중 토끼고기를 먹는 것을 금기시하였는데, 아이가 언청이(토순)로 태어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또한 낙타고기를 먹는 것도 금지되었는데, 그렇지 않으면 임산부가 암낙타처럼 12 개월 동안 아이를 품게 된다고 여겼다. "아이의 성별이 바뀌지 않도록" 임산부는 말고기와 훔친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었다. 또한 늑대의 간을 먹으면 아이가 잔인하고 무자비한 성격을 갖게 되며, 물고기를 먹으면 벙어리가 될 뿐만 아니라 항상 침을 흘리는 아이가 된다고 믿었다[4]. 흥미로운 점은 한국인들 역시 카자흐인들과 마찬가지로 임산부의 토끼고기 섭취를 금지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규칙과 금기 외에도 태아의 성별을 예측하는 다양한 출산 전 징조가 존재하였다. 한국인들이 아이의 성별을 알아내는 방법 중 하나는 태몽을 해석하는 것이었다. 용, 호랑이, 사슴, 멧돼지, 태양, 고추, 호호바, 사과, 도끼, 시계, 망치, 밤 열매 등의 꿈을 꾸면 아들을 낳고, 뱀, 두루미, 닭,

새끼돼지, 물고기, 꽃, 호박, 은잔, 대야, 은비녀, 금반지, 달, 구름, 나무, 새끼줄 등이 나오면 딸을 낳는다고 여겼다.

또 다른 방법은 배의 모양을 보는 것이었다. 배가 작으면 아들, 크면 딸이라고 판단하였다. 이 밖에도 임산부의 외모 변화나 부모의 나이를 이용한 계산법으로 태아의 성별을 예측하였다.

한국에는 태중에서 아이의 성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믿음도 존재하였다. 이에 따르면 예상치 못한 방식과 비밀스러움이 성공의 핵심 조건이었다. 예를 들어 임산부 몰래 그녀가 자는 이불 밑에 수탉의 깃털, 남편의 머리카락과 손톱을 넣어두었다.

카자흐인들은 임산부의 입덧이나 특정 음식에 대한 갈망(жерік болу)을 통해 태아의 성별을 예측하였다. 예를 들어 곰, 늑대, 멧돼지, 호랑이 등 야생동물의 고기를 먹고 싶어 하면 남자아이, 그것도 장차 영웅이 될 아이를 낳는 징조로 여겼다. 반대로 단 음식을 원하면 여자아이를 낳을 징조로 보았다. 또한 임산부의 얼굴에 색소침착 등의 변화가 나타나면 아들을 임신한 것으로, 피부 상태가 변하지 않으면 딸을 임신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카자흐인들에게도 태아의 성별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이 있었다. 부모가 아들을 원할 경우 임산부의 머리맡에 무기를 두었고, 딸을 원할 경우 반지, 귀걸이, 목걸이 등의 장신구나 여성의 다산을 상징하는 붉은 천을 베개 아래에 두었다.

순조로운 출산을 위해 양 민족은 신성한 영혼과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의례를 거행하였다. 카자흐인들에게 산모와 아이를 보호하는 신성한 존재는 우마이 아나(Ұмай ана)였으며, 한국인들에게는 삼신할머니였다. 한국인들은 사람의 뼈는 아버지에게서, 살은 어머니에게서 물려받고, 첫 숨은 아이를 수호하는 삼신할머니의 도움으로 쉬게 된다고 믿었다. 인간은 뼈와 살, 그리고 숨결의 결합으로 시작된다고 여겼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나이를 수정 시점부터 계산하는 전통이 형성되었다.

한국의 전통에 따르면 아이가 태어난 후 산모는 미리 준비해 둔 '삼신할머니상'의 음식을 먹었다. 이 상에는 반드시 지은 밥, 새벽에 길어 온 깨끗한 우물물, 그리고 미역이 올려져 있어야 했다. 이 음식은 출산 후 산모가 기력을 회복하기 위해 먹는 것이었다. 삼신할머니에게 음식을 바치는 의례는 출산 후 3 일째, 7 일째, 14 일째, 21 일째, 100 일째, 그리고 첫돌에 거행되었다.

또한 아이가 태어나면 집 대문에 즉시 금줄(금줄, 금줄)을 걸어 악귀를 물리치고 신생아가 있는 집에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알렸다. 아들이 태어난 경우 왼쪽으로 꼰 금줄에 소나무 가지와 붉은 고추를 꽂았고, 딸이 태어난 경우에는 소나무 가지와 숯 조각을 매달았다. 출산 후 21 일이 되면 금줄을 제거하였으며, 그날부터 사람들은 자유롭게 산모를 방문할 수 있었다[2].

반면 카자흐 전통에서는 산모가 힘든 출산 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칼자(қалжа)'라는 의례 음식을 특별히 준비하였다. 이 음식은 산모에 대한 존경과 관심의 표시이기도 하였다. 칼자는 친척이나 친구, 지인들이 가져다주기도 하였다. 이를 위해 어린 양을 잡아 삶아 준비하였다.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특히 아들이 태어난 경우 가문의 계승자가 태어난 것으로 여겨 가장 먼저 친척들에게 "Сүйінші! Сүйінші!"(좋은 소식이 있습니다!)라고 외치며 알리려고 서둘렀다. 이 소식을 전한 사람에게는 선물이 주어졌다[1].

또한 아이가 태어난 후 40 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손님들이 이 집을 방문하는 것이 금지되었으며, 특히 해가 진 후에는 더욱 엄격하게 제한되었다. 아이를 악한 시선(악귀)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아기의 옷과 모자에는 부엉이 깃털, 부적, 검은색과 흰색 또는 푸른색의 얼룩무늬 구슬을 달았으며, 모자에는 화려한 브로치를 꽂아 두었다[5].

이처럼 한국 전통에서는 출생 후 3 일, 7 일, 21 일, 100 일이 신성한 날로 여겨졌으며, 카자흐 전통에서는 3 일, 7 일, 40 일이 특별한 의미를 지닌 날로 간주되었다.

한국 전통에서 아이가 태어난 지 100 일이 되면 부모는 백일잔치를 열었다. 당시 신생아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백일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백일 아침에는 가장 먼저 삼신할머니상을 차리고 아이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였다. 또한 아이의 어머니는 상 위의 밥과 미역국을 먹어야 했다[6].

백일상에는 여러 종류의 떡과 팥떡, 검은콩 떡, 설탕이나 꿀로 단맛을 낸 떡이 반드시 올려졌다. 전통에 따르면 붉은 팥으로 만든 떡은 집의 동서남북 네 방향에 놓아 재앙을 막고 아이에게 행복과 행운을 가져다준다고 믿었다. 또한 백 명의 사람이 떡을 먹으면 아이가 장수한다고 여겨 이 떡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웃들은 아이의 장수를 기원하며 답례로 돈, 쌀, 또는 장수를 상징하는 실을 선물하였다.

카자흐 전통에서는 아이의 출생을 기념하여 '실데하나(Шілдехана)'라는 축제를 열었다. 아이가 태어난 날 친척과 친구들이 집에 모여 산모를 도왔으며, 어머니와 아이를 보호하는 의미를 지닌 물건들을 선물하였다. 모인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고 음식을 나누며 축하하였다. 특히 젊은이들은 밤새 노래를 부르며 신생아를 악령으로부터 보호한다고 믿었다.

한국인들에게 다음으로 중요한 의례는 '돌(돌잔치)'이다. 돌은 아이의 첫 번째 생일을 의미한다. 돌잔치 아침에는 먼저 삼신할머니상을 차리고 아이의 행복을 기원하였다. 이후 안채에 잔칫상을 마련하고 아이에게 화려한 한복을 입혔다.

아이를 떡, 과일, 고기와 생선 요리, 팥죽, 대추 등이 놓인 상 앞에 앉혔다. 이러한 음식들은 장수, 건강, 재난 방지, 악귀 퇴치 등을 상징하였다. 잔

치 후에는 돌잡이 의식이 진행되었다. 아이 앞에 여러 물건을 놓고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미래를 점쳤다.

보통 남자아이 앞에는 쌀, 돈, 책, 활과 화살, 단검, 실 등을 놓았다. 여자아이의 경우에는 활 대신 바늘과 가위를 두었다. 아이가 쌀이나 돈을 잡으면 부자가 되고, 붓이나 책을 잡으면 학자가 되며, 활이나 단검을 잡으면 장군이 되고, 실을 잡으면 장수한다고 믿었다[6].

카자흐 전통에서는 아이가 태어난 지 40 일째 되는 날 '끄르크난 시가루(Қырқынан шығару)' 의식을 거행하였다. 이 의례에는 여성들만 참여할 수 있었다. 의식에서는 따뜻한 물에 소금을 넣고, 미리 준비한 동전과 은장신구를 함께 담은 후 정확히 마흔 숟가락의 물을 떠서 아이를 목욕시켰다.

아이를 목욕시키는 데 참여한 여성들에게는 물속에 넣어 두었던 은장신구와 동전을 선물로 주었다. 또한 아이가 태어난 후 40 일째 되는 날 처음으로 머리카락과 손톱을 깎아 주었다. 이날 벗긴 첫 배냇저고리는 버리지 않고 보관하였다가 다른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관례였다. 의식에 참여한 모든 여성들에게는 선물이 주어졌으며, 이 행사를 위해 특별히 구운 40 개의 빵을 나누어 주는 것이 필수적인 의례였다.

40 일이 신성한 의미를 지니는 이유는 카자흐인들의 전통적 믿음과 관련이 있다. 그들에 따르면 아이의 몸은 태어난 직후에는 완전한 영혼을 갖지 못하며, 출생 후 40 일째가 되어서야 영혼이 완전히 깃든다고 여겼다. 그 이전까지는 선한 영혼과 악한 영혼이 아이의 영혼을 두고 다툰다고 믿었다.

이와 같이 카자흐인과 한국인의 출산 의례는 다양한 의식과 관습, 그리고 상징적 행위들로 풍부하게 구성되어 있다. 양 민족의 모든 의례와 관습은 각각 고유한 상징성과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비록 두 민족의 전통 형성 과정에서 서로 다른 종교적 영향이 작용하였지만, 출산 의례에 담긴 의미와 목적에서는 상당한 유사성이 나타난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한국과 카자흐 전통 모두에서 산모가 일정 기간 동안 신성한 부정(不淨)의 상태에 있다고 여겨졌으며, 출산은 악령들의 관심을 끄는 위험한 시기로 인식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난산, 질병, 신생아와 산모의 죽음을 예방하기 위해 양 민족은 다양한 의례를 시행하고 특정한 금기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의례들은 카자흐인과 한국인 모두가 임신과 출산 과정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잘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전통은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상당 부분 유지되고 있으며, 양 민족의 민족적 정체성과 문화적 자의식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따라서 한국인과 카자흐인 모두에게 아이의 출생은 단순한 개인적 사건을 넘어 가족과 공동체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문헌

1. 카리브자노바 E.A. 카자흐 가정에서 아기의 출생과 관련된 의례의 의미 // 카잔국립교육대학교 학보. 알마티, 2017. https://articlekz.com/article/18038 (접속일: 2021.02.17).
2. 이오노바 Yu.V. 한국의 의례와 관습 및 그 사회적 기능 (19 세기 중반 – 20 세기 초) / 소련과학아카데미 민족학연구소. 모스크바: Наука, 1982. pp. 153–155.
3. 삼소노프 D.A. 한국의 예절: 민족지학적 연구 / D.A. 삼소노프; 러시아과학아카데미, 표트르 대제 인류학·민족학 박물관 (쿤스트카메라); [편집책임자 E.V. 이바노바]. 상트페테르부르크: Наука, 2013. 144 p. https://koryo-saram.ru/o-korejskom-etikete-pri-vynashivanii-i-rozhdenii-rebenka/ (접속일: 2021.02.15).
4. 샤하노바 N. 카자흐인의 전통문화 세계 (민족지학적 개요). 알마티, 1998. 184 p.
5. 샤하노바 N. 전통 카자흐 문화의 상징성. 알마티, 2004.
6. 김 G.N. 대한민국. 알마티: 다이크-프레스, 2010. pp. 451–452.
7. 악사날리예바 Zh.N., 톡타르바예바 A. 카자흐인과 한국인의 출산 의례 비교 연구: 전통, 신앙 및 문화적 상징성을 중심으로 // 아블라이 한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학교. 알마티, 카자흐스탄.

ДВИЖЕНИЕ 1 МАРТА В КОРЕЕ И МОНГОЛИИ: АНТИКОЛОНИАЛЬНЫЕ СВЯЗИ, ДИСКУРС ПРЕССЫ И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ИЙ ВЫБОР[1]

Баттөр Жамъян[2], Айслан Хомушку[3]
Монголь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Улан-Батор, Монголия

Аннотация: В статье рассматривается влияние Корейского Движения 1 марта 1919 года на формирование восприятия Кореи в Монголии и на последующие политические и идеологические ориентиры монгольского общества в первой половине XX века. На основе комплексного анализа монгольских печатных изданий, архивных материалов, дипломатической переписки и исторических свидетельств исследуются механизмы осмысления японской колониальной политики в Корее и её восприятие в монгольском обществе.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уделяется роли корейских патриотов и эмигрантов в Монголии, в том числе деятельности корейского врача Ли Тхэджуна, а также транснациональным контактам в рамках антиколониального движения в Восточной Азии. Статья вписывает монголо-корейские контакты в более широкий региональный контекст, предлагает многофакторный анализ причин, по которым антияпонский дискурс стал одним из элементов, повлиявших на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ий и идеологический выбор Монголии, и привлекает сравнительную перспективу, рассматривая монгольскую реакцию на фоне антиколониальных движений в Китае и Индии. Делается вывод о том, что события 1 марта 1919 года и последовавшая борьба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против японского колониального господства способствовали формированию в Монголии настороженного отношения к империалистической политике великих держав, укреплению солидарности с корейским народом и повлияли на выбор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их и идеологических ориентиров страны.
Ключевые слова: Движение 1 марта, Корея, Монголия, японский колониализм, антиколониальное движение, транснациональные связи, Восточная Азия, Ли Тхэджун, пресса, внешняя политика

---

[1]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Core University Program for Korean Studies of Ministry of Education of Republic of Korea and the Korean Studies Promotion Service at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AKS-2022-OLU-2250006)
[2] ORCID: https://orcid.org/000000. E-mail: battur_jc@num.edu.mn.
[3] ORCID: https://orcid.org/0009-0000-0827-4573. E-mail: aisurankho44@list.ru.

Title: The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in Korea and Mongolia: Anti-Colonial Connections, Press Discourse, and Foreign Policy Choices
Authors: J. Battur, Ayslan Khomushku, Mongolia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the impact of the Korean March 1st Movement of 1919 on Mongolian perceptions of Korea and on the subsequent political and ideological orientations of Mongolian society in the first half of the twentieth century. Drawing on a comprehensive analysis of Mongolian publications, archival sources, diplomatic correspondence, and historical accounts, the study investigates the mechanisms through which Japanese colonial policy in Korea was interpreted and received within Mongolian society. Particular attention is paid to the activities of Korean patriots and émigrés in Mongolia, including the role of the Korean physician Yi Tae-jun, as well as to transnational networks within the broader anti-colonial movement in East Asia. The article situates Mongolian-Korean contacts within a wider regional framework, proposes a multifactor analysis of the reasons why anti-Japanese discourse became one of the elements that influenced Mongolia's foreign policy and ideological choices, and employs a comparative perspective by examining the Mongolian response against the backdrop of anti-colonial movements in China and India. The article argues that the March 1st Movement and the ensuing struggle of the Korean people against Japanese colonial rule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Mongolia's critical attitude toward imperialist policies of great powers, fostered solidarity with the Korean people, and influenced Mongolia's foreign policy and ideological choices.
Keywords: March 1st Movement, Korea, Mongolia, Japanese colonialism, anti-colonial movement, transnational relations, East Asia, Yi Tae-jun, press disourse, foreign policy

Введение

Сегодня Монголия поддерживает дружественные отношения со всеми государствами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включая Россию, Китай, Японию,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и Корейскую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ую Республику. Однако путь становления данных отношений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течение прошлого столетия был весьма своеобразным и сложным. Особенно значительные перемены произошли в 1910–1920-е годы, когда в указанных странах одна за другой разворачивались масштабные трансформации, повлекшие за собой судьбоносные события в истории Монголии и Кореи, оказавшие глубокое влияние на исторический путь, судьбу и повседневную жизнь их народов.

В контексте этих масштабных исторических сдвигов особое место занимает Движение 1 марта 1919 года в Корее — событие, которое и по сей день сохраняет яркое и значимое место в

национальной и мировой историографии (Shin & Robinson, 1999; Schmid, 2002). Обращение к этой теме продиктовано прежде всего необходимостью переосмысления взаимосвязей между прошлыми событиями, осознания их исторического смысла, а также глубокого анализа причинно-следственных связей — что очевидно для каждого, кто обращается к истории не формально, а осмысленно.

Прежде всего следует отметить, что как Монголия, так и Корея — и государства, и их народы — в равной мере испытали на себе давление, господство и контроль со стороны соседних великих держав, пережили периоды разделения, а также тяжёлые испытания. Это является неоспоримой исторической реальностью. Наряду с этим нельзя забывать и тот факт, что на протяжении многих десятилетий отважные сыновья и дочери обоих народов жертвовали своими жизнями ради обретения независимости 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суверенитета.

Историография Движения 1 марта обширна: от классических работ (McKenzie, 1920; Lee, 1984) до новейш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рассматривающих его в транснациональной перспективе (Shin & Moon, 2019; Baik, 2021). Однако монголо-корейское измерение этих событий остаётся относительно малоизученным. Настоящая статья стремится восполнить этот пробел.

Методология и историографический обзор

В настоящей статье применяется комплексный подход, сочетающий дискурс-анализ монгольской периодической печати 1919–1930-х годов (Fairclough, 1995), анализ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документов и архивных источников, а также элементы сравнительно-исторического метода (Haupt & Kocka, 2009). Центральный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й вопрос формулируется следующим образом: каким образом события, связанные с Движением 1 марта 1919 года и последующей борьбой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против японского колониального господства, были восприняты и интерпретированы в монгольском обществе, и в какой мере эта интерпретация повлияла на формирование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их и идеологических ориентиров Монголии?

Гипотеза исследования состоит в том, что корейский антиколониальный опыт, транслируемый через прессу, книжные издания и личные контакты с корейскими патриотами, стал одним из существенных — хотя не единственным — факторов,

способствовавших переориентации монгольской политической элиты от попыток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Японией к сближению с Советской Россией.

Источниковую базу исследования составляют: монгольские периодические издания 1919–1921 годов, прежде всего газета «Монголын үнэн»; книга «История гибели государства Хан» из фонда Монголь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й библиотеки; учебные и справочные издания 1920–1930-х годов; дипломатическая переписка монгольских деятелей; а также исследования монгольских, корейских, российских и западных историков.

Изучение Движения 1 марта имеет давнюю традицию. Среди ранних западных работ выделяется книга МакКензи «Korea's Fight for Freedom» (McKenzie, 1920), ставшая одним из первых свидетельств жестокости подавления протестов. В корейской историографии Движение 1 марта рассматривается как краеугольный камень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амосознания (Lee, 1984; Eckert et al., 1990).

В последние десятилетия наметился транснациональный поворот в исследованиях. Шин и Мун (Shin & Moon, 2019) проанализировали влияние Движения на антиимпериалистические движения в других странах Азии. Бэк Ёнсо (Baik, 2021) предложил рассматривать события 1919 года через призму «одновременности» (simultaneity) азиатских антиколониальных движений. Мэй (May, 2019) исследовала связь Движения 1 марта с международной историей мира.

Монгольская история данного периода освещена в трудах Батбаяра (Batbayar, 1996), Рубанова (Рубанов, 2020), Кузьмина (Кузьмин, 2004). Монголо-корейские отношения XX века исследованы в работе Баттөра (Баттөр, 2011). Деятельность Ли Тхэджуна изучали Бан Бёнрюль (Ban, 1998) и другие корейские историки. Тем не менее специальных работ, анализирующих восприятие Движения 1 марта в Монголии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комплексного дискурс-анализа, до настоящего времени не появлялось.

Исторический контекст: Монголия и Корея на перекрёстке империй

Монголы, начиная с XVII века, были втянуты во внутреннюю ожесточённую борьбу за власть, что привело к ослаблению государственности и утрате национального единства

(Baabar, 1999). В результате южная часть Монголии была полностью колонизирована империей Цин и получила название Внутренняя Монголия; Халха и Западная Монголия, известные как Внешняя (или Северная) Монголия, стали вассальными территориями Цинской империи; северные же регионы — Тува и земли бурят — вошли в состав Российской империи (Батбаяр, 1996).

В начале XX века, на фоне ослабления империи Цин, монгольский народ в декабре 1911 года провозгласил свою независимость (Onon & Pritchatt, 1989). Новое государство Богдо-хана столкнулось с необходимостью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признания и поиска союзников для обеспечения безопасности — задача, которая определяла монгольскую внешнюю политику на протяжении последующего десятилетия (Пунцагноров, 1994).

В то же время Корея, 22 августа 1910 года, в результате насильственно навязанного Японской империей «Договора об аннексии», была превращена в японскую колонию. Аннексия стала кульминацией длительного процесса, начавшегося с установления японского протектората в 1905 году после русско-японской войны (Duus, 1995). Корея утратила суверенитет, что имело катастрофические последствия для всех сторон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Eckert et al., 1990).

Оба государства, таким образом, находились в сходной геополитической ситуации — между крупными империями, стремящимися к экспансии. Однако их судьбы разошлись: Монголии удалось обрести автономию (пусть и ограниченную), тогда как Корея на 35 лет попала под колониальное господство. Именно это различие сделало корейский опыт столь поучительным для монгольской политической элиты.

Исторические источники свидетельствуют о том, что после провозглашения независимости Монголия первоначально стремилась заручиться поддержкой Японии, рассматривая её как государство, первым в Азии прошедшее путь модернизации после Революции Мэйдзи (Батбаяр, 1996). В 1911 году правительство Богдо-хана направило письма о независимости ряду консульств, включая японское (National Archives of Japan, 2022). В 1913 году, во время визита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а Намнансурэна в Россию, его сотрудники передали письмо японскому послу с просьбой о признании (Korostovets, 1926).

Однако по мере того, как Япония усиливала колониальную экспансию в отношении таких стран, как Корея, и переходила к

жёсткой, репрессивной политике, отношение к ней со стороны Монголии сначала стало настороженным, а затем — всё более критическим. Этот процесс, как будет показано ниже, был тесно связан с поступлением информации о событиях в Корее.

Период до Движения 1 марта: корейский прецедент в монгольской дипломатии

В этот период монголы стремились заручиться международной поддержкой своей независимости, обращаясь к правительствам США, Англии, Германии и Японии. Они пытались установить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е контакты, направляли официальные письма (Friters, 1949). Особенно выделяется попытка обратиться к Японии за поддержкой, однако начиная с 1911 года отношение к ней постепенно изменилось.

Причиной стало то, что с 1912 года Китай отказался признавать независимость Монголии и начал активно препятствовать её укреплению. В феврале 1912 года президент Китая Юань Шикай направил Богдо-хану письмо с призывом объединить Монголию с Китаем. В ответном письме Богдо-хан писал:

> *«...в действительности Внешняя Монголия находится на окраине, окружённая великими державами, подобно сложенным яйцам, без всякой поддержки со всех сторон; её положение неизбежно похоже на Тайвань и Чосон» (цит. по: Бор, 1998, с. 225).*

Этим он подчёркивал, что Монголия, лишённая союзников, находится в столь же уязвимом положении, как Тайвань и Корея. Упоминание Чосон (Кореи) показывает, что судьба Кореи уже в 1912 году воспринималась монгольской элитой как пример утраченного суверенитета.

В дальнейшем, чтобы избежать повторного подчинения Китаю, Монголия установила контакт с Российской империей. В сентябре–ноябре 1912 года в Урге состоялись тяжёлые переговоры, завершившиеся подписанием 3 ноября 1912 года «Договора о дружбе и торговле». Во время переговоров Да-лам Цэрэнчимэд резко возражал против проекта соглашения, предложенного российским представителем Коростовцом, заявив:

«...Россия пытается навязать условия безоговорочно, превращая Монголию во вторую Бухару или Гаоли» (цит. по: Korostovets, 1926).

Бухарское ханство стало зависимым от России после договора 1873 года, а Гаоли (то есть Корея) незадолго до этого превратилась в японскую колонию. Слова Цэрэнчимэда демонстрируют, что монгольская дипломатическая элита владела информацией о международном положении и использовала корейский пример как аргумент в переговорах.

Особое значение имело русско-японское соглашение от 30 июля 1907 года, касавшееся раздела сфер влияния в Монголии, Корее и Маньчжурии. Согласно тайным протоколам, Россия получала свободу действий во Внешней Монголии и Северной Маньчжурии, а Япония — в Корее и Южной Маньчжурии (Friters, 1949, p. 55). Подтверждение данного соглашения последовало 4 июля 1910 года (так называемое соглашение Извольского — Мотоно).

О существовании подобных тайных договорённостей было известно и монгольской политической элите. В документе, представленном 1 сентября 1920 года в Иркутске Бодоо и Догсомом в Монголо-тибетский отдел Комитета по связям с народами Востока, прямо указывалось: «...Россия и Япония заключили тайный договор о разделе Внутренней и Внешней Монголии...» (цит. по: Баттөр, 2011, с. 85). Осознание того, что судьба Монголии решается через подобные тайные соглашения — так же, как была решена судьба Кореи, — существенно влияло на политические установки монгольской элиты.

Когда в 1919 году китайские военные под командованием Сюй Шучжэна ликвидировали автономн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Монголии (Baabar, 1999), среди монгольских правящих кругов усилилось стремление восстановить независимость при поддержке сильной державы. В то время возникло предложение обратиться за помощью к Японии, но Богдо-хан категорически отказался, заявив: «Японские войска жестоко поработили Корею» (Пунцагноров, 1994, с. 281).

Данный эпизод имеет исключительное значение. Он свидетельствует о том, что к 1919 году в монгольской политической элите уже сформировалось устойчивое восприятие Японии как колониальной державы, а корейский опыт рассматривался как наглядное предостережение. Именно в этот момент японский

вектор монгольской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был окончательно отвергнут, что, в свою очередь, открыло путь к обращению за помощью к революционной России (Рубанов, 2020).

Движение 1 марта 1919 года: события и их международный резонанс

1 марта 1919 года тридцать три корейских лидера — представители религиозных конфессий Чхондогё, христианства и буддизма — собрались в ресторане «Тэхвагван» в Сеуле и зачитали Декларацию независимости Кореи (Shin & Robinson, 1999). Одновременно копии декларации распространялись по всей стране, и массовые мирные демонстрации охватили Корейский полуостров.

Масштабы движения были впечатляющими. По различным оценкам, в нём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от 800 тысяч до 2 миллионов человек при общей численности населения около 16–17 миллионов (Shin & Moon, 2019). Японские колониальные власти, застигнутые врасплох, ответили жестоким подавлением: по данным энциклопедии Britannica, около 7 000 корейцев были убиты, 16 000 ранены, 46 000 арестованы; были уничтожены 715 частных домов, 47 церквей и 2 школы.

Международный резонанс движения был значительным. Как отмечают Шин и Мун (Shin & Moon, 2019), Движение 1 марта повлияло на подъём антиимпериалистического «Движения 4 мая» в Китае, вдохновило антиимпериалистическое сопротивление на Филиппинах и в Египте и послужило импульсом для сатьяграхи — ненасильственного сопротивления в Индии. Именно этот транснациональный характер влияния делает вопрос о восприятии Движения в Монголии особенно актуальным.

После Движения 1 марта: дискурс монгольской прессы и газета «Монголын үнэн»: хронология публикаций о Корее

Начиная с 1920-х годов, в монгольской периодической печати заметно увеличилось количество публикаций, посвящённых Корее. При этом основное внимание уделялось тяжёлому положению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находившегося под гнётом японского колониального господства, а также его освободительной борьбе. Публикации носили характер ознакомления широкой общественности с положением дел в Корее, информирования, а также моральной и идейной поддержки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Среди регулярных изданий того времени наибольшее количество материалов, посвящённых Корее и пропаганде борьбы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публиковала газета «Монгольская правда» (Монголын үнэн), выходившая в конце 1919 — начале 1920 годов (Монголын үнэн, 1971).

В газете «Монголын үнэн» систематически разоблачались жестокости, совершаемые японцами в отношении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В статье под заголовком «Положение Кореи» сообщалось:

> *«...В начале весны текущего года народ Кореи поднялся на всеобщее восстание, стремясь освободиться от тяжёлого гнёта японских захватчиков. Япон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тремясь задушить это движение ещё в зародыше, применило жестокие меры подавления...» (Монголын үнэн, 1971, с. 76–77).*

Анализируя приведённый фрагмент, особенно слова «в начале весны текущего года народ Кореи поднялся на всеобщее восстание», можно с высокой степенью вероятности утверждать, что речь идёт именно о Движении 1 марта 1919 года.

В первом номере от 1 ноября 1920 года в рубрике «Разные новости» отмечалось:

«...Подобно тому как Индия страдает под властью Англии, а Гаоли (Корея) — под японским господством, эти народы прилагают все усилия для пробуждения свободы...» (Монголын үнэн, 1971, с. 21).

В № 3 за ноябрь 1920 года в заметке «Новости из Кореи» сообщалось о создании корейцами собственного республикан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 речь шла о Временном правительстве Кореи в Шанхае, созданном в апреле 1919 года как прямое следствие Движения 1 марта (Монголын үнэн, 1971, с. 48–49).

В № 4 от 5 марта 1921 года в передовой статье «Современное положение Монголии и значение деятельности Народной партии» подвергалась резкой критике деятельность сановников, предпринимавших шаги к сближению с Японией:

«...На наших глазах двадцатимиллионный корейский народ, оказавшийся в кровавых лапах японского империалистического режима, за десять лет доведён до крайнего истощения... Если Монголия окажется под властью японских захватчиков, её порабощение будет во сто крат тяжелее, чем гнёт китайских милитаристов...» (Монголын үнэн, 1971, с. 54).

Дискурс-анализ: ключевые нарративные стратегии

Анализ публикаций газеты «Монголын үнэн» позволяет выделить несколько ключевых нарративных стратегий, используемых при освещении корейской темы.

Во-первых, стратегия аналогии: положение Кореи последовательно сравнивается с возможной судьбой Монголии. Этот приём, основанный на логике «если так случилось с Кореей, так может случиться и с нами», является наиболее мощным аргументом в антияпонском дискурсе.

Во-вторых, стратегия солидарности: Корея включается в более широкий контекст угнетённых народов — наряду с Индией, Китаем и другими колониальными странами. Это формирует у читателей чувство причастности к глобальному антиимпериалистическому движению.

В-третьих, стратегия предостережения: публикации конкретно называют Японию как угрозу, описывают методы колониального подавления и призывают к бдительности. Эта стратегия имеет практическую направленность — она адресована монгольским политическим деятелям, которые могут рассматривать сближение с Японией.

Данные стратегии соответствуют модели критического дискурс-анализа Фэркло (Fairclough, 1995), согласно которой медиатексты не просто отражают реальность, но активно конструируют социальные отношения и идентичности. Монгольская пресса, таким образом, не просто информировала о событиях в Корее, но формировала определённую картину мира, в которой Япония представала как угроза, а корейский народ — как союзник в антиколониальной борьбе.

Визуальная пропаганда: иллюстративные листы и плакаты

В пятом номере газеты был опубликован иллюстративный лист, представляющий значительный интерес для визуального анализа пропагандистского дискурса. Япония изображена стоящей одной ногой на Корее, другой — на Китае; в одной руке она держит собаку с надписью «Семёнов», а в другой — «Унгерн». На втором рисунке Корея, Китай, Монголия и Россия изображены совместно сбрасывающими Японию в море (Монголын үнэн, 1971, с. 76–77).

Подробное описание данного плаката содержится в книге Ма Хотяня (Ма, 1949), китайского разведчика, находившегося в

Монголии в тот период. По его свидетельству, плакаты издавались Центральным комитетом Народной партии и были выполнены в цвете. Ма Хотянь отмечал, что плакат в сжатой форме отражал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ую линию Монголии: противодействие Японии, сближение с Россией и стремление к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с Китаем и Кореей (Ma, 1949, pp. 38–39).

С точки зрения теории визуальной коммуникации (Kress & van Leeuwen, 2006), данный плакат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пример многослойной семиотической конструкции, в которой пространственные отношения (кто стоит на ком, кто кого сбрасывает) кодируют отношения власти и сопротивления. Включение Кореи в композицию как равноправного участника антияпонской коалиции свидетельствует о том, что корейская борьба воспринималась как часть единого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оцесса.

Публикации о японском колониализме и Движении 1 марта в монгольских книгах

«История гибели государства Хан»

Данный рукописный перевод на монгольский язык книги, написанной в 1910–1920-е годы неизвестным корейским патриотом, хранится в фонде редких и старинных книг Монголь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й библиотеки (Баттөр, 2011). Под наименованием «государство Хан» подразумевается Корея — сокращённая форма официального наименования «Великая Ханская империя» (Тэхан Тегук), провозглашённого корейским королём Коджоном в период династии Чосон (1392–1910) и существовавшего до 29 августа 1910 года.

Структурно книга состоит из двух частей: «История гибели государства Хан» и «Слёзы павшего государства», общий объём составляет 50 страниц. Автор демонстрирует глубокое понимание международной обстановки, тайных соглашений великих держав и скрытых целей японской политики. В книге полностью воспроизведены тексты договоров: японо-корейский договор 1904 года; положения Портсмутского мира 1905 года; японо-корейский договор от 17 ноября 1905 года (протекторатный); а также Договор об аннексии от 22 августа 1910 года.

Для Богдо-ханской Монголии, которая только начинала формировать собственную правовую субъектность в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ях, этот труд представлял собой наглядный пример колониальной практики великих держав. Он

позволял глубже понять складывающуюся международную обстановку и выработать стратегию, направленную на недопущение превращения Монголии в колонию. В контексте теории постколониализма (Said, 1978; Anderson, 1991) данный текст может рассматриваться как попытка создания «контрнарратива», противостоящего империалистическому дискурсу великих держав.

Учебные и справочные издания 1920–1930-х годов

Книга «Азиатский континент», опубликованная в 1928 году Министерством народного просвещения (БНМАУ-ын Гадаад явдлын Яам, 1928), содержала карту мира с обозначением Сеула как «Сиул» и краткий раздел «О Корее». Учебник «Международная обстановка в мире» (1933) посвящал Корее отдельную главу, подчёркивая эксплуататорский характер японской колонизации (Дашням, 1933). Книга «Положение государств мира» приводила данные о территории, населении, этническом составе Кореи.

Эти издания формировали у читателей представление о Корее как о стране с богатыми природными ресурсами, превращённой в сырьевой придаток метрополии. С военно-стратегической точки зрения отмечалось, что Корейский полуостров рассматривался Японией как плацдарм для вторжения в Китай, Маньчжурию, Монголию и на Дальний Восток СССР — оценка, которая впоследствии подтвердилась событиями на Халхин-Голе в 1939 году (Суходолов и др., 2015).

Корейский врач Ли Тхэджун и транснациональная антиколониальная сеть в Монголии

В середине 1910–1920-х годов в монголо-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ях важное место занимал корейский врач Ли Тхэджун (이태준, 1883–1921). В последние годы монгольские и корейские историки всё более углублённо изучают его личность, добившись заметных результатов (Ban, 1998; Баттөр, 2011). В 1990 году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осмертно наградило Ли Тхэджуна Орденом заслуг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в 2001 году при поддержке монголь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и Университета Ёнсе в Улан-Баторе был построен мемориальный парк.

Ли Тхэджун окончил Объединённую медицинскую школу Северанса (ныне — медицинский факультет Университета Ёнсе в Сеуле) 2 февраля 1911 года (Ban, 1998, с. 324). После покушения Ан Чжунгына на японского генерал-резидента Ито Хиробуми в 1909

году многие корейские патриоты подверглись преследованиям. По совету Ан Чханхо Ли Тхэджун вступил в Корейское молодёжное студенческое общество и включился в антиколониальную борьбу. Из-за угрозы ареста он эмигрировал в Китай, где работал врачом в Нанкине.

В 1914 году, по совету видного деятеля освободительного движения Ким Гюсика, планировавшего создание в Монголии тайной школы по подготовке военных кадров, Ли Тхэджун отправился в столицу Монголии — Хурээ (нынешний Улан-Батор) — вместе с патриотом Со Вальбо (Баттөр, 2011). Хотя первоначальные планы создания военной школы не осуществились из-за отсутствия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Ли Тхэджун нашёл иной путь служения — медицинский.

С осени 1914 года Ли Тхэджун открыл в Хурээ больницу «Тон-ый ыйгук» («Единая праведная больница»). Практикуя современную западную медицину в стране, где до 70–80% населения страдали от венерических заболеваний, он быстро снискал большое уважение. Ли Тхэджун стал личным врачом Богдо-хана, а в июле 1919 года был награждён высшим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орденом «Эрдэнийн Очир» (Драгоценный Алмаз) за заслуги перед монгольским народом (Баттөр, 2011, с. 88).

Параллельно с медицин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ью Ли Тхэджун оставался активным участником корейского освободительного движения. Он поддерживал связь с Ким Хянгуком в Хаалгане (Калгане), обеспечивая функционирование маршрута Хаалган — Хурээ, по которому перемещались корейские патриоты и передавались сведения (Баттөр, 2011).

В 1920 году совет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обещало финансовую помощь Временному правительству Кореи в Шанхае — два миллиона рублей. Первый транш в виде золотых слитков на 400 тысяч рублей был передан представителям Корейской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Маршрут доставки пролегал через Москву — Хурээ — Хаалган — Пекин — Шанхай. Наиболее опасный участок — от Хурээ до Пекина — обеспечивали члены подпольной сети, включая Ли Тхэджуна (Cummings, 2011).

Передав средства, Ли Тхэджун встретился в Пекине с руководителем организации «Ыйёльдан» Ким Вонбоном и вступил в её ряды. Он взялся связать организацию с венгерским инженером-специалистом по взрывчатке, находившимся в Хурээ. Однако вскоре после возвращения в Хурээ столицу захватили войска

барона Унгерна. Ли Тхэджун был арестован, подвергнут пыткам японскими офицерами из окружения Унгерна и убит (Кузьмин, 2004). Ему было 38 лет.

Трагическая гибель Ли Тхэджуна стала символом общей борьбы корейских и монгольских патриотов. Его судьба наглядно демонстрирует функционирование транснациональных антиколониальных сетей в Восточной Азии — через личные связи, взаимное доверие и готовность к жертвенному служению.

Корейская диаспора в Монголии: реконструкция маршрутов и связей

Сведения о корейцах в Монголии в 1910–1920-е годы ограничены конспиративным характером их деятельности. Тем не менее косвенные данные позволяют установить, что корейская община была немногочисленной, но стратегически важной. Маршрут Шанхай — Пекин — Хаалган — Хурээ — Иркутск делал Монголию транзитным звеном в сети антияпонского сопротивления (Баттөр, 2011). Дальнейшее выявление архивных материалов — в корейских, японских и российских фондах — представляет важную задачу для будущ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Сравнительный контекст: восприятие Движения 1 марта в Китае, Индии и Монголии

Для более глубокого понимания монгольской реакции на Движение 1 марта необходимо рассмотреть его в сравнительной перспективе, сопоставив с реакцией других азиатских обществ.

В Китае события марта 1919 года в Корее стали одним из катализаторов «Движения 4 мая» того же года. Как отмечает Бэк Ёнсо (Baik, 2021), между двумя движениями существовала не только хронологическая, но и идейная связь: оба были направлены против империалистического давления великих держав, оба апеллировали к принципу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амоопределения Вильсона. Историк Сун Чэню из Пекин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подчёркивает, что общим врагом для Кореи и Китая была Япония, но оба движения представляли собой нечто большее, чем простой антияпонизм, — это были патриотические и демократические движения народов против империализма (цит. по: Nishi, 2006).

В Индии корейское восстание также привлекло внимание лидеров национально-освободительного движения. Шин и Мун (Shin & Moon, 2019) указывают на связь между Движением 1 марта

и сатьяграхой в Индии. Ненасильственный характер корейских протестов находил отклик в индийском контексте, где Махатма Ганди развивал аналогичную стратегию. Однако прямые контакты между корейским и индийским движениями были ограничены; влияние носило скорее демонстрационный характер.

Монгольская реакция обладала рядом специфических черт, отличавших её от китайской и индийской. Во-первых, она была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связана с практическим вопросом о выборе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ого партнёра — Японии или России. Во-вторых, корейский опыт рассматривался не абстрактно, а как конкретное предостережение о возможной судьбе собственной страны. В-третьих, присутствие корейских патриотов — прежде всего Ли Тхэджуна — на территории Монголии делало эту тему не только информационной, но и глубоко личной. В-четвёртых, в отличие от Китая и Индии, где Движение 1 марта вдохновило массовые протесты, в Монголии его влияние проявилось прежде всего на уровне элит — в политических решениях, дипломатической аргументации и идеологическом выборе.

Вопрос о влиянии Движения 1 марта и его последствий на политический выбор Монголии требует многофакторного анализа. Было бы упрощением утверждать, что именно корейский опыт в одиночку определил переориентацию монгольской элиты. Вместе с тем ряд факторов свидетельствует о весьма существенной роли этого опыта.

Как было показано выше, в период после провозглашения независимости в 1911 году Монголия рассматривала Японию как возможный пример успешной модернизации (Батбаяр, 1996). Движение 1 марта и жестокость его подавления кардинально изменили этот образ. Япония стала восприниматься не как образец, а как угроза. Переход произошёл постепенно, по мере поступления информации через прессу, переводные издания и рассказы корейских патриотов. К моменту японского проекта «Великой Монголии» в 1919 году (Рубанов, 2020) монгольская элита уже относилась к японским инициативам с глубоким недоверием.

Монгольская политическая элита активно использовала корейскую трагедию во внутриполитических дискуссиях. Слова Богдо-хана о японском порабощении Кореи (Пунцагноров, 1994), публикации «Монголын үнэн», сравнивавшие возможную судьбу Монголии с судьбой Кореи, — всё это свидетельствует о том, что корейский прецедент был не просто информацией, а действенным

политическим аргументом. Применяя терминологию Дж. Кингдона (Kingdon, 2014), можно сказать, что корейский опыт создавал «окно возможностей» для политических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выступавших за переориентацию на Россию.

Формирование антиимпериалистического дискурса и Транснациональные связи и их практическое значение

Публикации 1920-х годов демонстрируют, что корейская тема стала частью более широкого антиимпериалистического нарратива, включавшего Индию, Китай и другие колониальные страны. Этот нарратив создавал благоприятную почву для восприятия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ой идеологии, которая позиционировала себя как освободительная сила. Как отмечает Андерсон (Anderson, 1991), «воображаемое сообщество» угнетённых народов создавалось в том числе через печатные медиа — именно эту функцию выполняла монгольская пресса.

Деятельность корейских патриотов на территории Монголии создала реальный канал связи между антиколониальными движениями двух стран. Через Монголию проходили маршруты передачи средств и информации. Этот практический аспект отличает монгольскую ситуацию от, например, индийской, где связь с корейским движением была чисто информационной.

Необходимо учитывать и другие факторы, определившие политический выбор Монголии: геополитическое давление Китая (Baabar, 1999); китайскую оккупацию 1919 года; активность советских агентов и Коминтерна; действия барона Унгерна и его свержение Красной армией в 1921 году (Кузьмин, 2004); события на Халхин-Голе в 1939 году (Суходолов и др., 2015); внутренние процессы — формирование Монгольской народной партии.

Таким образом, влияние корейского антиколониального опыта следует рассматривать как один из существенных элементов в сложной мозаике факторов, а не как единственную причину. Корейский опыт предоставил монгольской элите конкретный исторический прецедент, наглядно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вший последствия утраты суверенитета, и тем самым усилил аргументы тех, кто выступал за сближение с Советской Россией как альтернативу японскому или китайскому доминированию.

Память о Движении 1 марта: от советского периода к современности

В советский период (1924–1990) память о Движении 1 марта в Монголии функционировала в рамках марксистско-ленинской историографии, которая акцентировала классовую борьбу и антиимпериалистическое содержание движения. Корейская тема использовалась для обоснования правильности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го выбора Монголии и для критики капитализма и империализма.

После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волюции 1990 года и установления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Монголией и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монголо-южнокорейские связи стали развиваться стремительно. С 1990-х годов «Корейская волна» (Hallyu) активно распространяется в Монголии (На, 2019). Строительство мемориального парка Ли Тхэджуна в 2001 году стало символом нового этапа в осмыслении общего исторического наследия.

Сегодня Монголия является активным участником диалога по вопросам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стремясь выступать в роли «нейтрального моста» благодаря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м отношениям как с Южной, так и с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Densmaa et al., 2021). Эта роль имеет глубокие исторические корни, уходящие в эпоху общей антиколониальной борьбы начала XX века.

Заключение

Рассмотренные монгольские публикации, посвящённые Корее и японскому колониальному господству, наглядно демонстрируют, что уже в первой трети XX века в Монголии существовало достаточно глубокое и системное понимание процессов, происходивших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Эти работы не ограничивались простым описанием фактов, но стремились выявить внутреннюю логику империалистической политики Японии, её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е механизмы, а также последствия колониального подчинения для судьбы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Перевод и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книги «История гибели государства Хан», включавшей тексты навязанных Корее договоров, свидетельствуют о том, что для монгольской политической и интеллектуальной элиты корейский опыт рассматривался как поучительный пример. Через анализ корейской трагедии осмыслялись риски утраты суверенитета, опасности

тайных соглашений великих держав и значение внутреннего единства государства.

Другие издания — учебники и справочные работы 1920–1930-х годов — формировали у читателей представление о Корее как о стране с богатыми природными ресурсами, превращённой в колонию и используемой исключительно в интересах метрополии. Особое место занимает фигура Ли Тхэджуна — его образ представлен не только в гуманитарном, но и в политическом измерении как часть транснационального антиколониального движения.

Проведённый дискурс-анализ публикаций газеты «Монголын үнэн» выявил три ключевые нарративные стратегии — аналогию, солидарность и предостережение, — посредством которых монгольская пресса формировала антиимпериалистическое мировоззрение и обосновывала необходимость отказа от японского вектора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Сравнительный анализ показал, что монгольская реакция на Движение 1 марта отличалась от китайской и индийской: она была менее массовой, но более прагматичной и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связанной с конкретными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ими решениями.

Многофакторный анализ позволяет утверждать, что корейский антиколониальный опыт стал одним из существенных — хотя не единственным — элементов, повлиявших на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ий и идеологический выбор Монголии в первой половине XX века.

Перспективы дальнейш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Расширение источниковой базы за счёт корейских архивов (материалы Времен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 Шанхае), японских разведывательных отчётов о ситуации в Монголии, российских архивов Коминтерна, а также недавно рассекреченных монгольских фондов позволило бы существенно углубить понимание рассматриваемой проблематики. Особый интерес представляет вопрос о трансформации памяти о Движении 1 марта в современной Монголии в контексте активно развивающихся монголо-южно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и «политики третьего соседа».

Список использованных источников:

1. Anderson B.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Воображаемые сообщества: Размышления о происхождении и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и национализма]. London: Verso, 1991. 240 p.

2. Baabar [Bat-Erdene Batbayar]. *Twentieth Century Mongolia* [Монголия XX века]. Cambridge: White Horse Press, 1999. 310 p.
3. Baik Y. The 1919 Independence Movement in Korea and Interconnected East Asia [Движение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Кореи 1919 года и взаимосвязанная Восточная Азия] // *The Asia-Pacific Journal: Japan Focus*. 2021. Vol. 19. No. 21.
4. Ban B. R. Sebranseu wa Dongnipondong [Severance Hospital и движение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 *Yonsei Medical History*. 1998. Vol. 2. No. 2. С. 324.
5. Батбаяр Ц. Монгол–Японы харилцааны түүхийн бүтээлүүд [Труды по истории монголо-японских отношений]. Улан-Батор, 1996.
6. Баттөр Ж. Солонгос Монголын харилцаа: 20-р зуун [Монголо-корейские отношения XX века]. Улан-Батор: MK Media, 2011.
7. Бор Ж. Монголын дипломат товчоон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й справочник Монголии]. Улан-Батор, 1998.
8. БНМАУ-ын Гадаад явдлын Яам. Азийн тив [Азиатский континент]. Улан-Батор, 1928.
9. Cummings B. *The Korean War: A History* [Корейская война: История]. New York: Random House, 2011. 288 p.
10. Дашням. Дэлхийн улс орнуудын олон улсын байдал [Международная обстановка в мире]. Улан-Батор, 1933.
11. Densmaa B., Mendee J., Bayasakh J. Is Mongolia's "Third Neighbor Policy" Truly Effective? [Эффективна ли политика «третьего соседа» Монголии?] // *The Mongoli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2021. Vol. 24. С. 1–25.
12. Duus P. *The Abacus and the Sword: The Japanese Penetration of Korea, 1895–1910* [Абак и меч: Японское проникновение в Корею, 1895–1910].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5. 480 p.
13. Eckert C. J., Lee K.-B., Lew Y. I., Robinson M., Wagner E. W. *Korea Old and New: A History* [Корея старая и новая: История]. Seoul: Ilchokak Publishers, 1990. 546 p.
14. Fairclough N. *Critical Discourse Analysis: The Critical Study of Language* [Критический дискурс-анализ: Критическое изучение языка]. London: Longman, 1995. 265 p.
15. Friters G. M. *Outer Mongolia and Its International Position* [Внешняя Монголия и её международное положение]. Baltimore: Johns Hopkins Press, 1949. 210 p.
16. Ha S. H. Mongolian Schweitzer: Dr. Lee Tae-jun's Legacy [Монгольский Швейцер: Наследие доктора Ли Тхэ-джуна] // *Yonsei Medical History Journal*. 2019. Vol. 22. No. 1. С. 45–62.
17. Haupt H.-G., Kocka J. *Comparative and Transnational History: Central European Approaches and New Perspectives* [Сравнительная и транснациональная история]. New York: Berghahn Books, 2009. 380 p.
18. Kingdon J. W. *Agendas, Alternatives, and Public Policies* [Повестки, альтернативы 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политика]. 2-е изд. Boston: Pearson, 2014. 273 p.
19. Korostovets I. *Von Chinggis Khan zur Sowjetrepublik* [От Чингисхана до Совет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Berlin: W. de Gruyter, 1926. 312 p.
20. Kress G., van Leeuwen T. *Reading Images: The Grammar of Visual Design* [Чтение изображений: Грамматика визуального дизайна]. 2-е изд. London: Routledge, 2006. 291 p.
21. Кузьмин С. Л. Барон Унгерн в документах и мемуарах [Baron Ungern in Documents and Memoirs]. Москва, 2004.

22. Lee K.-B. *A New History of Korea* [Новая история Кореи]. Transl. E. W. Wagner, E. J. Shultz. Seoul: Ilchokak Publishers, 1984. 409 p.
23. Ma H. T. *Chinese Agent in Mongolia* [Китайский агент в Монголии]. Transl. J. De Francis. Baltimore: Johns Hopkins Press, 1949. 198 p.
24. Магсархурц. Монгол улсын шинэ түүх [Новая история Монголии]. Улан-Батор, 1994.
25. May H. E. The March 1st Movement and the Red Thread of International Peace History [Движение 1 марта и история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мира] // *Korea Observer*. 2019. Vol. 50. No. 2. С. 207–230. DOI: 10.29152/KOIKS.2019.50.2.207.
26. McKenzie F. A. *Korea's Fight for Freedom* [Борьба Кореи за свободу]. New York: Fleming H. Revell, 1920. 320 p.
27. Монголын ард түмний 1911 оны үндэсний эрх чөлөө, тусгаар тогтнолын төлөө тэмцэл [Борьба монгольского народа за национальную свободу и независимость в 1911 г.]. Сборник документов. Улан-Батор, 1982.
28. Монголын үнэн сонин [Правда Монголии]. Сост. Д. Даш. Улан-Батор, 1971.
29. National Archives of Japan. Relations between Japan and Mongolia in the 19th and Early 20th Century [Отношения между Японией и Монголией в XIX и начале XX века]. Tokyo, 2022. https://www.archives.go.jp/about/activity/international/jp_mn50/english/ch02.html
30. Nishi M. March 1 and May 4, 1919 in Korea, China and Japan [1 марта и 4 мая 1919 г. в Корее, Китае и Японии] // *The Asia-Pacific Journal: Japan Focus*. 2006.
31. Onon U., Pritchatt D. *Asia's First Modern Revolution: Mongolia Proclaims Its Independence in 1911* [Первая современная революция в Азии: Монголия провозглашает независимость в 1911 г.]. Leiden: E. J. Brill, 1989. 198 p.
32. Пунцагноров Ц. Богд хаант Монгол улсын гадаад бодлогын тухай, 1911–1919 он [О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е Богдо-ханской Монголии] // *Mongolica*. 1994. Vol. 5. No. 26. С. 281.
33. Rubanov E. A. "Great Mongolia": Japan's Failed Project of a Buffer State in East Asia in 1919 [«Великая Монголия»: несостоявшийся японский проект буферн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 *Bulletin of Perm University: History*. 2020. Vol. 26. No. 3. С. 149–155.
34. Said E. W. *Orientalism* [Ориентализм]. New York: Pantheon Books, 1978. 368 p.
35. Schmid A. *Korea Between Empires, 1895–1919* [Корея между империями, 1895–1919].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2. 352 p.
36. Shin G.-W., Moon R. J. 1919 in Korea: National Resistance and Contending Legacies [1919 год в Корее: Национальное сопротивление и соперничающие наследия] //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2019. Vol. 78. No. 2. С. 291–297.
37. Shin G.-W., Robinson M. *Colonial Modernity in Korea* [Колониальная современность в Корее].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1999. 412 p.
38. Суходолов А. П., Кузьмин Ю. В., Рачков М. П. Война на Халхин-Голе 1939 года (май — сентябрь) как начало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новый подход [The Battle of Khalkhin Gol, 1939 (May–September), as the Beginning of World War II: A New Approach] // *Россия и Монголия: новый взгляд на историю*. Улан-Батор; Иркутск, 2015. С. 112–145.

САНКЦИОННАЯ ПОЛИТИКА США ПРОТИВ КНДР: МЕХАНИЗМЫ, ИНСТРУМЕНТЫ И ЭВОЛЮЦИЯ (2001–2021 ГГ.)

Билинская С., Ким А.А.
ФГБОУ ВО «ВВГУ»
Владивосток, Россия

Аннотация: В статье представлена динамика развития санкционной стратегии США в отношении КНДР в период с 2001 по 2021 год. Наблюдается трансформация американского подхода: от применения индивидуальных ограничительных мер к созданию масштабной системы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давления. Проанализированы этапы политики США в отношении КНДР при разных администрациях президентов США.
Ключевые слова: санкции, КНДР, США, Совет Безопасности ООН, «максимальное давление», ядерная программа, экономические ограничения

Title: U.S.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Tools, Mechanisms and Their Evolution (2001–2021)
Authors: Bilinskaya Sofia, Kim A.A., Vladivostok Federal State Budgetary Educational Institution of Higher Education "Vladivostok State University", Russia
Abstract: The article presents the dynamics of the development of the U.S. sanctions strategy towards the DPRK in the period from 2001 to 2021. A transformation of the American approach is observed: from the application of individual restrictive measures to the creation of a large-scale system of international pressure. The stages of U.S. policy towards the DPRK under different U.S. presidential administrations are analyzed.
Keywords: sanctions, DPRK, USA,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maximum pressure”, nuclear programme, economic restrictions

Экономические санкции представляют собой центральный элемент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ой стратегии Соединённых Штатов Америки в контексте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с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ой (КНДР), выступая в качестве ключевого инструмента воздействия на политику Пхеньяна без прямого военного вмешательства. Основные цели данного инструментария заключаются в ограничении развития ракетно-ядерной программы, сдерживании экспорта вооружений и технологий двойного назначения, улучшении ситуации с правами человека на территории страны и трансформации политического

поведения руководящего режима КНДР — в частности, побуждении его к диалогу по вопросам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и соблюдению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бязательств. В период с 2001 по 2021 год стратегия санкционного давления претерпела значительные изменения, начиная с применения односторонних специфических мер, нацеленных на отдель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и физических лиц, причастных к ракетной программе, и переходя к формированию многоаспектной системы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давления, координируемой через механизмы Совета Безопасности ООН и поддерживаемой союзниками США в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м регионе.

Санкционная политика США в отношении КНДР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одну из самых длительных и комплексных систем ограничительных мер в современной международной практике. Структурно американские санкции делятся на две основные категории. Первая — это многосторонние ограничения, накладываемые через Совет Безопасности ООН. США выступают главным инициатором резолюций, которые запрещают КНДР экспорт угля, текстиля и морепродуктов, а также жестко ограничивают импорт нефти и нефтепродуктов. Вторая категория — это односторонние (экстерриториальные) санкции, регулируемые указами президента США и актами Конгресса. Именно они являются наиболее болезненными, так как вводят механизм «вторичных санкций»: любая иностранная компания или банк, ведущие дела с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рискуют потерять доступ к финансовой системе США и активам в долларах [1].

Фундамент санкционной политики Соединённых Штатов Америки в отношении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был заложен ещё в период Корейской войны (1950–1953 гг.), что стало одним из первых масштабных проявлений применения экономических инструментов воздействия в контексте глобального противостояния идеологий в эпоху раннего этапа Холодной войны. Сразу после начала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администрация США оперативно задействовала законодательные механизмы для ограничения любых форм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с КНДР, в том числе применила закон «О торговле с врагом» (Trading with the Enemy Act) —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ой акт, изначально принятый в 1917 году и предусматривающий возможность введения жёстких ограничений на торговлю с государствами, находящимися в

состоянии конфликта с Соединёнными Штатами. На основании данного закона Вашингтон ввёл полный запрет на экспорт и импорт любых товаров в КНДР, что фактически означало установление тотального торгового эмбарго в отношени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Вашингтон обязал своих союзников прекратить поставки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товаров в Северную Корею. Странам, которые продолжали торговать с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им режимом, угрожали лишением американской помощи. В 1951 году Соединённые Штаты активизировали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ое давление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й арене, перейдя от односторонних мер к формированию коалиционного подхода в рамках общей стратегии сдерживания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ого влияния в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м регионе. Вашингтон не только ввёл собственные ограничения, но и обязал своих ближайших союзников и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партнёров по антикоммунистическому блоку прекратить поставки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товаров в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К категории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товаров были отнесены сырьё, промышленн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технологии и материалы, которые потенциально могли быть использованы в военных целях, — включая нефтепродукты, металлы, средства связи, транспортные средства и иные критически важные ресурсы.

Странам, которые продолжали поддерживать торговые отношения с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им режимом вопреки требованиям США, открыто угрожали серьёзными экономическими последствиями, в том числе сокращением или полным прекращением американской финансовой и военной помощи, ограничением доступа к кредитам и инвестициям из Соединённых Штатов, а также возможным введением вторичных санкций. Подобный подход создавал мощный стимул для соблюдения санкционного режима и фактически принуждал третьи страны к выбору между сохранением экономических связей с Пхеньяном и поддержанием привилегированных отношений с Вашингтоном.

Принятые в начале 1950 х годов меры не только нанесли непосредственный ущерб экономике КНДР в условиях военного времени, но и заложили концептуальную основу долгосрочного санкционного режима, который в последующие десятилетия неоднократно расширялся и дополнялся новыми элементами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эволюцией геополитической обстановки, изменением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приоритетов американской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и появлением новых вызовов, связанных с ракетно

ядерной программой КНДР. Созданная тогда система ограничений стала прообразом будущих комплексных санкционных механизмов, включающих не только прямые торговые запреты, но и финансовые блокировки, дипломатическое давление на союзников, а также механизмы мониторинга и контроля за соблюдением ограничений третьими странами [2].

В 2001 году, после вступления в должность президента Джорджа У. Буша-младше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оединённых Штатов Америки существенно пересмотрело и изменило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ую стратегию в отношении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что стало частью более широкой трансформации американского подхода к вопросам глоб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в начале XXI века. На фоне общей переориентации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ого курса США, обусловленной новыми стратегическими приоритетами и оценкой международных угроз, приоритетное внимание в отношениях с КНДР было сосредоточено на вопросах,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связанных с ядерной программой государства и потенциальной возможностью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оружейных технологий, а применяемые меры приобрели заметно более жёсткий и принципиальный характер.

Санкционную политику США против КНДР в период с 2001 по 2021 год можно разделить на четыре ключевых этапа, каждый из которых отражает смену администраций в Белом доме и прогресс ракетно-ядерной программы Пхеньяна.

Период президентства Джорджа Буша-младшего стал временем радикальной трансформации американской политики в отношении КНДР, ознаменовав переход от попыток сближения 1990-х гг. к стратегии жёсткого сдерживания и изоляции. Началом этого процесса послужил фактический крах Рамочного соглашения 1994 года, когда Вашингтон обвинил Пхеньян в реализации секретной программы по обогащению урана, что шло вразрез с прежними договорённостями о замораживании ядерных объектов. Ситуация окончательно обострилась после исторического обращения президента Буша к Конгрессу в 2002 году, где он включил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в состав «оси зла» наряду с Ираком и Ираном, официально закрепив за ней статус прямой угрозы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США. Это событие задало тон всей дальнейшей политике Вашингтона в отношении Пхеньяна [3]. В рамках усиления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ого давления Вашингтон перешёл к активным финансовым инструментам, более

эффективным, чем традиционные торговые эмбарго. Ключевым событием стал инцидент 2005 года с макаоским банком Banco Delta Asia. Минфин США обвинил его в отмывании денег и содействии легализации поддельных 100-долларовых банкнот («супердолларов») в интересах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элиты. В результате против банка были введены ограничительные меры, что ускорило изоляцию финансовой системы КНДР от международной банковск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4].

На основании раздела 311 «Патриотического акта» (USA Patriot Act) в отношении финансового института были введены жёсткие ограничительные меры, создавшие прецедент особо строгого режима финансового воздействия. Под влиянием этих мер международные банки начали досрочно закрывать счета, связанные с КНДР, стремясь избежать ограничения доступа к финансов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е США, ключевой для международных расчётов. Результатом стало фактическое международное финансовое изолирование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режима и заморозка активов руководства КНДР на сумму 25 млн долларов США.

В 2006 году, после первого подземного ядерного испытания КНДР, США перевели санкционную политику на уровень многостороннего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давления через Совет Безопасности ООН. Была принята Резолюция 1718, запретившая поставки военной техники и предметов роскоши в КНДР, установившая требования к досмотру грузов, следующих в страну и из неё, а также ограничившая внешнеэкономическ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ряда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и физических лиц [5].

Кейс Banco Delta Asia подтвердил эффективность финансовой изоляции КНДР. США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и, что способны изолировать страну не через физическую блокаду портов, а посредством контроля над мировыми финансовыми потоками.

В 2008 году на фоне жёстких санкций произошёл краткий эпизод смягчения политики в отношении КНДР. В рамках шестисторонних переговоров и в обмен на допуск инспекторов МАГАТЭ для проверки ядерного комплекса в Йонбёне, а также демонтаж охлаждающей башни реактора, США исключили КНДР из списка государств-спонсоров терроризма. Одновременно президент Джордж Буш-младший вывел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из-под действия Закона «О торговле с врагом» (TWEA) — это стало частью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усилий по урегулированию ситуации вокруг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ядерной программы [6].

При этом отмена ограничений в рамках TWEA не означала снятия санкций в целом: они были перенесены в правовое поле других нормативных актов, в частности — «Закона о международных чрезвычайных экономических полномочиях» (IEEPA). В результате период разрядки оказался недолгим и не привёл к устойчивому улучшению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сторонами.

С приходом в Белый дом администрации Барака Обамы в 2009 году санкционная политика трансформировалась в доктрину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терпения». Эта концепция подразумевала отказ от активных переговоров и усиление давления до тех пор, пока Пхеньян не предпримет реальных шагов к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Вашингтон сделал ставку на постепенное, но неуклонное расширение чёрных списков и комплексное ужесточение ограничений [7].

Важным шагом в рамках этой стратегии стал переход к адресным санкциям в 2010–2011 гг. Президентские указы EO 13551 (2010 г.) и EO 13570 (2011 г.) запретили любые транзакции с лицами 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причастными к поставкам оружия, контрабанде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товаров, а также к деятельности, угрожающей региональной стабильности. Эти меры позволили сфокусировать давление на конкретных акторах, связанных с военно-промышленным комплексом КНДР, минимизируя при этом косвенное воздействие на гражданское население [8,9].

Политика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терпения» сопровождалась активной консолидацией международных усилий: США существенно усилили координацию с ключевыми союзниками —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Японией и странами Евросоюза. Цель тако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заключалась в обеспечении единообразного применения ограничительных мер и создании барьеров для их обхода через третьи страны. Совместные действия позволили повысить эффективность санкционного режима и сократить возможности КНДР по поиску альтернативных каналов торговли и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Ещё одной важной вехой стал 2016 год, когда был принят Закон об усилении санкций и политики в отношении КНДР (NKSPEA — 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Этот законодательный акт заметно расширил арсенал инструментов санкционного давления [10]. Документ наделил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ША полномочиями вводить санкции против иностранных компаний, чья деятельность способствует развитию программ массового поражения в КНДР. Нововведением стало обязательное применение мер за киберпреступления, связанные с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 в том числе за хакерские атаки на финансовые учреждения и попытки незаконного получения передовых технологий. Кроме того, закон впервые включил в санкционную повестку вопросы прав человека: он предусматривал меры против лиц и структур, причастных к их нарушениям на территории КНДР.

Закон также ввёл требования по целенаправленному отслеживанию и блокировке финансовых активов, используемых для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ракетно-ядерной программы страны. Дополнительно он обязал госсекретаря ежегодно представлять Конгрессу подробный отчёт о предпринимаемых шагах по противодействию нарушениям прав человека в КНДР.

На этом этапе началось активное применение вторичных санкций против компаний из третьих стран, преимущественно из КНР, ведущих бизнес с Пхеньяном. Так, компания Dandong Dongyuan Industrial была внесена в чёрный список за поставку в КНДР товаров двойного назначения, включая навигационн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и электронику, которые могли использоваться в ракетной программе. В 2017 году на основании NKSPEA санкции также коснулись крупных импортёров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угля, среди которых — Dandong Zhicheng Metallic Material, JinHou International Holding и Dandong Tianfu Trade [11].

США стали требовать от банков по всему миру проведения дополнительной проверки транзакций на предмет связи с КНДР, а также вводить ограничения против фирм, обвиняемых в поставках запрещённых товаров или содействии в обходе финансовых ограничений. Действия Вашингтона были нацелены в том числе на банки и торговые дома в приграничном Даньдуне, через которые проходило до 70–80 % внешнеторгового оборота КНДР. Это создало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барьеры для внешнеэконом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КНДР и осложнило использование ею подставных компаний и третьих юрисдикций.

В рамках борьбы с трудом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рабочих в других странах, чьи зарплаты пополняли военный бюджет КНДР, США инициировали принятие резолюции СБ ООН 2397 — она была единогласно одобрена 22 декабря 2017 года в ответ на испытание Пхеньяном межконтинентальной баллистической

ракеты «Хвасон-15». Этот документ стал одним из самых жёстких пакетов международных санкций и обязал все страны-члены ООН репатриировать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трудовых мигрантов в течение 24 месяцев (до 22 декабря 2019 года), чтобы перекрыть приток иностранной валюты в бюджет КНДР. США активно добивались поддержки этой меры и оказывали дипломатическое давление на страны, принимавшие таких работников [12]. В результате Польша сократила число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мигрантов с нескольких тысяч до считаных десятков и к концу 2019 года отчиталась о полной репатриации всех граждан КНДР [13]. Российские власти отправили на родину почти две трети из примерно 30 тысяч северокорейцев, работавших в России в 2018 году. Китай репатриировал более половины граждан КНДР, занятых на рынке второй экономики мира.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мера затронула десятки тысяч человек по всему миру.

Переход к администрации Дональда Трампа в 2017 году ознаменовал начало беспрецедентной эпохи «максимального давления» на КНДР. Поскольку именно на протяжении первого года его президентского срока в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ядерной программе произошли качественные сдвиги, которые сделали её намного опаснее для США, с первых же дней своего пребывания в Белом доме Дональд Трамп приступил к выполнению своих предвыборных обещаний. Этот этап характеризовался самыми жёсткими в истории ограничениями, которые перемежались эпизодами личной дипломатии на высшем уровне. В ответ на серию испытаний межконтинентальных баллистических ракет (МБР) Вашингтон инициировал принятие в Совете Безопасности ООН самых жёстких в истории резолюций — 2371, 2375 и 2397 [14]. Эти документы практически полностью остановили легальный экспорт из КНДР, включая уголь, текстиль и морепродукты, а также резко ограничили импорт нефти — что стало частью стратегии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удушения» страны [15]. По оценкам экспертов, эти меры привели к сокращению официального внешнеторгового оборота КНДР на 90 % в 2017–2018 гг [14].

Уникальность данного этапа в политике санкций против КНДР заключалась в агрессивном и масштабном использовании механизма вторичных санкций, что стало качественно новым уровнем давления на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и её потенциальных экономических партнёров. Ключевым инструментом этой стратегии стал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США № 13810 от 20 сентября 2017

года («Imposing Additional Sanctions With Respect to North Korea»), который значительно расширил полномочия Министерства финансов США по введению ограничительных мер не только против самой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но и против третьих стран и субъектов, вовлечённых в экономическое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с Пхеньяном [16]. Основная суть указа заключалась в наделении министра финансов США беспрецедентным правом вводить вторичные санкции против иностранных физических и юридических лиц, а также финансовых институтов, которые ведут бизнес с КНДР или способствуют обходу уже действующих ограничений. Фактически это означало, что любой банк или финансовая организация в мире, решившая обслуживать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счета либо проводить транзакции с участием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контрагентов, подвергалась серьёзной угрозе отключения от международной долларовой платёжной системы и доступа к финансовым рынкам США. Поскольку доллар остаётся доминирующей валютой в мировой торговле и финансах, такая перспектива стала мощным сдерживающим фактором. Риск потерять возможность работать с американской финансовой системой многократно превышал потенциальную выгоду от сделок с КНДР.

Под действие указа попали не только прямые контрагенты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открыто сотрудничающие с её компаниями 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и структурами, но и компании, косвенно способствующие обходу ограничений, — например, участвующие в сложных цепочках поставок, предоставляющие логистические услуги, обеспечивающие страхование грузов или осуществляющие финансовые расчёты через третьи юрисдикции. Это позволило США воздействовать на широкий круг субъектов, включая посредников в Китае, Юг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и на Ближнем Востоке, которые ранее могли оставаться вне прямого санкционного воздействия.

Механизм вторичных санкций привёл к заметному сокращению числа иностранных партнёров, готовых иметь дело с КНДР. Многие банки и корпорации предпочли полностью исключить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риск из своих операций, проведя тщательный аудит контрагентов и усилив процедуры комплаенса. Одновременно это стимулировало ужесточение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контроля за соблюдением санкционного режима — финансовые регуляторы разных стран начали активнее сотрудничать с

американскими ведомствами, обмениваться информацией и внедрять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меры проверки.

В результате указ № 13810 не просто ограничил доступ КНДР к внешним ресурсам, но и создал систему глобального сдерживания, где угроза вторичных санкций стала действенным инструментом влияния на поведение третьих стран и частных субъектов, вынуждая их учитывать позицию США при выстраивании внешнеэкономических связей. Всё это существенно осложнило для Пхеньяна поиск новых каналов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и торговли, заставив искать ещё более изощрённые способы обхода ограничений.

Наряду с санкционным давлением администрация Трампа предприняла попытку прямой дипломатии, организовав исторические встречи в Сингапуре (2018) и Ханое (2019). Однако Сингапурский саммит (12 июня 2018 года) не дал значимых результатов.

Расплывчатая сингапурская декларация лишь обещала «работать над полной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ей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а ключевые требования США в ней отсутствовали. КНДР сделала ограниченные уступки (освободила американских граждан, подорвала туннели на полигоне Пунгери), а США приостановили совместные с Южной Кореей военные учения, но эти шаги оказались малозначительными. Санкции остались в силе, ядерная программа КНДР фактически не была заморожена.

Центры по производству ядерных материалов и компонентов для МБР продолжили работу. Саммит Дональда Трампа и Ким Чен Ына в Ханое (февраль 2019 года) завершился без соглашения из-за расхождения позиций сторон. КНДР настаивала на полной отмене пяти ключевых санкций ООН (введённых в 2016–2017 годах) в обмен на демонтаж ядерного центра в Йонбёне, тогда как США требовали полной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 условия, неприемлемого для Пхеньяна из-за рисков для стабильности режима. Стороны были близки к промежуточному соглашению («малой сделке»), но администрация США в последний момент отказалась от компромисса, руководствуясь принципом «никакая сделка лучше, чем плохая сделка». После провала переговоров Пхеньян фактически утратил доверие к диалогу с США и сфокусировался на укреплении ядерного арсенала, одновременно активизировав сближение с Китаем и Россией [18]. Итоги саммитов подтверждают, что в текущих условиях дипломатическая

денуклеаризация КНДР практически невозможна.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готова обсуждать лишь частичное ограничение вооружений и только в обмен на масштабное снятие санкций.

В целом стратегия «максимального давления» администрации Трампа представляла собой уникальное сочетание беспрецедентно жестких финансовых ограничений и попыток личного дипломатическо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Хотя встречи на высшем уровне не обеспечили прорыва в вопросе ядерного разоружения, они подтвердили курс США на диалог исключительно при соблюдении жестких предварительных условий. В ответ КНДР была вынуждена адаптироваться к выживанию в условиях изоляции, активно развивая теневой сектор экономики, используя операции с криптовалютами и выстраивая сложные логистические цепочки контрабанды через третьи страны.

Современный этап политики США в отношении КНДР при администрации Джо Байдена, начавшийся в 2021 году, характеризуется существенным переходом к стратегии цифрового сдерживания и активной борьбе с «гибридными» методами обхода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граничений. Администрация провозгласила курс на «выверенный практический подход» [19], который отражает переосмысление традиционных механизмов воздействия: осознавая, что классическое торговое эмбарго достигло своего предела эффективности и уже не способно в полной мере сдерживать экономические манёвры Пхеньяна, Вашингтон стратегически сфокусировался на киберпространстве — сфере, которая в последние годы фактически превратилась для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режима в один из ключевых источников получения твёрдой валюты и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воей деятельности.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США уделили целенаправленному противодействию масштабной краже криптовалют, осуществляемой хакерскими группировками, связанными с КНДР [20]. Такие кибератаки на международные криптовалютные биржи, банки и блокчейн-проекты стали регулярным явлением, позволяющим обходить финансовые ограничения и конвертировать цифровые активы в ликвидные ресурсы. Помимо активной борьбы с криптосервисами, используемыми для отмывания средств, новым стратегическим приоритетом американской политики стала целенаправленная охота на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IT-специалистов, которые систематически работали удалённо в западных компаниях под фальшивыми именами и псевдонимами, выполняя заказы в

сфере программирования, веб-разработки и цифрового дизайна, а затем переправляли заработанное на родину через сложные цепочки финансовых транзакций. По данным американских спецслужб, совокупный доход от та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достигал миллионов долларов ежегодно, что в условиях жёстких экономических ограничений и изоляции превратилось в заметную статью доходов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бюджета, позволяя поддерживать ключевые программы и компенсировать потери от международных санкций. Эта трансформация санкционной политики демонстрирует смещение фокуса с исключительно торгово-экономических мер на комплексные меры кибербезопасности, международный обмен разведданными и точечное воздействие на цифровые каналы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КНДР.

Несмотря на беспрецедентную жёсткость вышеперечисленных мер, их эффективность остаётся предметом острых дискуссий среди экспертов, политиков и экономистов.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санкции действительно превратили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в самую изолированную экономику мира, лишив режим легальных источников иностранной валюты и заметно замедлив его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Ограничения затронули широкий спектр секторов — от импорта нефтепродуктов, критически важных для транспортной и промышлен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до доступа к международным финансовым системам, что осложнило проведение внешнеторговых операций и получение кредитов. Под санкционным давлением сократились объёмы внешней торговли, возникли перебои с поставками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а уровень жизни населения в целом ухудшился, что формально должно было ослабить устойчивость режима.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Пхеньян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 поразительную способность адаптироваться к экстремальным условиям, выработав целый комплекс уникальных механизмов выживания и обхода ограничений. Помимо упомянутой практики перевалки грузов «борт в борт», позволяющей получать запрещённые товары в открытом море без захода в порты под контролем международных наблюдателей, КНДР создала разветвлённые сети подставных компаний и фиктивных посредников в Юг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на Ближнем Востоке и в некоторых других регионах, через которые проводятся финансовые операции, маскируются источники происхождения товаров и организуется экспорт ограниченных или запрещённых ресурсов —

от угля и морепродуктов до редкоземельных металлов. Параллельно развиваются теневые каналы обмена валюты, контакты с китайскими криминальными группировками, бартерные схемы и альтернативные платёжные механизмы, минимизирующие зависимость от долларовой системы. Более того, внешнее давление стало для руководства страны эффективным инструментом мобилизации населения: экономические трудности и лишения систематически преподносятся официальной пропагандой как неизбежные последствия агрессивной политики внешних врагов, а их преодоление — как коллективный подвиг во имя защиты суверенитета и национальной независимости [21], что укрепляет внутреннюю сплочённость и лояльность режиму.

В итоге Гэри Сэмор, бывший советник Азиат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Госдепа США в период президентств Клинтона и Обамы, признавал низкую эффективность санкционной политики США в отношении КНДР.

В условиях нарастающего глобального противостояния США с Китаем и Россией санкционный режим в отношении КНДР сталкивается с новыми вызовами и ограничениями. Китай и Россия, обладающие правом вето в Совете Безопасности ООН, нередко смягчают или блокируют наиболее жёсткие международные инициативы против КНДР [22], исходя из собственных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интересов и стремления сохранить рычаги влияния в регионе. Это не только снижает универсальность санкционного давления, но и создаёт лазейки для обхода ограничений через приграничную торговлю, гуманитарные каналы и неформальные экономические связи. В результате санкционная политика постепенно превращается из инструмента принуждения к миру и изменению поведения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режима в вечный элемент геополитического статус-кво, требующий постоянной калибровки, уточнения механизмов контроля и поиска новых технологических решений — от спутникового мониторинга морских перевозок до анализа блокчейн-транзакций и выявления схем отмывания денег — для поддержания эффективного давления на Пхеньян в долгосрочной перспективе.

Список использованных источников:

1. Дроздов Д. С. Эволюция программы американских санкций в отношении КНДР после 2006 г. // *Клио*. 2024. № 7 (211). https://cyberleninka.ru/article/n/evolyutsiya-programmy-amerikanskih-sanktsiy-v-otnoshenii-kndr-posle-2006-g (дата обращения: 02.04.2026).
2. Дроздов Д. С. Санкционная политика США в отношении КНДР (1948–2020 гг.) // *Известия Саратов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Новая серия. Серия История.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тношения*. 2024. № 1. https://cyberleninka.ru/article/n/sanktsionnaya-politika-ssha-v-otnoshenii-kndr-1948-2020-gg (дата обращения: 02.04.2026).
3. Жебин А. Почему Пхеньян и Вашингтон не смогли реализовать достигнутое 30 лет назад соглашение // *Независимая газета*. 2024. 21 окт. https://nvo.ng.ru/vision/2024-10-21/6_9119_anniversary.html (дата обращения: 01.04.2026).
4. Тургиев М. Со счетов банка в Макао сняли около 125 тысяч долларов — СМИ // *РИА Новости*. 2007. 13 июня. https://ria.ru/20070613/67119780.html (дата обращения: [укажите дату]).
5. Пхеньян взорвал бомбу «на счастье» // *Коммерсантъ*. 2006. 10 окт. https://www.kommersant.ru/doc/711591 (дата обращения: 03.04.2026).
6. Дьячков И. В. Эволюция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ядерной программы в контексте ядерного не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в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2-я половина XX — начало XXI вв.): дис. … канд. ист. наук. М., 2015. https://mgimo.ru/files2/y02_2015/262819/dyachkov_disser_final.pdf (дата обращения: 03.04.2026).
7. Политика США по отношению к КНДР: стратегическое терпение иссякает // *ТАСС*. 2017. 18 апр. https://tass.ru/mezhdunarodnaya-panorama/4188435 (дата обращения: 03.04.2026).
8. Obama B. Executive Order 13551 — Blocking Property of Certain Persons With Respect to North Korea // *The American Presidency Project*. 2010. 30 Aug. https://www.presidency.ucsb.edu/node/289164 (дата обращения: 04.04.2026).
9. Executive Order 13570 — Prohibiting Certain Transactions with Respect to North Korea // *The White House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2011. 18 Apr. https://obamawhitehouse.archives.gov/the-press-office/2011/04/18/executive-order-13570-prohibiting-certain-transactions-respect-north-kor (дата обращения: 30.03.2026).
10. H.R. 757 — 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 // *Congress.gov*. https://www.congress.gov/bill/114th-congress/house-bill/757 (дата обращения: 30.03.2026).
11. Schectman J., Brunnstrom D. U.S. sanctions 13 Chinese and North Korean organizations // *Reuters*. 2017. 22 Nov. https://www.reuters.com/article/us-northkorea-missiles-usa/us-sanctions-13-chinese-and-north-korean-organizations-idUSKBN1DL2G6 (дата обращения: 30.03.2026).
12. Shim E. Poland, say no to North Korean workers // *UPI*. 2017. 28 Sept.

https://www.upi.com/Top_News/World-News/2017/09/28/Sri-Lanka-Poland-say-no-to-North-Korean-workers/4671506616920 (дата обращения: 30.03.2026).
13. Россия и Китай отчитались в СБ ООН о репатриации трудовых мигрантов из КНДР // *EADaily*. 2019. 26 марта. https://eadaily.com/ru/news/2019/03/26/rossiya-i-kitay-otchitalis-v-sb-oon-o-repatriacii-trudovyh-migrantov-iz-kndr (дата обращения: 30.03.2026).
14. Резолюция 2371 (2017), принятая Советом Безопасности на его 8019-м заседании 5 августа 2017 года // *ООН*. https://docs.un.org/ru/s/res/2371(2017) (дата обращения: 25.03.2026).
15. Лукин А. Л. Конец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одиночества КНДР? // *Россия в глобальной политике*. 2024. Т. 22. № 1. С. 126–143.
16. North Korea Sanctions 525. What sanctions authority does Executive Order (E.O.) 13810 provide? //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https://ofac.treasury.gov/faqs/525 (дата обращения: 27.03.2026).
17. Ланьков А. Сингапурский саммит и провал дипломатии Дональда Трампа // *Россия в глобальной политике*. 2018. 24 сент. https://globalaffairs.ru/articles/singapurskij-sammit-i-proval-diplomatii-donalda-trampa/ (дата обращения: 25.03.2026).
18. Lankov A. As Kim and Trump meet in Hanoi, can the DPRK and Vietnam restore historic ties? // *NK News*. 2019. 25 Feb. https://www.nknews.org/2019/02/as-kim-and-trump-meet-in-hanoi-can-the-dprk-and-vietnam-restore-historic-ties/ (дата обращения: 25.03.2026).
19. Biden administration sets new North Korea policy of ‘practical’ diplomacy // *Reuters*. 2021. 1 May. 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biden-administration-has-completed-north-korea-policy-review-white-house-2021-04-30 (дата обращения: 29.03.2026).
20. Treasury Sanctions Mixer Used by the DPRK to Launder Stolen Virtual Currency //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2023. 29 Nov. URL: https://home.treasury.gov/news/press-releases/jy1933 (дата обращения: 28.03.2026).
21. КНДР заработала $200 млн на незаконном экспорте угля и оружия // *Коммерсантъ*. 2018. 3 фев. https://www.kommersant.ru/doc/3539819 (дата обращения: 28.03.2026).
22. РФ и Китай в СБ ООН наложили вето на резолюцию США с санкциями против КНДР // *ТАСС*. 2022. 27 мая. https://tass.ru/politika/14744399 (дата обращения: 03.04.2026).

МУЛЬТИДІНИ КЕҢІСТІК ЖАҒДАЙЫНДАҒЫ ОҢТҮСТІК КОРЕЯ ҚОҒАМЫНЫҢ МӘДЕНИ ТРАНСФОРМАЦИЯСЫ

Борантаева Ф.Ж.
Абылай хан атындағы ҚазХҚжӘТУ
Алматы, Қазақстан

Аңдатпа: Бұл мақалада қазіргі Оңтүстік Кореядағы діни ахуалдың қалыптасуы мен оның мәдени-психологиялық ерекшеліктері қарастырылады. Елдегі дәстүрлі және заманауи діни жүйелердің қоғам өміріндегі рөлі талданып, олардың ұлттық дүниетаным мен әлеуметтік қатынастарға әсері айқындалады. Конфуциандық, шаманизм, даосизм және христиандықтың өзара ықпалдасуы нәтижесінде қалыптасқан мәдени модель сипатталады. Сонымен қатар жаһандану жағдайындағы мәдени трансформация мен діни төзімділік мәселелері қарастырылады.
Кілтті сөздер: діни ахуал, мәдени-психологиялық келбет, конфуциандық мәдениет, мультидіни қоғам, рухани құндылықтар

Title: The Cultural Transformation of South Korean Society within a Multireligious Context
Author: Borantayeva F.Zh., Kazakh Ablai Khan University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World Languages, Almaty, Kazakhstan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the formation of the contemporary religious landscape in South Korea and its cultural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The role of traditional and modern religious systems in the life of society is analyzed, and their influence on the national worldview and social relations is identified. The study describes the cultural model that has emerged through the interaction of Confucianism, Shamanism, Taoism, and Christianity. In addition, issues of cultural transformation and religious tolerance in the context of globalization are discussed.
Keywords: religious landscape, cultural and psychological identity, Confucian culture, multireligious society, spiritual values

Кіріспе

Кез-келген діннің адам дүниетанымына, әлеуметтік қарым-қатынастарға ықпал ететіні, адамның өмірмәндік ұстанымдарын қалыптастыруға әсер ететіні сөзсіз. Сондықтан қазіргі кезеңде халықтың саяси өміріне түрлі діни жүйелердің әсер етуі терең зерттеулерді қажет ететін күрделі мәселе болып отыр. Қазіргі жаһандану дәуірінде көптеген мемлекеттер мультидіни кеңістікке ие. Дін тек рухани сенім жүйесі ретінде ғана емес, сонымен қатар

қоғамның мәдени, тарихи және әлеуметтік дамуын айқындайтын маңызды фактор ретінде қарастырылады. Әрбір елде діни жүйелер ұлттық дәстүрмен, тұрмыс-салтпен және қоғамдық қатынастармен өзара байланыста дамиды. Осы тұрғыдан алғанда, Оңтүстік Корея ерекше зерттеу нысаны болып табылады. Бірұлтты мемлекет бола тұра, бұл елде түрлі діни бағыттар қатар дамып, қоғамның мәдени-психологиялық келбетіне ықпал етуде. Корея Республикасындағы әр түрлі дәстүрлі және жаңа діндер, олардың мемлекет саясатымен өзара қарым-қатынасы, мемлекеттің әлеуметтік-саяси өміріне әсер етуін зерттеу бір жағынан сол мемлекеттегі діни ахуал туралы объективті көзқарас қалыптастырса, екінші жағынан Қазақстанның көп конфессиялы діни кеңістігінің дамуын бағдарлауғамүмкіндік береді. Сондықтан корей қоғамындағы дін мен әлеуметтік-саяси өмірдің арасындағы қарым-қатынастардың тәжірибесі мен сабақтары Қазақстан үшін де маңызды болып табылады.

Кореядағы діни ахуалдың тарихи қалыптасуы

Көптеген мемлекеттерде белгілі бір дін өзге сенімдермен салыстырғанда айтарлықтай үстем орын алатыны белгілі. Ал корей мәдениетінің ерекшелігі – адамдардың психологиясы мен мінез-құлқы әртүрлі діни сенімдердің жиынтық ықпалының нәтижесінде қалыптасуында. Корея тарихының бастапқы кезеңдерінде діни және саяси қызметтер өзара тығыз байланысты болғанымен, уақыт өте келе олар бір-бірінен бөлініп, дербес сипатқа ие болды. Ерте дәуірлердің өзінде-ақ кәріс қоғамына шаманизм, буддизм, даосизм және конфуциандық өз әсерін тигізді. Кейінгі кезеңде мемлекетке христиан дінінің таралуы корей халқының рухани өмірін өзгертуде маңызды рөл атқарды. Соңғы жиырма жылдағы жедел индустриялану үдерісі қоғамда белгілі бір алаңдаушылық тудырып, халықтың діннен тірек іздеуіне алып келді. Соның нәтижесінде дінге сенушілер саны өсіп, діни ұйымдар біртіндеп қоғамдық институттарға айнала бастады.

2025 жылғы халықтың діни құрамын бағалау мақсатында жүргізілген 2025 жылдың қаңтарынан қарашасына дейін жүргізілген 22 сауалнаманың нәтижесінде 20%-ы өзін протестант, 16%-ы буддист, 11%-ы католик, ал 1%-ы басқа дін өкілдері ретінде көрсеткен. Сонымен қатар, халықтың 51%-ының ешқандай діни ұстанымы жоқ. Бұл көрсеткіш 2024 жылы жүргізілген «Қоғамдық пікірдегі қоғамдық пікір» атты 24-ші зерттеу нәтижесінде алынған

халықтың жалпы діни құрамына қатысты бағалаумен сәйкес келеді. (2024 жылдың қаңтарынан қарашасына дейін жүргізілген 22 сауалнама негізінде буддистердің үлесі 17% деп бағаланған болатын, алайда желтоқсандағы екінші сауалнама нәтижелері қосылғаннан кейін 2024 жылғы буддистердің жалпы үлесі түпкілікті түрде 16% деп анықталды.)

2018 жылдан бастап жыл сайын жүргізіліп келе жатқан «Қоғамдық пікірдегі қоғамдық пікір» сауалнамасының нәтижелері халықтың діни тиістілігі құрылымында айтарлықтай өзгерістердің болмағанын көрсетеді. 2019 жылдан бері протестанттардың үлесі тұрақты түрде 20%, буддистердің үлесі 16–17%, ал католиктердің үлесі 11% деңгейінде сақталып келеді. Діни ұстанымы жоқ адамдардың үлесі де шамамен 50% деңгейінде өзгеріссіз қалып отыр[4].

Халықтың діни құрамында елеулі өзгерістердің байқалмауы діни ұйымдардың жаңа сенушілерді тартуға бағытталған әрекеттері негізінен діннен алыстаған адамдардың орнын толтырумен шектелетінін көрсетеді.

Жалпы алғанда, діннің мәдени-психологиялық келбеті қоғамның күнделікті өмірінде орындалатын діни рәсімдер арқылы айқын көрініс табады. Мұндай рәсімдерге ата-баба рухына құрмет көрсету, діни тағзым ету, қайтыс болған адамды соңғы сапарға шығарып салу дәстүрлері, сондай-ақ әрбір діни рәсімге тән киім үлгілері жатады. Мысалы, қазақ халқының жерлеу рәсімдері, ата-бабаларға құран бағыштау, баланың қырқынан шығару немесе сүндетке отырғызу сияқты дәстүрлері ұлттық мәдениетпен тығыз байланысты екені белгілі.

Оңтүстік Кореяда шаманизмді ұстанушылардың үлесі салыстырмалы түрде жоғары болмаса да, бұл сенім жүйесі корей халқының көне діни қабаттарының бірі ретінде қарастырылады. Осыған байланысты шаманизмнің ұлттық мәдениет пен дәстүрлі дүниетанымның қалыптасуына ықпалы елеулі деп бағаланады. Шамандық тәжірибені жалғастыратын топтар көбіне елдің оңтүстік өңірлерінде, соның ішінде Чолла, Чхунчхон және Чондонг аймақтарында шоғырланған. Зерттеулерде бұл қауымдастықтарда әйел шамандардың басым екені, ал ер адамдардың көбіне көмекші қызмет атқаратыны атап көрсетіледі.

Корей шамандары жүзеге асыратын негізгі ритуалдық әрекет кут деп аталады. Оның формалары рәсімнің мақсаты мен күрделілік деңгейіне қарай сараланады. Ең қарапайым нұсқалардың

бірі — писон: бұл рәсімде шаман алақанын ысқылап, дұға оқу арқылы адамның тілегін рухани күштерге жеткізеді деп есептеледі. Осындай қимыл-ишаралардың элементтері қазіргі корей мәдениетінде, әсіресе киноөнерде және күнделікті коммуникацияда, кешірім сұрау, өтініш білдіру немесе сәттілік тілеу сияқты жағдайларда байқалады. Бұл құбылыс шамандық ритуалдардың кейбір құрамдас бөліктері уақыт өте келе діни функциясынан ішінара ажырап, мәдени әдет-ғұрып пен символдық мінез-құлық формасына айналғанын көрсетеді.

Келесі деңгейдегі рәсімдерге коса және пхудоккэри жатады. Коса әдетте егін жиналған уақытта, ай күнтізбесінің оныншы айында өткізіледі. Ал пхудоккэри рәсімі отбасы мүшелерінің бірі ауырғанда немесе түрлі қиындықтар туындағанда, жаман рухтарды аластау мақсатында жүзеге асырылады. Оны бірнеше шаман бірігіп орындайды. Ең күрделі және маңызды рәсім – кут болып саналады. Оның да екі негізгі түрі бар: біріншісі – чесу кут, яғни бақ-береке мен молшылық тілеуге арналған рәсім; екіншісі – нок кут, ол жаман рухтарды қуып, тыныштық орнату немесе қайтыс болған адамның жанын о дүниеге шығарып салу мақсатында орындалады.

Дәстүрлі корей қоғамында отбасы институты әрқашан маңызды орын алып келген. Қазіргі кезеңде бұл функция өндірістік, жерлестік және тұрмыстық бірлестіктермен, сондай-ақ саяси ұйымдармен қатар жүзеге асырылып отыр. Осындай үрдістер конфуциандық ілімнің корей қоғамына әсерімен тығыз байланысты. Конфуциандық мәдениетте ұстаз, шенеунік және билеуші тұлғалары ерекше құрметке ие.

Бұл жағдайдан мемлекеттің басқару жүйесінің «көсемдік» сипатта ұйымдастырылғаны байқалады. Яғни, мықты басшы ел мен қоғамның тұрақтылығы мен дамуының негізгі кепілі ретінде қарастырылады. Конфуциандық дәстүр бойынша билеушінің беделі жоғары болып, халық оның билігіне ерікті түрде бағынуы тиіс. Еуропалық көзқараста мұндай басқару үлгісі авторитарлық сипатта бағалануы мүмкін болғанымен, конфуциандық мәдениет аясында ол қоғамдық тәртіп пен тұрақтылықты қамтамасыз етудің тиімді тетігі ретінде қарастырылады.

Сонымен бірге конфуциандық этика билеушіден халықтың әл-ауқатын жақсартуды, ұлттық дәстүрлер мен моральдық нормаларды сақтауды және қабылданған шешімдердің қоғам мүддесіне сай болуын талап етеді. Осылайша, конфуциандық

құндылықтар Оңтүстік Корея қоғамындағы әлеуметтік тәртіп пен басқару жүйесінің қалыптасуына айтарлықтай ықпал етіп отыр.

Даосизм корей халқының дүниетанымының қалыптасуына елеулі ықпал еткен философиялық-діни ілімдердің бірі болып табылады. Даостық философияның негізінде әлемнің бес бастапқы элементтен – жер, ағаш, металл, от және судан тұратыны туралы түсінік жатыр. Бұл элементтер ғаламның материалдық негізі ретінде қарастырылады. Өз кезегінде, аталған элементтердің барлығы «ки» деп аталатын бастапқы материядан пайда болған деп есептеледі. Ки екі қарама-қарсы күйден тұрады: ян ки – белсенді, жарық және қозғалысқа бейім күш болса, инь ки – енжар, қараңғы әрі тыныштықты білдіретін күш. Ки көзге көрінбейтін, ауа тәрізді ұсақ бөлшектер жиынтығы ретінде сипатталады. Инь мен ян күштерінің өзара әрекеттесуі нәтижесінде бес материалдық элемент қалыптасып, олардың байланысы мен қозғалысынан аспан, жер және барлық тіршілік иелері пайда болған деген түсінік орныққан.

Даостық көзқарас бойынша, әлемнің өмір сүруі мен үйлесімділігі «до» және «ки» ұғымдарымен тығыз байланысты. До барлық болмыстың бастауы, объективті әрі абсолютті ақиқат ретінде қабылданады. Осындай дүниетанымдық қағидалар уақыт өте келе мистикалық сипаттағы әлеуметтік-саяси түсініктердің қалыптасуына негіз болды. Бұл көзқарасқа сәйкес, қоғамдағы түрлі келеңсіздіктер мен бақытсыздықтардың басты себебі билеушілердің до қағидаттарына қайшы әрекет етуінен және табиғи тәртіпке араласуынан туындайды деп есептелген.

Оңтүстік Кореяның конфуциандық саяси мәдениеттің жаңа саяси-әлеуметтік жағдайымен санасуына тура келеді, өйткені ол қандай да бір деңгейде жаңарудың бір белгісі ретінде қалыптасуда. Өзінің тұрақтылығына қарамастан, конфуциандық мәдени-тарихи дәстүр ақырындап болса да өзінің қоғамдық өмірдің әртүрлі саласындағы атқарар функцияларын алмастырып отырады; алдымен әлеуметтік-экономикалық, одан соң XX ғасырдың екінші жартысында жаңа заманның кәсіби, квалификациялық және білім беру талаптарына сай, мемлекеттік бюрократияның жоғарғы және орта звеноларының саяси модернизациялауды жүргізуін жеңілдетті. Жетістіктері ұлттық модернизациялаумен байланысты болған Оңтүстік Кореяның іскер және білікті билігі экономикалық және саяси саладағы дамудың күрделілігін түсіне білді. Басқаша айтқанда, сапалы әрі жаңа сипаттағы конфуциандық дәстүр

Оңтүстік Кореяның мемлекет тағдырына жауапкершілікті қолға алған бюрократиялық элитасын қалыптастырды.

Егер жаңа демократиялық модельдің орнығуын саяси модернизацияңң астарында деп түсінсек, онда біз әңгімені либералдықтың күнделікті өмірге енуі жайында ғана емес, осының салдарынан пайда болған азаматтық қоғамның орнауына, яғни әртүрлі салаларға бағытталған (саяси, экономикалық, құқықтық, әлеуметтік, мәдени және т.б.) және ең негізгісі – мемлекетке қатысты автономдық болуы.

Үшінші әлем елдерінде модернизация ұзағырақ дамыды: айырмашылықтар тек қана жүз жылдықтарға созылған уақыт мерзіміне ғана емес, сонымен қатар, аздаған мөлшерде болса да батыстық емес қоғамдағы қабылдануына да қатысты еді. Мұндай жағдайда алдыңғы жоспарға саяси еркіндік факторы шығатыны аян, яғни идеялар дамуының кепілдігі ретінде мемлекеттік-саяси механизмнің рөлі артады. Әлеумет арасында модернизациялауда кешіккен мемлекеттер тобы қалыптасады. Олар XX ғасырдың басы мен ортасында осы жолға түскендер. Қазіргі уақытта бұл дамуышы немесе индустриялы мемлекеттер Латын Америкасы, Африка және Азияның біраз елдері. Модернизация бұл елдерде аса мамыражай күйде дамуда.

Біріншіден, үшінші эшолон елдері үшін бұл көтерілген үдерістің негізі капиталистік құрылым емес, патриархалдық (ислам әлемі) және мемлекеттік-қауымдық (конфуциандық қоғам) құрылымдарды қамтиды. Олардың еуропа әлемінен өзгешелігі мәдени және өркениетті ерекшеліктері мен экономикалық, әлеуметтік және мәдени жағынан кенжелеп қалуы.

Екіншіден, модернизациялаудың ішкі алғышарттары аз сипат алған және модернизациялық күштерді консолидациялаудың күрделілігі туралы қоғамдық пікірдің қалыптаспауы.

Үшіншіден, бұл мемлекеттердегі модернизациялау жолына қарай жасаған қадамдарының және олардың жекелеген айырмашылықтарының негізінде тізімнің соңында тұратындары мен көшбасшылыққа жеткендері де болды.

XX ғасырдың I жартысында көшбасшылыққа жеткендердің бірі – Латын Америкасы болды, бірақ кешегі көшбасшы болғандар, модернизациялық үдерістерді тежеп ұстап екінші позицияда жүрді. Модернизациялық үдерістерде көшбасшы ретінде 1970-1980 жылдар аралығында өзгеріске түскен әлемдік экономикалық құрылымға жылдам икемделген және индустриялық әлемге

барынша жақындаған Шығыс және Оңтүстік Шығыс Азия мемлекеттері кірді.

Жоғарыда модернизациялауға мемлекеттің барлық салаларына қатысты: экономикалық, әлеуметтік, саяси-құқықтық және мәдени қатыстылығы айтылады.

Экономикалық модернизация нарықтық шаруашылыққа негізделген алдыңғы қатардағы технологиялар сияқты өмірге ғылыми-техникалық үдерісті енгізу негізінде пайда болады. Мұндай шаралар үшінші эшелон мемлекеттерінің еңбек өнімділігін арттыруына, өнеркәсіптендіруге кірісуне, коммуникациялық-транспорттық инфрақұрылымды құрылуына мүмкіндік туғызады. Басқаша айтқанда, ұлттың әлемдік-экономикалық құрылымға белсене атсалысып, нәтижелі еңбектенуін қамтамасыз ететін экономикалық модернизация жаңа заманға сай шаруашылық комплексін құруға бағытталған. Әлеуметтік модернизация жалпы білім беру мен медициналық құрылым және әлеуметтік қамсыздандыруды көздейді. Ол мобильдік, дифференциялық және урбанизациялық қоғам құрылуының өсуіне алғышарттар жасай отырып, ұлттың орта тап өкілдерін анықтап, оны ұлттың әлеуметтік негізі ретінде күшейтуге ықпал етеді. Мәдени модернизация бағалы ұстанымдар мен бағдарларды өзіне тарта отырып, еуропалық емес әлемнің дәстүрлі корпоративтік құрылымынан жеке тұлға шығаруды көздейді. Дегенмен, модернизациясы кешеуілдетіп енген мемлекеттерде негізгі фактор ретінде – саяси фактор тұрады, барлық үдерістердің алғы шебінде саяси модернизация

Бүгінде диалогтық кеңістік Шығыс пен Батыс мәдениеттері деп қана емес, бүтіндей мәдени кеңістік ретінде қаралады және оның нәтижесі мынадай: ұлт мәдениетінің трансформациясы. Шығыс мемлекеттері өздерінің тұрмыс-тіршілігі мен дәстүрлі даму жолын сақтай отырып, жаһандану кезеңінде Батыстың ықпалымен болған әлеуметтік өзгерістерді бастарынан кешуге мәжбүр болды.

Қазіргі кезде дәстүрлі корей мәдениеті негізінде жаңа типтегі мәдениет қалыптаса бастады. Ол Шығыстың тұрақтылығы мен Батыстың мобилділігін, дәстүрлілігі мен жаңашылдығын, буддизмді, конфуциандықты және христиандықты қамтитын екі қарама-қарсы ұстанымды сабақтастырудың басы болды. Корей мәдениетінің кеңістігі мәдениетаралық қарым-қатынастар арқасында өзінің ауқымын кеңейтумен қатар, мәдени кеңістік тұрғысындағы жаңа мәнге ие болды. Ол ойлаудың жаңа типі ретінде сипатталады (динамикалық, мобилдік, компрамистік),

коммуникациялық тілмен (мәдени кеңістік тілі), жаңа рухани құндылықтар .

Корей ғалымдарының тарихшылары мен әлеуметтанушыларының, философтарының еңбектерімен танысудың нәтижесінде автор Оңтүстік Корея мәдени кеңістігінің [5,87б]. құрылуы туралы сараптама жасады. Әсіресе, конфуциандық ілімнің гуманистік сипаты, тарихы мен идеологиясы және оның корей философиялық дәстүрімен байланысы кеңінен қамтылған. [6,128б]. Корей христиандығын түсіндіру де қазіргі заманғы корей қоғамын конфуциандықпен байланыстыру арқылы мүмкін болған [7,192б]. Еңбекте ұлттық рух, христиан мәдени институты, христиандық-патриоттық қозғалыстар арқылы көрініс тапқан корей христиандығын зерттеуге көп көңіл бөлінген. Онда дәстүрлі-рухани мәдениет негізіндегі мәдениет пен діннің өзара байланысы сипатталады. Жұмыс барысында Корея Республикасындағы христиандықтың даму перспективалары да айтылған. Сондай-ақ, мәдени кеңістіктің горизантальді және вертикалды қиылыстарын талдауда мәдени мұраға арнала бағыттала отырып, христиандық салыстырыла берілген корей шаманизмі жайлы да біраз жайттар беріледі.

Оңтүстік Кореяның діни мәдениетіне еуропалық және американдық философтар да біршама еңбектер жазды. Кореядағы католиктік, протестанттық және православтық шіркеулердің тарихы жайлы ресейлік зерттеушілер де көп еңбектенеді. Тіпті, Ресей ғылымында мықты корейтану мектебі құрылды. Мәдени кеңістікті трансформацияланудың бірден-бір нәтижесі мәдени кеңістік тілі болып табылады. Бұл тілдің лингво-мәдени мінездемесіне сүйене отырып белгі болғаны, мәдени кеңістік тілі болып, миф пен діннің табылатындығы еді. Олар Оңтүстік Корея мәдени кеңістігінің табиғатын аша алды. Ол жаңа дәуірге американдық мәдени экспансия ықпалымен енді. Бұл үдерістің көрнекі мінездемесі ретінде «корей христиандығы», «корей капитализмі», «корейлік-ағылшындық» жайттарды айтуға болады.Соңғысында Оңтүстік Кореяның «іскер тілі» -деп, сонымен бірге заманауи коммуникациялық құралдар (ғаламтор, БАҚ мәдениеттің жаһандануы жайлы айтады) іспетті, жалпы мәдениет тілі (мәдени экспансия образды ойлауды және Оңтүстік Кореяның өмір сүру образын құрды).

Теориялық-әдіснамалық тұрғыдан алғанда, бұл тұжырымдар мәдениет пен мәдени кеңістік арасындағы өзара

байланыстарды зерттеуде, мәдениеттің горизонталды және вертикалды өлшемдерін талдауда, сондай-ақ Оңтүстік Кореяның мәдени кеңістігінің ерекшеліктерін анықтауда маңызды рөл атқарады. Шығыс пен Батыс өркениеттері арасындағы бірнеше мыңжылдық байланыстарға қарамастан, олардың арасындағы белгілі бір деңгейдегі өзара түсінбеушілік пен алшақтықтың сақталғаны байқалады. Мұндай жағдайлардың қалыптасуына ұзақ уақыт бойы мемлекеттік идеологиялар мен қырғи-қабақ соғыс кезеңінің ықпалы себеп болды.

Қазіргі жаһандану жағдайында мемлекеттер мен халықтардың өзара диалог орнатуға ұмтылуы ерекше маңызға ие. Себебі қазіргі әлемдік қауымдастық алдында терроризм, мәдени және діни экстремизм сияқты ортақ қауіп-қатерлер тұр. Осыған байланысты өзара түсіністікке негізделген тең құқықты мәдени диалог XXI ғасырдағы адамзат дамуының маңызды бағыттарының бірі ретінде қарастырылады. Дегенмен, мұндай үдеріс механикалық сипатқа ие емес. Әлемдік деңгейдегі мәдени диалог халықтар мен этностар арасындағы сенімсіздік жойылып, өзара түсіністік нығайған жағдайда ғана тиімді жүзеге аса алады. Сонымен қатар мәдени-тілдік кеңістік халықаралық қарым-қатынастарды, білім беру жүйесін, іскерлік байланыстарды және мемлекеттік саясатты дамытуда маңызды құрал ретінде қызмет етеді.

Оңтүстік Кореяның мәдени кеңістігі мен мәдени байланыстар жүйесі негізінде жүзеге асырылған интеграциялық үдерістер мәдениетаралық қатынастардағы көптеген кедергілерді еңсеруге мүмкіндік берді. Соңғы онжылдықтарда Қиыр Шығыс елдері қарқынды даму кезеңіне қадам басты. Осыған байланысты ғылыми және публицистикалық әдебиеттерде «экономикалық ғажайып» ұғымы кеңінен қолданыла бастады. Атап айтқанда, «Жапон ғажайыбы», «Корей ғажайыбы», «Тайвань ғажайыбы» секілді терминдер қалыптасып, жалпы алғанда «Қиыр Шығыстық экономикалық ғажайып» феномені туралы түсінік орнықты. Қытай, Жапония, Оңтүстік Корея, Тайвань, Сингапур, Гонконг және Вьетнам сияқты мемлекеттердің экономикалық жетістіктері олардың көптеген батыс елдерімен бәсекеге түсуіне, тіпті кейбір көрсеткіштер бойынша алға шығуына мүмкіндік берді.

Бұл экономикалық серпіліс мәдени жаһандану үдерістерінің жандануына ықпал етіп, мәдени кеңістіктің тілін мәдениетаралық коммуникация мен өзара түсіністіктің маңызды құралына айналдырды. Нәтижесінде тіл мен мәдениет бір-бірінен бөлек өмір

сүретін екі құрылым емес, өзара тығыз байланысқан екі түрлі әлемдік модель ретінде қарастырыла бастады. Тіл мәдениеттің тарихи тұрғыдан қалыптасқан әмбебап формасы ретінде танылып, ұрпақтан ұрпаққа мәдени тәжірибені жеткізудің негізгі құралына айналды.

Оңтүстік Кореяның мәдени кеңістігі қазіргі заманғы қоғамның айқын көрінісі болып табылады. Оның басты ерекшелігі – дәстүрлі құндылықтар мен модернизациялық үрдістердің үйлесімді ұштасуында. Бұл үдерістер толеранттылықтың, мәдени әртүрлілікті құрметтеудің және мәдени диалогтың дамуына негіз қалайды.

Жоғарыда қарастырылған мәселелер негізінде бірнеше маңызды қорытынды жасауға болады. Біріншіден, мәдениет тарихи-әлеуметтік құбылыс ретінде көрінсе, мәдени кеңістік әртүрлі мәдениеттердің уақыт пен кеңістік аясындағы өзара ықпалдастығының нәтижесі болып табылады. Екіншіден, мәдениет адам қызметінің және қоғамдық дамудың жемісі болса, мәдени кеңістік осы үдерістердің көрінісі ретінде қалыптасады. Үшіншіден, мәдениет мәдени кеңістікті қалыптастыратын негізгі фактор болып табылады. Сонымен қатар мәдени кеңістіктің құрылымы адамзат руханиятының интеграциялану үдерісімен тығыз байланысты. Оның құрамында ұлттық және жалпыадамзаттық құндылықтар қатар көрініс тауып, мәдени кеңістік диалог пен өзара түсіністікке ашық жүйе ретінде сипатталады.Оңтүстік Корей елі аз ғана уақыттың ішінде аграрлы мемлекеттен индустриалды мемлекетке айналды. XX ғасырдың 60-70 жылдардағы мемлекеттің қарқынды индустрияландыруы мен урбанизациялануы ауыл тұрғындарының қалаға жаппай көшуіне түрткі болды. Алайда, соңғы кездері қала тұрғындары Сеул қаласының сырт жағындағы аудандарда тұруға тырысуда. Шығыс елдерінің қоғамы, оның ішінде Корея Республикасының да қоғамы дәстүрлі болғанымен, саяси және экономикалық модернизация үдерісі дамыған сайын американың және батыстың өмірлік стандарттары мен құндылықтары дәстүрлі шығыс елдеріне де ақырындап енуде. Мемлекеттің индустрияландыруы мемлекеттің экономикалық және саяси дамуына өз әсерін тигізетін қоғамның жаңа таптарының пайда болуына әкелді.

Қазіргі Корея Республикасында саяси дәстүр және мәдениет конфуциандықтың мұрасын максималды түрде сақтап тұр. Корей қоғамының санасында мемлекет әлі күнге дейін ерекше орын

алады. Конфуций дәстүрі бойынша қоғам мен мемлекет патриархалды отбасымен теңестірілді. Бұл дегеніміз – әкесі анасынан жоғары, ата-ана ұлдарынан жоғары, ал ұлдары қыздарынан жоғары тұрды. Қоғам және мемлекет иерархияланған пирамида ретінде қаралып, әлеуметтік статусы тең екі бірдей тұлға болуы мүмкін емес деген тұжырымды алға тартады. Бұл тұжырым Қиыр Шығыс елдерінде, соның ішінде зерттеп отырған Корея Республикасында қазіргі таңда да сақталып отыр. Эссеист және әлеуметтанушы Ли Кю Тхэ кәрістердің ой-санасын жазылған кітабында: «Сатылылық – кәрістердің өмір сүру әдісі, ал сатылылық құрылымынан шығу олар үшін корей қоғамынан шығумен, бөлектенумен парапар», -деп баға берді [8,29б].

Ли Кю Тхэнің: «Екі кәріс кездескен кезде, олардың ең алдымен білгісі келетіні бұл – сұхбаттанушы жақтың сатылылықтың қай сатысында және ондағы орнын білуге тырысатынын байқауға болады» [8,30б]. деген пікірмен келіспеуге болмайды. Кәрістер жаңа танысынан оның жұмыс орны, жасы, отбасылық жағдайы (тұрмыс құрғаны, құрмағаны) жайында сұрастыра бастайды. Осы сұрақтардың жауабын біле отырып, қайсысының үлкен, қайсысының кіші(үлкен-кіші деген тек жас мөлшеріне ғана байланысты емес, сондай-ақ жұмыстағы лауазымы немесе жолына байланысты болып келеді) екенін аңғарады. Сәйкесінше, сұхбаттанушымен қалай сөйлесу керектігіне, бір-бірімен қандай қарым-қатынас орнату керектігіне үлкен мән беріп, назар аударады. Сөйлеу мәнерінде кәрістер сыпайы және анайы формасын қолданады, сондай-ақ түрлі жесттерді қолдануы, өзімен жасты немесе лауазымы бірдей адаммен басын иіп амандасуы, өздерінен жоғары тұрған адамға денесімен иіліп сәлемдесуінің барлығы да конфуциандықтан бастау алады. Және бұл әдет-ғұрыптарын балаға кішкентай кезінен үйде де, мектеп қабырғасында да үйретеді, мағынасын түсіндіреді.

Сатылылықтың қазіргі корей қоғамының өміріне әсерін біржақты қарастыруға болмайды. Конфуциандық сатылылық корейлік «экономикалық ғажайыптың» орнауына үлкен үлесін қосты. Жұмыс күшінің тәртіпке бағынғандығы, кәрістердің тапсырылған істі, берілген тапсырмаларды үлкенге деген сыйластықпен, өзінен жоғары адамның бұйрығын жауапкершілікпен орындауының нәтижесінде саяси тұрақтылыққа және жоғары өндірістік тәртіпке қол жеткізе алды. Бұл жағдайды екінші қырынан қарастырсақ, сатылылық ұғымының дамығаны

соншалық шығармашылық ой-санасын жетілдіруге кедергі келтіреді. Осы мәселе бойынша Ли Кю Тхэ былай дейді: «Батыстағы жемісті семинарлар секілді Кореяда нағыз академиялық пікірталастар болуы мүмкін емес деген пікірлер бар. Оқытушылар мен студенттер және бұрынырақ бітірген студенттер қатысатын бұндай жиындарда студенттер өздерінің оқытушыларына немесе өздерінен үлкен әріптестерінің пікіріне күмән келтіруге болмайтындығымен түсіндіріледі» [8,30б].

Қорыта келе, Корея қоғамының рухани келбеті оның тарихи дамуында әртүрлі діни жүйелердің өзара ықпалдасуы арқылы қалыптасқаны анық байқалады. Шаманизм, буддизм, даосизм және конфуциандық сияқты дәстүрлі ілімдер халықтың дүниетанымына терең сіңіп, тұрмыс-салтына, мінез-құлқына және әлеуметтік қатынастарына ықпал етті. Ал христиан дінінің кейінірек келуі бұл рухани кеңістікті одан әрі байытып, қоғамдық құндылықтар мен сенім жүйесіне жаңа мазмұн қосты.

Сонымен қатар, діни және саяси биліктің біртіндеп ажырауы корей қоғамында зайырлы басқару жүйесінің орнығуына жағдай жасап, діннің жеке адамның рухани қажеттіліктерін қанағаттандырушы сала ретінде дамуына мүмкіндік берді. Бұл үрдіс қоғамда діни плюрализмнің қалыптасуына ықпал етті.

Қазіргі кезеңде индустриялану мен урбанизацияның қарқынды жүруі адамдардың өмір салтына үлкен өзгерістер енгізіп, әлеуметтік және психологиялық қысымдарды күшейтті. Осындай жағдайда дін көптеген адамдар үшін моральдық бағдар, рухани тыныштық пен қолдау көзіне айналды. Нәтижесінде, діни сенімнің маңызы артып қана қоймай, діни ұйымдар да қоғам өміріне белсенді араласатын әлеуметтік институттарға айналды.

Осылайша, Кореядағы дін тек сенім жүйесі ғана емес, сонымен қатар қоғамның тұрақтылығы мен үйлесімін сақтауға ықпал ететін маңызды әлеуметтік-мәдени фактор болып табылады.

Пайдаланылған әдебиеттер тізімі:

1. А.И. Артемьев. Дінтану: Жалпы дінтану негіздері, діндер тарихы, Қазақстандағы діндер. А, 2010. 36б.
2. Кенжетаев Д., Асқаров Н., Сайлыбаев Ә., Тұяқбаев Ө. Дінтану, А, 2010. 233б.
3. Ким Г.Н., Ташкенбаева Б.Н. Кореяның діндер тарихы. А, 2011.
4. Осознание существования Бога и трансцендентального мировоззрения // Опрос о религиозном восприятии 2025 года (дата обращения: 05.2026г.) https://hrcopinion.co.kr/ru/%D0%B0%D1%80%D1%85%D0%B8%D0%B2%D0%B0%D0%BC/34782
5. Ким Сын Хе, Ким Сон Не. Грисдогево Муге (Христианство и шаманизм). Сеул, 1998.
6. Ким Сын Хе, Ян Ын Ен, Но Гиль Мен, Чха Ок Сун. Хангук Синджонгева Грисдоге (Корейские новые религии и христианство). Сеул, 2002.
7. Кан Дон Гу. Хангук Гындэ Чжонгева Минджоксуви (Корейские современные религии и национализм. Сеул, 2002.
8. Ли Кю Тхэ. 한국인의 의식구조: 한국인은 누구인가? (Структура сознания корейца: кто такой кореец?). Сеул, 1994. С.30.

КОРЕЙ ЖӘНЕ ҚАЗАҚ ТІЛДЕРІНДЕГІ УАҚЫТТЫҚ ҚАТЫНАСТАРДЫ БІЛДІРУ ҚҰРАЛДАРЫНЫҢ САЛЫСТЫРМАЛЫ ТАЛДАУЫ

Бүркітбай Г.Ж., Ризабекова Ж.А.
Абылай хан атындағы ҚазХҚжӘТУ
Алматы, Қазақстан

Түйін: Дүние жүзіндегі тілдер уақыттық қатынастарды білдірудің әртүрлі тәсілдерін қолданады. Оларды грамматикалық формалар (мысалы, етістіктің ыңғайлары, аффиксациялары, аналитикалық конструкциялар) және лексикалық құралдар (уақыт үстеулері, сан есімдер және уақыттық конструкциялар) арқылы жүзеге асыруға болады. Әрбір тілдік жүйенің тарихи дамуға, типологиялық сипаттамаларға және мәдени контекстке байланысты өзіндік ерекшеліктері бар. Бұл тақырыптың өзектілігі уақыттың әртүрлі тілдерде көрініс табу тәсілдерін, әсіресе қазіргі жаһандану, белсенді мәдениетаралық өзара әрекеттесу және халықаралық байланыстардың кеңеюі жағдайында тереңірек зерттеу қажеттілігінен туындайды. Әртүрлі мәдениет өкілдері арасындағы ақпарат алмасу мен өзара әрекеттесудің қарқынды дамуымен уақыт категориясын қоса алғанда, тілдік категорияларды дәл және жеткілікті түсіну қажеттілігі артып келеді. Корей және қазақ тілдерін салыстырмалы зерттеу ерекше қызығушылық тудырады. Корей және қазақ тілдері жалғамалы тілдер, бұл сөзжасам мен грамматикалық құрылымдағы ұқсастықтарды көрсетеді. Зерттеу нәтижелері көрсеткендей типологиялық ұқсастықтарына қарамастан, корей және қазақ тілдерінде уақыттық қатынастарды білдіру жүйесі аналитикалық және синтетикалық формалардың қолданылуы, контекстке тәуелділік және грамматикалық категориялардың рөлі жағынан ерекшеленеді.
Тірек сөздер: корей тілі, қазақ тілі, уақыттық қатынастар, шақ категориялары, уақытты білдіру құралдары, жалғамалы тілдер, салыстырмалы лингвистика

Tile: Comparative Analysis of Means of Expressing Temporal Relations in Korean and Kazakh Languages
Author: Burkitbay G., Rizabekova Zh., Kazakh Ablai Khan University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World Languages, Almaty, Kazakhstan
Abstract: Languages around the world use different ways to express temporal relations. These can be realized through grammatical forms (such as verb aspects, affixation, and analytical constructions) as well as lexical means (time adverbs, numerals, and temporal expressions). Each language system has its own characteristics depending on historical development, typological features, and

cultural context. The relevance of this topic arises from the need for a deeper study of how time is expressed in different languages, especially in the context of globalization, active intercultural communication, and the expansion of international relations.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information exchange and interaction between representatives of different cultures, the need for an accurate and adequate understanding of linguistic categories, including the category of time, is increasing. A comparative study of Korean and Kazakh languages is of particular interest. Korean and Kazakh are agglutinative languages, which show similarities in word formation and grammatical structure. Despite their typological similarities, research results show that Korean and Kazakh languages differ in the system of expressing temporal relations, particularly in the use of analytical and synthetic forms, context dependency, and the role of grammatical categories.
Keywords: Korean language, Kazakh language, temporal relations, tense system, means of temporal expression, agglutinative languages, comparative linguistics

Тілдің негізгі грамматикалық категорияларының бірі бұл шақ категориясы, ол әрекеттің, күйдің немесе процестің сөйлеу сәтімен өзара байланысын көрсетеді. Ол айтылымның семантикалық құрылымын қалыптастыруда, оқиғаның уақытша орналасуын қамтамасыз етуде және сөйлеушіге әрекеттің қашан болып жатқаны немесе болып жатқаны туралы ақпаратты дәл жеткізуге мүмкіндік беруде маңызды рөл атқарады. Лингвистикада шақ категориясы әмбебап болып саналады, себебі ол әлемнің барлық тілдеріне тән. Дегенмен, оны білдіру әдістері айтарлықтай өзгеруі мүмкін. Кейбір тілдерде шақ негізінен грамматикалық құралдармен (мысалы, етістік формалары жүйесі арқылы), ал басқаларында лексикалық немесе синтаксистік құралдармен немесе екеуінің тіркесімі арқылы көрінеді.

Дәстүрлі грамматика тұрғысынан үш негізгі шақ формасы ажыратылады: сөйлеу сәтінен бұрын болған іс-әрекетті білдіретін өткен шақ; сөйлеу сәтімен сәйкес келетін немесе жалпы сипатқа ие әрекетті білдіретін осы шақ; сөйлеу сәтінен кейін болатын іс-әрекетті көрсететін келер шақ.

Дегенмен, қазіргі тіл білімінде бұл жіктеу жеңілдетілген болып саналады, себебі нақты тілдерде аспектуалдылық пен модальдылықтың әртүрлі реңктерін қоса алғанда, уақытша мағыналардың күрделірек жүйесі бар.

Шақ категориясы аспект, модальдылық және уақыттық перспектива сияқты ұғымдармен тығыз байланысты. Мысалы, сол

әрекетті аяқталған немесе аяқталмаған, үздіксіз немесе лезде, қайталанатын немесе жекеше түрде көрсетуге болады. Осылайша, тілдегі шақ жеке-жеке өмір сүрмейді, керісінше басқа грамматикалық категориялармен өзара әрекеттесіп, күрделі жүйені құрайды. Тілдегі шақ категориясының қызметтері алуан түрлі. Ол мыналарға мүмкіндік береді: іс-әрекеттердің хронологиялық тәртібін көрсететін тізбекті белгілеу; әрекеттің уақыт бойынша ұзақтығын көрсете отырып, процестердің ұзақтығын білдіру; іс-әрекеттің аяқталғанын немесе аяқталмағанын жеткізу; оқиғалардың тұрақтылығын немесе қайталануын көрсету үшін; мәлімдеме үшін уақыттық перспективаны қалыптастыру. Сонымен қатар, уақыт категориясы адамның танымдық қызметінде маңызды рөл атқарады, себебі ол уақытты объективті шындық ретінде қабылдаумен және түсінумен байланысты [1].

Тіл адамдардың уақыттық қатынастарды құруына және оларды қарым-қатынаста білдіруіне арналған құрал ретінде қызмет етеді. Шақ категориялары әр түрлі тілдерде грамматикалық көріністің әртүрлі дәрежеде болуы мүмкін. Мысалы, аналитикалық тілдерде шақ мағыналары көбінесе көмекші сөздер мен контекст арқылы беріледі, ал синтетикалық және жалғамалы тілдерде олар аффикстер мен флексиялар арқылы беріледі. Қазақ және корей тілдерінде шақ негізінен етістіктің түбіріне жалғанған қосымшалар жүйесі арқылы көрінеді. Әрбір қосымшаның айқын мағынасы бар және белгілі бір грамматикалық қызмет атқарады, бұл шақ жүйесін өте айқын және логикалық етеді. Уақытша қатынастар тілде әрекеттің сәтін, ұзақтығын, тізбегін және сипатын дәл жеткізуге мүмкіндік беретін әртүрлі тілдік құралдар арқылы көрінеді. Лингвистикада уақытты білдіретін құралдардың екі негізгі түрін ажырату жиі кездеседі: грамматикалық және лексикалық. Дегенмен, нақты тілдік тәжірибеде олар оқшауланбай, керісінше тығыз өзара әрекеттесіп, уақытша бейнелеудің күрделі жүйесін құрайды. Грамматикалық құралдар көптеген тілдерде уақыттық мағыналарды білдірудің негізгі құралы болып табылады. Олар морфологиялық және синтаксистік механизмдер, ең алдымен етістік жүйесі арқылы жүзеге асырылады. Етістік формалары тілдің шақ жүйесінің орталық элементі болып табылады. Іс-әрекеттің уақытша байланысы етістік формасының өзгеруі арқылы көрінеді. Мысалы, әртүрлі тілдерде бірдей етістік түбірі өткен, осы немесе келер шақты білдіретін әртүрлі формада болуы мүмкін.

Қазақ және корей тілдері сияқты жалғамалы тілдерде жұрнақтар ерекше маңызды. Олар етістіктің түбіріне жалғанады және әртүрлі грамматикалық мағыналарды үнемі білдіреді. Әрбір жұрнақтың әдетте бір анық анықталған мағынасы болады, бұл сөз құрылымының айқындығын қамтамасыз етеді. Мысалы, бір жұрнақ өткен шақты, екіншісі іс-әрекеттің ұзақтығын, ал үшіншісі модальділікті білдіруі мүмкін. Қосымшалар, әсіресе флексиялық жүйесі дамыған тілдерде маңызды рөл атқарады. Олар тек шақтарды ғана емес, сонымен қатар тұлғаны, санды және райды да білдіре алады, бұл шақтарды кеңірек грамматикалық жүйенің бір бөлігі етеді [2].

Бірқатар тілдер көмекші етістіктерді қамтитын аналитикалық конструкцияларды кеңінен қолданады. Бұл конструкциялар әрекеттің ұзақтығы, аяқталуы немесе күтілуі сияқты күрделі уақыттық мағыналарды білдіруге мүмкіндік береді. Мысалы, 먹고 있다 — «жеп жатыр» (әрекет процесі) 먹었다 — «жеді» (өткен шақ, аяқталған әрекет) 먹을 것이다 — «жейтін болады» (келер шақ) сияқты формаларды уақыттық сипаттамаларды көрсететін мысалдармен толықтыруға болады [3].

Грамматикалық құралдар тілдің уақытша құрылымының негізін құрайтын уақытша мағыналардың жүйелі және тұрақты түрде көрініс табуын қамтамасыз етеді. Құралдар грамматикалық құралдарды толықтырады және іс-әрекеттің уақыттық сипаттамаларын нақтылауға немесе нақтылауға мүмкіндік береді. Олар әсіресе грамматикалық форма уақыт туралы толық ақпарат бермеген жағдайларда маңызды. Лексикалық құралдарға мыналар жатады: уақыт үстеулері, сандар, уақытша сөз тіркестері мен құрылымдар, уақыттың контекстік белгілері. Ең көп таралған топ – «кеше», «бүгін», «ертең», «қазір», «сол кезде», «ерте» және «кеш» сияқты уақыт үстеулері. Олар іс-әрекеттің уақыттық орнын тікелей көрсетеді және оларды жеке немесе етістік формаларымен бірге қолдануға болады. Сан есімдер нақты уақыт кезеңдерін белгілеу үшін қолданылады: «екі күн», «үш жыл», «бес минут». Олар уақыттың сандық сипаттамаларын білдіруге мүмкіндік береді, бұл әсіресе әрекеттің ұзақтығын немесе уақыт аралығын сипаттаған кезде маңызды.

Сөз тіркестерін қоса алғанда, уақытша құрылымдар ерекше рөл атқарады, мысалы, «бір апта ішінде», «бір ай ішінде», «кешке дейін» және «кешкі астан кейін». Мұндай құрылымдар бізге іс-әрекеттің басталуын, аяқталуын және шегін қоса алғанда, күрделі

уақытша қатынастарды жеткізуге мүмкіндік береді. Сонымен қатар, контекст маңызды фактор болып табылады, себебі ол сөйлемнің шағын нақтылай алады немесе өзгерте алады. Кейбір жағдайларда, әсіресе грамматикалық форма нақты нұсқаулар бермесе, контекст іс-әрекеттің қай шақта түсіндірілуі керектігін анықтайды.

Грамматикалық және лексикалық құралдардың жеке-жеке жұмыс істемейтінін атап өткен жөн. Нақты сөйлеуде олар бір-бірін толықтырып, шақ мағыналарының дәлірек жеткізілуін қамтамасыз ете отырып, тығыз әрекеттеседі. Мысалы, етістік формасы өткен шақты көрсете алады, ал үстеу оны анықтай алады: «Мен кеше келдім», «Мен оны көптен бері көрдім», «Мен қазір оқып жатырмын». Бұл тіркесім екіұштылықты болдырмайды және мәлімдемені ақпараттық етеді. Жалғамалы тілдерде, соның ішінде қазақ және корей тілдерінде, бұл өзара әрекеттесу ерекше маңызды, себебі грамматикалық формалар көбінесе жалпы уақыттық мағыналарды білдіреді, ал лексикалық құралдар олардың нақтылануын білдіреді. Грамматикалық құралдар уақыттық мағыналардың құрылымдық негізін қамтамасыз етеді, ал лексикалық құралдар іс-әрекеттің уақыттық параметрлерін нақтылауға және нақтылауға мүмкіндік береді. Корей тілі жалғмалы тіл болып табылады және негізінен етістік жалғаулары мен көмекші элементтер арқылы жүзеге асырылатын шақтарды білдірудің грамматикалық құралдарының дамыған жүйесіне ие. Көптеген еуропалық тілдерден айырмашылығы, корей шақ жүйесі іс-әрекет, модальділік және сыпайылық аспектісімен тығыз байланысты, бұл оны күрделірек және көп қабатты етеді. Корей тілінде уақытты білдірудің негізгі құралы - етістік формаларын арнайы қосымшалар мен жалғауларды пайдаланып түрлендіру. Уақыттық мағыналар көбінесе формальды түрде ғана емес, сонымен қатар контекстік тұрғыдан да берілетінін ескеру маңызды [3, б. 145-147].

Корей тілінде өткен шақ 았- / -었- / -였 жұрнақтары арқылы жасалады, олар етістіктің түбіріне қосылады. Белгілі бір нұсқаны таңдау етістік түбіріндегі дауысты дыбысқа байланысты: -았- дауысты дыбыстардан кейін қолданылады ㅏ, ㅗ, -었- басқа дауысты дыбыстардан кейін, -였- — етістіктер жағдайында 하다 қолданылады.

Мысалы: 먹다→먹었다 - *жеді*; 가다→갔다 – *барды;* 공부하다→공부했다 – *оқыды;*

하루 종일 도서관에서 공부했어요 - *Күні бойы кітапханада сабақ оқыдым.*

Корей тілінде өткен шақ аяқталған әрекетті, нақты уақытын көрсетпей өткен шақта болған әрекетті, тәжірибені (басқа құрылымдармен бірге) білдіреді.

Корей тілінде тиімділікті білдіретін конструкциялар да бар, мысалы:

먹어 있다 - *жеп қойған күйде* (іс-әрекет нәтижесінде).

Корей тіліндегі осы шақ бірнеше жолмен айтылады, бұл жай және үздіксіз қимылдың айырмашылығымен байланысты:

Жай осы шақ: аяқталуын пайдаланып қалыптасады -는다/ -ㄴ다

Мысалы: 먹는다 – *жейді;* 지금 대학교에 가요 – *Қазір мектепке бара жатырмын.*

Бұл форма тұрақты әрекеттерді сипаттау үшін қолданылады және ғылыми стильде, әңгімеде пайдаланады. Осы үздіксіз шақ конструкциясын пайдаланып 고 있다 өрнектеледі

Мысалы: 먹고 있다 – *тамақтанып жатыр (қазіргі уақытта;)*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 *корей тілін оқып отырмын;*

Бұл форма мыналарды көрсетеді: іс-қимыл процесі, ұзақтығы, сөйлеу сәтіндегі өзектілік. Осылайша корей тілінде жалпыланған әрекет және қазір болып жатқан әрекет арасында айқын айырмашылық бар

Келер шақ сенімділік, ниет немесе болжам дәрежесіне байланысты бірнеше жолмен айтылады. Жұрнақ -겠다 ниетін немесе ұсынысын білдіреді. Қазақ тіліндегі келер шаққа сәйкес келеді.

Мысалы: 먹겠다 – *Мен жеймін / Мен, бәлкім, жеймін.*

Бұл форма сонымен қатар мыналарды білдіруі мүмкін: ерік білдіру, болжам, субъективті бағалау. (으)ㄹ 것이다 Мағынасы: бейтарап келер шақты білдіреді (жазбаша, ресми стиль) Қолданылуы: болжамды немесе жоспарланған келер әрекетті көрсетеді.

Мысалы: 먹을 것이다 – *жейтін болады/жейді* (ресми, бейтарап форма)

-(으)ㄹ게 Мағынасы: ауызекі сөйлеуде қолданылады, сөйлеушінің шешімі, уәде немесе ниетін білдіреді. Ерекшелігі:

тыңдаушыға бағытталған, ситуацияға байланысты “енді жасаймын” деген мағына береді.

Мысалы: 먹을게요 – *жеймін (енді шештім / уәде етемін / сен үшін жасаймын)* сөйлеушінің ниетін білдіреді.

Мысалы: 먹을게요 – *Мен жеймін.* 내일 일찍 올게요 – *Ертең ерте келемін,*

Грамматикалық формалардан басқа, корей тілінде іс-әрекеттің уақыттық сипаттамаларын нақтылайтын лексикалық құралдар кеңінен қолданылады. Оларға мыналар жатады:

1) уақыт үстеулері: 오늘 - бүгін, 어제 - кеше, 내일 - ертең, 지금 - қазір, 나중에 - кейінірек;

2) сандар және уақыт аралықтары: 하루 - бір күні, 일주일 - апта, 한 달 - ай;

3) уақытша құрылымдар: 어제 갔다 - кеше бардым, 내일 만날 것이다 - ертең кездесемін [4-5].

Лексикалық құралдар маңызды рөл атқарады, себебі етістіктің грамматикалық формасы контекстсіз шақтарын әрқашан дәл көрсете бермейді, сонымен қатар адамға бағдарланған технологиялардың даму бағытын анықтау арқылы да қалыптастыра алады.

Корей және қазақ тілдерінің салыстырмалы талдауы географиялық және мәдени қашықтыққа қарамастан бұл тілдердің уақыттық мағыналарды білдіру жүйелерінде бірқатар маңызды ұқсастықтар бар екенін көрсетеді. Бұл ұқсастықтар олардың морфологиялық жүйесі мен грамматикалық құрылымның ортақ принциптерін анықтайтын агглютинативті тілдер тобына жататындығынан туындайды. Негізгі ортақ белгілерге агглютинативті құрылым, жұрнақтардың қолданылуы және уақытты білдірудің лексикалық құралдарының болуы жатады, бірақ бұл ерекшеліктер тілдік жүйенің әртүрлі деңгейлерінде көрінеді.

Корей және қазақ тілдерінің негізгі ортақ белгілерінің бірі - олардың жалғамалы тіл сипаты, мұнда сөздер түбірге қосымшаларды бірінен соң бірі жалғау арқылы жасалады. Екі тілде де сөздің түбірі салыстырмалы түрде өзгеріссіз қалады; грамматикалық мағыналар қосымшалар қосу арқылы білдіріледі; әрбір морфеманың айқын және бірмәнді мағынасы бар; сөз құрылымы сызықтық және мөлдір. Бұл әсіресе мезгілдік мағыналарды білдіру кезінде маңызды, себебі етістіктің шақтары арнайы жұрнақтар қосу арқылы жасалады. Мысалы, корей және

қазақ тілдерінде шақ өзгерістері сөздің түбірін өзгертуді қажет етпейді, керісінше тиісті морфемаларды қосу арқылы жүзеге асырылады.

Жалғамалы құрылым мыналарды қамтамасыз етеді: сөз формаларының логикалық құрылысы; грамматикалық өзгерістердің болжамдылығы; тілді талдау мен зерттеудің ыңғайлылығы. Тағы бір маңызды ортақ ерекшелік - уақыттық мағыналарды білдіру үшін жұрнақтардың белсенді қолданылуы.

Корей және қазақ тілдерінде уақыт мағыналары арнайы қосымшалар арқылы беріледі; әрбір жұрнақ бір функцияны орындайды (мысалы, уақытты немесе аспектіні білдіреді); жұрнақтар қатаң белгіленген тәртіппен қосылады; бір сөз түрінде бірнеше жұрнақтарды біріктіруге болады. Мысалы, екі тілде де бір жұрнақ өткен шақты білдіре алады; екіншісі – әрекет ету ұзақтығы; үшіншісі – сөйлеушінің іс-әрекетке көзқарасы. Бұл жүйе бізге тек іс-әрекет сәтін ғана емес, сонымен қатар оның сипатын, аяқталуын және модальдылығын да жеткізетін күрделі шақ формаларын жасауға мүмкіндік береді. Сонымен қатар, жұрнақтарды қолдану тілдерді икемді және өнімді етеді, себебі қолданыстағы модельдер негізінде жаңа формалар қалыптасуы мүмкін. Екі тілде де лексикалық құралдар, ең алдымен, мезгілдік мағыналарды нақтылайтын немесе нақтылайтын мезгілдік үстеулер маңызды рөл атқарады.

Корей және қазақ тілдеріндегі уақыт тіркестерінің салыстырмалы талдауының нәтижелері айтарлықтай практикалық маңызға ие және ғылыми және қолданбалы зерттеулердің әртүрлі салаларында қолданылуы мүмкін. Салыстырмалы талдау мыналарға мүмкіндік береді: оқу процесін жеңілдететін тілдер арасындағы ұқсастықтар мен айырмашылықтарды анықтау; оқу материалдарын әзірлеу кезінде тілдердің типологиялық ерекшеліктерін ескеру; оқушылардың жиі жіберетін қателіктерінің алдын алу; грамматикалық категорияларды тереңірек түсінуді дамыту. Мысалы, корей тілін қазақ тілінде сөйлейтіндерге үйреткен кезде, жалғамалы құрылымдардың ұқсастығын пайдалануға болады, бұл сөзжасам принциптерін тезірек меңгеруге ықпал етеді [6-7].

Мақала барысы корей және қазақ тілдеріндегі уақыттық қатынастарды білдіру құралдарының салыстырмалы талдауына арналды. Талдау нәтижесінде корей және қазақ тілдерінің жалғамалы тілдер тобына жататыны және уақыттық мағыналарды

негізінен жұрнақтар арқылы білдіретіні нақтыланды. Сонымен қатар, корей және қазақ тілдерінде уақытты нақтылауда лексикалық құралдар, әсіресе уақыт үстеулері маңызды рөл атқарады. Талдау нәтижесінде корей және қазақ тілдерінің уақыт категориясын білдіру жүйесінде бірқатар ұқсастықтар бар екені байқалды. Олардың қатарында жалғамалы құрылым, грамматикалық формалардың жұрнақтар арқылы жасалуы және контекстке сүйену ерекшелігі жатады. Бұл ұқсастықтар тілдердің типологиялық жақындығын көрсетеді. Сонымен бірге, екі тіл арасында айтарлықтай айырмашылықтар да бар. Корей тілі уақыттық мағыналарды білдіруде аналитикалық құрылымдарды жиі қолданса, қазақ тілі синтетикалық сипатымен ерекшеленеді. Жалпы алғанда, бұл зерттеу корей және қазақ тілдеріндегі уақыттық қатынастар жүйесін тереңірек түсінуге мүмкіндік береді және тілдердің типологиялық ерекшеліктерін салыстырмалы түрде қарастырудың маңыздылығын көрсетеді.

Пайдаланылған әдебиеттер тізімі:

1. Аханов К. Тіл біліміне кіріспе. Алматы: Өлке, 2010. 560 б.
2. Балақаев М. Қазақ әдеби тілі. Алматы: Дайк Пресс, 2007. 470 б.
3. Кристал Д. Лингвистика. Москва: АСТ, 2001. 450 с.
4. 카자흐어 – 한국어 문법 자료집: оқу құралы / А. М. Амангелді, Ли Сунг Сук. Алматы: Абылай хан атындағы Каз ХҚ және ӘТУ Корейтану орталығы, 2020. https://canks.asia/ (дата обращения: [укажите дату]).
5. Автор Korean Simple. Все времена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прошедшее, настоящее, будущее. Koreansimple.ru. https://koreansimple.ru/blog/prokachat-yazik/3vremeni (дата обращения: [укажите дату]).
6. Lee I., Ramsey S. The Korean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303 p.
7. Жұмағұлова А. Қазақ морфологиясы. Алматы: Қазақ университеті, 2012. 160 б.

중앙유라시아 한국학회의 필요성

장호종
카자흐 아블라이 한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학교
카자흐스탄 알마티

개요: 본 논문은 중앙유라시아 지역(중앙아시아 5 개국, 캅카스 3 개국, 튀르키예)의 한국학 현황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이들 지역을 아우르는 초국가적 학술 플랫폼으로서 '중앙유라시아 한국학회' 창립의 필연성과 구조적 필요성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역사적으로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의 한국어 교육은 고려인 디아스포라 중심의 민족어 교육에서 출발하여, 1990 년대 구소련 해체 및 독립 이후 정규 학위 과정으로 발전해 왔다. 한국 유관 기관(KF, AKS, 세종학당재단 등)의 지원에 힘입어 양적 팽창을 이룩했으나, 현재 이 지역의 한국학은 대학 간 연구 자원 공유 미흡, 대도시 편중 현상, 신진 학자 양성 체계 부재, 디지털 정보 격차라는 심각한 구조적 한계에 봉착해 있다. 기존의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수협의회'는 지난 10 여 년간 정기 학술대회와 올림피아드 등을 통해 역내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해 왔으나, 개별 국가 및 대학 단위로 분산된 한국학 인프라를 통합하고 캅카스 및 튀르키예 지역까지 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초국적 시대의 도래에 발맞추어 지식 공유의 허브를 조성하고, 현지 맞춤형 지역화 및 차세대 문화중개자를 양성하기 위해 중앙유라시아 전역을 결속하는 '중앙유라시아 한국학회'의 설립이 강력히 요구된다.
주제어: 중앙유라시아, 한국학,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수협의회, 중앙유라시아 한국학회, 지역화, 문화중개, 초국적 시대

Title: The Necessity of the Central Eurasian Association for Korean Studies
Author: Jang Hojong, Kazakh Ablai Khan University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World Languages, Almaty, Kazakhstan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he current status of Korean Studies in the Central Eurasian region—encompassing five Central Asian countries, three Caucasus countries, and Turkiye—and examines the structural necessity and inevitability of establishing the 'Central Eurasian Association for Korean Studies' as a transnational academic platform. Historically,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Central Asia, particularly in Kazakhstan, initiated from ethnic language education centered on the Koryo-saram diaspora and advanced into formal degree programs following the dissolution of the Soviet Union and national independence in the 1990s. Despite achieving quantitative expansion backed by support from Korean affiliated institutions (such as KF, AKS, and the King Sejong Institute Foundation), Korean Studies in this region currently faces critical structural limitations, including insufficient sharing of research resources among universities, heavy concentration in major cities, the absence of a systematic nurturing pipeline for next-generation scholars, and digital divides. While the existing 'Central Asian Association for Korean Studies Professors' has contributed to building regional networks through regular academic conferences and Olympiads over the past decade, limitations remain in integrating fragmented infrastructures across individual nations and extending solidarity to the Caucasus and Turkiye regions. Therefore, in line with the arrival of the

transnational era, the establishment of the 'Central Eurasian Association for Korean Studies' is imperatively required to foster a hub for knowledge sharing, achieve localized adaptation, and cultivate next-generation cultural intermediaries.
Keywords: Central Eurasia, Korean Studies, Central Asian Association for Korean Studies Professors, Central Eurasian Association for Korean Studies, Localization, Cultural Mediation, Transnational Era

1. 서론

중앙유라시아 지역은 과거 실크로드의 중심지이자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혼종된 대표적인 초국적 지대이다. 이 지역은 대부분 소련의 해체 이후 각국이 독립을 맞이하면서 심대한 지형 변화를 겪었으며, 한국학 교육 및 연구 역시 이러한 역사적 흐름과 궤를 같이한다.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초기 한국어 교육은 주로 고려인 디아스포라 집단을 대상으로 한 민족어 교육의 범주에 머물러 있었으며, 국가 차원의 공교육 체계에 정식 편입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1990 년대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독립은 한국학의 지형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독립 이후 여러 대학에서 한국어 및 한국학 관련 정규 학위 과정과 교과목이 경쟁적으로 개설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KF), 한국학중앙연구원(AKS), 재외동포청,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한국 유관 기관의 다각적인 인적·물적 지원이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비약적인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앙유라시아 지역의 한국학은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구조적 한계와 마주하고 있다.

첫째, 넓은 영토와 지리적 분산으로 인해 개별 대학 간의 교육·연구 자원 공유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둘째, 해외한국학 지원 사업이 알마티나 아스타나 등 일부 대도시 거점 대학에만 집중되어 지역 간 역량 불균형과 양극화가 고착화되었다.

셋째, 한국에서 파견된 단기 교원이나 현지 체류 한국인 학자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자생적인 현지인 전임 교원 및 신진 연구자 양성 체계가 부재하다.

넷째, 국가 간·지역 간 디지털 정보 격차와 원격 교육 인프라의 제약으로 인해 효율적인 공동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현재 중앙유라시아 지역은 러시아의 영향력 약화, 중국의 일대일로 확장, 튀르키예의 부상 등으로 인해 외교 노선이 다변화되고 있으며, 영토 및 물 자원 갈등으로 인해 역내 통합보다는 개별 국가 중심의 생존 전략이 우선시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로 인해 한국학 역시 국가별, 도시별,

대학별로 고립되어 분산되어 있으며, 이를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초국가적 연구 플랫폼이 부재한 실정이다.

기존에 활동해 온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수협의회는 중앙아시아 지역 내 교원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과 학술대회 개최 등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중앙아시아 5 개국을 넘어 캅카스 3 개국(조지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과 튀르키예까지 아우르는 거대 지역적 관점의 학술 연대를 구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영미권이나 동아시아 중심의 한국학 패러다임에서 탈피하여 한국학의 외연을 확장하고 학문의 다원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실크로드, 유목 문화, 디아스포라 등의 공통적 요소를 공유하는 중앙유라시아 전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학술 조직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은 중앙아시아 한국학의 구조적 현황과 한계를 짚어보고,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수협의회의 활동 성과를 검토함으로써, 초국적 시대의 연대와 지역화, 그리고 문화중개를 실현하기 위한 중앙유라시아 한국학회 창립의 필요성을 논증하고자 한다.

2. 중앙유라시아 한국학의 현황

2.1. 카자흐스탄 한국학 대학의 분포와 구조적 특징

KF 통계센터와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수협의회가 실시한 2026 년 현지 조사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내에서 한국 관련 학위를 제공하거나 한국어·한국학 강좌를 운영 중인 대학은 총 28 개교에 이른다. 이는 우즈베키스탄(34 개교)에 이어 중앙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이다. 카자흐스탄 내 한국학 운영 대학의 세부 분포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알마티(13 개교): 국제아이티(IT)대학교, 알마티경영대학교, 알마티경제칼리지, 카자흐 국립 아바이 사범대, 카자흐스탄-브리티시공과대학교, 카자흐스탄국립대학교, 아블라이한대학교, 카자흐국립교사양성여자대학교, 키맵대학교, 사트바예프대학교, 아블라이한 언어대학교, 아블라이한 외국어교육대 (SDU 대학교는 알마티 인근 카스켈렌에 위치)
- 아스타나(5 개교): 나자르바예프 대학교, 유라시아국립대학교, 아스타나 IT 대학교, 막수트 나리크바예프대학교, 카자흐스탄 국제 칼리지
- 지방 도시(10 개교): 아만졸로프대학교(오스케멘), 제트수대학교(탈디쿠르간), 카라간다 부케토프대학교(카라간다), 카자흐스탄-러시아국제대학교(악토베), 코르키트아타 크질오르다대학교(크질오르다), 셰르한 무르타자 대학교(타라즈), 타라즈주립대학교(타라즈), 샤카림대학교(세메이), 아우에조프대학교(심켄트), 아흐메트 바이투르시눌리 코스타나이지역대학교(코코스타나이).

카자흐스탄 한국학의 지리적 특징은 정치, 경제, 교육의 중심지인 알마티와 아스타나에 전체 대학의 과반수 이상이 몰려 있는 고밀도 집중 현상이다. 이는 한국계 기업의 진출과 유학 수요가 대도시에 집중되는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다. 반면 고려인 집성촌이 있거나 역사적 의미를 지닌 지방 도시들로도 한국학 강좌가 점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이들 간의 인프라 격차는 매우 심각하다. 현재 정식 한국학센터를 운영하며 외부 지원 사업을 유치하는 거점 대학은 나자르바예프대학교, 카자흐스탄국립대학교, 아블라이한대학교, SDU 대학교 등 4 개교에 불과하며, 대다수 지방 대학들은 독자적인 센터나 인프라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2.2. 한국 유관 기관의 지원 현황 및 한계

카자흐스탄 한국학은 한국 정부 및 유관 기관의 지원 사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KF 코리아코너의 경우 나자르바예프대, 막수트 나리크바예프대, 코르키트아타 크질오르다대, 아블라이한대(구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아스타나 IT 대 등 5 개교에 설치되어 공공외교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ICT 기반의 KF 글로벌 e-스쿨 사업을 통해 카자흐국립아바이사범대(호남대 연계), 카자흐스탄국립대(숙명여대 연계), 아블라이한대(숙명여대 연계), SDU 대(숙명여대 연계), 코르키트아타 크질오르다대(계명대 연계) 등이 전문 강의를 수급받아 심화 강좌 공백을 보완하고 있다.

실무 한국어 보급을 위한 세종학당은 아우에조프대(심켄트-상명대 연계)와 아흐메트 바이투르시눌리 코스타나이지역대(코스타나이-동의대 연계) 등 2 개교에 설치되어 있으나, 인접국인 우즈베키스탄(6 개교)이나 키르기스스탄(4 개교)에 비해 대학 내 설치가 현저히 부족한 편이다.

학술 연구를 지원하는 한국학중앙연구원(AKS)의 해외한국학 지원 사업 현황을 보면 역량의 편중이 더욱 명백히 드러난다. 나자르바예프대가 씨앗형 사업을 수행했고, 카자흐스탄국립대가 1 차, 2 차 씨앗형 사업을 유치했으며, 아블라이한대학교가 중앙아시아 최초이자 유일하게 중핵대학 육성사업에 1 차, 2 차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거점 대학을 제외한 유라시아국립대나 카자흐국립아바이사범대 등은 동양학과 내 전공 수준에 머물며 2-4 명의 교원이 40-50 명의 학생을 가르치는 데 그치고 있고, 지방의 아만졸로프대나 코르키트아타 크질오르다대 등은 1-2 명의 교원이 제 2 외국어 강의 전체를 전담하여 학문적 기반을 닦을 여력이 없다. 10 여 개 이상의 기타 지방 대학들은 한국인 파견 교원의 유무에 따라 강좌가 임시로 개설되었다가 폐지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2.3. 중앙유라시아 타 지역의 한국학 실태

중앙아시아 5 개국과 캅카스 3 개국, 튀르키예를 포함하는 중앙유라시아 전역의 한국학 현황은 국가별로 매우 파편화되어 있다.

-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국립동방대, 우즈베크 국립외대, 기묘대 등 20 여 개 대학에서 한국학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지 맞춤형 교재 개발과 대학원 교육 내실화가 시급한 과제이다.
- 키르기스스탄: 중앙아시아 한국대, 비슈케크 국립대 등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학원 석사과정 개설 및 교수요원 확보, 지방대학 여건 개선이 당면 과제이다.
- 타지키스탄: 타지크 국립외대에서 한국어 교육이 지속되고 있으나, 본격적인 한국학으로의 전환을 위한 교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투르크메니스탄: 투르크멘 국립아자디세계언어대에서 세종학당을 통해 한국어 교육이 확대 중이나, 정식 한국학과 설립과 교원 양성이 시급하다.
- 조지아: 트빌리시 자유대, 일리아 국립대에 한국학이 개설되어 점진적 확대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 아제르바이잔: 아제르바이잔 언어대, 바쿠 국립대 등에 관련 학과가 있으나 한국어 통번역 중심의 어학 교육에 머물러 있어 전공 확대가 필요하다.
- 아르메니아: 예레반 국립대, 브류소프 국립대에서 한국어 교육과 통번역 전공이 운영되나 교재 및 교수 인력 양성이 미흡하다.
- 튀르키예: 앙카라대, 이스탄불대, 에르지예스대 등에 한국학 학과가 수립되어 한국 기업 진출과 연계해 성장 중이나, 커리큘럼 확장과 현지 연구자 양성 과제를 안고 있다.

현재 AKS 해외한국학 지원 사업은 중앙유라시아 9 개국 중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튀르키예 3 개국에 집중되어 있다. 총 17 건의 사업 중 씨앗형 사업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은 대다수 국가가 여전히 기초 토양을 다지는 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르메니아는 지원 사업이 전무하며, 키르기스스탄, 조지아, 아제르바이잔은 단 1 개 대학에서만 씨앗형 사업을 수행하여 국가 전체로의 확산성이 매우 낮다. 이러한 국가 간 지원의 단절과 인프라 격차는 중앙유라시아 전체를 아우르는 초국가적 네트워크 및 공동 연구 플랫폼의 구축을 강력히 요청하는 배경이 된다

3.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수협의회의 활동과 한계

중앙아시아 지역의 한국학 네트워크 파편화를 극복하기 위한 자생적 노력의 일환으로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수협의회(중앙아 한교협)가 결성되어 활동해 왔다. 중앙아 한교협은 현지 거점 대학인 아블라이한대학교 한국학센터 및 역내 주요 대학들과 공동으로 연례 학술대회를 개최하며 중앙아시아 한국학의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해 왔다.

최근 5 년간의 주요 활동 업적은 다음과 같다.

- 2021 년 12 월 제 9 회 중앙아시아 한국학학술대회: 중앙아 한교협이 주최하고 중앙아시아 한국대와 아블라이한대 한국학센터가 공동 주관하였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4 개국 8 개 도시 20 개 대학 및 기관에서 100 명의 한국학 교원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참석하여 연구 성과를 공유하였다.
- 2022 년 1 월 공용 온라인 채널 개설: 교수협의회 공용 유튜브 채널과 인스타그램을 개설하여 역내 한국학 교육 자료의 디지털화 및 소통 네트워크를 온라인 공간으로 확장하였다.
- 2022 년 6 월 제 10 회 중앙아시아 한국학학술대회: 한-중앙아 수교 30 주년 및 타슈켄트 국립동방대 한국학 30 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되었다. 중앙아 한교협 주최하에 타슈켄트 국립동방대, 중앙아시아 한국대, 아블라이한대 한국학센터가 공동 주관하였으며,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러시아, 불가리아, 한국 등 7 개국 14 개 도시 27 개 대학·기관에서 130 명의 관계자가 대거 참석하였다.
- 2023 년 6 월 제 11 회 중앙아시아 한국학학술대회: 중앙아 한교협 주최로 나자르바예프대, 중앙아시아 한국대, 아블라이한대 한국학센터가 공동 주관하였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튀르키예, 러시아, 한국 등 7 개국 12 개 도시 25 개 대학·기관에서 75 명의 교원 및 관계자, 대학원생들이 참석하였다.
- 2024 년 6 월 제 12 회 중앙아시아 한국학학술대회: 중앙아 한교협 창립 10 주년 및 카자흐국립대 한국학 30 주년을 기념하여 열렸다. 카자흐국립대 극동학과, 중앙아시아 한국대, 아블라이한대 한국학센터가 공동 주관하였으며,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튀르키예, 러시아, 한국 6 개국 15 개 도시 25 개 대학에서 140 명이 참석하여 역내 학술 협력을 다졌다.
- 2025 년 6 월 제 13 회 중앙아시아 한국학학술대회: 중앙아 한교협 주최, 중앙아시아 한국대 및 아블라이한대 한국학센터 공동 주관으로 개최되었으며, 참여 범위가 더욱 확대되어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튀르키예, 한국 7 개국 17 개 도시 37 개 대학 및 기관에서 총 175 명의 한국학 교원, 관계자, 학생들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이처럼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수협의회는 2013 년 제 1 회 중앙아시아 한국학학술대회를 개최한 이후 중앙아시아 내 주요 대학(타슈켄트 국립동방대, 카자흐국립대, 아블라이한대 등)뿐만 아니라 튀르키예 에르지예스대, 아제르바이잔 언어대, 조지아 일리아 국립대 등 인근 지역의 대학 및 러시아대학 한국어교사협회 관계자들까지 초청하며 점진적으로 학술 교류의 외연을 넓혀왔다. 또한 국립국어원 K-티처프로그램사업단 등과 협력하여 교원 재교육 과정의 공동 협력 체계를 논의하는 등 질적 고도화를 위해서도 노력하였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행 교수협의회 체제는 한국어 교원 간의 느슨한 협의체라는 성격상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첫째, 재정적·제도적 기반이 취약하여 역내 한국학 교육과정을 표준화하거나 공동 교재를 개발·배포하는 등 법적·행정적 권한을 행사하기 어렵다.

둘째, 중앙아시아 5 개국에 활동의 중심축이 고정되어 있어, 역사적·문화적 연결성을 공유하는 캅카스 3 개국과 튀르키예 지역의 한국학 인프라를 상시적으로 유기 통합하기에는 조직의 외연과 구심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기존 중앙아 한교협이 다져놓은 네트워크 자산을 계승하되, 이를 더욱 공고하고 지속 가능한 초국가적 학술 공공체인 중앙유라시아 한국학회로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4. 결론

중앙유라시아 지역의 한국학은 고려인 디아스포라의 역사적 유산과 한류(K-Culture)의 인기를 기반으로 양적인 팽창을 이루었으나, 지역내 인프라의 극심한 불균형과 자생적 발전 체계의 미비로 인해 중요한 전환기에 서 있다. 단발성 외부 재정 지원이나 개별 대학 단위의 소규모 프로젝트성 사업에만 의존하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학문적 자립성과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초국적 시대에 부합하는 학문적 다원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중앙유라시아 한국학회의 창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중앙유라시아 한국학회의 창립이 지니는 구체적인 필요성과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초국가적 학술 연대 및 네트워크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알마티와 아스타나, 타슈켄트, 앙카라 등 거점 대학들에 집중된 우수한 인적 자원과 학술 자료, 디지털 강의 콘텐츠를 인프라가 취약한 지방 대학 및 지원 소외국가(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르메니아 등)와 상시 공유할 수 있는 거대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학회는 국가 간 경계를 넘어 지식 공유의 허브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역내 한국학의 균형 발전을 실현할 것이다.

둘째, 자생적 신진 연구자 및 현지인 교원 양성 체계의 확립이다. 외부 파견 인력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학회 차원에서 체계적인 대학원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한다. 거점 대학원생 포럼, 대학생 및 대학원생 학술대회, 타 대학 교수 간의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 공동 지도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전문 학술지 발간을 통해 현지인 신진 학자들의 연구 촉진과 세대교체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셋째, 현지 맞춤형 지역화(Localization)와 문화중개(Cultural Mediation) 모델의 정립이다. 한국의 시각을 일방적으로 이식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유라시아의 역사적, 문화적 맥락(실크로드, 유목 문화, 디아스포라 등)과

결합된 한국학 연구 및 교육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지어로 된 한국학 교재와 총서를 공동 개발하고, 한국의 문학과 예술을 현지어로 번역·융합하는 차세대 문화중개 전문가를 육성해야 한다. 어문학에 치우친 기존 교수진 구성을 극복하고 정치, 경제, 역사 등을 포괄하는 지역학 교육과정을 표준화하는 일 역시 학회의 핵심 과제이다.

넷째, 디지털 정보 격차를 극복하는 현실적 원격 교육 인프라의 설계이다. 대역폭 제한과 잦은 접속 끊김 등 현지의 불안정한 인터넷 환경을 고려하여, 실시간 수업보다는 비동기형 학습 자료(사전 녹화 강의, 화면 녹화 기반 경량화 콘텐츠)의 생산과 공유를 장려해야 한다. 학회 산하 허브 대학들을 중심으로 클라우드 기반 학술 자료 통합 저장소를 마련하고, 오픈소스 플랫폼(유튜브 등)을 적극 활용하여 콘텐츠 생산 및 접근 장벽을 대폭 낮추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중앙유라시아 한국학회의 설립은 단순한 어학 보급 단계를 뛰어넘어, 현지 사회와의 깊은 유대를 통해 공고한 소프트파워를 형성하고 영미권 중심의 한국학에서 벗어나 학문의 다원성을 추구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시대적 과제이다. 거점 대학들이 축적한 성과와 기존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수협의회의 네트워크 자산을 통합·격상시킴으로써, 중앙유라시아 한국학은 비로소 초국적 시대의 흐름 속에서 지속 가능한 자생적 생태계를 안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장호종. 중앙아시아의 한국학 //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육 10. 제 13 회 중앙아시아 한국학학술대회 - IT 시대 신실크로드의 한국학. 비슈케크: 중앙아시아 한국대 한국학센터/카자흐 아블라이 한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 2025. 99-106.
2. 장호종.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의 한국학 - 씨앗형사업과 중핵대학 육성사업의 성과를 중심으로 // 제 12 회 중앙아시아 한국학학술대회 - 인공지능 시대 중앙아시아 한국학의 역할과 전망. 알마티: 카자흐 국립대 출판부, 2024. 27-39.
3. 장호종. 중앙아시아 한국학의 현황과 전망 // 2022 KF 글로벌 한국학포럼 - 해외 한국학 패러다임의 변화와 미래 발전방향. 한국국제교류재단, 2022. 68-178.
4. 장호종. 중앙아시아 한국어 교원 선발 및 한국어교육 현황 // IAKLE 제 32 차 국제학술대회 - 국내외 한국어 교원 양성 교육의 내용과 방법.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22. 68-72.
5. 장호종.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의 한국어교육 현황과 대외협력 방안 // 한국과 수교 30 주년 기념 신북방 지역 한국어교육의 성과와 전망. 알마티 한국교육원, 2022. 21-32.
6. 장호종. 카자흐스탄 한국학의 현황과 과제 –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의 사례를 중심으로 // 카자흐스탄 한국학 8. 알마티: 카자흐 아블라이 한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 2018. 135-145.
7. 장호종. 중앙아시아의 한국학 // 한국국제교류재단 편. 해외한국학백서. 을유문화사, 2018. 173-192.

한국어 학습자의 관용표현 학습 인식과 수업 요구

정인숙
타슈켄트 기묘국제대학교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개요: 본 연구는 한국어를 외국어로 학습하는 학습자 20 명을 대상으로 관용표현 학습과 수업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관용표현은 실제 의사소통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며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언어 요소이지만, 학습자에게는 의미 추론과 사용 맥락 판단이 요구되어 학습 부담이 큰 영역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온라인 설문(총 10 문항)을 통해 수집한 응답 중 서술형 자료를 중심으로 질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학습자들은 관용표현 학습의 필요성을 전반적으로 인정하면서도 (1) 문자적 의미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점, (2) 사용 상황에 대한 확신 부족, (3) 오용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주요 어려움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학습자들은 관용표현 수업이 단순한 뜻풀이와 암기에 그치기보다, 예문과 상황 제시를 포함한 맥락 중심 설명, 수준을 고려한 단계적 제시, 말하기·역할극 등 부담이 적은 활동을 통한 사용 기회 제공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였다. 본 연구는 관용표현 교육을 학습자 경험의 관점에서 구체화함으로써, 향후 한국어 관용표현 수업 설계와 학습자 지원 방안 마련에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주제어: 관용표현 학습, 한국어 학습자, 학습자 인식, 관용표현 수업, 질적 분석

Title: Korean Language Learners' Perceptions of Learning and Instruction of Idiomatic Expressions
Author: Jeong Insook, Kimyo International University in Tashkent, Tashkent, Uzbekistan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Korean language learners' perceptions of learning and classroom instruction related to idiomatic expressions in Korean as a Foreign Language(KFL) contexts. Although idiomatic expressions are frequently used in everyday communication and play an important role in understanding cultural meanings, they are often perceived by learners as difficult and burdensome to learn. To explore learners' perspectives, this study collected data through an online survey consisting of ten items, including Likert-scale and open-ended questions, administered to twenty Korean language learners. Qualitative analysis of the descriptive responses revealed that learners generally acknowledged the importance of learning idiomatic expressions, while simultaneously experiencing difficulties related to meaning interpretation, uncertainty about appropriate usage, and concerns about potential misuse. In addition, learners expressed clear expectations for instructional approaches that emphasize contextualized explanations, step-by-step presentation according to proficiency level, and opportunities for low-pressure practice activities. By highlighting learners' experiences and expectations, this study provides pedagogical implications for designing more effective and learner-centered instruction of Korean idiomatic expressions.
Keywords: Idiomatic Expression Learning, Korean Language Learners, Learner Perceptions, Idiomatic Expression Instruction, Qualitative Analysis

1. 서론

관용표현은 일상적인 의사소통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언어 요소로, 목표 언어의 의미 체계와 문화적 맥락을 함께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관용표현은 문자적 의미를 넘어 비유적·관습적 의미를 담고 있어, 실제 언어 사용에서 화자의 의도와 정서를 전달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점에서 관용표현은 외국어 학습자가 목표 언어를 보다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사용하는 데 필수적인 학습 요소로 논의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는 관용표현 지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교재나 수업에서 관용표현이 제한적으로 제시되거나, 필수 학습 내용이 아닌 선택적 요소로 다루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로 인해 관용표현은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과 밀접하게 관련된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수업에서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리는 경향을 보인다.

기존의 관용표현 교육 관련 연구는 주로 학습자의 이해 양상이나 교수·학습 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관용표현 학습의 필요성과 효과적인 지도 방안을 제시하는 데 기여하였으나, 실제 수업에서 관용표현 지도가 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지에 대한 교사와 학습자의 인식을 함께 분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교사의 수업 결정과 학습자의 학습 경험을 연결하여 관용표현 지도의 주변화 과정을 구조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관용표현 학습과 수업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 학습자 관점에서 관용표현 교육의 어려움과 수업 요구를 구체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이에 본 연구는 한국어를 외국어로 학습하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관용표현 학습과 수업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 관용표현 수업에 대한 학습자 요구를 구체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한국어 학습자는 관용표현 학습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둘째, 한국어 학습자는 관용표현 학습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과 부담(의미 추론, 사용 맥락 판단, 오용 우려 등)을 경험하는가?

셋째, 한국어 학습자는 관용표현 수업에서 어떤 내용과 방식(맥락 제시, 수준별·단계적 제시, 사용 기회 제공 등)을 요구하는가?

본 연구는 제한된 시간과 환경에서 학습자들의 인식과 경험을 폭넓게 수집하기 위해 온라인 설문을 활용하였다. 특히 리커트 문항을 통해 인식의 전반적 경향을 파악하고, 서술형 문항을 통해 관용표현 학습의 어려움

과 수업 요구를 구체적으로 탐색함으로써 학습자 관점의 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2. 선행연구 검토

관용표현 교육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로 관용표현의 언어적 특성과 교육적 필요성을 밝히거나,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제안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다. 다수의 연구에서는 관용표현이 어휘력 확장과 담화 이해, 실제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단계적 지도나 맥락 중심 접근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Cooper, 1999; Boers, 2000; Liontas, 2015). 이러한 연구들은 관용표현이 단순한 어휘 단위가 아니라 관습적 의미와 문화적 함의를 포함하는 표현이라는 점에서 외국어 학습자에게 중요한 학습 대상임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도 관용표현 교육의 필요성과 지도 방안을 다룬 연구들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일부 연구는 한국어 관용표현의 유형과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교육 내용으로 어떻게 제시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전혜영, 2001). 또 다른 연구들은 교재 분석을 통해 한국어 교재에서 관용표현이 제한적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체계적인 지도보다는 부수적인 설명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였다(김선정·강현자, 2006; 공하림·손혜진, 2020). 이러한 연구들은 관용표현 교육의 현실적 한계를 드러내는 데 기여하였으나, 그 원인을 교사의 수업 인식이나 학습자의 학습 경험과 직접적으로 연결하여 분석하는 데에는 상대적으로 한계가 있었다.

한편, 교사 인식 연구는 교사의 신념, 지식, 경험이 수업 내용 선택과 교수 실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혀 왔다(Borg, 2003; Borg, 2006). 교사 인식은 특정 학습 내용이 수업에서 강조되거나 배제되는 과정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개념으로 논의되며, 교사의 수업 결정이 개인적 선호를 넘어 제도적·맥락적 조건과 상호작용하며 형성된다는 점이 강조되어 왔다. 이러한 관점은 관용표현 지도가 수업에서 주변화되는 현상을 분석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

최근에는 학습자 인식을 중심으로 외국어 학습 경험을 분석하려는 연구들도 증가하고 있다. 학습자 인식은 학습 동기, 학습 전략, 학습 내용에 대한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실제 수업 경험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Farrell, 2015). 그러나 관용표현 교육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관점에서 관용표현 학습 경험과 수업 요구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한 연구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으며, 학습자가 느끼는 어려움과 부담, 사용 회피 요인, 그리고 수업에서 기대하는 지원 방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종합하면, 관용표현 교육에 대한 연구는 학습 내용과 교수·학습 방안 측면에서는 다수 이루어져 왔으나, 학습자의 경험과 요구를 중심으로 관용

표현 학습의 어려움과 수업 개선 방향을 질적으로 구체화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관용표현 학습에 대한 한국어 학습자 인식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학습자가 인식하는 학습의 필요성, 어려움과 부담, 오용 우려, 그리고 수업에 대한 기대를 도출함으로써 관용표현 교육 설계와 학습자 지원 방안 마련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는 한국어를 외국어로 학습하는 학습자 **20 명**이 참여하였다. 참여 학습자들은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 과정 및 기타 학습 환경에서 한국어를 학습하고 있으며, 학습 수준은 초급부터 고급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모든 참여자는 연구 목적을 이해한 후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 도구

자료 수집을 위해 온라인 설문을 활용하였다. 설문은 온라인 설문 도구(구글폼)를 통해 배포·수집되었으며, 관용표현 학습과 수업에 대한 학습자 인식과 경험을 탐색하도록 구성하였다. 설문은 총 10 문항으로, (1) 학습자 배경 정보 문항 2 문항, (2) 관용표현 학습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리커트 척도 문항 5 문항, (3) 관용표현 학습 경험과 수업 요구를 탐색하는 서술형 문항 3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배경 정보 문항은 학습자의 한국어 학습 수준과 학습 환경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 정보로 구성하였다. 리커트 척도 문항은 관용표현 학습의 필요성, 학습 과정에서의 부담, 오용 가능성에 대한 인식, 관용표현 수업에 대한 기대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의 5 점 리커트 척도 응답 방식으로 제시하였다. 서술형 문항은 관용표현 학습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 실제 사용 경험, 수업에서 기대하는 지원을 학습자 관점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설계하였다. 본 설문은 리커트 척도 문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혼합연구 설계에 기반한 양적 검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본 연구는 서술형 중심의 질적 설문으로 설계를 규정하며, 리커트 척도 응답은 학습자 인식의 전반적 경향을 파악하기 위한 보조 자료로만 활용하였다. 설문 문항은 연구문제와의 대응 관계를 고려하여 구성하였으며, 문항 3–7 은 관용표현 학습의 필요성과 학습 부담에 대한 인식(RQ1·RQ2)을, 문항 8–10 은 관용표현 학습 경험과 수업 요구(RQ2·RQ3)를 중심으로 응답을 수집하도록 하였다. 설문지의 전체 문항 구성과 문항 내용은 부록에 제시하였다. 모든 참여자는 설문 참여 전 연구 목적, 익명성 보장, 응답의 자발성 및 중도 철회 가능성에 대한 안내를 받았으며, 이에 동의한 후 설문에 참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익명화 처리하여 연구 목적에 한해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

본 연구의 분석은 서술형 응답 자료를 중심으로 한 질적 분석에 기반하여 수행하였다. 리커트 척도 문항(문항 3–7)은 학습자 인식의 전반적 경향을 파악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주요 분석은 서술형 응답(문항 8–10)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서술형 응답 자료는 반복적으로 검토하여 의미 단위를 도출한 뒤, 유사한 의미를 지닌 진술을 묶어 초기 코드를 생성하고, 초기 코드 간 비교·통합을 통해 상위 범주로 범주화하는 절차로 분석을 진행하였다(Miles, Huberman, & Saldaña, 2014). 범주 간 경계가 중복되거나 모호한 경우에는 원자료를 재확인하여 범주 기준을 조정하였으며, 하나의 응답이 둘 이상의 의미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미를 모두 반영하여 중복 코딩을 허용하였다. 그 결과, 학습자 인식은 연구문제에 대응하는 네 가지 범주로 정리되었다. 즉, 관용표현 학습의 필요성 인식(RQ1), 관용표현 학습의 어려움과 부담 및 오용 가능성에 대한 인식(RQ2), 관용표현 수업에 대한 기대와 요구(RQ3)의 흐름 속에서 자료를 해석하였으며, ‘관용표현 학습의 필요성’, ‘학습의 어려움과 부담’, ‘오용 가능성에 대한 인식’, ‘관용표현 수업에 대한 기대’의 네 범주가 도출되었다.

분석 절차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초기 코드 도출 및 범주화 과정을 예시로 제시하면 표 1 과 같다.

표 1. 서술형 응답 분석을 위한 초기 코드 및 범주화

서술형 응답 예시	초기 코드	상위 범주
“단어 뜻은 알지만 전체 의미가 잘 이해되지 않는다.”	의미 추론의 어려움	학습의 어려움과 부담
“언제 사용하는 표현인지 몰라서 말할 때 쓰기 어렵다.”	사용 맥락 불확실성	오용 가능성에 대한 인식
“잘못 말하면 이상할까 봐 관용표현을 피하게 된다.”	오용에 대한 심리적 부담	오용 가능성에 대한 인식
“드라마에서 자주 나오는데 수업에서는 잘 배우지 못한다.”	수업 내 노출 부족 인식	관용표현 학습의 필요성
“예문이나 상황 설명이 있으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다.”	맥락 중심 설명 요구	관용표현 수업에 대한 기대
“한 번에 많이 배우기보다 조금씩 배우고 싶다.”	단계적 제시 요구	관용표현 수업에 대한 기대

“직접 말해 볼 기회가 있으면 기억에 남을 것 같다.”	사용 연습 기회 요구	관용표현 수업에 대한 기대

4. 연구결과

본 장에서는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 중 서술형 응답 자료를 중심으로 관용표현 학습과 수업에 대한 학습자 인식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본 연구는 서술형 중심의 질적 설문에 기반한 연구로서, 리커트 척도 문항 결과는 학습자 인식의 전반적 경향을 파악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였으며, 주요 분석과 해석은 서술형 응답(문항 8–10)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질적 분석 결과, 학습자 인식은 ‘관용표현 학습의 필요성’, ‘학습의 어려움과 부담’, ‘오용 가능성에 대한 인식’, ‘관용표현 수업에 대한 기대’의 네 가지 범주로 정리되었으며, 각 범주의 전반적인 분포는 표 2 에 제시하였다.

표 2. 관용표현 학습에 대한 학습자 인식 범주별 분포

범주	주요 인식 내용	응답 경향
관용표현 학습의 필요성	실제 의사소통과 문화 이해에 필요	다수
학습의 어려움과 부담	의미 추론의 어려움, 학습 부담	다수
오용 가능성에 대한 인식	잘못 사용할까 봐 조심스러움	다수
관용표현 수업에 대한 기대	맥락 중심·단계적 수업 기대	다수

이하에서는 표 2 에 제시된 네 가지 범주를 중심으로 관용표현 학습과 수업에 대한 학습자 인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관용표현 학습의 필요성에 대한 학습자 인식: 학습자들은 관용표현이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중요한 요소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다수의 학습자들은 관용표현을 이해할 수 있을 때 한국어가 보다 자연스럽게 느껴지며, 실제 상황에서의 이해와 표현 확장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일상적 대화나 미디어(예: 드라마, 예능)에서 관용표현을 접하는 경험이 학습 필요성 인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았다. 한 학습자는 “드라마나 한국 사람들의 대화를 들을 때 관용표현을 모르면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응답하며, 관용표현 학습의 필요성을 실제 언어 사용 경험과 연계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일부 학습자들은 관용표현 학습이 단순

한 어휘 지식을 넘어 문화적 이해로 확장될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관용표현 속 비유와 함의를 통해 한국 사회의 정서나 가치관을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을 학습의 장점으로 제시하였다. 반면, 관용표현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수업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학습할 기회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학습자들도 일부 확인되었다. 이들은 관용표현이 수업에서 부수적으로만 언급되거나 선택적으로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관용표현 학습의 어려움과 부담 인식: 학습자들은 관용표현을 상대적으로 어렵고 부담스러운 학습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다수의 학습자들은 관용표현의 의미가 문자적 의미만으로는 쉽게 추론되지 않는다는 점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제시하였다. 구성 요소의 개별 의미를 알고 있더라도 전체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용표현이 암기해야 하는 표현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한 학습자는 “단어는 다 아는데 표현 전체의 뜻을 알 수 없어서 헷갈린다”고 응답하며 의미 이해의 난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일부 학습자들은 의미를 알고 있더라도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경우 실제 사용에 대한 확신을 갖기 어렵고, 이것이 학습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응답하였다. 더불어 관용표현의 수가 많고 형태가 다양하다는 점은 양적 부담으로도 제시되었다. 특히 초·중급 학습자들은 기본 어휘·문법 학습과 병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관용표현 학습이 추가적인 부담으로 인식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오용 가능성에 대한 학습자 인식: 학습자들은 관용표현을 실제로 사용할 때 오용 가능성에 대해 조심스러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학습자들은 관용표현이 사용 맥락에 민감한 표현이라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할 경우 의미 전달에 문제가 생기거나 어색하게 들릴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특히 표현의 의미를 알고 있더라도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할 경우 사용을 주저하게 된다는 응답이 다수 확인되었다. 한 학습자는 “뜻은 알지만 언제 써야 할지 몰라서 말할 때 사용하지 않게 된다”고 서술하며 오용 우려가 사용 회피로 이어지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한편 일부 학습자들은 오용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학습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오류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들은 사용 경험이 축적되지 않으면 관용표현이 익숙해지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오히려 ‘사용해 볼 기회’가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로 제시하였다.

관용표현 수업에 대한 학습자의 기대: 학습자들은 관용표현 수업이 단순한 뜻풀이와 암기에 그치기보다, 실제 사용 맥락을 반영하여 이해와 활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다수의 학습자들

은 관용표현의 의미 설명과 함께 해당 표현이 사용되는 상황, 대화 맥락, 실제 사용 사례가 제시될 때 이해가 쉬워지고 학습 지속에도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한 학습자는 “언제 쓰는 표현인지 예를 통해 알 수 있으면 기억하기도 쉽고 사용해 보고 싶어진다”고 응답하며 맥락 중심 수업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또한 일부 학습자들은 관용표현이 학습자 수준에 맞게 단계적으로 제시되기를 기대하였다. 많은 표현을 한 번에 제시하기보다 소수의 표현을 반복적으로 접하고 연습할 수 있는 방식이 부담을 줄이고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아울러 학습자들은 말하기·역할극, 듣기·읽기 자료 속 표현 확인 등 부담이 적은 활동을 통해 관용표현을 연습할 수 있다면 오용에 대한 불안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각 범주에 해당하는 학습자 응답의 대표 예시는 표 3 에 제시하였다.

표 3. 범주별 학습자 응답 예시

범주	응답 예시
관용표현 학습의 필요성	“관용표현을 알면 한국어가 더 자연스럽게 들린다.”
학습의 어려움과 부담	“단어는 아는데 전체 의미를 알기 어렵다.”
오용 가능성에 대한 인식	“언제 써야 할지 몰라서 사용하지 않게 된다.”
관용표현 수업에 대한 기대	“상황 설명이나 예문이 있으면 이해하기 쉽다.”

표 3 에 제시된 응답 예시는 각 범주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학습자 인식의 특징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5. 논의

본 연구는 한국어 학습자 20 명의 서술형 응답을 중심으로 관용표현 학습과 수업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논의에서는 4 장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자 인식의 핵심 특징을 정리하고, 관용표현 교육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지점을 간단히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학습자들은 관용표현 학습의 필요성을 전반적으로 인정하였다. 관용표현은 실제 의사소통 및 미디어 이해와 연결되어 있으며, 이를 이해할 때 한국어가 보다 자연스럽게 느껴진다는 응답이 확인되었다. 이는 관용표현이 학습자에게 ‘추가적 표현’이 아니라 실제 이해와 사용을 위해 요구되는 학습 대상임을 시사한다.

둘째, 학습자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은 의미 추론과 사용 판단의 이중 부담으로 나타났다. 구성 단어의 의미를 알고도 전체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

고, 의미를 알아도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는지 확신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관용표현 학습의 어려움은 단순 암기 부담에 그치지 않고, 사용 맥락 판단까지 포함하는 복합적 부담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셋째, 오용 우려는 실제 사용 회피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학습자들은 "잘못 사용할까 봐" 조심스럽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관용표현이 사용에 민감한 표현이라는 인식과 연결된다. 이 결과는 관용표현 교육에서 정확성만을 강조하기보다, 학습자가 부담을 낮춘 상태에서 사용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지원이 요구됨을 보여준다.

넷째, 학습자들은 관용표현 수업이 뜻풀이·암기 중심이 아니라 맥락 중심 설명과 수준을 고려한 단계적 제시, 그리고 부담이 적은 활동을 통한 사용 기회 제공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였다. 이는 학습자들이 느끼는 어려움(의미 추론, 맥락 판단, 오용 부담)과 수업 요구(맥락·단계·사용 기회)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종합하면, 학습자 인식은 '필요성은 높으나, 의미·맥락·오용 부담으로 인해 사용은 주저되는' 양상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수업에서는 맥락 제공과 단계적 제시, 저부담 연습을 통해 이러한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6. 시사점

본 연구 결과는 관용표현 수업 설계에서 다음 세 가지 요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첫째, **맥락 중심 설명**이 필요하다. 학습자들은 관용표현이 문자적 의미만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사용 상황을 확신하기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관용표현 수업은 의미 제시와 함께 예문 및 상황 제시를 포함하여 표현의 쓰임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수준을 고려한 단계적 제시**가 요구된다. 학습자들은 관용표현의 양적 부담과 난이도를 언급하였으며, 특히 초·중급 단계에서는 부담이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에 수업에서는 한 번에 많은 표현을 제시하기보다, 학습자 수준에 맞추어 제한된 표현을 단계적으로 제시하고 반복 노출하는 방식이 적절하다.

셋째, **저부담 활동을 통한 사용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 학습자들은 오용 우려로 실제 사용을 피하는 경향을 보였고, 말하기·역할극 등 활동을 통해 부담을 낮춘 사용 연습 기회를 기대하였다. 따라서 수업에서는 학습자가 심리적 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는 범위에서 관용표현을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관용표현 수업은 맥락 제공, 단계적 제시, 저부담 사용 연습을 중심으로 구성될 때 학습자들이 경험하는 주요 어려움(의미 추론, 사용 확신 부족, 오용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다.

7. 결론

본 연구는 한국어 학습자 20 명을 대상으로 관용표현 학습과 수업에 대한 인식을 서술형 응답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학습자들은 관용표현이 실제 의사소통과 문화 이해에 중요한 요소라고 인식하면서도, 문자적 의미만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사용 맥락을 확신하기 어려우며 오용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습자들은 관용표현 수업이 뜻풀이·암기 중심을 넘어 예문과 상황 제시를 포함한 맥락 중심 설명, 수준을 고려한 단계적 제시, 부담이 적은 활동을 통한 사용 기회 제공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관용표현 교육을 학습자 경험의 관점에서 구체화하여, 관용표현 수업 설계와 학습자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였다는 데 있다. 다만 제한된 수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질적 설문 자료에 기반하였다는 점에서 결과의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으며, 실제 수업 장면을 관찰하여 수업 실행을 분석하지는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학습자 집단과 교육 맥락을 대상으로 자료를 확장하고, 관용표현 수업 설계 및 적용 사례를 통해 학습자 지원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공하림·손혜진. 문화 리터러시 관점에서 본 한국어 관용 표현 교육에 관한 고찰: 교재 분석을 중심으로 // *문화와 융합*. 2020. T. 42. № 5. С. 113–142.
2. 김선정·강현자. 한국어 관용어 교재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및 단원 제시 // *이중언어학*. 2006. № 32. С. 35–56.
3. 전혜영. 한국어 관용표현의 교육 방안 // *한국어교육*. 2001. T. 12. № 2. С. 181–199.
4. Boers F. Metaphor awareness and vocabulary retention // *Applied Linguistics*. 2000. Vol. 21. No. 4. P. 553–571.
5. Borg S. Teacher cognition in language teaching: A review of research on what language teachers think, know, believe, and do // *Language Teaching*. 2003. Vol. 36. No. 2. P. 81–109.
6. Borg S. *Teacher Cognition and Language Education: Research and Practice*. London: Continuum, 2006.
7. Cooper T. C. Processing of idioms by L2 learners of English // *TESOL Quarterly*. 1999. Vol. 33. No. 2. P. 233–262.
8. Farrell T. S. C. *Reflective Language Teaching: From Research to Practice*. London: Bloomsbury, 2015.
9. Liontas J. I. Developing idiomatic competence in the ESOL classroom: A pragmatic account // *TESOL Journal*. 2015. Vol. 6. No. 4. P. 621–658.
10. Miles M. B., Huberman A. M., Saldaña J. *Qualitative Data Analysis: A Methods Sourcebook*. 3rd ed. Thousand Oaks, CA: SAGE, 2014.
11. Nation I. S. P. *Learning Vocabulary in Another Language*. 2nd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
12. Shulman L. S. Knowledge and teaching: Foundations of the new reform // *Harvard Educational Review*. 1987. Vol. 57. No. 1. P. 1–22.
13. Wray A. *Formulaic Language and the Lexic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부록

관용표현 학습에 대한 한국어 학습자 인식 설문

본 설문은 한국어 학습자가 관용표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관용표현 수업에 대해 어떤 경험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연구 목적의 설문입니다. 모든 응답은 익명으로 처리되며, 연구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설문 응답에는 약 5 분 정도 소요됩니다.

① 배경 정보 (2 문항)

문항 1. 현재 한국어 학습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 초급 ☐ 중급 ☐ 고급

문항 2. 현재 한국어를 주로 어디에서 학습하고 있습니까?

☐ 대학 부설 한국어 과정 ☐ 어학원 ☐ 기타 (　　)

② 인식 문항 (리커트 척도, 5 문항)

다음 문장에 대해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정도를 선택해 주십시오. (각 문항마다 하나만 선택)

척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문항 3. 관용표현은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문항 4. 관용표현을 배우는 것은 다른 어휘나 표현보다 어렵다고 느낀다.

① ☐ ② ☐ ③ ☐ ④ ☐ ⑤ ☐

문항 5. 관용표현은 의미를 이해하더라도 실제로 사용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① ☐ ② ☐ ③ ☐ ④ ☐ ⑤ ☐

문항 6. 관용표현을 잘못 사용할까 봐 실제 대화에서 사용을 피하게 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문항 7. 한국어 수업에서 관용표현을 더 자주 배우고 싶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③ 서술형 문항 (3 문항)

문항 8. 관용표현을 배우면서 가장 어렵다고 느낀 점은 무엇입니까?
(자유롭게 작성해 주십시오.)
→ _____

문항 9. 관용표현을 실제로 사용해 본 경험이 있다면, 그때의 느낌이나 어려움을 자유롭게 써 주세요.
(사용해 본 적이 없다면 그 이유를 써 주셔도 됩니다.)
→ _____

문항 10. 관용표현 수업이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하십니까?
(예: 설명 방식, 활동, 예문 등)
→ _____

ОСНОВЫ КАТЕГОРИИ ВЕЖЛИВОСТИ В РАЗНОСТРУКТУРНЫХ ЯЗЫКАХ

Хан Н.Ч.
КазУМОиМЯ им.Абылай хана
Алматы, Казахстан

Аннотация: В данной статье рассматривается понятие категории вежливости. Анализируются теории вежливости, разработанные П. Грайсом, Р. Лакофф и Дж. Личем, которые сформулировали максимы речевого поведения и правила вежливости, обеспечивающие успешную коммуникацию. Среди многочисленных концепций вежливости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уделяется теории П. Браун и С. Левинсона о «позитивном» и «негативном» лице, положившей начало сопоставительным исследованиям категории лица в различных языках и культурах.

На основе данной теории Т. В. Ларина вводит понятия «позитивной» и «негативной» вежливости, рассматривая их как более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особенностям русскоязычной коммуникативной культуры. В свою очередь, корейский лингвист Кан Гильхо предлагает концепцию «демонстративного» и «нормативного» лица, считая ее более адекватной для описания корейской категории вежливости и специфики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выделенными типами лица исследователь определяет две основные стратегии вежливости: стратегию уважения (공경 전략) и стратегию скромности (겸손 전략). На их основе формулируются такие коммуникативные правила, как «преуменьшение собственных заслуг», «скромность», «уклонение» и др.

Автор статьи исходит из положения о том, что вежливость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коммуникативную категорию, поскольку выступает регулятором поведения человека и определяет выбор языковых средств. При этом содержание данной категории варьируется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культурного контекста. Так, в англоязычной культуре ориентация на сохранение лица (как позитивного, так и негативного) выражена более отчетливо, чем в русскоязычной. В корейской и японской культурах стремление к соблюдению норм вежливости, соотносимое с английским понятием «сохранение лица», проявляется еще в большей степени, чем в англоязычной культуре. Соблюдение правил вежливости в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е является одним из ключевых условий успешной коммуникации в корейском обществе.

Ключевые слова: вежливость, категория вежливости, позитивное и негативное лицо, стратегии вежливости, коммуникативные правила, теории вежливости

제목: 서로 다른 언어 구조에서 공손성 범주의 기본 원리
필자: 한 넬리, 카자흐 아블라이 한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알마티, 카자흐스탄
개요: 본 논문은 공손성 범주의 개념을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먼저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언어행동을 조절하는 격률과 공손성 규칙을 제시한 P. Grice, R. Lakoff, J. Leech 의 공손성 이론을 분석한다. 다양한 공손성 이론 가운데 특히 P. Brown 과 S. Levinson 이 제시한 '긍정적 체면(positive face)'과 '부정적 체면(negative face)' 이론에 주목하였다. 이 이론은 다양한 언어와 문화에서 체면 개념에 대한 비교연구의 출발점이 되었다.

이 이론을 바탕으로 T. V. Larina 는 러시아어권 의사소통 문화의 특성을 보다 잘 반영하는 개념으로 '긍정적 공손성'과 '부정적 공손성'을 제시하였다. 한편, 한국의 언어학자 강길호는 한국어 공손성 범주와 한국 문화의 특성을 설명하는 데 보다 적합한 개념으로 '현시적 체면'과 '규범적 체면'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체면 유형에 근거하여 그는 공경 전략과 겸손 전략이라는 두 가지 주요 공손성 전략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전략에 따라 '자신의 노력을 축소하기', '겸손하기', '회피하기' 등의 의사소통 규칙을 제시하였다.

본 소논문은 공손성이 인간의 행동을 조절하고 언어 표현의 선택을 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의사소통적 범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또한 공손성 범주의 내용은 문화적 맥락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영어권 문화에서는 긍정적 체면과 부정적 체면 모두를 유지하려는 지향성이 러시아어권 문화보다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반면 한국과 일본 문화에서는 영어권의 '체면 유지(face-saving)' 개념에 상응하는 공손한 행동 양식이 영어권 문화보다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한국 문화에서 공손성 규범을 준수하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핵심적인 조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공손성, 공손성 범주, 긍정적 체면과 부정적 체면, 공손성 전략, 의사소통 규칙, 공손성 이론

Вежливость как предмет научного исследования интересовала ученых с давних пор. В последние десятилетия возрос интерес к изучению вежливости, что указывает на важность данного вопроса в условиях мировой глобализации и взаимовлияния языков и культур.

Изучение вежливого общения в речевой коммуникации началось с работ П. Грайса, Р. Лакофф, Дж. Лича. П. Грайс впервые выдвинул принципы кооперации, предполагающие готовность коммуникантов к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Исходными условиями кооперации является наличие у участников общей цели

коммуникации хотя бы на период их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П. Грайс выдвинул 4 постулата: количества, качества, отношения и манеры речи. Каждый из постулатов состоит из максим, регулирующих речевое поведение: 1) высказывание должно содержать столько информации, сколько требуется для выполнения текущих целей общения; 2) высказывание должно быть по возможности правдивым; 3) высказывание должно соответствовать предмету разговора, не отклоняйтесь от темы; 4) высказывание должно быть ясным: избегайте непонятных выражений, неоднозначности и ненужного многословия [1]. П. Грайс не претендовал на полноту своих максим и отмечал, что они могут быть дополнены постулатами иной породы, что было использовано Р. Лакофф.

Р. Лакофф предложила расширить принцип кооперации правилами вежливости, призванными регулировать отношения между адресантом и адресатом. Она ввела понятие прагматической компетентности, состоящей из двух правил: «излагай свою информацию ясно» (Be clear) и «будь вежлив» (Be polite). Р. Лакофф считает, что все максимы П.Грайса попадают под ее первое правило «выражайся ясно». Второе правило прагматической компетенции включает в себя три правила вежливости: Не навязывайся (Don`t impose); Предоставляй выбор (Give options); Веди себя так, чтобы собеседнику было приятно, будь дружелюбным (Make a feel good – be friendly) [2].

Дальнейшее развитие максимы речевого общения, связанные с вежливостью нашли отражение в работе Дж. Лич, который описал еще один ведущий принцип вежливости, представляющий собой совокупность ряда максим. Кратко охарактеризуем их.

1. Максима такта (Tact Maxim): Уменьшайте затраты слушающего, увеличивайте выгоду слушающего.

2. Максима великодушия (Generosity Maxim): Уменьшайте собственную выгоду, увеличивайте выгоду слушающего.

3. Максима одобрения (Approbation Maxim): Уменьшайте осуждение слушающего, больше хвалите.

4. Максима скромности (Modesty Maxim): Меньше хвалите себя, больше порицайте себя.

5. Максима согласия (Agreement Maxim): Уменьшайте разногласия между вами и собеседниками, уваличивайте согласие.

6. Максима симпатия (Sympathy): Уменьшайте антипатию между вами и собеседниками, увеличивайте симпатию [3].

Исследователи последних десятилетий стали рассматривать вежливость как коммуникативную категорию, влияющую на общение, стиль коммуникации и менталитет народа.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существует несколько подходов и концепций вежливости, среди которых можно выделить следующие:

- Вежливость как культура речи, речевой этикет (Н.И. Формановская, В.Е. Гольдин, З.К. Ахметжанова, А.Т. Оналбаева, Л. К. Граудина, Е.Н.Ширяев и др.);
- Вежливость как «сохранение лица» (Goffman, Brown, Levinson, Scollon, Scollon);
- Вежливость как речевые максимы, правила (Grice; Lakoff; Leech);
- Вежливость как система коммуникативных стратегий (Т.В.Ларина, И.А. Стернин и др.);
- Вежливость как оценка статуса человека (В.И.Карасик);
- Вежливость как такт (Janney, Arndt);
- Вежливость как уместное поведение (Meier A.);
- Вежливость как понятие дискурса (Watts);
- Вежливость как договор о ведении диалога (Fraser, Nolen, Fraser).

Из перечисленных концепций вежливости наиболее приемлемой для нашего исследования сопоставления категорий вежливости корейского и русского языков представляется теория вежливости как системы коммуникативных стратегий, разработанная Т.В. Лариной на основе теории вежливости «позитивного» и «негативного» лица П. Браун и С. Левинсона. Данная теория, называемая «теорией лингвистической вежливости» увидела свет в 1978 году с их совместной работы «Вежливость: некоторые универсалии в употреблении языка» [4]. В работе ученые исследовали вежливость как «сохранение лица», где понятие «лица» они рассматривают вслед за Э. Гоффманом как определенный социальный имидж, сохранить который стремятся все члены общества [5, с. 323]. П. Браун и С. Левинсон различают «позитивное лицо» и «негативное лицо». «Позитивное лицо» подразумевает подсознательное желание каждого индивида снискать одобрение, симпатию и уважение со стороны окружающих, а также быть принятым ими («the want of every member that his wants be desirable to at least some others». Под негативным лицом ученые понимают желание каждого члена

общества иметь свободу действий, недопустимость вмешательства со стороны других («the want to have his freedom of action unhindered») [6, с. 129]. То есть негативное лицо – это право коммуниканта на то, чтобы на него не оказывалось давление и чтобы ему не приходилось принимать на себя неприятных обязательств.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с понятиями «позитивного» и «негативного лица», исследователи вводят понятия «позитивной» и «негативной вежливости». Само понимание «вежливости» П. Браун и С. Левинсон определяют как комфорт участников коммуникации в процессе общения, как соблюдение определенных правил вежливого общения. То есть, самое основное в «вежливости» - необходимость знать и уметь использовать в процессе коммуникации стратегии и тактики вежливости. Ученые выдвигают несколько стратегий позитивной и негативной вежливости. Представляем некоторые из стратегий позитивной вежливости, предложенных П. Брауном и С. Левинсоном:

1) Интересуйтесь слушающим, выражайте участие по отношению к его нуждам (Почему ты такой грустный?);

2) Используйте специальные маркеры внутригрупповой принадлежности (Привет, старик…);

3) Будьте оптимистом (Как дела? Все отлично!);

4) Включайте и говорящего и слушающего в действие (Давайте посмотрим, что тут у нас);

5) Проявляйте преувеличенный интерес к слушающему (то, что вы говорите, это так интересно!);

6) Ищите согласия и избегайте открытого несогласия;

7) Шутите;

8) Обращайтесь по имени.

Все стратегии позитивной вежливости направлены на то, чтобы коммуникант чувствовал уважительное отношение говорящего и его поддержку. Стратегии негативной вежливости учитывают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желание говорящего защитить слушающего от прямого давления на него в ситуациях, несущих угрозу «лицу» коммуниканта. Ниже представлены некоторые из стратегий негативной вежливости П. Браун и С. Левинсона:

1) Выражайтесь косвенно (Скажите, могу ли я увидеть меню?);

2) Используйте уклончивость и вопросы (Может быть, вы еще раз подумаете, прежде чем купить эту вещь?);

3) Будьте пессимистом (Не думаю, чтобы вы знали, сколько сейчас времени, да?);

4) Преуменьшайте неудобства и обязательства (Это не займет много времени, к вечеру вы уже все закончите);

5) Избегайте прямого обращения к говорящему (У нас не курят);

6) Извиняйтесь (Извините за причиненные неудобства, но не могли бы вы сказать, сколько сейчас времени?);

7) Используйте фамилии и титулы [6, с. 102-129].

Т.В. Ларина продолжает исследования вежливости, начатые Брауном и Левинсоном в аспекте сопоставления английской и русской лингвокультурных традиций вежливости. Вместо терминов «позитивная» и «негативная вежливость» исследователь ввела понятия «вежливости сближения» и «вежливости дистанцирования», мотивируя это тем, что для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и культуры они более приемлемы. Т.В. Ларина предложила несколько коммуникативных правил для русскоязычных при общении с носителями английского языка, основанные на вежливости сближения и дистанцирования. Перечислим несколько из предложенных правил для реализации вежливости сближения:

1) Старайтесь оказывать максимум внимания собеседнику и окружающим.

2) Чаще здоровайтесь, благодарите, извиняйтесь.

3) Демонстрируйте подчеркнутый интерес к собеседнику, к его действиям и качествам.

4) При выражении благодарности чаще используйте интенсификаторы (Спасибо вам огромное).

5) Делайте комплименты, при этом стремитесь оценивать не действия, а личные качества собеседника.

6) Широко используйте лексические гиперболы.

7) Улыбайтесь.

8) Демонстрируйте оптимизм.

9) Старайтесь быть более многословны; учтите, что при выражении своего отношения, оценки, благодарности англичане, как правило, употребляют на одну реплику больше, чем русские [7, с. 422-423].

Ниже представлены коммуникативные правила, предложенные русским коммуникантам Т.В. Лариной для реализации вежливости дистанцирования в общении с носителями английской культуры:

1) Строго соблюдайте дистанцию в общении.

2) Проявляйте максимум уважения к личной независимости собеседника (его «privacy»).

3) Не говорите прямо (императивно) о том, чего вы от него хотите, оформляйте побуждение в виде косвенного высказывания.

4) Не оказывайте прямого воздействия на собеседника, даже если вы считаете, что побуждаемое действие в его интересах (приглашение, совет, предложение).

5) Используйте разнообразные средства смягчения воздействия.

6) Помните, что чем длиннее и «косвеннее» ваше побуждение, тем более вежливо оно звучит.

7) Имейте в виду, что, если собеседник обращается к вам с вопросом, это может быть не вопрос о ваших желаниях и возможностях, а просьба, приглашение, совет или команда, подлежащая выполнению.

8) В случае отказа не говорите категорично НЕТ, смягчайте свой отказ или несогласие.

9) Помните, что для охраны зоны личной независимости собеседника существует ряд коммуникативных табу, которые следует соблюдать:

- не давайте советов, если вас не просят;
- не делайте замечаний;
- не критикуйте;
- не навязывайте своего мнения;
- избегайте споров;
- не задавайте личных вопросов;
- не вмешивайтесь в разговор;
- не перебивайте [7, с. 306].

Исследования «вежливости» как лингвистического феномена в русском и корейском языкознании проводились в различных направлениях. В корейской лингвистике вежливость хорошо исследована как грамматическая категория, как система лексико-морфологических правил употребления на письме и в речи. В русскоязычных исследованиях вежливость традиционно рассматривалась в рамках изучения культуры и этикета речи. Однако после выхода в свет теории П. Браун и С. Левинсона, корейские исследователи тоже пытались рассмотреть категорию вежливости через призму «негативного» и «позитивного» лица.

Так, корейский лингвист Кан Гильхо, в поисках соответствия негативного и позитивного лица и стратегий, дал другие названия стратегиям вежливости, более подходящие в его понимании к корейской категории вежливости и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е [8]. Он выделил лица не «негативное» и «позитивное», а «демонстративное» и «нормативное». Нормативное лицо по Кан Гильхо показывает поведение,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е ожиданиям (общественным или культурным) коммуниканта. Демонстративное же лицо показывает поведение, признающее имидж собеседника. Относительно стратегий вежливости исследователь выделил стратегии, прямо поднимающие лицо собеседника, и стратегии, косвенно поднимающие лицо собеседника за счет принижения лица говорящего. В связи с этим Кан Гильхо выдвинул две главные стратегии вежливости: стратегия уважения (почтения) (공경 전략) и стратегия скромности (겸손 전략). При этом стратегии уважения используются говорящим по отношению к собеседнику, а стратегии скромности говорящий использует относительно себя. Другими словами, стратегии уважения выражаются различными лексико-грамматическими, поведенческими и др. способами, проявляемыми говорящим по отношению к коммуниканту, а стратегии скромности говорящий использует в своем поведении и речи. Обобщая сказанное, Кан Гильхо выделил 4 направления стратегий, которые схематично выразил следующим образом (таблица 1).

Таблица 1 – Стратегии вежливости по Кан Гильхо

Стратегии / лицо	Демонстративное лицо	Нормативное лицо
Стратегии уважения	Демонстративные стратегии уважения	Нормативные стратегии уважения
Стратегии скромности	Демонстративные стратегии скромности	Нормативные стратегии скромности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выдвинутыми стратегиями, исследователь обозначил свои коммуникативные правила для реализации стратегий уважения и скромности. Например, такие стратегии как «преуменьшение своих стараний» (많이 부족합니다 «я недостоин», при похвале – 아닙니다/아니에요 «нет, что Вы» и т.д.), «скромность» (차린 것은 없지만 많이 드세요 «я ничего толком не приготовила, но вы ешьте много» и т.д.) и др., исследователь выделил в стратегии скромности. В стратегии уважения ученый выделил стратегию

уклонения (употребление выражения 좀 그래요 «ну, как сказать», 그럴 수 있지요 «и такое может быть» и др. вместо 싫어요 «не хочу»).

Теория вежливости изучалась и другими корейскими лингвистами. Так, Ли Т. выделяла такие стратегии негативной вежливости, принятые в корейском обществе, как невербальная стратегия (например, в случаях, когда кореец не просит ручку вербально, а усиленно ищет ее в своей сумке или в карманах), стратегия намека (используя выражения вроде «Горло пересохло» вместе просьбы «Дайте воды» и др.) [9].

Теория позитивной и негативной вежливости П. Браун и С. Левинсона, несмотря на шквал критики, устояла и до сих пор используется в качестве модели и является самой цитируемой теорией вежливости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Одной из сторон, подвергнутых наиболее сильной критике данной теории, стало выдвинутое утверждение авторов об университельности теории. Критики обвиняли авторов в том, что их теория «позитивной и негативной вежливости» имеет западную (и даже «англо») направленность и не может претендовать на универсальность, применимую ко всем языкам и культурам. Об этом писали как китайские [10], японские [11], и корейские исследователи [12], так и западные ученые, как, например, А. Вежбицкая [13]. Так, А. Вежбицкая указывает на то, что универсальность теории несостоятельна в предположении, что во всех культурах вежливость обусловлена сохранением лица. Особенно того, что П. Браун и С. Левинсон называют «негативным». Японский исследователь Й. Матсумото отмечает, что для японца важно не то, имеет он свободу действий или нет, а то, какое место он занимает внутри группы, как он воспринимается другими членами этой группы и какие обязательства это на него накладывает [11, с. 409]. Й. Матсумото подвергает сомнению само существование «негативного лица», так как, по его мнению, почтительность в японской культуре связана не со стремлением свести к минимуму причиняемые неудобства для собеседника, а с проявлением позитивных взаимо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коммуникантами, что является по теории Брауна и Левинсона проявлением «позитивной вежливости». Матсумото приводит в пример фразу, выражающую значение «Пожалуйста, я прошу вас обращаться со мной хорошо», которая употребляется при знакомстве с выражением надежды, что взаимоотношения пойдут на пользу обеим сторонам. По теории Брауна и Левинсона эта фраза должна причинять неудобства

собеседнику, так как накладывает на него определенные обязательства. Но, по мнению Й. Матсумото, эта этикетная фраза наоборот выражает стремление говорящего повысить статус собеседника, так как в японском обществе считается большой честью, если человека просят позаботиться о ком-либо.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также есть подобная фраза 잘 부탁드립니다, имеющая значение «Прошу вас». Эта фраза выражает просьбу относиться к говорящему хорошо и помогать ему. Несомненно, с позиции эгалитарной англоязычной культуры эта фраза угрожает «негативному лицу», поскольку ограничивает свободу собеседника, накладывая на него определенные обязательства. Однако в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е она выражает скромность и принижение позиции говорящего, который своей просьбой выражает желание сблизиться с собеседником. Выражает эта фраза также и то, что социальная позиция говорящего ниже, чем у собеседника, поскольку в корейском обществе человек, которого можно о чем-то попросить, имеет статус выше статуса просильщика. И здесь важно не ограничение свободы слушающего, а его статус, который дает ему возможность реализовывать просьбы нижестоящих.

Интересно, что вышеприведенная фраза имеет соответствие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с фразой «Прошу любить и жаловать». Выражается она с просьбой относиться хорошо, от души, и жаловать, то есть оказывать милость, одаривать или же оказывать внимание [14], что коннотативно близко к прагматическому смыслу корейского выражения «Прошу вас». Однако с уравниванием и стиранием социальных слоев, фраза «Прошу любить и жаловать» стала восприниматься как напыщенная, несколько подобострастная, что, видимо, стало причиной ее постепенного ухода из использования.

Что касается критики, то ей подвергалась как универсальность теории П. Браун и С. Левинсона, так и само понятие «негативного лица». Но сам факт того, что их работа до сих пор является самой цитируемой из всех работ по вежливости,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с момента ее создания прошло уже более 45 лет, доказывает ее состоятельность. Чтобы быть справедливыми к авторам, надо отметить, что,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они брали на себя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утверждать универсальность их теории по отношению ко всем языкам и культурам, они подчеркивали уровень межкультурных и языковых различий. Этим они отмечали, что хоть общая система вежливости и основана на универсальных

принципах, но употребление данных принципов отличается в разных культурах и группах [4, с. 288].

В отношении понятия «лица» в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е мы придерживаемся позиции Й. Матсумото и считаем, что понятие «негативного» и «позитивного» лица не является существенными для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которая основывается на приницах вежливости и соблюдения ее правил и норм, а не заботой о сохранении «лица».

Исследования П. Браун и С. Левинсона, Дж. Лич (о принципах вежливости), а также П. Грайса (с принципами кооперации) легли в основу изучения категории вежливости, проведенной Т. В. Лариной. По Т. В. Лариной, вежливость – это сложное социальное явление, регулирующее поведение общества. Т. В. Ларина определяет место вежливости среди коммуникативных категорий, «формирующихся в сознании и определяющих коммуникативное сознание и поведение нации» [7, с. 129]. По мнению Е. П. Захаровой, вежливость выполняет функцию регулирования процесса общения и относится к социально-этическим коммуникативным категориям [15]. Вообще, в русской культуре вежливость имеет значение «соблюдения правил поведения», что возможно явилось причиной того, что вплоть до начала 21-го века вежливость в русскоязычных исследованиях рассматривали, в основном, как категорию речевого этикета и культуры речи.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этим разница между пониманием концепта «вежливость» в английской и русской языковых культурах заключается в том, что в «английском сознании быть вежливым значит демонстрировать уважение, внимание к окружающим; в русском – знать и соблюдать правила поведения» [7, с. 137-141].

Концепт «вежливость» в корейском коммуникативном сознании имеет обширное понятие, отличное от понимания носителями русского или английского языков. Это подтверждается обилием лексических вариантов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выражающих значение «вежливость». Это и 공손함 (воспитанный, скромный, относящийся с уважением), 존대(말) (относиться с уважением, говорить вежливо), 높임(말) (повышать в речи собеседника), 경어(법) (система повышения (в речи собеседника), 예절 (этикет), 예의 (воспитанность), 정중 (относиться (к собеседнику доброжелательно и скромно (показывая его значимость), 존중 (повышать (собеседника) и показывать его значимость), 존경함

(уважение) и др. Все лексические единицы имеют отношение к проявлению вежливости и уважительности, а также к понижению своей позиции и повышению позиции собеседника. Быть вежливым по-корейски, значит вести себя скромно и уважительно по отношению к другим, соблюдать правила вежливости и выражать определенную степень вежливости, соответствующую социальным характеристикам собеседника. Соблюдение правил вежливости в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е является одним из основных условий успешной коммуникации в корейском обществе. Категория вежливости проходит сквозь весь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и помогает выстраивать взаимоотношения между коммуникантами согласно статусной иерархии.

Таким образом, «вежливость» рассматривается нами не просто как соблюдение правил приличия, а как центральная коммуникативная категория, поскольку выступает регулятором поведения человека и предопределяет выбор средств вербальной коммуникации. Категория вежливости актуализируется в коммуникативных ситуациях и рассматривает вежливое поведение коммуниканта, которое достигается при помощи различных стратегий.

Список использованной литературы:

1. Grice P. Logic and Conversation // P. Cole, J. Morgan (eds.) Syntax and Semantics: Speech Acts. N. Y.: Academic Press, 1975. Vol. 3. P. 41–58.
2. Lakoff R. The logic of politeness, or, minding your p's and q's // Papers from the Ninth Regional Meeting of the Chicago Linguistics Society. Chicago, 1973. P. 292–305.
3. Leech G. N. Principles of pragmatics. London; New York: Longman, 1983. 257 p.
4. Brown P., Levinson S.C. Universals in language usage: Politeness phenomena / In E.N.Goody (ed.), Questions and Politeness: Strategies in Social Interaction. N. 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8. P. 56-289.
5. Goffman E. On face-work: an analysis of ritual elements in social interaction // Laver, Hutcheson (eds.). Communication in face-to-face interaction. Harmondsworth: Penguin, 1972. P. 319-346.
6. Brown P., Levinson S.C. Politeness: Some Universals in language Us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358 p.
7. Ларина Т.В. Категория вежливости и стиль коммуникации. Сопоставление английских и русских лингвокультурных традиций. М.: Рукописные памятники Древней Руси, 2009. 512 с.

8. 강길호. 한국인의 커뮤니케이션에 나타난 공손전략 //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학보 32 권 0 호, 1994. P. 9-35.
9. Кан Гильхо. Стратегии вежливости в коммуникации корейцев // Сборник статей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ской Прессы. Вып. 32, 1994. С. 9-35.
10. 이 타찌야나. 교육학석사학위논문. 러시아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문화교육 연구 – 비즈니스 맥락의 간문화적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전공, 2012. 223 p.
11. Ли Т. Обучение лингвокультуре Кореи русскоязычных учащихся (в аспекте межкультурной коммуникации в сфере бизнеса): Маг. дисс. Сеуль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2012. 223 с.
12. Mao L.R. Beyond politeness theory: “Face” revisted and renewed // Journal of Pragmatics. 1994. Vol.21. P. 451-486.
13. Matsumoto Yoshiko. Reexamination of the Universality of Face: Politeness Phenomena in Japanese // Journal of Pragmatics. 1988. Vol. 12. P. 403-426.
14. 이정복. 한국어 경어법 – 힘과 거리의 미학. 소통, 2011. 384 p.
15. Ли Джонбок. Эстетика силы и дистанции корейской системы вежливости. Сотхон, 2011. 384 с.
16. Wierzbicka A. Cross-cultural Pragmatics: The Semantics of Human Interaction. Berlin; New York: Mouton de Gruyter, 2003. 539 p.
17. Толковый словарь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в 4 т. / под ред. Д.Н. Ушакова. Репринтное издание. М., 1995.
18. Захарова Е.П. Коммуникативная категория чуждости и ее роль в организации речевого общения // Вопросы стилистики: межвузовский сб. науч. ст. Саратов, 1998. С. 87-94.

ВНЕШНЯЯ ПОЛИТИКА ЮЖНОЙ КОРЕИ В УСЛОВИЯХ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СОПЕРНИЧЕСТВА США, КИТАЯ И РОССИИ: БАЛАНСИРОВАНИЕ ИНТЕРЕСОВ В МНОГОПОЛЯРНОЙ СИСТЕМЕ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Й

Хасанов К.Р.
ФГБОУ ВО «Владивосток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Владивосток, Российская Федерация

Аннотац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условиях нарастающего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соперничества между Соединёнными Штатами Америки, Китайс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ой 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ей. Рассматривается эволюция южнокорейской стратегии от политики хеджирования к более выраженной ориентации на союз с США при администрации Юн Сок Ёля. Исследуются ключевые документы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планирования, включая первую Индо-Тихоокеанскую стратегию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 Вашингтонскую декларацию 2023 года, а также их воздействие на баланс сил в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уделяется последствиям российско-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сближения для южнокорейской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Делается вывод о том, что дальнейшее обострение великодержавного соперничества сужает пространство для маневрирования средних держав и ставит перед Сеулом задачу выработки более гибкой многовекторной модели, сочетающей верность союзническим обязательствам с прагматичным экономическим взаимодействием.
Ключевые слова и словосочетания: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внешняя политика, стратегическое соперничество, хеджирование, американо-южнокорейский альянс, многополярность, Индо-Тихоокеанский регион, КНДР, российско-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отношения, дипломатия средней державы.

제목: 미국, 중국, 러시아의 전략적 경쟁 속 대한민국의 대외정책: 다극화된 국제질서에서의 이익 균형
필자: 하사노프 카밀 루스타모비치, 블라디보스토크 국립대학교, 블라디보스토크, 러시아 연방
개요: 본 논문은 미국, 중국, 러시아 간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대외정책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 하에서 한국의 외교전략이 헤징(hedging) 전략에서 미국과의 동맹 중심 전략으로 점차 전환되는 과정을 고찰한다. 또한 대한민국의 첫 인도-태평양 전략과 2023 년 워싱턴 선언을 포함한 주요 전략 문서를 분석하고, 이러한 변화

가 동북아시아의 세력 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더불어 러시아와 북한 간 협력 강화가 한국의 대외정책에 미치는 영향에도 주목한다. 연구 결과, 강대국 간 경쟁의 심화는 중견국의 외교적 자율성을 제한하며, 대한민국은 동맹에 대한 충실성을 유지하면서도 실용적인 경제 협력을 병행할 수 있는 보다 유연한 다변화된 외교 전략을 모색해야 함을 제시한다.
주제어: 대한민국, 대외정책, 전략적 경쟁, 헤징, 한미동맹, 다극성, 인도-태평양 지역, 북한, 러북 관계, 중견국 외교

Трансформация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порядка в первой четверти XXI века обусловила коренные изменения в геополитическом ландшафте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Системное соперничество между США и КНР, обострение отношений России с западными государствами после 2022 года, а также наращивание ядерно-ракетного потенциала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создали дл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беспрецедентные вызовы в сфере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и безопасности. Сеул, будучи одновременно ключевым военным союзником Вашингтона и крупнейшим торговым партнёром Пекина, оказался в ситуации структурного противоречия между императивами безопасности и экономическими интересами [1, с. 36–38].

Актуальность настоящего исследования определяется несколькими обстоятельствами. Во-первых, Концепци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утверждённая Указом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31 марта 2023 г., зафиксировала курс на формирование многополярного миропорядка и обозначила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ий регион в качестве одного из приоритетных направлений [2]. Во-вторых, подписание Договора о всеобъемлющем стратегическом партнёрстве между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ей и КНДР 19 июня 2024 г. существенно изменило конфигурацию сил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3]. В-третьих, администрация Юн Сок Ёля осуществила переход от стратегической амбивалентности к ценностно ориентированной дипломатии, что нашло отражение в принятии первой Индо-Тихоокеанской стратегии страны [4] и Вашингтонской декларации [5].

Степень научной разработанности темы неоднородна. Среди российских исследователей проблематику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Южной Кореи разрабатывали А. В. Торкунов, Г. Д. Толорая и И. В. Дьячков, представившие комплексный анализ корейской политики в период 2008–2020 годов [6, с. 312–345].

Учебное пособие под редакцией М. П. Куклы, подготовленное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федеральн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систематизировало основные направления южнокорейской дипломатии [7]. Геополитическое положение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а стыке интересов великих держав проанализировано в работах Э. Т. Фархетдиновой [8, с. 59–72] и В. И. Волощака с соавторами [9, с. 156–166]. В зарубежной литературе значительный вклад внесли Р. Пачеко Пардо, исследовавший большую стратегию Южной Кореи [10], С. А. Снайдер, проанализировавший дилемму автономии и союзничества [11], а также В. Д. Ча, рассмотревший корейскую внешнюю политику через призму исторической перспективы [12].

Объектом исследования выступает внешняя политик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системе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й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Предметом является механизм балансирования южнокорейских интересов в условиях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соперничества США, КНР и России. Цель состоит в выявлении закономерностей и противоречий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ого курса Сеула в контексте становления многополярного миропорядка. Для достижения указанной цели поставлены следующие задачи: определить теоретическую рамку анализа стратегии хеджирования применительно к средним державам; проследить эволюцию американо-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альянса при администрации Юн Сок Ёля; исследовать динамику отношений Южной Кореи с КНР и Россией; оценить влияние российско-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сближения на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ую стратегию Сеула.

Методологическую основу составляют системный подход к анализу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й, метод сравнительного анализа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их стратегий, а также концептуальный аппарат теории хеджирования. Научная новизна заключается в комплексном исследовании трансформации южнокорейской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с учётом качественно нового фактора — Договора о всеобъемлющем стратегическом партнёрстве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КНДР, а также в выявлении пределов стратегии балансирования в условиях биполяризации региональной подсистемы. Практическая значимость состоит в возможности использования результатов для прогнозирования развития ситуаци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и выработки рекомендаций по российской политике в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Понятие хеджирования, заимствованное из финансовой терминологии, утвердилось в теори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й

как обозначение стратегии государства, направленной на минимизацию рисков посредством одновременного поддержания конструктивных отношений с несколькими конкурирующими великими державами. В отличие от классической стратегии балансирования, предполагающей формирование коалиции против доминирующей силы, и в отличие от примыкания, означающего присоединение к сильнейшему, хеджирование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попытку избежать однозначного выбора стороны. Применительно к Южной Корее данная концепция получила детальное теоретическое обоснование в работе М. Кара, который определил хеджирование как комбинацию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вовлечения одной великой державы с укреплением воен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другой [1, с. 37].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на протяжении последних трёх десятилетий являлась одним из наиболее показательных примеров хеджирующего государства. После установления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с КНР в 1992 году Сеул последовательно наращивал экономическое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с Пекином, сохраняя при этом военно-политический союз с Вашингтоном. К началу 2020-х годов Китай сделался крупнейшим торговым партнёром Южной Кореи, на которого приходилось свыше 25 процентов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экспорта, тогда как Соединённые Штаты оставались гарантом безопасности, размещая на территории страны около 28,5 тысячи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10, с. 87–89].

Теоретическая дискуссия о возможностях и пределах хеджирования значительно активизировалась в 2020-е годы. К. Хе и Х. Фэн в монографии, посвящённой постхеджинговой эпохе, убедительно показали, что углубление американо-китайского соперничества сокращает пространство для двойственных стратегий, вынуждая государства Индо-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региона делать всё более определённый выбор [13, с. 15–18]. Дж. Син и Дж.-Ё. Ким, исследовавшие сдвиг в хеджирующем поведении Южной Кореи, констатировали, что при администрации Юн Сок Ёля произошёл переход от сбалансированного хеджирования к асимметричному, с явным креном в сторону Вашингтона [14].

Концепция дипломатии средней державы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другое ключевое теоретическое измерение исследуемой проблемы.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обладающая двенадцатой по величине экономикой мира и значительным военным потенциалом, систематически позиционирует себя как среднюю державу с

глобальными амбициями. Ли Ён У отмечает, что содержание южнокорейской дипломатии средней державы претерпело существенную эволюцию: от преимущественно функциональной роли посредника к статусной политике, направленной на утверждение страны в качестве глобального центра влияния [15]. Р. Пачеко Пардо и его соавторы, сравнивая реакции Японии и Южной Кореи на американо-китайское соперничество, пришли к выводу о том, что обе страны вышли за пределы классического хеджирования, но сделали это различными способами [16].

Л.-Э. Изли и К. Пак обратили внимание на противоречие между идентичностью средней державы и практическим поведением Сеула в Азии, зафиксировав разрыв между декларируемой инклюзивностью и фактической ориентацией на узкий круг партнёров [17, с. 242–263]. Данное наблюдение существенно для понимания ограничений, с которыми сталкивается южнокорейская внешняя политика при попытке совместить ценностную солидарность с демократическими государствами и прагматическое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с авторитарными режимами.

Американо-южнокорейский альянс, оформленный Договором о взаимной обороне 1953 года, на протяжении семи десятилетий являлся краеугольным камнем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Сеула. Однако характер союзнических обязательств и степень их институционализации существенно варьировались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политической ориентации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руководства. Либеральные администрации Ким Дэ Чжуна, Но Му Хёна и Мун Чжэ Ина тяготели к более автономному курсу, стремясь развивать межкорейский диалог и избегать конфронтации с Пекином. Консервативные президенты, напротив, делали акцент на укреплении альянса с Вашингтоном [11, с. 45–67].

Приход к власти Юн Сок Ёля в мае 2022 года ознаменовал качественный сдвиг в союзнической архитектуре. Стратегия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администрации Юна, опубликованная в июне 2023 года под заглавием, которое в переводе на русский язык звучит как «Глобальное ведущее государство ради свободы, мира и процветания», провозгласила переход альянса к новой парадигме, включающей ядерное измерение [18]. Документ определил ядерное оружие КНДР как наиболее острый вызов безопасности и зафиксировал отказ от стратегической двусмысленности предыдущих администраций в пользу ценностно ориентированной дипломатии.

Центральным элементом нового этапа альянса стала Вашингтонская декларация, подписанная президентами Дж. Байденом и Юн Сок Ёлем 26 апреля 2023 года в ознаменование семидесятилетия союзн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Декларация предусмотрела создание Консультативной группы по ядерным вопросам по образцу Группы ядерного планирования НАТО, а также закрепила обязательство о том, что любая ядерная атака Пхеньяна повлечёт стремительный и решительный ответ [5]. Практическим выражением этих договорённостей стал первый с 1981 года заход американской атомной подводной лодки с баллистическими ракетами в южнокорейский порт, а также начало совместного планирования конвенцион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ядерных операций.

Дальнейшее углубление союзнической интеграции произошло в рамках трёхстороннего саммита в Кэмп-Дэвиде 18 августа 2023 года, где лидеры США, Японии 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учредили механизм обязательных консультаций, ежегодных трёхсторонних учений и обмена данными противоракетной обороны в реальном времени [19]. А. В. Рина, исследуя последствия российского вторжения на Украину для альянса, отметил, что конфликт стал катализатором сближения Сеула с Вашингтоном и ослабил позиции сторонников сбалансированного курса внутри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истеблишмента [20, с. 95–113].

Вместе с тем укрепление альянса порождает и определённые издержки. С. А. Снайдер справедливо предупреждал о риске превращения союза в инструмент втягивания Южной Кореи в конфликты, не затрагивающие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её национальные интересы, в частности в тайваньский кризис [11, с. 201–215]. Южнокорейское общество остаётся расколотым по вопросу о границах союзнических обязательств: опросы показывают, что значительная часть населения опасается эскалации напряжённости с Китаем вследствие чрезмерного сближения с Вашингтоном.

Отношен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 Китайс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 представляют собой один из наиболее наглядных примеров противоречия между экономической интеграцией и стратегическим соперничеством в современных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ях. Двусторонний торговый оборот, достигший к 2022 году 310 миллиардов долларов, делает Китай незаменимым партнёром для южнокорейской экономики. Вместе с тем серия политических кризисов, начиная с так называемого «кризиса

THAAD» 2016–2017 годов, обнажила хрупкость данного партнёрства и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а готовность Пекина использовать экономическое давление в политических целях [8, с. 63–65].

Реш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ак Кын Хе о размещении на территории Южной Кореи американской системы противоракетной обороны THAAD в 2016 году стало переломным моментом в двусторонних отношениях. КНР, расценившая данный шаг как угрозу своему стратегическому потенциалу ядерного сдерживания ввиду возможностей радара системы по обнаружению пусков баллистических ракет на китайской территории, ввела неофициальные, но масштабные экономические санкции. Они затронули южнокорейскую индустрию туризма, развлечений, автомобильной и розничной торговли, причинив ущерб, оцениваемый в несколько миллиардов долларов. Хуан Сочжу, проанализировавший роль американского фактора в китайско-южно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ях,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кризис вокруг THAAD выявил структурную асимметрию: Пекин рассматривает отношения с Сеулом не автономно, а через призму соперничества с Вашингтоном [21, с. 73–84].

Администрация Юн Сок Ёля, в отличие от своего предшественника, не предприняла попыток «перезагрузки» отношений с Пекином. Напротив, Индо-Тихоокеанская стратег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опубликованная в декабре 2022 года, хотя и называет Китай «ключевым партнёром», одновременно акцентирует значение стабильности в Тайваньском проливе, что Пекин расценивает как вмешательство в свои внутренние дела [4]. Чжан и соавторы, исследовавшие экономическую динамику южнокорейско-кита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констатировали тенденцию к деглобализации и декаплингу, проявляющуюся в диверсификации цепочек поставок и снижении доли Китая в южнокорейском экспорте полупроводников [22].

уцВместе с тем полный разрыв экономических связей с Китаем остаётся для Сеула практически невозможным. Южнокорейские корпорации, прежде всего Samsung и SK Hynix, занимающие лидирующие позиции на мировом рынке полупроводниковой памяти, сохраняют значительные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е мощности на территории КНР. Американские требования об ограничении передачи технологий в Китай ставят эти компании перед сложной дилеммой, вынуждая балансировать

между соблюдением союзнических обязательств и защитой коммерческих интересов. Именно данное обстоятельство, по замечанию А. М. Отарчиева, объясняет, почему даже при явном прозападном курсе администрации Юна Сеул избегает присоединения к наиболее жёстким антикитайским инициативам [23, с. 130–134].

Российско-южнокорейские отношения, установленные в 1990 году, развивались по восходящей траектории вплоть до 2022 года, когда Россия начала специальную военную операцию на Украине. К. В. Асмолов и Л. В. Захарова отмечали, что, несмотря на значительный потенциал двусторонне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энергетической, логистической и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й сферах, российско-южнокорейские отношения неизменно оставались заложниками более широких геополитических процессов [24, с. 149–174]. Решение Южной Кореи присоединиться к западным санкциям против России и ограничить экспорт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товаров привело к резкому ухудшению двустороннего диалога.

Принципиально новую ситуацию создало подписание Договора о всеобъемлющем стратегическом партнёрстве между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ей и КНДР, состоявшееся 19 июня 2024 года в Пхеньяне. Договор, ратифицированный обеими сторонами и вступивший в силу 4 декабря 2024 года, содержит статью четвёртую, предусматривающую взаимную военную помощь «всеми имеющимися средствами без промедления» в случае вооружённого нападения на одну из сторон [3]. А. Л. Лукин охарактеризовал данное событие как конец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одиночества КНДР, отметив, что впервые с момента распада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Пхеньян получил действенные гарантии безопасности от ядерной державы [25, с. 126–143].

Подписание Договора о всеобъемлющем стратегическом партнёрстве между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ей и КНДР может рассматриваться как одно из проявлений ответной консолидации на углубление американо-южнокорейского союзническо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институционально оформленного, в частности, в Вашингтонской декларации 2023 года. При этом сопоставление данных документов требует учёта их различной юридической природы: если Вашингтонская декларация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политико-стратегическое заявление об усилении механизмов расширенного сдерживания, то российско-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документ является международным договором, содержащим взаимные обязательства в сфере военной помощи.

Дл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заключение данного договора имело ряд существенных последствий. Во-первых, оно фактически означало утрату Россией потенциала конструктивного посредника в урегулировании корейской проблемы. Если ранее Москва, несмотря на все ограничения, сохраняла возможность поддерживать рабочие отношения с обоими корейскими государствами и участвовать в многостороннем переговорном процессе, включая формат шестисторонних переговоров, то после 2024 года её позиция стала восприниматься Сеулом уже не как относительно сбалансированная, а как политически и стратегически ассоциированная с Пхеньяном. Иными словами, Россия в южнокорейском восприятии всё в меньшей степени выступает самостоятельным внешним актором и всё в большей степени — партнёром КНДР, что объективно подрывает доверие к её возможной посреднической роли. Во-вторых, российско-северокорейское сближение усилило позиции тех кругов в южнокорейском руководстве и экспертном сообществе, которые выступают за дальнейшее укрепление альянса с США, расширение механизмов сдерживания и даже за пересмотр прежних ограничений в вопросе о собственном ядерном потенциале.

В-третьих, использование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войск в вооружённом конфликте на Украине, сведения о котором появились в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е 2024 года, создало беспрецедентную ситуацию, при которой военнослужащие государства, формально находящегося в состоянии войны с Южной Кореей, участвуют в боевых действиях на стороне России. Это обстоятельство послужило основанием для обсуждения Сеулом возможности поставок летального вооружения Украине, что ранее считалось неприемлемым. Хонг Вансок, анализируя трёхстороннее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Росси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 КНДР, указал на то, что логика великодержавного соперничества вытесняет прежние форматы региональ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26].

Голобоков А. С. и соавторы, исследовавшие проблемы энергет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констатировали, что перспективные проекты трубопроводного газа и транзитных коридоров через территорию КНДР, которые ещё в 2010-е годы рассматривались как реалистичные, в нынешних условиях утратили какую-либо практическую перспективу [27].

Тем самым обострение великодержавного соперничества не только ухудшает состояние безопасности, но и лишает экономические отношения Южной Кореи с Россией стратегической перспективы.

Ядерная и ракетная программы КНДР на протяжении последних двадцати лет выступают центральным фактором, определяющим архитектуру безопасност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Серия ядерных испытаний, начатая в 2006 году, и особенно демонстрация в 2017 году способности поразить межконтинентальными баллистическими ракетами территорию материковой части Соединённых Штатов трансформировали характер угрозы: из регионального вызова она превратилась в глобальную проблему не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Совет Безопасности Организации Объединённых Наций принял девять санкционных резолюций в отношении КНДР, однако они не привели к отказу Пхеньяна от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28].

И. Н. Тимофеев, проанализировавший опыт применения многосторонних и односторонних санкций в отношении КНДР, пришёл к выводу о системной неэффективности санкционного инструментария, обусловленной как внутренней устойчивостью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режима, так и готовностью Китая и России смягчать санкционное давление [29]. Ситуация ещё более осложнилась в марте 2024 года, когда Россия наложила вето на продление мандата Группы экспертов Комитета Совета Безопасности ООН по санкциям против КНДР, фактически демонтировав ключевой механизм мониторинга соблюдения санкционного режима.

Реакцией Сеула на нарастание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угрозы стало не только углубление ядерного партнёрства с Вашингтоном, но и существенное ужесточение военной доктрины. Стратегия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2023 года определяет КНДР как главную угрозу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и фиксирует развитие возможностей упреждающего реагирования, включая концепцию превентивного нейтрализующего удара по ракетно-ядер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е противника в условиях неизбежной угрозы [18]. Одновременно возобновилась внутриполитическая дискуссия 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обретения Южной Кореей собственного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которая, по данным ряда социологиче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пользуется поддержкой свыше 70 процентов населения.

Сунь Чжуанчжи и соавторы, исследовавшие региональную архитектуру безопасности в Восточной Азии и Азиатско-

Тихоокеанском регионе, констатировали, что ядерный потенциал КНДР парадоксальным образом укрепляет присутствие Соединённых Штатов в регионе, поскольку именно северокорейская угроза служит основным обоснованием для размещения систем противоракетной обороны и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активов [30, с. 11–33]. Пекин, в свою очередь, рассматривает наращивание американского военного присутствия как угрозу своим интересам, что создаёт порочный круг наращивания военных потенциалов.

Принятие первой в истори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ндо-Тихоокеанской стратегии в декабре 2022 года стало событием, значение которого выходит далеко за рамки одного программного документа. До администрации Юн Сок Ёля Сеул сознательно избегал использования термина «Индо-Тихоокеанский регион», поскольку он ассоциировался с американской стратегией сдерживания Китая. Либеральная администрация Мун Чжэ Ина предпочитала понятие «Новая южная политика», подчёркивавшее экономическое измерени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о странами АСЕАН и Индией без явного геополитического позиционирования.

Стратегия, озаглавленная «За свободный, мирный и процветающий Индо-Тихоокеанский регион», основывается на трёх принципах: инклюзивности, доверии и взаимности. Документ определяет девять направлений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ключая свободу навигации, не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кибербезопасность, экономическое партнёрство и содействие развитию [4]. Примечательно, что стратегия подчёркнуто избегает прямого упоминания Китая в негативном контексте, называя КНР «ключевым партнёром» и указывая, что документ «не направлен против какой-либо конкретной экономики и не исключает её». Данная формулировка отражает стремление Сеула минимизировать конфронтационный потенциал стратегии.

Тем не менее эксперты Фонда науки и политики в Берлине отметили эволюцию южнокорейской стратегии в направлении более явного совпадения с американскими и японскими подходами [31]. Принятие стратегии было поддержано рядом конкретных шагов: присоединением Южной Кореи к многосторонним инициативам в области цепочек поставок полупроводников и критического сырья, расширением участия в учениях с партнёрами из 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региона, а также наращиванием экспорта вооружений. Последнее обстоятельство заслуживает особого

внимания: за период 2020–2024 годов Южная Корея стремительно превратилась в одного из крупнейших мировых экспортёров оборонной продукции, заключив контракты с Польшей, Австралией и рядом ближневосточных государств.

Критический анализ южнокорейской Индо-Тихоокеанской стратегии обнаруживает ряд внутренних противоречий.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принцип инклюзивности и декларируемое нежелание исключать какое-либо государство свидетельствуют о сохранении элементов хеджирования.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практические действия администрации Юна, включая участие в Вашингтонской декларации, трёхстороннем формате Кэмп-Дэвида и экспортном контроле в отношении Китая, указывают на фактический выбор стороны. Данное расхождение между декларативной инклюзивностью и практической ангажированностью порождает вопрос о том, является ли южнокорейская стратегия целостной или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компромисс между противоречивыми импульсами внутри правящей элиты.

Концепция многополярности, утвердившаяся в российском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ом дискурсе и получившая институциональное закрепление в Концепции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023 года, предполагает формирование нескольких центров силы, ни один из которых не обладает глобальной гегемонией [2]. Однако региональная подсистема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демонстрирует скорее тенденцию к биполяризации, нежели к формированию полицентричной структуры. На одном полюсе консолидируется американо-японо-южнокорейский блок, усиленный механизмами Кэмп-Дэвида, на другом — складывается ось Пекин—Москва—Пхеньян, институционально оформленная в Договоре о всеобъемлющем стратегическом партнёрстве между РФ и КНДР.

Дл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данная тенденция создаёт экзистенциальную дилемму. Биполяризация сужает пространство для маневрирования, которое составляло основу южнокорейской стратегии хеджирования на протяжении трёх десятилетий. А. В. Торкунов, Г. Д. Толорая и И. В. Дьячков справедливо отмечали, что Корейский полуостров неизменно служил лакмусовой бумагой состояния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й, и каждое обострение глобального соперничества немедленно отражалось на полуострове [6, с. 15–18]. Нынешняя ситуация подтверждает данный тезис:

конфликт на Украине, не имеющий прямого отношения к Корее, радикально изменил расстановку сил в регионе.

В. Д. Ча и Р. Пачеко Пардо, рассмотревшие историю Кореи в длительной исторической перспективе, подчеркнули, что положение на стыке великодержавных интересов является структурной константой корейской геополитики, воспроизводящейся с конца XIX века [12, с. 180–195]. Однако, в отличие от имперского периода, когда Корея была объектом великодержавной политики, современная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обладает достаточным экономическим и военным потенциалом, чтобы влиять на условия своего включения в систему альянсов.

Сравнительный анализ положения Южной Кореи с другими средними державами, оказавшимися в аналогичных структурных условиях, позволяет выявить закономерности, свойственные стратегиям балансирования в эпоху великодержавного соперничества. В. А. Аватков и Я. В. Агафонова провели сопоставительный анализ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 Турции как средних держав, балансирующих между конкурирующими центрами силы, и пришли к выводу о значительном сходстве структурных ограничений при существенном различии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ответов [32, с. 10–29]. Если Турция избрала модель демонстративной автономии, порой идущей вразрез с позицией своих союзников по НАТО, то Южная Корея при администрации Юна предпочла углубление альянсовой интеграции.

Проведённое исследование позволяет сформулировать ряд выводов о закономерностях и перспективах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условиях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соперничества великих держав.

Первый вывод касается трансформации стратегии хеджирования. Анализ показал, что под воздействием системных изменений 2022–2024 годов — конфликта на Украине, углубления американо-китайского соперничества и российско-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сближения — Южная Корея совершила переход от сбалансированного хеджирования к асимметричной стратегии с выраженным креном в сторону союза с США. Этот сдвиг нашёл институциональное выражение в Вашингтонской декларации, трёхстороннем формате Кэмп-Дэвида и Индо-Тихоокеанской стратегии. Однако сохранение ряда элементов хеджирования в экономической сфере свидетельствует о том, что полный отказ от

многовекторности не является ни желательным, ни возможным для Сеула.

Второй вывод связан с влиянием российско-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сближения на региональный баланс сил. Заключение Договора о всеобъемлющем стратегическом партнёрстве между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ей и КНДР в 2024 году существенно изменило стратегическую среду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Дл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данный шаг означал дальнейшее сокращение возможностей воспринимать Россию в качестве относительно самостоятельного и потенциально конструктивного участника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корейской проблемы. Одновременно углубление российско-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стало одним из факторов, усиливших ориентацию Сеула на западные механизмы безопасности. В более широком плане это способствовало дальнейшей поляризации региональной системы и укреплению тенденции к углублению американо-южнокорейской альянсовой интеграции.

Третий вывод относится к пределам дипломатии средней державы. Опыт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демонстрирует, что в условиях обострения великодержавного соперничества возможности средних держав по проведению автономного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ого курса существенно ограничены. Декларируемая инклюзивность Индо-Тихоокеанской стратегии вступает в противоречие с практикой участия в ограничительных мерах, направленных против Китая и России. Тем не менее само стремление Сеула к сохранению хотя бы формальной многовекторности указывает на понимание рисков, связанных с безоговорочным присоединением к одному из полюсов.

Четвёртый вывод носит прогностический характер. Внутриполитическая турбулентность в Южной Корее, кульминацией которой стал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кризис конца 2024 года, создаёт предпосылки для возможной корректировки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ого курса при смене администрации. Если к власти придёт руководство, ориентированное на возобновление межкорейского диалога и нормализацию отношений с Пекином, элементы хеджирования могут быть восстановлены. Однако структурные факторы — ядерный потенциал КНДР, российско-северокорейское партнёрство и американо-китайское соперничество — определяют жёсткие рамки, внутри которых

любая южнокорейская администрация будет вынуждена действовать.

Практическое значение полученных результатов состоит в том, что они позволяют оценить перспективы российско-южно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и выработать рекомендации по их возможной нормализации. Курс на стратегическое партнёрство с КНДР объективно противоречит задаче поддержания конструктивного диалога с Сеулом, и разрешение данного противоречия требует от российской дипломатии чёткого определения приоритетов на корейском направлении.

Список использованных источников:

1. Kara, M. To Hedge or Not to Hedge: South Korea's Dilemma in Great Power Competition // Текст: электронный / M. Kara // Asian Survey. 2025. Vol. 66. No. 1. P. 36–65. DOI: 10.1525/as.2025.2681731. https://online.ucpress.edu/as/article/66/1/36/212309/ (дата обращения: 05.04.2026).
2. Концепци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утв. Указом Президента Рос. Федерации от 31 марта 2023 г. № 229 (ред. от 31.03.2023) // Текст: электронный // СПС «КонсультантПлюс». http://kremlin.ru/events/president/news/70811 (дата обращения: 05.04.2026).
3. Договор о всеобъемлющем стратегическом партнёрстве между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ей и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ой: подписан 19 июня 2024 г. в г. Пхеньяне // Текст: электронный // Центральное телеграфное агентство Кореи (KCNA). https://kcnawatch.org/newstream/1718870859-459880358/dprk-russia-treaty-on-comprehensive-strategic-partnership/ (дата обращения: 05.04.2026).
4. Strategy for a Free, Peaceful, and Prosperous Indo-Pacific Region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Republic of Korea. Seoul, 2022. 37 p. // Текст: электронный. https://www.mofa.go.kr/eng/wpge/m_26382/contents.do (дата обращения: 05.04.2026).
5. Washington Declaration / The White House. April 26, 2023. // Текст: электронный. https://bidenwhitehouse.archives.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3/04/26/washington-declaration-2/ (дата обращения: 05.04.2026).
6. Торкунов, А. В. Современная Корея: метаморфозы турбулентных лет (2008–2020 гг.) / А. В. Торкунов, Г. Д. Толорая, И. В. Дьячков. Москва: Просвещение, 2021. 448 с. ISBN 978-5-09-081051-7.
7. Внешняя политика и дипломат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учебное пособие / М. П. Кукла, Л. Е. Козлов, Е. М. Ермолаева, К. А. Пак, В. И. Волощак ; под общ. ред. М. П. Куклы. Владивосток: Изд-во ДВФУ, 2022. 252 с.
8. Фархетдинова, Э. Т. Современное геополитическое положение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а стыке интересов США и КНР // Текст: электронный / Э. Т. Фархетдинова // Конфликтология / nota bene. 2023. № 1. С. 59–72. DOI: 10.7256/2454-0617.2023.1.37776.

https://cyberleninka.ru/article/n/sovremennoe-geopoliticheskoe-polozhenie-respubliki-koreya-na-styke-interesov-ssha-i-knr (дата обращения: 05.04.2026).
9. Волощак, В. И. Внешняя политик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осле президентских выборов 2022 г. / В. И. Волощак, А. Р. Безотосова, Н. И. Никоненкова // Текст: электронный // Известия Восточного института. 2023. № 1 (57). С. 156–166. https://cyberleninka.ru/article/n/vneshnyaya-politika-respubliki-koreya-posle-prezidentskih-vyborov-2022-g (дата обращения: 05.04.2026).
10. Pacheco Pardo, R. South Korea's Grand Strategy: Making Its Own Destiny / R. Pacheco Pardo.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23. 320 p. ISBN 978-0-231-20323-4.
11. Snyder, S. A. South Korea at the Crossroads: Autonomy and Alliance in an Era of Rival Powers / S. A. Snyde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8. 355 p. ISBN 978-0-231-18548-6.
12. Cha, V. D. Korea: A New History of South and North / V. D. Cha, R. Pacheco Pardo.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23. 268 p. ISBN 978-0-300-25981-0.
13. He, K. After Hedging: Hard Choices for the Indo-Pacific State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 K. He, H. Fe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3. 250 p.
14. Jin, S. Switching Lanes? South Korea's Shifting Hedging Behavior in the U.S.–China Rivalry / S. Jin, J.-Y. Kim // Australi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2025. Vol. 79. No. 6. P. 1–23. DOI: 10.1080/10357718.2025.2588415. Текст: электронный. https://www.tandfonline.com/doi/full/10.1080/10357718.2025.2588415 (дата обращения: 05.04.2026).
15. Lee, Y. W. Status Politics: The Changing Meanings and Practices of South Korea's Middle Power Diplomacy / Y. W. Lee // Текст: электронный // Global Policy. 2026. Vol. 17. No. S1. P. S84–S93. DOI: 10.1111/1758-5899.70133.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10.1111/1758-5899.70133 (дата обращения: 05.04.2026).
16. Pacheco Pardo, R. Beyond Hedging? Japanese and South Korean Responses to US–China Competition / R. Pacheco Pardo, R. Koga, B. Jing, E. A. Jo // Asian Survey. 2025. Vol. 65. No. 6. P. 785–809. DOI: 10.1525/as.2025.2646251. Текст: электронный. https://online.ucpress.edu/as/article/65/6/785/211992/ (дата обращения: 05.04.2026).
17. Easley, L.-E. South Korea's Mismatched Diplomacy in Asia: Middle Power Identity, Interests, and Foreign Policy / L.-E. Easley, K. Park // International Politics. 2018. Vol. 55. No. 2. P. 242–263. DOI: 10.1057/s41311-017-0073-5.
18. The Yoon Suk Yeol Administration's National Security Strategy: Global Pivotal State for Freedom, Peace and Prosperity / Office of National Security, Republic of Korea. Seoul, 2023. 147 p. Текст: электронный. https://assets.korearisk.com/uploads/2023/06/Yoon-Suk-yeol-Administrations-National-Security-Strategy-June-2023.pdf (дата обращения: 05.04.2026).
19. The Spirit of Camp David: Joint Statement of Japa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 The White House. August 18, 2023. // Текст: электронный. https://bidenwhitehouse.archives.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3/08/18/the-spirit-of-camp-david-joint-statement-of-japan-the-republic-of-korea-and-the-united-states/ (дата обращения: 05.04.2026).

20. Rinna, A. V. The Russia–South Korea Relationship after Russia's Invasion of Ukraine and Implications for the U.S.-ROK Alliance / A. V. Rinna // Asia Policy. 2023. Vol. 18. No. 1. P. 95–113. https://www.jstor.org/stable/27254618 (дата обращения: 05.04.2026).
21. Хуан Сочжу. Отношения Китая и Южной Кореи: роль американского фактора // Текст: электронный / Хуан Сочжу //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ий регион: экономика, политика, право. 2022. Т. 24. № 2. С. 73–84. DOI: 10.24866/1813-3274/2022-2/73-84. https://journals.dvfu.ru/ATR/article/view/159 (дата обращения: 05.04.2026).
22. Zhang, M. Toward Rivalry and Decoupling: South Korea's Changing Economic Dynamics with China / M. Zhang, Y. Wu // Pacific Focus. 2025. Vol. 40. No. 2. P. 359–391. DOI: 10.1111/pafo.70000. Текст: электронный.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10.1111/pafo.70000 (дата обращения: 05.04.2026).
23. Отарчиев, А. М. Как Южная Корея реагирует на соперничество США и Китая? // Текст: электронный / А. М. Отарчиев // Корееведение в России: направление и развитие. 2021. Т. 2. № 2. С. 130–134. https://cyberleninka.ru/article/n/kak-yuzhnaya-koreya-reagiruet-na-sopernichestvo-ssha-i-kitaya (дата обращения: 05.04.2026).
24. Asmolov, K. V. Russia's Relations with the Korean Peninsula States in Perspective / K. V. Asmolov, L. V. Zakharova // Текст: электронный // Russia in Global Affairs. 2023. Vol. 21. No. 4. P. 149–174. DOI: 10.31278/1810-6374-2023-21-4-149-174. https://eng.globalaffairs.ru/articles/russia-and-korean-peninsula/ (дата обращения: 05.04.2026).
25. Лукин, А. Л. Конец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одиночества КНДР? // Текст: электронный / А. Л. Лукин // Россия в глобальной политике. 2024. Т. 22. № 1. С. 126–143. https://cyberleninka.ru/article/n/konets-strategicheskogo-odinochestva-kndr (дата обращения: 05.04.2026).
26. Хонг Вансок. Трёхсторонне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РФ, РК и КНДР сквозь призму политики и экономики // Текст: электронный / Хонг Вансок // Вестник Санкт-Петербург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тношения. 2020. Т. 13. № 4. С. 556–568. https://irjournal.spbu.ru/article/view/7903 (дата обращения: 05.04.2026).
27. Голобоков, А. С. Проблемы энергет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в условиях угроз рег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 А. С. Голобоков, В. И. Сергеева, П. А. Пономарева // Территория новых возможностей. Вестник ВГУЭС. 2021. Т. 13. № 3. С. 45–56. Текст: электронный. https://cyberleninka.ru/article/n/problemy-energeticheskogo-sotrudnichestva-na-koreyskom-poluostrove-v-usloviyah-ugroz-regionalnoy-bezopasnosti (дата обращения: 05.04.2026).
28. Резолюции Совета Безопасности ООН в отношении КНДР // Текст: электронный // Совет Безопасности ООН. https://www.un.org/securitycouncil/sanctions/1718/resolutions (дата обращения: 05.04.2026).
29. Тимофеев, И. Н. Почему санкции терпят неудачу? Опыт международных и односторонних санкций в отношении КНДР // Текст: электронный / И. Н.

Тимофеев // Вестник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2025. Т. 20. № 1. DOI: 10.17323/1996-7845-2025-01-07. https://cyberleninka.ru/article/n/pochemu-sanktsii-terpyat-neudachu-opyt-mezhdunarodnyh-i-odnostoronnih-sanktsiy-v-otnoshenii-kndr (дата обращения: 05.04.2026).

30. Сунь Чжуанчжи. Восточная Азия и АТР: акторы и задачи региональной архитектуры мироустройства / Сунь Чжуанчжи, О. Г. Карпович, Е. Е. Власов [и др.] // Текст: электронный // Известия Восточного института. 2024. № 2. С. 11–33. DOI: 10.24866/2542-1611/2024-2/11-33. https://cyberleninka.ru/article/n/vostochnaya-aziya-i-atr-aktory-i-zadachi-regionalnoy-arhitektury-miroustroystva (дата обращения: 05.04.2026).
31. Ballbach, E. South Korea's Evolving Indo-Pacific Strategy / E. Ballbach ; Stiftung Wissenschaft und Politik (SWP). Berlin, 2023. 32 p. (SWP Research Paper; RP 02). DOI: 10.18449/2023RP02. Текст : электронный. https://www.swp-berlin.org/en/publication/south-koreas-evolving-indo-pacific-strategy (дата обращения: 05.04.2026).
32. Аватков, В. А.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и Турецкая Республика: сопоставительный анализ «братства по духу» / В. А. Аватков, Я. В. Агафонова // Текст: электронный // Регионология. 2023. Т. 31. № 1. С. 10–29. DOI: 10.15507/2413-1407.122.031.202301.010-029. https://cyberleninka.ru/article/n/respublika-koreya-i-turetskaya-respublika-sopostavitelnyy-analiz-bratstva-po-duhu (дата обращения: 05.04.2026).

AI-ДИПЛОМАТИЯ ЮЖНОЙ КОРЕИ В УСЛОВИЯХ ГЛОБАЛЬНОЙ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Й КОНКУРЕНЦИИ

Ким К.М.
КазУМОиМЯ им.Абылай хана
Алматы, Казахстан

Аннотация: В статье рассматривается AI-дипломатия Южной Кореи как новое направление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государства в условиях усиливающейся глобальной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й конкуренции. Анализируются основные направлен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ратегии Южной Кореи в сфере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особенности использования AI как инструмента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позиционирования,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и укрепления национальной конкурентоспособности.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уделяется участию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международном регулировании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развитию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сфере цифровых технологий и стремлению Сеула сформировать собственную модель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й дипломатии в условиях соперничества США и Китая. Исследуется роль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в трансформации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Южной Кореи, а также значение AI-дипломатии для укрепления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влияния государства и его участия в формирующейся системе глобаль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цифровыми технологиями.
Ключевые слова: Южная Корея, AI-дипломатия, искусственный интеллект,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тношения, цифровая дипломатия, технологическая безопасность, «мягкая сила», Индо-Тихоокеанская стратегия

Title: AI Diplomacy of South Korea in the Context of Global Technological Competition
Author: Kim Konstantin, Kazakh Ablai Khan University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World Languages, Almaty, Kazakhstan
Abstract: The article examines South Korea’s AI diplomacy as a new direction of the Republic of Korea’s foreign policy in the context of intensifying global technological competition. The study analyzes the main directions of South Korea’s state strategy in the field of artificial intelligence, as well as the specific features of using AI as a tool for international positioning, technological security, and strengthening national competitiveness. Particular attention is paid to the Republic of Korea’s participation in the international regul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the development of cooperation in the field of digital technologies, and Seoul’s efforts to form its own model of technological diplomacy amid the growing rivalr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The

article also explores the rol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transformation of South Korea's foreign policy, as well as the significance of AI diplomacy for strengthening the country's international influence and its participation in the emerging system of global governance of digital technologies.
Keywords: South Korea, AI diplomacy, artificial intelligence, international relations, digital diplomacy, technological security, soft power, Indo-Pacific Strategy

Искусственный интеллект постепенно превращается в один из ключевых факторов трансформации мировой политики и экономики XXI века. Если в начале 2010-х годов технологии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рассматривались преимущественно как направление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и научно-техн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то к середине 2020-х годов они стали важным элементом международной конкуренции, индикатором конкурентоспособности страны,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и глобаль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1].

Современные государства все чаще воспринимают искусственный интеллект не только как источник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оста, но и как инструмент геополитического влияния,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го суверенитета и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позиционирования. Наиболее заметными игроками в данной сфере традиционно являются США и КНР, однако в последние годы все более активную роль начинают играть другие государства, стремящиеся использовать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как источник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влияния и конкурентоспособности страны на мировой арене [2].

Одним из наиболее интересных примеров является Южная Корея, которая за несколько десятилетий смогла превратиться из государства-получателя международной помощи в одного из мировых технологических лидеров. Высокий уровень цифровизации, развитая полупроводниковая промышленность и активна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инновационная политика позволили стране претендовать на статус глобального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3].

Особенно активно тема AI-дипломатии начала развиваться в Южной Корее после принятия Национальной стратегии развития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в 2019 году и Индо-Тихоокеанской стратегии в 2022 году [4]. В последние годы южнокорей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все чаще связывает вопросы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с международной конкурентоспособностью, экономической безопасностью и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ой. Показательным стало создание в 2025 году специального подразделения AI Diplomacy Division в структуре Министерств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5].

Дополнительным фактором актуализации AI-дипломатии стало усиление глобальной конкуренции в сфере генеративного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после появления ChatGPT, Gemini, Claude, DeepSeek и других крупных языковых AI-моделей. Искусственный интеллект все чаще становится не только инструментом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но и частью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соперничества за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е лидерство, контроль над данными и цифровую инфраструктуру [6].

Цель данной статьи заключается в анализе AI-стратегии Южной Кореи как нового направлени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и исследовании роли страны в формирующейся системе глобаль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искусственным интеллектом, а также в выявлении потенциально полезного опыта для Казахстана, который в последние годы также активно развивает сферу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цифровизации и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й модернизации государства.

Формирование AI-дипломатии связано с более широкими изменениями в системе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й, где технологии становятся частью распределения силы между государствами. В современной теори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й искусственный интеллект рассматривается как стратегический ресурс, сопоставимый по значимости с энергетическими ресурсами или военными технологиями [7].

Понятие AI-дипломатии можно определить, как использование государством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цифров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для достижения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их целей. Данное направление формируется на пересечении цифровой дипломатии, научной дипломатии,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й политики и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регулирования [8].

Важный вклад в изучение данной проблематики внес коллектив авторов МГИМО в исследовании «"Цифра" и искусственный интеллект на службе дипломатии». Авторы подчеркивают, что цифровизация дипломатии меняет не только технические инструменты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но и

саму структуру дипломат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9].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е ведомства многих государств все чаще используют: анализ больших данных, автоматизированный мониторинг информационн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прогнозирование политических рисков, AI-системы поддержки принятия решений, цифровые платформы международной коммуникации. Подобные изменения особенно актуальны для Южной Кореи как государства с высоким уровнем цифровизации.

Схожую позицию занимает F. Roumate в работе «Artificial Intelligence and Digital Diplomacy: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Исследователь отмечает, что развитие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фундаментально меняет международную дипломатию, поскольку вопросы кибербезопасности, контроля над данными и цифрового суверенитета становятся важнейшей частью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ой повестки [10].

В отличие от традиционной дипломатии, сосредоточенной преимущественно на политических переговорах и меж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взаимодействии, AI-дипломатия охватывает значительно более широкий спектр направлений. Она включает участие государств в международном регулировании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разработке глобальных этических принципов и правовых норм использования AI-технологий, а также формировании механизмов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цифровой сферой. Одновременно AI-дипломатия связана с развитием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ежду государствами, защитой критически важ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обеспечением цифрового суверенитета. Важной частью данного направления становятся международные дискуссии по вопросам безопасности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контроля над данными, кибербезопасности и предотвращения технологических рисков, поскольку искусственный интеллект постепенно превращается не только в инструмент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но и в значимый фактор мировой политики и международ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Для Южной Кореи данные процессы имеют особое значение, поскольку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занимает уникальное положение в современной системе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й.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страна является одним из наиболее технологически развитых государств мира, обладающим высоким уровнем цифровизации, развитой полупроводников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ью и сильным инновационным сектором. Южнокорейские корпорации,

такие как Samsung Electronics и SK Hynix, играют ключевую роль в мировой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й индустрии, особенно в сфере производства полупроводников, чипов памяти и цифровых технологий, выступающих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й основой развития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высокопроизводительных вычислений и современной цифровой индустрии.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глубоко интегрирована в глобальную цифровую экономику и мировые цепочки поставок, что делает вопросы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й устойчивости и цифров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особенно важными для государства. Южная Корея активно участвует в международных технологических альянсах, сотрудничает с ведущими мировыми центрами разработки AI и стремится сохранить конкурентоспособность в условиях усиливающейся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й конкуренции между США и Китаем.

Дополнительное значение AI-дипломатии для Южной Кореи связано с ее тесным военно-политическим союзом с США, который на протяжении многих десятилетий остается одним из ключевых элементов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и системы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современных условиях данный союз постепенно выходит за рамки исключительно военно-полит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и все активнее распространяется на сферу высоких технологий, цифров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полупроводников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и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В результате вопросы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и цифров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начинают приобретать все более выраженное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ое и стратегическое значение.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фактически оказывается вовлеченной в более широкое соперничество Вашингтона и Пекина в сфере высоких технологий, полупроводников, кибербезопасности и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Усиливающаяся конкуренция между США и Китаем постепенно формирует новую конфигурацию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й, в которой технологические ресурсы, доступ к цифров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е и контроль над критически важными технологиями становятся важнейшими элементами глобального влияния и международной конкурентоспособности. В этих условиях Южная Корея оказывается в сложной ситуации, поскольку одновременно связана с Соединенными Штатами стратегическими союзническими обязательствами и глубоко интегрирована в экономические связи с Китаем.

В подобных условиях Сеул вынужден искать баланс между стратегическим партнерством с США и экономической зависимостью от китайского рынка, который остается одним из крупнейших направлений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экспорта. Дл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одобное балансирование становится особенно чувствительным в сфере полупроводников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и цифровых технологий, где усиливающаяся конкуренция между Вашингтоном и Пекином оказывает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е влияние на глобальные цепочки поставок, инвестиционные процессы и международное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 результате вопросы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полупроводников и цифров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постепенно становятся для Южной Кореи не только частью экономической политики, но и важным направлением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ой стратегии и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позиционирования государства.

Кроме того, Южная Корея находится в условиях постоянной угрозы кибер-конфликтов со стороны КНДР, что придает вопросам цифров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и развития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особое стратегическое значение. В последние годы киберпространство постепенно превращается в один из ключевых элементов международ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а цифровые технологии - в важный инструмент политического и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ого противостояния. Дл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данная проблема имеет особенно высокую актуальность в силу сохраняющейся напряженност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и продолжающегося военно-политического противостояния между двумя корейскими государствами.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на протяжении последних лет активно развивает собственные киберподразделения и регулярно обвиняется в осуществлении масштабных хакерских атак, кибершпионаже и попытках кражи цифровых активов. Международные аналитические центры 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яда государств неоднократно указывали на растущую активность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хакерских группировок в сфере кибероперациий, направленных проти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структур, финансовых организаций и цифров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различных стран. Подобные процессы усиливают обеспокоенность Южной Кореи вопросами защиты собственных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систем и устойчивости национальной цифров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В результате вопросы кибербезопасности, защиты цифров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и контроля над новыми технологиями становятся дл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е только частью экономической политики, но и важным элементом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и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ой стратегии. В условиях высокой цифровизации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потенциальные киберугрозы способны затрагивать не только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структуры, но и финансовый сектор, телекоммуникационные системы, технологические компании и критически важную инфраструктуру. Именно поэтому проблемы цифров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постепенно занимают все более важное место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ратегии Южной Кореи.

На этом фоне искусственный интеллект начинает рассматриваться не только как источник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го и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но и как важный инструмент обеспечения национальной устойчивости и безопасности государства. Поэтому AI-дипломатия для Южной Кореи является не только инструментом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позиционирования, укрепления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го имиджа и повышения глобальной конкурентоспособности, но и частью более широкой стратегии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в условиях усиливающейся цифровой и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й конкуренции XXI века.

Современная внешняя политика Южной Кореи во многом строится вокруг концепции «Middle power diplomacy», или дипломатии государства среднего уровня [11]. В отличие от крупных держав,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не обладает глобальным военно-политическим доминированием, однако активно использует экономические, технологические и культурные инструменты влияния. Южная Корея стремится расширить собственную роль в международной системе через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е лидерство, международное посредничество, участие в глобальном управлении и развитие «мягкой силы». Экономическая модель Южной Кореи во многом основана на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Особую роль играют южнокорейские корпорации Samsung Electronics, LG и SK Hynix, являющиеся ключевыми игроками мирового рынка полупроводников. В условиях стремительного развития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значение полупроводниковой отрасли существенно возросло, поскольку вычислительные мощности и AI-чипы становятся основой развития генеративного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12].

Дополнительный интерес представляет то, что Южная Корея все чаще стремится использовать технологический сектор как элемент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ого влияния. Например, экспорт цифровых решений, электрон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и телекоммуникаций становится частью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позиционирования государства [13]. В последние годы правительство Южной Кореи рассматривает искусственный интеллект как основу будуще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оста и международной конкурентоспособности. Страна поставила цель войти в число мировых лидеров в сфере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и цифровых технологий [4].

Поворотным моментом для развития корейской AI-дипломатии стало принятие в 2019 году Национальной стратегии развития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Документ обозначил намерение Южной Кореи стать одним из мировых лидеров в данной сфере [4]. Стратегия предусматривала масштабные инвестиции в научные исследования, подготовку специалистов, внедрение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управление, поддержку технологических стартапов и развитие цифровой экономики.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ратегии уделялось формированию собственной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й экосистемы и снижению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внешних технологических игроков. Южная Корея стремилась укрепить национальный потенциал в ключевых сферах, связанных с развитием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и цифровой экономики. В этих целях государство активно инвестировало в производство AI-полупроводников, развитие центров обработки данных, робототехнику, облачные технологии и модернизацию цифров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Подобный подход был направлен не только на стимулирование инновационного роста, но и на обеспечение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й устойчивости страны в условиях усиливающейся глобальной конкуренции и растущей зависимости мировой экономики от цифровых технологий.

Дополнительным фактором стала конкуренция между США и Китаем в сфере полупроводников. Южная Корея оказалась в сложной ситуации между двумя крупнейшими технологическими державами, поскольку одновременно зависит от китайского рынка и американских технологических альянсов [14].

В Индо-Тихоокеанской стратегии 2022 года вопросы цифровой взаимосвязанности, устойчивости технологических

цепочек поставок и инновацион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заняли одно из центральных мест [15].

Одновременно Южная Корея начала активно участвовать в международных дискуссиях по вопросам регулирования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поддержала рекомендации UNESCO по этике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и усилила участие в международных форумах по вопросам AI [16].

К середине 2020-х годов AI-дипломатия окончательно стала самостоятельным направлением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Южной Кореи. Особенно показательным стало создание в феврале 2025 года специального подразделения AI Diplomacy Division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5]. Согласно официальному заявлению Министерств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новое подразделение должно играть ключевую роль в формировании и продвижении международной стратегии Южной Кореи в сфере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В мае 2025 года Министер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также объявило о запуске проекта по внедрению генеративного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в дипломатическ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17]. Данная инициатива предполагает постепенную интеграцию AI-технологий в работу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структур.

Южнокорейская модель AI-дипломатии включает несколько взаимосвязанных направлений. Во-первых,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активно участвует в формировани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стандартов и этических принципов использования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В отличие от США и Китая, которые преимущественно ориентируются на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е доминирование, Южная Корея стремится позиционировать себя как ответственное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е государство, поддерживающее баланс между инновациями и регулированием. Во-вторых, AI-дипломатия тесно связана с вопросами экономическ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Южная Корея рассматривает искусственный интеллект, полупроводники и критически важные технологии как часть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18]. В-третьих, AI-дипломатия становится частью стратегии «мягкой силы». Южная Корея стремится формировать международный образ инновационного общества,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го лидера и ответственного участника глобаль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Кроме того, Южная Корея активно использует международные технологические форумы как инструмент дипломатического влияния. В частности, Seoul AI Summit 2024 стал

площадкой для обсуждения вопросов безопасности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и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регулирования AI [19].

Одним из наиболее важных аспектов южнокорейской AI-дипломатии является участие страны в международном регулировании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В мировой практике постепенно формируются несколько конкурирующих моделей регулирования AI. Американский подход ориентирован на рыночное развитие технологий, европейский - на регулирование рисков и защиту прав человека, а китайский - на усиленную роль государства в контроле над цифровой сферой [20]. Южная Корея пытается сформировать собственный гибридный подход, сочетающий поддержку инноваций и элементы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регулирования. Особое значение имеет принятие Закона о рамочной программе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вступившего в силу в 2026 году. Закон стал одной из первых комплексных правовых систем регулирования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в мире [21].

Южнокорейская модель регулирования ориентирована не только на контроль рисков, но и на стимулирование развития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й индустрии. Такой подход предполагает поиск баланса между безопасностью и инновациями. При этом южнокорей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одчеркивает необходимость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сфере AI управления. Страна стремится выступать посредником между различными моделями регулирования и поддерживать развитие глобальных стандартов использования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22].

Несмотря на активное развитие AI-дипломатии, Южная Корея сталкивается с рядом серьезных ограничений. Главной проблемой остается доминирование США и Китая в глобальной системе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Южнокорейские компании обладают сильными позициями в полупроводниковой отрасли, однако значительно уступают американским и китайским корпорациям в области крупных языковых AI-моделей и цифровых платформ [23].

Кроме того, Южная Корея остается зависимой от мировых технологических цепочек поставок, что создает уязвимость в условиях растущей фрагментации мировой экономики.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сложности связаны с внутренними дискуссиями вокруг регулирования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Часть бизнеса опасается, что чрезмерно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регулирование может снизить конкурентоспособность южнокорейских технологических компаний. Одновременно гражданское общество поднимает вопросы защиты персональных данных, цифрового неравенства и алгоритмической дискриминации [24].

Показательным примером растущих опасений в сфере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стала временная блокировка китайского AI-сервиса DeepSeek в ряде южнокорейских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структур из-за опасений, связанных с защитой данных [25]. Дополнительным вызовом является дефицит высоко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в сфере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Несмотря на высокий уровень образования, Южная Корея сталкивается с конкуренцией за AI-таланты со стороны США и Китая [26].

AI-дипломатия постепенно становится одним из ключевых направлений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условиях усиливающейся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й конкуренции Южная Корея стремится использовать искусственный интеллект как инструмент укрепления международной конкурентоспособности,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и глобального влияния.

В отличие от традиционной дипломатии, AI-дипломатия объединяет элементы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й политики, экономическ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цифрового суверенитета, «мягкой силы» и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регулирования.

Южная Корея пытается сформировать собственную модель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й дипломатии государства среднего уровня, балансируя между США и Китаем и одновременно усиливая участие в глобальном управлении искусственным интеллектом. Создание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ого подразделения AI Diplomacy Division, принятие комплексного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а в сфере AI и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в международных форумах свидетельствуют о том, что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рассматривает искусственный интеллект как стратегическое направление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XXI века. В дальнейшем значение AI-дипломатии, безусловно, будет только возрастать по мере усиления роли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в мировой экономике, международ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и глобальном управлении.

Список использованных источников:

1. Nye J. *Soft Power: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 New York: Public Affairs, 2004. 191 p.
2. Acharya A. *The End of American World Order*. Cambridge: Polity Press, 2018. 256 p.
3. Kim S. South Korea's Digital Transformation and AI Policy //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2023. Vol. 21. pp. 45–67.
4. Ministry of Science and ICT of the Republic of Korea. *National Strategy for Artificial Intelligence*. Seoul, 2019. 54 p.
5.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Korea. *Launch of AI Diplomacy Division*. Seoul, 2025.
6. World Economic Forum. *Global Risks Report 2024*. Geneva: WEF, 2024. 120 p.
7. Tallberg J., Erman E., Furendal M. The Global Governance of Artificial Intelligence: Next Steps for Empirical and Normative Research // *arXiv*. 2023. arXiv:2301.01234.
8. Roumate 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Digital Diplomacy: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Cham: Springer, 2021. 210 p.
9. Коллектив авторов МГИМО. «Цифра» и искусственный интеллект на службе дипломатии. Москва: МГИМО, 2024. 312 с.
10. Kello L. *The Virtual Weapon and International Order*.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17. 320 p.
11. Ballbach E. J. *South Korea's Evolving Indo-Pacific Strategy*. SWP Research Paper. Berlin: Stiftung Wissenschaft und Politik, 2023. 45 p.
12. OECD. *Artificial Intelligence in Society*. Paris: OECD Publishing, 2019. 280 p.
13. Korean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KISDI). *Global AI Governance and Korea's AI Diplomacy*. Seoul, 2025.
14.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Governing AI in the Shadow of Giants: Korea's Strategic Response to Great Power AI Competition*. Washington, D.C., 2026.
15.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Korea. *Strategy for a Free, Peaceful, and Prosperous Indo-Pacific Region*. Seoul, 2022.
16. UNESCO. *Recommendation on the Ethics of Artificial Intelligence*. Paris: UNESCO, 2021.
17.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Korea. *Full-Scale Launch of "AI in Diplomacy" Project*. Seoul, 2025.
18. Park D. H. A Tough Balancing Act: The Evolving AI Governance in Korea // *Journal of Cyber Policy*. 2024. Vol. 9. No. 2. pp. 134–152.
19. Seoul AI Summit. *Seoul Declaration on AI Safety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Seoul, 2024.

20. UNESCO. *Global AI Ethics and Governance Observatory*. Paris: UNESCO, 2024.
21. Reuters. South Korea Launches Landmark Laws to Regulate AI // *Reuters Technology News*. 2026.
22. United Nations. *Governing AI for Humanity: International Cooperation Report*. New York: UN, 2025.
23. Lee J. Artificial Intelligence and Global Governance in East Asia // *Asian Perspective*. 2024. Vol. 48. No. 3. pp. 89–110.
24. Reuters. South Korea Temporarily Restricts DeepSeek Access Over Security Concerns // *Reuters Asia Technology Coverage*. 2025.
25. The Guardian. South Korea's New AI Regulations and the Debate on Innovation // *The Guardian Technology Section*. 2026.
26. East Asia Forum. South Korea's AI Revolution and the Competition for Talent. 2026.

СРЕДСТВА ВЫРАЖЕНИЯ СПОСОБОВ ДЕЙСТВИЯ В ЛИТЕРАТУРНОМ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КОРЁ МАР И РУССКОМ ЯЗЫКЕ

Ким У.А., Пак Н.С.
КазУМОиМЯ им.Абылай хана
Алматы, Казахстан

Аннотация: В статье рассматриваются способы действия в литературном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и корё мар в сопоставлении с русским языком. Анализируются основные разряды способов действия, включая начинательный, длительный, результативный, многократный и завершительный.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уделяется средствам их выражения в литературном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и языке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стран бывшего СССР — корё мар. Установлено, что в отличие от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где способы действия преимущественно выражаются словообразовательными средствами,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основную роль играют аналитические конструкции с вспомогательными глаголами. Выявлены как общие черты, так и специфические особенности функционирования способов действия в корё мар, отражающие сохранение архаичных элементов корейской языковой системы. Данные исследования могут быть использованы в области сопоставительного языкознания, корееведения и теории перевода.
Ключевые слова: способы действия, аспектуальность,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корё мар, русский язык, аналитические конструкции, вспомогательные глаголы

Title: Means of Expressing Modes of Action in Korean Language, Koryo Mar, and Russian
Author: Kim Ulyana, Pak Nelly, Kazakh Ablai Khan University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World Languages, Almaty, Kazakhstan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modes of action in literary Korean and Koryo Mar in comparison with Russian. The main categories of modes of action are analysed, including incipient, continuous, resultative, repeated, and final. Particular attention is paid to the means of expressing them in Korean language and Koryo Mar, the language of the Korean diaspora in the former Soviet Union. It is established that, unlike Russian, where modes of action are primarily expressed through word-formation, in Korean, analytical constructions with auxiliary verbs play a primary role. Both common features and specific characteristics of the functioning of modes of action in Koryo Mar are identified, reflecting the preservation of archaic elements of the Korean linguistic system.

The research data can be used in the fields of comparative linguistics, Korean studies and translation theory.
Keywords: modes of verbal action, aspectuality, Korean language, Koryo mar, Russian language, analytical constructions, auxiliary verbs, comparative linguistics

Введение

Категория способов действия (далее СД) является важной лексико-грамматической категорией, которая описывает отношение между действием, которое выполняет глагол, и его способом выполнения. Она позволяет нам выразить различные оттенки значения глагола и точнее передать наше намерение в выражении мыслей. Кроме того, категория СД отличается в разных языках различными способами выражения, например,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имеет богатую систему форм его выражения. Категория СД также имеет важное значение для описания аспектуальных характеристик глагола. В различных языках категория СД может выражаться разными способами, например, через глагольные окончания, модальные глаголы, наречия и т.д. Изучение этой категории не только помогает лучше понять особенности того или иного языка, в том числе и рассматриваемого нами корейского, но и расширяет наши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выражения смысловых оттенков в речи. Более того, категория СД активно используется в различных стилях речи, в том числе в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литературе и поэзии, где многозначность и точность выражения являются ключевыми факторами.

Актуальность исследования обусловлена необходимостью сопоставительного изучения средств выражения способов действия в языках различных типологических групп. В разных языках он выражается различными способами: так,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СД выражаются преимущественно словообразовательными средствами, а в корейском и многих других языках агглютинативного типа – либо только лексически, либо сочетанием главного и вспомогательного глаголов. Выявление названных различий в корейском и русском языках представляется крайне интересным и важным, а также актуальным как в лингвистике и переводоведении, так и в письменной и устной формах межкультурной коммуникации. Однако названная категория на материал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еще недостаточно изучена. В этом контексте изучение категории СД чрезвычайно актуально и имеет

важное значение не только для лингвистов, но и для всех, кто интересуется корейским языком.

Цель исследования заключается в выявлении и сопоставлении основных способов действия и средств выражения в литературном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корё мар и русском языке. Корё мар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язык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стран бывшего СССР, сформировавшийся на основе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диалектов конца XIX – начала XX века. Длительное функционирование вдали в иной языковой среде привело к сохранению рядя архаичных корейских форм и одновременно к появлению особенностей.

Способы действия – семантико-грамматическая категория, выражающая способ протекания действия, характер этого протекания или состояния во времени [1]. Установлено, что термин Aktionsart был введен С. Агреллем в начале XX века для обозначения семантических модификаций глагольного действия. Это был первый ученый, который представил важность разделения категории вида и категории СД относительно славянских языков. Противопоставление вида и СД он сформулировал следующим образом: «Под способом действия (Aktionsart) я подразумеваю … не формы, обозначающие незаконченные и законченные действия (имперфективный и перфективный глагол), – эти категории я называю видами (Aspekte). Термином «способы действия» я обозначаю … семантические функции приставочных глаголов (а также некоторых бесприставочных глаголов и суффикс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которые уточняют, как совершается действие, обозначают способ его осуществления» [2]. Не вникая в некоторые детали раннего периода изучения СД, отметим только, что значительный вклад в формирование данного понятия был внесен работами выдающихся лингвистов А.А. Шахматовым, А.А. Потебня, В.В. Виноградовым.

Следует отметить, что существует множество исследований, которые включают компаративный аспект изучения проблемы, например, на материале венгерского и русского языков С. Дежё; на материале испанского и русского языков Е. Горбовой; на материале корейского и русского языков Н.С. Пак.

Способ глагольного действия является своеобразной семантико-слово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категорией группы глаголов, в лексической семантике которых лежат значения фазисности, терминативности, начинательности, результативности и другие способы протекания действий [3]. Изучаются глаголы, которые

могут изменяться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характера протекания действия, значения начальной формы глагола, его состояния во времени и других характеристик. Эти глаголы могут быть отнесены к категории СД, которая применима к производным глаголам, в которых словообразовательный показатель становится модификационным компонентом. Таким образом, понятие СД не является универсальным для всей глагольной лексики, а применяется только к определенным категориям глаголов.

Категория СД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является одной из важных категорий глагола и отражает различные аспекты выполнения действия. Как отмечает корейский лингвист Пак Ёнсук, «категория СД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является собственной категорией глагола, которая отличается от таких категорий, как время, аспект и наклонение, и она играет важную роль в точном выражении того, как выполняется действие» [4]. Важность данной категории отмечается и в других источниках, например, в работе Юн Ёнсука «Основы корейской грамматики». Она также подчеркивает, что категория СД играет ключевую роль в корейской грамматике и ее понимании, а также в правильном выборе глаголов в разных ситуациях [5]. В целом, можно сказать, что категория СД имеет статус важной и необходимой категории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Категория СД является неотъемлемой частью грамматической системы многих языков, и ее наличие позволяет точнее и более разнообразно выражать различные оттенки значения и контексты действия в языке. Эта категория позволяет передавать информацию о том, каким образом происходит действие, и какое значение несет собой конкретный глагол в данном контексте.

Категория способа действия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считается одной из важнейших грамматических категорий. СД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используется для выражения тонких нюансов в описании действий и процессов, таких как интенсивность, частотность, оценка и т. Д. Кроме того, СД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тесно связана с категорией времени и аспекта, и их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определяет особенности употребления глаголов. Важно отметить, что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существует множество разных разрядов СД, что позволяет более точно описывать действия. Таким образом, категория СД играет важную роль в корейской грамматике и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необходимый элемент для понимания и использования языка.

В данной работе мы рассмотрим следующие разряды категории СД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1. Начинательный СД – выражает, что субъект начинает действие или что действие начинается в процессе речи.
2. Длительный СД – выражает действие, которое продолжается в течение некоторого периода времени или описывает длительное действие.
3. Результативный СД – выражает результат или состояние, полученное в результате действия.
4. Завершительный (финитный) СД – выражает идею о завершенности действия, остановки процесса и указывает на определенный временной период выполнения действия.
5. Многократный СД – выражает, что действие было выполнено несколько раз.

Рассмотрим категории способа действия в литературном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по средствам выражения этих категорий. Они существенно отличаются от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В отличие от русского языка, способы действия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выражаются преимущественно аналитическими конструкциями, включающими основной и вспомогательный глаголы. Категория СД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выражается с помощью различных специальных окончаний, которые присоединяются к корню глагола. Как отмечает исследователь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Ли Мёнг Чжу,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эти окончания могут использоваться для передачи информации о временных отношениях, субъективной оценке, а также для выражения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говорящим и действием. Он также отмечает, что категория СД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играет важную роль в создании сложных глагольных форм и соединений с другими глаголами [6]. Функциональные особенности выражения категории СД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также могут быть связаны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различных слов и конструкций, которые помогают передать нюансы выражения способов действия. Например,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используются различные формы глаголов, такие как форма повелительного наклонения, которая может выражать не только приказ, но и просьбу или совет. Также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есть конструкция, состоящая из деепричастной формы одного глагола с аффиксом -아/-어 и основного глагола 가다, выражающие длительность действия и может использоваться для передачи оттенков значения иных способов действия. Кроме того,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существует множество глагольных сочетаний,

которые выражают определенный СД, например, сочетание глагола делать и слова быстро может выражать СД скорость действия.

В данной работе рассмотрены следующие разряды СД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начинательный, длительный, результативный, многократный, завершительный.

Итак, перейдем к рассмотрению самих СД и средств их выражения в литературном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и их эквивалентов на коре мар. Следует отметить, что при передаче примеров на корё мар в настоящей работе в ряде случаев используется транскрипционная запись, сопровождаемая переводом. Это связано с тем, что отдельные лексические единицы и грамматические конструкции в корё мар могут графически совпадать с литературным корейским языком, однако отличаться фонетической реализацией. В таких случаях в скобках приводится приблизительное произношение, отражающее специфику устной формы функционирования корё мар.

1. Начинательный СД выражает начало действия или переход субъекта к выполнению

нового действия. В литературном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наиболее распространённым средством выражения является глагол 시작하다 начинать.

Например: 공부를 시작하다 начать учиться, 일을 시작하다 – начать работать, 노래를 시작하다 – начать петь.

В коре мар он выражается лексемой – 시작한다 (сиджакханда) начинать. В коре мар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используется:

나느 공부르 시작한다 (наны конъбуры сиджакханда) – я начинаю учиться.

일으 시작한다 (иры сиджакханда) – начинаю работать.

노래르 시작한다 (нореры сиджакханда) – начинаю петь.

2. Длительный СД выражает продолжительность процесса или состояния во времени.

В литературном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основным средством выражения является конструкция -고 있다.

Например: 공부하고 있다 – учится; 일하고 있다 – работает; 마시고 있다 – пьет.

Рассмотрим похожую конструкцию в коре мар. В коре мар длительный способ действия выражается конструкцией -구 잇다 (– гу + итта)

Например: 공부하구 잇다 (конбухагу итта) – учится; 일하구 잇다 (ирхагу итта) – работает; 마시구 잇다 (масигу итта) – пьет.

Следующим выражением способа действия в литературном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который мы

рассмотрим, является конструкция -아/-어 주다 (дрида) – выражает действие, совершаемое в интересах другого лица, при этом результат действия направлен на адресата и сохраняет свою значимость после завершения действия.

Например: 도와 주다 – помочь кому-либо, 가르쳐 주다 – научить, 읽어 주다 – прочитать кому-либо, в вежливой форме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도와 드리겠습니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읽고 드리겠습니다.

В коре мар данной конструкции соответствует -아/-어 준다 (чунда) / 드린다 (тыринда).

Например: тоба чунда/тыринда 돕아 준다 (тоба чунда) / вежл. 돕아 드린다 (тоба тыринда) – помогать кому-либо [1]. 닑어 준다 (ниргэ чунда) / 읽어 준다 (иргэ чунда)

Конструкция -아/-어 두다 – обозначает выполнение действие заранее с сохранением его результата в последующий момент времени. Это типичный показатель результативного СД.

Например: 문을 열어 두었다. – Оставил дверь открытой.

창문을 닫아 두었다. – Закрыл окно и оставил закрытым.

책상 위에 책을 놓아 두었다. – Положил книгу на стол и оставил ее там.

В коре мар данная конструкция также состоит из деепричастия с аффиксом -아/-어 и глаголом 둔다.

Например: 그냥 노아 두엇소 (кынян ноа туэссо). – Просто оставил как есть.

3. Результативный СД обозначает действие, завершение которого приводит к возникновению определенного результата или нового состояния объекта. При этом внимание концентрируется не на процессе действия, а на его конечном результате.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результативное значение чаще всего выражается аналитическими конструкциями с деепричастной формой на -아/-어 и вспомогательными глаголам 놓다, 두다, 있다.

Наиболее распространённой является конструкция -아/-어 놓다, обозначающая завершенное действие, результат которого сохраняется к определенному моменту времени.

Например: 문을 열어 놓았다. – Открыл дверь и оставил открытой.

숙제를 해 놓았다. – Сделал домашнее задание.

음식을 만들어 놓았다. – Приготовила еду заранее.

Для образования данного способа в коре мар используются деепричастная форма -아/-어 и вспомогательные глаголы 놓는다 (ноннында), 둔다 (тунда), 가진다 (каджинда), 지운다 (чиунда), 먹는다 (мэнънында).

Например: 먹어 가지구 (мэгэ каджигу) – покушав.

숙제르 해 놓앗다 (сукчеры хä ноатта) – сделал домашнее задание.

Особый интерес представляют различия между литературным корейским языком и корё мар в реализации конструкции сохраненного состояния. В литературном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результативное состояние выражается преимущественно пассивно-результативными конструкциями типа 열려 있다 – открыт, 닫혀 있다 – закрыт. Тогда как в коре мар данное значение передаётся сочетанием деепричастной формы с аффиксом -아/-어 и глаголом 있다: 열어 잇다 – открыт, 닫아 잇다 – закрыт. В этих случаях длительность относится уже не к процессу, а к результативному состоянию.

Такая особенность свидетельствует о сохранении более архаичной модели выражения результативного состояния, в которой акцент делается на завершенность действия и сохранении его результата.

Таким образом, конструкции 열려 있다, 닫혀 있다 в литературном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и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им 열어 잇다, 닫아 잇다 в коре мар выражают длительно-результативный СД, при котором актуализируется не сам процесс действия, а сохраняющееся состояние, возникшее в результате его завершения.

4. Многократный СД обозначает действие, которое повторяется неоднократно или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регулярно на протяжении определённого периода времени. В отличие от однократного действия, здесь важным является значение повторяемости.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многократность может выражаться как лексически, посредством специальных глаголов со значением повторяющегося действия, так и контекстуально.

Например, в литературном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다니다 – ходить/посещать регулярно, 오가다 – ходить туда и обратно, 드나들다 – входить и выходить/постоянно бывать где-либо.

В коре мар аналогичное значение выражается глаголом 댕긴다 (тäнъгинда) – ходить/посещать регулярно/ бывать, который соответствует литературному корейскому 다니다 (ходить/ посещать регулярно) [1].

Например: 핵교 댕기오 (хäккё тäнъгио) – ходит в школу.

우리 집에 자주르 댕곗습구마. – Часто ходил к нам домой.

Многократность в подобных случаях обусловлена самой семантикой глагола, обозначающего регулярно повторяющееся действие. Поэтому данный способ действия обычно рассматривается как лексико-семантический.

Следует отметить, что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способы действия чаще выражаются аналитическими конструкциями с вспомогательными глаголами, тогда как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основным средством их выражения выступают приставки и суффиксы. Эта особенность отражает агглютинативный характер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 аналитические тенденции в выражении аспектуальных значений.

5. Завершительный (финитный) СД обозначает завершение действия, прекращение процесса

или достижения конечной точки развития ситуации. В центре внимания находится предел действия и его завершенность.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данное значение реализуется аналитическими конструкциями со вспомогательными глаголами 놓다, 버리다, 내다, а также конструкцией -고 말다.

Рассмотрим основные средства выражения в литературном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и в коре мар, основной отличительной чертой которого является его функционирование только в устной форме.

В коре мар данная форма СД также выражается сочетанием деепричастия с аффиксом -아/-어 и вспомогательными глаголами 놓는다 (нонныында), 버린다 (пэринда), 낸다 (нäнда). Как видим в примерах, в отличие от литературного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в коре мар вспомогательные глаголы представлены не в начальной форме.

1. Конструкция -아/어 버리다, состоящая из деепричастия с аффиксом -아/-어 и вспомогательного глагола 버리다, обозначает полное завершение действия, часто с оттенком необратимости.

Например: 먹어 버리다 – съесть полностью, 잊어 버리다 – окончательно забыть, 잃어 버리다 – потерять.

2. Конструкция -아/-어 놓다 обозначает завершение действия с сохранением его результата.

Например: 문을 열어 놓다 – открыть дверь и оставить открытой.

준비해 놓다 – подготовить заранее.

В коре мар данная форма СД также выражается сочетанием деепричастия с аффиксом -아/-어 и вспомогательным глаголом 놓는다 (нонныда).

Например: 문을 열어 놓는다 – открыть дверь и оставить открытой.

준비해 놓는다 – подготовить заранее.

3. Конструкция -고 말다 обозначает окончательное завершение действия. Конструкция состоит из деепричастия с аффиксом -고 и вспомогательным глаголом 말다.

Например: 끝내고 말다 – окончательно закончить

그만두고 말다 – совсем прекратить

В корё мар данная конструкция употребляется достаточно активно. Однако есть некоторые отличия. Так, например, в коре мар данная форма СД состоит из деепричастия с аффиксом -구 и вспомогательным глаголом 말다 (марда).

Например: 그만두구 말앗습구마 (Кымантугу марасыккума) – совсем прекратил.

Анализ материала показывает, что система способов действия в коре мар в целом совпадает с системой литературного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 реализуется преимущественно аналитическими конструкциями с вспомогательными глаголами. Вместе с тем в коре мар наблюдается сохранение ряда архаичных диалектных форм северохамгёнского происхождения, а также более высокая частотность некоторых аналитических конструкций, что отражает особенности истор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языка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Категория СД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так же, как и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имеет высокий статус, так как она является одной из основных грамматических категорий глагола. Различные разряды СД, такие как настоящее, прошедшее, будущее время изъявительного наклонения, или повелительное наклонение, которые отражают различные аспекты действия и позволяют

описывать его более точно и точнее передавать смысл высказывания.

Кроме того, категория СД, связанная с категорией вида глагола, также имеет высокий статус в русском и других славянских языках. Они взаимосвязаны и совместно обеспечивают богатую систему глагольных форм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Знание и понимание различных разрядов СД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является необходимым для эффективного использования языка в письменной и в устной формах речи, а также для понимания литературных и разговорных текстов. Следует отметить, что сами разряды способов действия в различных языках варьируются.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выделяют следующие разряды СД, некоторые из которых совпадают с корейскими, а также отличительные:

1. Начинательный СД – это разряд СД глагола, который выражает начало действия, его зарождение или первичность в отношении других действий. Глаголы, относящиеся к этому разряду, указывают на начало процесса или действия, которое еще только начинается и может быть не завершено.
2. Ограничительный СД – ограничение действия субъекта на определенный объект или область.
3. Длительно-ограничительный СД – действие, которое происходит в течение определенного периода времени и имеет конечную точку.
4. Завершительный (финитный) СД – указывает на то, что действие выполнено или закончено.
5. Накопительный СД – способ выражения действия, которое происходит постепенно, постепенно накапливается или прогрессирует.
6. Сатуративный СД – выражает полное насыщение действия в определенный момент времени.
7. Достигательный СД – выражает достижение какой-либо цели или результата.
8. Возвратный СД – выражает действие, направленное на сам субъект.
9. Однократный СД – выражает действие, происходящее один раз или заканчивающееся после одного действия.
10. Дистрибутивный СД – способ, который выражает повторение действия на каждый элемент объекта.

11. Прерывисто-смягчительный СД – способ действия глагола, который выражает действие, происходящее с периодическими прерываниями или смягченно, с некоторой неравномерностью во времени.

В рамках данной статьи рассмотрим несколько наиболее продуктивных способов действия русского языка, сопоставимые с материалом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способы действия реализуются в отличие от литературного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 коре мар посредством префиксального и суффиксального словообразования. Среди наиболее продуктивных выделяются следующие типы.

1. Начинательный СД обозначает вступление в действие, переход от состояния отсутствия действия к его возникновению. Основное внимание сосредоточено не на самом процессе, а на его начале. Наиболее часто образуется с помощью приставки за-:

Например: петь → запеть; кричать → закричать; смеяться → засмеяться.

В предложении:

1) Ребенок сильно заплакал.

В этих случаях подчеркивается момент начала действия.

В отличие от рассмотренных выше начинательных способов действия в литературном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и в коре мар, где данное значение передается преимущественно лексическими средствами,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 часто выражается приставочным словообразованием (запеть, закричать, засмеяться).

2. Ограничительный СД обозначает действие, совершаемое в течение непродолжительного времени без указания на достижение результата. Важна временная ограниченность процесса. Обычно выражается приставкой по-:

Например: сидеть → посидеть; читать → почитать; гулять → погулять.

Рассмотрим в предложении:

1) Мы немного посидели и разошлись.

Как видно из примеров действие совершается недолго и прекращается.

3. Длительно-ограничительный СД выражает действие, продолжающееся в течение определенного периода времени и охватывает этот временной отрезок полностью. Чаще всего образуется приставкой про-:

Например: работать → проработать весь день; спать → проспать полдня.

Рассмотрим в качестве примеров предложения:

1) Он проработал в университете двадцать лет.

Как видно на примерах, в отличие от ограничительного СД, здесь временной интервал обычно более продолжительный и конкретно обозначен.

4. Результативный СД обозначает действие, которое приводит к достижению определенного результата или завершенного состояния. Результативный СД выражается различными приставками (на-, по-, с-, вы-, за- и др.), образующими глаголы совершенного вида.

Например: писать → написать; строить → построить; делать → сделать.

Рассмотрим примеры с предложениями:

1) Студент написал свой выпускной проект.

При использовании результативного СД важно не течение действия, а полученный результат.

5. Однократный СД обозначает единичное действие, мгновенное или кратковременное проявление действия. В этом случае характерным является использование суффикса -ну-.

Например: прыгать → прыгнуть, кричать →крикнуть, махать → махнуть.

Примеры в предложении:

1) Мальчик прыгнул через лужу.

Как показано в примерах, действие совершается один раз и не повторяется.

6. Многократный СД обозначает действие, повторяющееся неоднократно или регулярно.

Такое значение часто выражается бесприставочными глаголами несовершенного вида.

Например: ходить, летать, бегать, ездит, посещать.

Примеры предложений с многократным СД:

1) В прошлом году он часто бегал по утрам.

7. Достигательный СД обозначает действие, направленное на достижение цели, которое завершается её достижением после определенных усилий. Достигательный СД часто образуется с помощью приставки до- и возвратного суффикса -ся.

Например: звонить → дозвониться; стучать → достучаться; слушать → дослушать

Примеры предложений с достигательным СД:

1) Мне удалось дозвониться до сестры.

Заключение

Проведенное исследование показало, что категория способа действия занимает важное место как в корейском, так и в русском языках, однако средства ее выражения существенно различаются. Если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способы действия преимущественно реализуются посредством слово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средств, прежде всего приставок и суффиксов, то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основную роль играют аналитические конструкции, образуемые сочетанием основного и вспомогательного глаголов.

Анализ материала позволил выделить в литературном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и корё мар такие способы действия, как начинательный, длительный, результативный, многократный и завершительный (финитный). Установлено, что система способов действия корё мар в целом совпадает с системой литературного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однако обладает рядом особенностей, связанных с сохранением архаичных диалектных черт и спецификой истор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языка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стран бывшего СССР.

Наиболее заметные различия наблюдаются в сфере выражения результативного состояния. Так, в литературном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широко используются пассивно-результативные конструкции типа 열려 있다 и 닫혀 있다, тогда как в корё мар сохраняются более архаичные конструкции типа 열어 잇다 и 닫아 잇다, в которых акцентируется сохранение результата завершенного действия.

Полученные результаты позволяют сделать вывод о том, что категория способа действия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характеризуется высокой степенью аналитичности и реализуется преимущественно посредством сочетаний основного и вспомогательного глаголов. В корё мар сохраняются как общекорейские модели выражения способов действия, так и ряд архаичных конструкций, восходящих к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м диалектам конца XIX – начала XX века. Сопоставление с русским языком показало принципиальные различия в механизмах выражения аспектуально-акциональных значений: если для русского языка характерно преимущественно

словообразовательное выражение способов действия, то дл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 аналитическое. Это подтверждает типологические различия между рассматриваемыми языками и открывает перспективы дальнейшего исследования категории способа действия в сопоставительном и диахроническом аспектах.

Список использованных источников:

1. Н. С. Пак. Избранные труды по корейской лингвистике. Алматы: Центр кореведения КазУМОиМЯ им. Абылай хана, 2022. 136 с.
2. Agrell, S. Aktionsart und Aspekt.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08 (Nachdruck).
3. Русская грамматика. Том I. М.: Наука, 1980.
4. 박영숙. 한국어 활용의 구조와 기능. 서울: 한국문화사, 2009. 143–160 с.
5. 윤영숙. 한국어 문법의 기초. 서울: 한국문화사, 2013. 136 с.
6. 리명철. 국제학생을 위한 한국어 문법. 서울: 다락원, 2008. 225–226 с.
7.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8. Лебедев А. А. Категория способа действия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аспекты семантики и функционирования. М.: Флинта, Наука, 2011. 336 с.

대한민국 재한외국인의 가족정책 동향
-이주노동자와 유학생을 중심으로-[1]

람후 뭉흐나란[2], 라흐바둘람 바트투야[3]
국제울란바타르대학교 한국학연구원
울란바타르, 몽골

개요: 본 연구에서는 체류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대한민국 정부의 가족정책 동향을 이주노동자와 외국인 유학생을 중심으로 정책문헌 연구를 하고자 한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한국의 외국인 체류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4 년 기준 260 만 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이민 및 다문화 관련 정책은 주로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 지원에 집중되어 왔으며, 이주노동자와 외국인 유학생은 여전히 '일시적 체류자'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다. 그 결과 이들 집단에 대한 가족동반 및 가족권 보장과 관련된 정책적 대응은 제한적이고 선별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본 논문은 제 1 차부터 제 4 차에 이르는 외국인정책(이민정책)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한국 정부의 정책 기조와 변화 과정을 검토하고, 외국인 가족을 둘러싼 정책적 접근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특히 외국인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한 출생통보제 의무화와 미등록 아동의 합법화 조치 등 최근 제도 변화는 외국인 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 보장을 확대하려는 진전으로 평가된다. 반면, 이주노동자와 외국인 유학생의 장기체류 및 가족동반 권리는 경제적 능력, 숙련도 등 국가 필요성 등을 기준으로 한 선택적 정책을 통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 사회가 외국인 노동력과 유학생 유치에 점차 의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권과 사회통합을 포괄하는 정책 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 향후 한국이 다문화사회로 안정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을 단순한 노동력이나 인적 자원으로 한정하기보다, 가족을 포함한 사회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보다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가족정책 및 사회통합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한다.
주제어: 재한 외국인, 가족정책, 이주노동자, 외국인 유학생, 가족동반, 사회통합

Название статьи: Тенденции семейной политики в отношении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проживающих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Авторы: Л. Мункнаран, Л. Баттояа, Институт корееведения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Улан-Батора

---

[1]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Core University Program for Korean Studies of Ministry of Education of Republic of Korea and the Korean Studies Promotion Service at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AKS-2022-OLU-2250006)
[2] 국제울란바타르대학교 가족심리학과 교수, 한국학연구원 연구원
[3] 국제울란바타르대학교 한국학연구원 연구원

Аннотация: Данное исследование посвящено анализу современных тенденций семейной политик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отношении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с особым акцентом на трудовых мигрантов и иностранных студентов. В условиях стремительного сокращения численности населения и старения общества количество иностранцев в Корее стабильно растёт и в 2024 году превысило 2,6 млн человек. Несмотря на это, действующая миграционная и мультикультурная политика в основном ориентирована на брачных мигрантов и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е семьи», тогда как трудовые мигранты и иностранные студенты по-прежнему рассматриваются преимущественно как временно пребывающие лица. В результате вопросы воссоединения семьи и обеспечения семейных прав для данных категорий остаются ограниченными и носят выборочный характер.

В статье проводится анализ Первого–Четвёртого базовых планов иммиграционной политик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Кореи, что позволяет проследить эволюцию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ратегии — от «политики в отношении иностранцев» к более комплексной «иммиграционной политике».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уделяется недавним институциональным изменениям, таким как введение обязательного уведомления о рождении и меры по легализации не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х детей, что свидетельствует о постепенном усилении защиты прав иностранных детей и их семей. Вместе с тем право на долгосрочное проживание и сопровождение членов семьи для трудовых мигрантов и иностранных студентов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преимущественно на основе экономических критериев, уровня квалификации и интересов государства. Автор приходит к выводу, что, несмотря на возрастающую зависимость Кореи от иностранной рабочей силы и человеческого капитала в условиях демографического кризиса, семейная политика остаётся осторожной и экономически ориентированной. Для успешного перехода к устойчивому мультикультурному обществу необходим более инклюзивный и системный подход к обеспечению семейных прав и социальной интеграции.

Ключевые слова: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иммиграционная политика, семейная политика, трудовые мигранты, иностранные студенты, воссоединение семьи, социальная интеграция

1. 서론

한국은 2020 년부터 향후 10 년간 생산연령인구 357 만 명 감소, 고령인구가 490 만 명 증가 예정이다(통계청, 2021). 따라서 경제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산업직종별 숙련수준별 외국인력 허용분야 및 적정 도입규모를 단기 및 중장기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외국인 및 이민자 유입 미 활용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생기고 있다. 직종별 부족인원은 저숙련 생산직이

47.9%로 가장 많고, 고숙련 생산직(22.7%), 저숙련 사무직(20.9%), 고숙련 사무직(8.4%)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4 차 기본계획과 신출입국이민정책은 우수 해외인재 유치 및 경제계와 지방의 수요를 반영하는 외국인력 도입으로 요약될 수 있으나 체류 외국인 300 만 시대, 가속화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대안 정책으로는 매우 미흡하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 절벽 상황에서의 한국사회의 외국인 유입과 통합 정책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970 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재한 외국인 수는 약 4 만 명 수준에 불과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4 년 기준 총 2,650,783 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전년 대비 5.7% 증가한 수치로, 전체 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은 5.2% 에 해당한다(체류외국인 통계, 2025). 세계화, 국경을 초월한 다양한 목적의 인적 이동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산업화는 이른바 '3D 업종'에서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 현상을 초래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1990 년 외국인 산업연수제도를 도입하였고, 이를 기점으로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노동력의 체계적인 유입이 본격화되었다. 또한 2000 년대에 들어서면서는 결혼이민자, 유학생 등의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은 다문화사회로 진입하였다. 고용허가제, 결혼이주, 유학 등의 제도적 통로를 통한 외국인 입국 이전에 입국 후 출국하지 않고 정착하여 비공식적인 노동시장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비율이 상당하였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외국인 정책이 점차 정비됨에 따라, 이와 같은 미등록 체류 노동자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표 1>은 2024 년 말 기준으로 한국에 장기체류하는 국적별 외국인의 수와 비율을 정한 것이다.

<표 1> 국적별 외국인 수

국적	순위(1-10)	국적	순위(11-21)
한국계중국	643,277	**네팔**	39,858
중국	315,622	**인도네시아**	36,858
베트남	305,936	**카자흐스탄**	29,278
태국	188,770	**일본**	41,405
미국	170,251	**스리랑카**	39,858
우즈베키스탄	94,893	**캐나다**	36,858
러시아연방	85,812	**타이완**	26,515
필리핀	72,185	**방글라데시**	26,412
몽골	54,165	**파키스탄**	23,858
캄보디아	41,405	**대만**	22,466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가운데"한국계 중국인"(일명 '조선족')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그 뒤를 이어 베트남, 태국 출신 체류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몽골 국적자는 전체 순위에서 9위를, 카자흐스탄 국적자는 13 위를 기록할 정도로 상대적으로 높은 체류 비중을 보인다. 한국계 중국인, 즉 조선족은 "동포비자(F-4)" 를 통해 건설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합법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자이며, 가족 초청 및 동반 체류 또한 허용되는 점에서 다른 외국인 체류자격자와 구별된다. 한편, 체류자 수 기준으로 상위 10 위 안에 포함된 중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몽골 등 국가는 E-9 고용허가제를 통해 다수의 노동력을 파견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들이다. 아울러 중국, 베트남, 몽골은 국내 유학생 수 또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그 만큼 이주민의 대다수를 이루는 국적이라고 볼 수 있다.

<표 2> 체류자격별 외국인 수

체류자격 (1-9 순위)	체류자 수	체류자격 (10-18 순위)	체류자 수	체류자격 (19-26 순위)	체류자 수
재외동포 (F-4)	555,968	일반연수 (D-4)	75,398	연구 (E-3)	3,783
비전문취업 (E-9)	337,279	거주 (F-2)	53,883	단기취업 (C-4)	2,566
사증면제 (B-1)	206,456	특정활동 (E-7)	46,514	무역경영 (D-9)	2,447
영주 (F-5)	202,968	동반 (F-3)	31,392	교수 (E-1)	1,869
단기방문 (C-3)	162,719	선원취업 (E-10)	21,574	기술연구 (D-3)	1,849
유학 (D-2)	178,519	회화지도 (E-2)	13,909	종교 (D-6)	1,559
결혼이민 (F-6)	181,000	계절근로 (E-8)	11,620	상사주재 (D-7)	1,127
관광통과 (F-1)	104,064	기업투자 (D-8)	7,658	기술지도 (E-4)	204
방문취업 (H-2)	102,375	예술흥행 (E-6)	4,711		

<표 2>는 체류자격별 외국인의 분포 순위를 제시한 것이다. 이 중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건설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취업이 허용된 자격으로, 전체 외국인 체류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뒤를 잇는 집단은 고용허가제(E-9)를 통해 입국한 비전문 취업(단순노동) 인력으로,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등 3D 업종 중심의 산업 분야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사증면제 체류자는 30

일에서 최대 90 일까지 비자 없이 입국 및 체류가 가능한 외국인들로, 단기 방문자 중심의 체류 유형에 해당한다. 영주권자(F-5)는 결혼이민자, 투자이민자, 재외동포, 그리고 특정 분야의 특별기여자 등에게 부여되는 장기 체류 및 상주 자격으로, 안정적인 정착 기반을 갖춘 체류자군에 해당한다. 유학생(D-2 및 D-4 자격자)의 수가 178,519 명으로 전체 외국인 체류자 중 6 위를 차지하고 있으며,이러한 결과는 한국 유학을 희망하는 외국인 학생들의 증가와, 한국 정부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이 맞물려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처럼 재한 외국인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더불어, 외국인과 관련된 정책적 대응 또한 단계적으로 정비되어 왔다. 2004 년 '국적법' 개정, 2006 년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2007 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정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2007 년 '외국인처우 기본법' 등 관련 법령들이 제정되며 제도적 기반이 본격적으로 구축되었다. 또한 국제결혼의 증가로 2008 년에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었다. 이렇게 다양한 유형 및 목적의 외국인의 급증을 계기로 한국 사회는 단일민족 중심 사회에서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 가능성을 인식하여 2009 년에는 외국인의 유입과 정착, 한국 사회에서의 적응과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민정책연구원'을 설립하여 체계적인 정책 연구와 실행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처럼 오늘날 한국 사회에는 결혼이민여성, 유학생, 이주노동자, 난민, 재외동포, 새터민 등 다양한 체류자격과 배경을 지닌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사회는 다문화사회로 전환하는 중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구현되는 "다문화정책'은 포괄적인 다문화사회로의 대응보다 결혼이민여성과 국제결혼 가정, 즉 '다문화가족' 지원에 초점이 편중되어 있는 실정이다(오정숙, 2020). 실제로 한국 내 외국인 체류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집단은 이주노동자와 유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정착 지원 및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적 대응은 매우 제한적이다. 백승대·안태준(2015)의 연구에 따르면, 이주노동자와 유학생을 '일시적 체류자'로 간주하는 정책적 인식에서 기인한다. 다시 말해, 이들은 일정 기간 체류 후 자국으로의 귀환 대상으로 인식되며, 한국 사회의 영구적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향이 크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논의는 개인의 인권 보장을 넘어 가족권 보장의 문제로 확장되어 왔으나, 이러한 문제 제기는 정책적·사회적으로 충분한 수용과 반영을 이끌어내지 못한 채 제한적인 영역에 머물러 왔다.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과 이주노동자 중 상당수가 체류 기간 만료 이후에도 한국 내 지속적인 거주 및 장기체류를 희망하고 있다. 이민정책연구원(2022)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1%가 한국에서의 지속적 거주 의향을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한국 정부는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를 국가 차원에서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기적

수요 대응을 넘어,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인구문제 해결에 있어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 집단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수준으로 고려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다음 단계로는 가족권 및 가족의 동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 문제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적절한 접근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가 거주하는 외국인노동자 및 이들과 함께 한국 다문화사회의 주요 이주 집단을 구성하는 외국인 유학생, 이들의 가족과 관련해서 한국 정부가 지까지 어떠한 정책을 고취해 왔는지, 나아가 향후 정책적 방향은 어떻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장기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 정부의 정책 기조와 추진 전략을 검토하고, 이후에는 미래 정책의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그 함의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2. 외국인(외국인가족)을 대상으로 한 한국 정부의 정책

1) 한국 정부 제 1-3 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한국 정부는 2007 년부터 5 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으로서 총 네 차례에 걸친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수립 · 추진하고 있다. 이 기본계획은 외국인 관련 정책의 체계화 및 일관된 정책 추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 전략으로, 다음의 다섯 가지 핵심 목표—개방, 통합, 안전, 인권, 협력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목표에 기반한 정책 및 실행 전략이 설정되어 단계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표 4>에는 1 차에서 3 차에 이르는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정책의 흐름과 중점 사항의 변화, 각 시기의 사회적 요구와 정책적 대응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표 3> 한국 정부 제 1-3 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제 1 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2007-2012) 적극적인 개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제 2 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2013-2017) 질 높은 사회 통합	제 3 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18-2022) 질서 있는 이민행정 구현
1. 우수인재에 대한 입국 문호 확대 1) 우수인재 유치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 2) 국가 차원의 우수인재 유치 지원' **2.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한 인력 도칩**	**1.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1) 참여 및 소통 강화 2)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 **2. 결혼이민자의 사회적응 지원** 1)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자립 지원	**1.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1) 비자발급 단계의 불법체류 사전 예방 대책 2) 불법고용 사회환경 제거 3) 불법체류자 관리 4) 출국사범에 대한 단속조사 역량 강화)

1) 지역별 직종별 수요를 고려한 숙련기능인력의 확보 2) 기업 수요와 사회비용을 고려한 단순기능인력 도입 **3. 외국인체류 지원 강화** 1) 외국인 체류지원 강화 (원활한 의사소통, 지원) 2) 외국인을 위한 종합적 생활환경 개선 (교통, 주거 복지 의료 교육 문화여가 환경 개선)	2) 결혼이민자의 역량강화 **3. 이민자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1) 학습 및 학교생활 지원 2) 사회적응 지원 및 자립 능력 배양 **4. 동포의 역량 발휘를 위한 환경 조성** 1) 동포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법적지위와 제도 정비 2) 국내 체류 동포 처우 개선	**2. 외국인 집단거주지 관리 강화** 1) 집단거주지역 내 생활환경 개선 2) 집단거주지역 내 외국인관리체계 강화 **3. 합법체류 외국인의 체계적 관리** 1) 일탈행위 가능성 높은 자에 대한 체류 관리 강화) 2) 국가안보 차원의 국경 및 외국인정보 관리 3) 신속하고 빈틈없는 국경 및 위험외국인 관리 4) 국경관리 분야의 국제협력 강화 **4. 건전한 국민 확보를 위한 국적 업무 수행** 1) 국적 업무의 신속성 전문성 확보 2) 귀하허가 시 검증기능 강화

2) 제 4 차 외국정책 종합계획 (2023-2027)

<표 4> 한국 정부 제 4 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정책목표	내용	중점과제
경제	이민을 활용한 경제 국가 역발전 촉진	① 국내에 도움되는 이민관리 시스템 체계화 ② 우수 경제에 필요한 인재 유치 및 정주 지원 정책 ③ 지역기반의 이민정책 체계 구축 ④ 이민정책과 국가발전을 연계한 경제 성장
안전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① 이민질서 위반 대응체계 확립 ② 사회질서와 조화되는 체류환경 조성 ③ 국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국경관리
통합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① 적극정책지표를 활용한 사회통합정책 체계화 ② 국민과 이민자의 상호 이해·소통 증진 ③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이민자 역량 배양

정책목표	내용	중점과제
		④ 국민과 동포의 유대감 기반한 동반 성장
인권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① 보편적 가치 실현을 위한 이민자 인권보호 강화 ② 여성·아동 등 취약이민자의 사회적 배제 방지 ③ 국제 위상에 부합하는 인도적 외국인 이민
혁신/ 인프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① 국가백년대계 수립을 위한 이민정책 추진 체계 구축 ② 이민행정 전문성 및 연구기반 확충 ③ 기술혁신에 기반한 이민행정 고도화 ④ 국제사회와 공동발전을 위한 이민 협력 강화

상기 외국인 관련 정책 계획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국내 외국인 인구 중 상당수를 구성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E-9 비자 소지자) 및 유학생(D-2 비자 소지자) 집단을 장기적 혹은 영구적 체류의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이들의 가족 문제에 대해 별도의 정책적 개입을 추진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조에 따라, 해당 집단에 대한 가족 관련 정책은 선별적이고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계획되고 있으며, 포괄적 사회통합 정책의 적용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되어 있는 실정이다.

반면, 한국 사회에 장기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과 한국 내에서 출생한 이주 아동을 대상으로는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출생등록, 교육권 보장, 체류 안정성 확보 등을 중심으로 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한국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고령화 및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다.

3. 대한민국 체류 외국인 (외국인가족) 정책의 동향

1) 외국인 아동의 권리 보호강화를 위한 출생통보제 의무화 제도

한국 정부는 출생 미등록 아동, 특히 외국인 아동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출생등록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였다. 2024 년 7 월부터 시행된 「출생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출생 사실을 국적과 무관하게 모든 아동에 대해 관할 행정기관에 직접 통보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받았다. 이는 출생 후 미등록 상태로 방치되어 사회적·법적 보호 사각지대에 놓이는 '그림자 아동'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기존에는 불법체류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출생한 아동이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출생등록 의무화 제도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으며 한국 사회 내 이주민 아동의 기본적 권리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진전이지만, 보다 포괄적이고 연계된 정책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만 실질적인 인권 보호가 가능하게 되었다.

2) 미등록 아동의 합법화

2022 년부터 한국 정부는 국내에서 출생한 아동 및 한국에 5 년 이상 거주한 미등록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과 의료 등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전면적인 합법화 조치를 시행하였다. 이는 장기체류 미등록 아동이 겪고 있는 법적 지위의 불안정성과 그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전환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은 합법화 조치는 출생 및 장기체류 여부에 근거하여 아동 개인의 법적 존재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려는 인도주의적 접근이자,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통합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3) 유학생과 유학생 가족에 대한 장기적 정책 동향

유학생의 경우 자연과학대학 졸업 석박사급의 우수인재와 특정 분야 종사 시 장기간 체류 및 가족동반권이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① 자연공과대학 졸업 석박사급의 우수 인재 유치 정책

우수인재 유치정책을 통해서 자연공과대학을 졸업한 석박사급의 우수 유학생들이 다양한 혜택과 함께 가족동반으로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②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보호산업 투입

고령화로 인한 돌봄 인력의 부족 문제 해결과 외국인 유학생에게 자격취득 취업을 통해 장기체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요양보호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요양보호사의 경우 E-7 체류자격으로 거주하기 때문에 가족동반이 허가된다. 따라서 요양보호산업에 종사하게 되면 한국에 장기체류 및 가족동반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4) 외국인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의 가족에 대한 장기적 정책 동향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선별적으로 한국에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질 수 있으며 전체에 대해서 확대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다음 요건을 갖춘 상태로 특정활동(E-7) 체류자격으로 3 년 근무한 후 가족 동반할 수 있는 체류자격인 F-3 비자로 전환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표 4> 외국인노동자 장기체류권 획득을 위한 요건

조건	세부 내용
체류 자격	일정 기간 유효한 비자로 체류(E-7, F-2, E-7-4 등)
체류 기간	5 년 이상 합법 체류 (체류자격별로 상이)
소득	최근 1 년 소득이 국민소득의 1.5 배 이상

한국어	사회통합 프로그램 5 단계 이수 또는 TOPIK 4 급 이상
범죄 이력	무범죄 경력 필수
기타	세금 및 건강보험료 체납 없어야 함

4. 결론

“우리는 노동력을 원했는데, 사람이 왔다”는 말은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프리슈(Max Frisch)가 남긴 유명한 어록으로(이은채, 2022), 1950-1960 년대 독일이 경제성장을 위하여 외국인 노동력을 대거 수용하면서 발생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담고 있는 표현이다. 이 발언은 단순한 노동력 수급을 넘어, 외국인 이주의 인간적·사회적 차원을 간과했던 당시 정책에 대한 구조적 문제제기로 평가된다.

2025 년 현재, 한국은 더 이상 인력을 해외로 파견하는 국가가 아니라, 외국인 인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선진국의 위상을 갖추게 되었다. 외국인 인력의 유입과 함께 이들과 관련된 인권 및 가족권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해 왔고, 한국 사회는 이를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학생과 노동자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선별적인 정책을 일관하게 유지하고 있다(이진숙, 2025). 한국 정부의 정책을 통해서 유입된 이주노동자의 ' 가족 동반' 요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지만 수용되지 못했다. 초기에 외국인 근로자의 가족에게 비자 발급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기와 비교하면, 현재는 이러한 제약이 상당 부분 완화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타 통로로 가족과 재결합하여, 또는 한국에 혼인하여 가족동반을 하더라도 가족관련 문제가 발생해도 이는 제도적 틀을 벗어난 문제로 간주되면서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배제되거나 기존 정책 기조와의 충돌 요소로 인식되어,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해결 방안이 마련되지 못했다.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나 유학생의 가족동반과 장기체류 문제에 있어서 특정 분야 종사자 , 경제적 여건을 충족하는 자, 우수인재 등으로 선별적인 정책을 전개할 것을 발표하였다. 특별히 한국사회에 부담이 되지 않게 경제적인 능력 부분을 최우선으로 검토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 외의 대상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사례 또는 인도주의적 조치만 허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이 향후 다문화사회로 안정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을 단순한 노동력이나 인적 자원으로 한정하기보다, 가족을 포함한 사회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보다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가족정책 및 사회통합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후속 연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김희주 외(2025). 이주민 가족지위에 따른 정책 접근성 격차와 해소와 지원 방안 연구.
2. 이은채(2022). 독일사례 분석을 통한 한국의 외국인력 도입방안 연구: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유럽연구 40(2), 317-355.
3. 이민정책연구원(2022). 국재 거주 외국인 사회통합 실태조사.
4. 이진숙(2025). 사회통합과 외국인 가족복지정책: 독일 사민당 정부 하에서의 정책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7 (p.231-252).
5. 오정숙(2020). 장기거주 외국인 가족과 전문가의 요구 분석: 생활적응과 지원 방안, 이민자 사회통합: 지역사회 내 이주민 정착과 포용 보고서.
6. 백승대, 안태준 (2015). 대구와 경북 지역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국민정체성 비교 연구. 지역사회연구 23 권 3 호, 27–47 쪽 (2015).
7. 통계청(2021). 장래인구추계: 2020-2070 년, 통계청 보도자료.
8. 체류외국인 통계(2025).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자료.
9.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개. 본부소개. 제 4 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역할. https://www.moj.go.kr/immigration/1607/subview.do

생성형 AI 를 활용한 카자흐인 한국어학습자의 쓰기 피드백 교수 방안 연구

오혜정
카자흐 아블라이 한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학교
알마티, 카자흐스탄

개요: 본 연구는 생성형 AI 를 활용하여 카자흐인 한국어 학습자에게 쓰기 피드백을 제공하는 방안을 탐색하고, 한국어 쓰기 교육에서의 교육적 효과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카자흐스탄의 과거와 현재의 주생활 변화를 주제로 대학생 16 명이 작성한 쓰기 텍스트를 분석하였다. 또한 한국어능력시험(TOPIK) 쓰기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언어 사용, 내용, 논리적 전개, 글 구조에 초점을 맞춘 프롬프트를 설계하여 ChatGPT 에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 ChatGPT 는 문법, 어휘, 글의 구성 및 논리성에 대해 체계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였으며,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수정 활동을 지원하는 수정 예문도 함께 제시하였다. 그러나 오류가 지나치게 많은 텍스트의 경우 AI 가 주제를 잘못 이해하여 부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본 연구는 생성형 AI 가 즉각적이고 반복적인 피드백을 지원함으로써 한국어 쓰기 교육에서 효과적인 보조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부정확한 피드백, AI 의존, 표절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신중한 교육적 지도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주제어: 생성형 AI, ChatGPT, 한국어 쓰기 교육, 쓰기 피드백, 카자흐인 한국어 학습자

Title: A Study on Generative AI-Based Writing Feedback Instruction for Kazakh Learners of Korean

Athor: O Hee Jong, KazUIR&WL, Almaty, Kazakhstan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the use of generative AI for providing writing feedback to Kazakh learners of Korean and examines its educational effectiveness in Korean writing instruction. The study analyzed writing texts produced by 16 university students on the topic of changes in housing life in Kazakhstan compared with the past. Based on TOPIK writing evaluation criteria, prompts focusing on language use, content, logical development, and text structure were designed and applied to ChatGPT.

The results showed that ChatGPT provided systematic feedback on grammar, vocabulary, organization, and logical coherence, while also offering revised model sentences that supported learners' self-directed revision. However, in texts containing excessive errors, the AI occasionally misunderstood the topic and generated inappropriate feedback.The study suggests that generative AI can be an effective supplementary tool for Korean writing education by supporting immediate and repeated feedback, although

careful guidance is necessary to address issues such as inaccurate feedback, learner dependence on AI, and plagiarism.
Keywords: Generative AI, ChatGPT, Korean Writing Education, Writing Feedback, Kazakh Learners of Korean

1.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생성형 AI 를 활용하여 카자흐인 한국어 학습자에게 쓰기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카자흐인 한국어 학습자의 쓰기 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교수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ChatGPT 가 카자흐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텍스트에 대해 제공하는 피드백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한류 문화 확산과 한국 기업 진출 확대에 따라 Kazakhstan 내 한국어 학습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대학, 알마티 한국교육원, 등의 교육기관에서 한국어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습 목적 또한 유학, 취업, 비즈니스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어 쓰기 능력은 학습자의 실제 의사소통 능력과 학업 수행 능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 쓰기 교육은 말하기나 듣기 교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크다. 특히 학습자가 작성한 문장과 글에 대해 교사가 개별적으로 오류를 분석하고 반복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수업 인원이 많거나 수업 시간이 제한된 환경에서는 충분한 피드백 제공이 쉽지 않다.

최근 ChatGPT 와 같은 생성형 AI 기술은 언어교육 분야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생성형 AI 는 언어교육 분야에서 학습자에게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매체로 활용할 수 있다(김아름·서희 2024: 박찬흥 2024). 최근에는 제 2 외국어 쓰기 교육에서도 생성형 AI 의 활용이 주목받고 있다(Baskara 2023: Godwin-Jones 2022).

제 2 외국어 쓰기 연구영역에서 ChatGPT 의 피드백의 효과성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다. ChatGPT 는 교수자를 도와 학습자의 글을 분석하여 문법 오류 수정, 표현 개선, 문장 확장 등의 피드백을 즉시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프롬프트에 따라 학습자 각 개인에 맞는 피드백을 제공하는데 큰 기여를 한다(최숙기 2024).

이에 본 연구는 카자흐인 한국어학습자를 대상으로 생성형 AI 를 활용한 쓰기 피드백 교수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한국어 쓰기 교육과 피드백의 중요성

쓰기 교육은 단순히 문장을 만드는 활동이 아니라 사고를 조직하고 의미를 전달하는 고차원적 언어 활동이다. 특히 외국인 학습자에게 쓰기는 어휘, 문법, 담화 구성 능력이 동시에 요구되는 복합적 기능이다. 따라서 쓰기 교육에서는 결과물 자체보다 초안 작성, 수정, 재작성의 과정을 중시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쓰기 피드백은 학습자가 자신의 오류를 인식하고 더 나은 표현으로 수정하도록 돕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 피드백에는 교사 피드백과 동료 피드백, 자기 피드백 등 다양한 방식이 있으나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교사 피드백 의존도가 높다.

2.2 생성형 AI 의 교육적 활용 가능성

생성형 AI 는 언어 교육 분야에서 학습자들에게 실시간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매체로 활용될 수 있다(김아름·서희 2024; 박찬홍 2024). 최근에는 제 2 외국어 쓰기 교육에서도 생성형 AI 의 활용 가능성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며(Baskara 2023), 특히 ChatGPT 와 같은 대규모 언어모델은 학습자의 글을 분석하여 문법 오류 수정, 어휘 및 표현 개선, 문장 확장, 내용 구성 보완 등의 다양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기존의 쓰기 교육에서는 교사가 학습자의 글을 직접 읽고 수정 사항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생성형 AI 를 활용할 경우 학습자는 자신의 글에 대해 즉각적이고 반복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기주도적으로 글을 수정·보완할 수 있다. 특히생성형 AI 는 학습자의 수준과 요구에 따라 피드백의 난이도와 형식을 조절할 수 있어 개별화된 학습 지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제 2 외국어 쓰기 연구 영역에서도 ChatGPT 의 피드백 효과성은 여러 연구를 통해 검증되고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생성형 AI 기반 피드백은 학습자의 문법 정확성 향상, 어휘 다양성 증가, 수정 활동 활성화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복적인 첨삭이 필요한 외국어 쓰기 교육 환경에서 생성형 AI 는 교사의 피드백 부담을 경감시키고 학습자의 학습 참여도를 높이는 보조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학 동양학부 통번역학과 한국어 전공 3 학년 학생 18 명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한국어 능력시험(TOPIK) 기준 2~3 급 수준에 해당되는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5~2026 년 2 학기 ‘직업 전문 언어’(Vocational Foreign Language)로서 한국어 쓰기 시험을 수행하였다. 쓰기 주제는 ‘카자흐스탄

의 달라진 주생활을 과거와 비교해서 쓰기' 를 주제로 작성된 쓰기 결과물 총 16 편을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삼았다.

3.2. 연구 절차

본 연구에서는 ChatGPT 의 피드백 제공 양상을 살피기 위해 한국어 학습자들이 작성한 쓰기 텍스트를 수집하였다. 한국어 수업에서 "카자흐스탄의 달라진 주생활을 과거와 비교해서 쓰기"를 쓰기 주세로 과제를 제시하였고 학습자들은 평균 400 자 정도의 텍스트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다음으로 생성형 AI 의 프롬프트를 설계하기 위해 쓰기 평가 기준을 정하였다, 쓰기 텍스트의 평가 기준은 한국어 능력시험(TOPIK)의 쓰기 영역 평가 체계를 참조하였다. 한국어 능력시험 2 의 쓰기 54 번 평가 기준인 논술형 문제의 평가 기준인 주제에 맞게 작성했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의 적절성과 주장과 근거가 자연스러운지에 대한 논리성 그리고 서론-본론-결론 구조가 있는지, 그리고 문법의 정확성과 다양한 어휘와 표현을 사용했는지에 대한 어휘 사용의 다양성을 채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ChatGPT 의 피드백을 획득하기 위해 프롬프트를 설계하였다. 프롬프트를 설계시 학습자의 수준과 쓰기 주제, 텍스트 분석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을 프롬프트에 포함시켰다 본 연구에 사용한 프롬프트는 아래와 같다.

<표 1> 피드백을 위한 프롬프트 설계

통번역학과 한국어 전공 3 학년 학생 16 명이 카자흐스탄의 달라진 주생활을 과거와 비교해서 쓰기 "'를 주제로 작문을 썼습니다. 다음의 평가 기준에 따라 각 학생의 작문에 대한 피드백을 제시해 주세요. 모든 학생의 피드백의 내용과 격식은 동일한 형식에 따라 해 주세요 1. 언어 사용이 정확합니까? : 맞춤법, 조사 사용, 어미 활용, 띄어 쓰기 , 어휘 사용의 자연 스러움 2. 글 내용이 적절합니까? 주제에 맞는지, 내용이 충분한지, 예시가 적절한 지 3. 글 전개가 논리적입니까?: 문장 연결의 자연스러움, 이유-예시, 결론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4. 글 구조의 적절합니까? : 서론-본론-결론의 형식이 있는지, 전체 완성도

<표 1>에서 제시한 프롬프트를 사용하여 ChatGPT 로 예비 실험을 진행하고 ChatGPT 가 제공하는 피드백을 수집하였다.

4. 연구 결과 및 분석

4.1 AI 피드백의 구조

ChatGPT 는 제시된 프롬프트에 기반하여 언어사용, 글 내용, 글 전개, 글의 구조 등 세부적인

피드백과종합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등에 입력하여 피드백을 요청한다.

<표 2> ChatGPT 의 피드백 구조

평가도구	언어사용	글 내용	글 전개	글의 구조	종합
ChatGPT	주요 문법 오류 수정	내용 평가	논리성 평가	구조 평가	장점, 아쉬운 점 수정본 제시

<표 2>에서와 같이 ChatGPT 는 언어 사용면에서 문법과 어휘의 오류제시와 함께 수정을 제시하였고 내용, 전개, 구조적 측면과 종합적인 평가에서는 장점과 아쉬운 점 그리고 전체 내용을 기본으로 자연스러운 수정본을 제시함으로써 구조화된 피드백을 제시함으로써 학습자가 피드백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4.2 쓰기 텍스트의 상세 피드백 내용

본 연구는 ChatGPT 이 실행한 피드백을 분석한 결과 평가 기준을 준수하여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학습자는 AI 피드백을 참고하여 자신의 글을 다시 작성한다. 이 과정에서 스스로 오류를 비교·분석하며 자기주도적 학습이 이루어진다. 전반적인 피드백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기준에 기반한 ChatGPT 피드백의 전반전인 양상

원문 내용
카자흐스탄은 과거와 비교하면 현대에 들어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주생활에서 큰 차이가 나타난다. 과거 카자흐스탄 사람들은 주로 유목 생활을 하며 살았다. 이동이 많기 때문에 집도 쉽게 옮길 수 있는 유르타에서 생활했다. 유르타는 나무와 천으로 만들어져서 설치와 해체가 간단했다. 가족 중심으로 생활하며 자연과 함께 사는 것이 특징이었다. 하지만 현대 카자흐스탄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시에서 아파트나 주택에 살고 있다. 전기, 물, 인터넷 등 다양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서 생활이 훨씬 편리해졌다. 또한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생활 양식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처럼 주 생활이 달라진 이유는 산업화와 도시화 때문이다. 경제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더 좋은 환경과 알자리를 찾기 위해 도시로 이동했다. 또한 기술의 발전으로 생활이 편지해지면서 전통적인 생활 방식이 점점 줄어 들었다.
ChatGPT 의 피드백
1. 전체 평가 1-1.장점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여 주제를 잘 이해했습니다. 전통 생활, 도시 발전, 인터넷, 경제 문제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자신의 생각까지 제시하여 글의 완성도가 높습니다.

<table>
<tr><td colspan="2">분량이 충분하고 표현하려는 의지가 좋습니다.

1-2.아쉬운 점
문법 오류와 조사 오류가 비교적 많습니다.
일부 문장은 의미 전달이 불명확합니다.
어순이 모국어식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결 표현을 더 자연스럽게 사용하면 좋습니다.</td></tr>
<tr><td>2. 내용 평가
학생은 다음 내용을 쓰고자 했습니다.
2-1. 과거
사람들과 함께 살았다
시골에서 생활했다
전통 생활 방식 유지</td><td>2-2. 현재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산다
인터넷과 핸드폰이 있다
경제 문제도 존재한다
30 년 안에 발전했다
2-3. 개인 의견
앞으로 더 발전하길 바란다
2-4. 내용평가
내용은 풍부하고 주제 적합성이 높습니다.</td></tr>
<tr><td colspan="2">3. 주요 오류 수정</td></tr>
<tr><td>원문</td><td>수정</td></tr>
<tr><td>사람들은 농업과 목축을 했고
교통과 통시 불편했습니다
민의도 잘 없으니까
과거에 사람들의 시골에 살았지만
현대는 다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핸드폰이 없다면
현재는 다 달라졌습니다
경제 문제 때문에 달라졌는 것 같습니다</td><td>사람들은 농업과 목축을 하며 살았고
교통과 통신이 불편했습니다
편의시설도 부족했기 때문에
과거에는 사람들이 시골에 살았지만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인터넷과 핸드폰이 없었지만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경제 발전 때문에 달라진 것 같습니다</td></tr>
<tr><td>4. 논리성 평가
논리성: ★★★★☆ (4/5)
구조는 좋습니다.
과거 생활 설명
현재 변화 설명
경제 변화 언급
미래 희망 제시

다만 문장 연결이 조금 어색합니다.</td><td>5. 구조 평가
구조: ★★★★☆ (4/5)
서론: 과거 소개
본론: 현재 변화
결론: 미래 기대
구조는 분명합니다.</td></tr>
<tr><td colspan="2">6. 자연스럽게 수정한 모범답안
과거에 카자흐스탄 사람들은 농업과 목축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 중에는 교통과 통신이 불편했고, 편의시설도 많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골에서 생활했습니다.</td></tr>
</table>

하지만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인터넷과 휴대전화가 없었지만 지금은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표 3>에서 일부를 선정하여 제시하였는데 16 명 학생들의 쓰기 피드백 전부를 지면에 제시하기에는 어러움이 있어 일부 학생의 피드백만을 선정하여 <표 3>에서 제시하었다.

<표 3>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ChatGPT 는 프롬프트의 지시 상황을 충실히 이행하여 언어, 내용, 전개, 구조와 전체적인 평가에 대한 피드백을 제시하였다. 세부 내용을 살펴본 결과 프롬프트에 제시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범주에 부합되는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ChatGPT 가 제공한 피드백 중에서 평가 범주에 부합되지 않은 예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글 주제에 부합하지 않은 AI 피드백의 예시

원문 내용	
주생활은 스태의 트름에 따라 크게 변화해 많다. 과고에는 많은 사람들의 육목 생활을 하며 전통가용인 요르트에 살았다. 요르트를 이동이 쉽고 자얀한 집에 잘 저급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초원생활에 매우 척합 햐얄다. 또한 가족과 공동체 중심한다. 지금 사람들의 또한 개인의 생활 공관과 주세도 시생활도 중유하게 있다. 지금 사람들의 2026 년 엘렉트러리카을 집에 살았다. 그래서 예사날에 같제트 않아요.	
ChatGPT 의 피드백	
1 차 피드백	2 차 피드백
1. 전체 평가 장점 :카자흐스탄의 국경일(독립일)에 대해 설명하려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날짜를 제시하여 사실 정보를 넣으려 했습니다. 나라와 국민의 의미를 설명하려는 내용 구성이 좋습니다. 아쉬운 점 : 문법 오류와 철자 오류가 많습니다. 문장 구조가 불완전한 부분이 많습니다. 조사 사용이 자주 틀립니다. 문장 연결이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1. 전체 평가 이 글은 카자흐스탄의 과거와 현재 주생활의 차이를 비교하려고 노력한 점이 좋습니다. 특히 유목 생활, 유르타, 현대 생활 등의 핵심 내용을 포함하여 주제 이해는 잘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자신의 생각을 쓰려고 한 점도 긍정적입니다. 다만 문법 오류와 문장 연결의 부자연스러움 때문에 내용 전달이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사 사용, 시제 표현, 문장 구조를 더 연습하면 훨씬 좋은 글이 될 수 있습니다.
2. 내용 파악 (학생이 쓰고자 한 내용) 학생은 다음 내용을 쓰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① 조사 오류 예:“초대의” → “현대의” “과거에는 만들…” → “과거에는 사람들이…”

카자흐스탄의 국경일은 독립기념일이다. 카자흐스탄은 소련으로 부터 독립하였다. 독립기념일은 매우 중요한 날이다. 1991 년 12 월 16 일에 독립하였다. 매년 사람들은 이 날을 기념한다.	조사가 빠지거나 잘못 사용된 경우가 많습니다. ② 문장 구조 오류 “유목 생활을 하며 전통…”→ 문장이 끝까지 완성되지 않음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오류가 많은 텍스트의 경우 1 차 피드백과 같이 주어진 주제와 다른 내용으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있음을 볼 수 있고 재차 ChatGPT 에 피드백을 하였을 때 2 차의 피드백과 같은 결과가 산출되었다.

<표 4>의 경우와 같이 ChatGPT 가 쓰기 주제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여 “카자흐스탄의 국경일”에 관련된 수정 사항을 제시하는 등 평가 범주와 부합하지 않는 피드백을 제시하였다. 이는 학습자의 인지적 혼란이 일으킬 수 있는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카자흐인 한국어학습자의 쓰기 교육을 위해 생성형 AI 기반 피드백 교수 방안을 제안하였다. 카자흐인 학습자에게 자주 나타나는 조사, 어순, 연결어미 오류는 반복적 피드백을 통해 개선될 수 있으며, 생성형 AI 는 이러한 과정에서 효과적인 지원 도구가 될 수 있다.

또한 생성형 AI 활용 쓰기 피드백의 기대 효과는 즉각적인 피드백 제공이 가능하며 반복 수정 학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학습자의 자기 주도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한국어 교사의 쓰기에 대한 개인별 피드백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생성형 AI 를 이용한 피드백을 할 때 유의할 점도 존재하게 된다. 먼저는 AI 가 부정확한 정보를 제시할 수 있으며 학습자가 AI 를 지나치게 의존할 때 학습자의 사고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AI 에 의해 제시된 수정된 것을 그대로 제출할 경우 표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생성형 AI 는 교사를 대체하는 도구가 아니라 보조 도구로 활용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1. 김아름·서희. 한국어 학습자의 ChatGPT 활용 방식: 글쓰기 과제에서의 프로프트 리터러시 분석 // 멀티미디어 언어교육, 2024. pp.1-18.
2. 박찬흥. 대학 교양 글쓰기 평가를 위한 ChatGPT 활용 방식 // 국어문학, 2024. pp.335-360.
3. 최숙기. 국어 교사의 챗지피티(ChatGPT)를 활용한 작문 피드백 경험에 대한 사례 연구 // 교원 교육, 2024. pp.379-404.
4. 최숙기. 생성형 AI 기반 한국어 글쓰기 피드백의 절 평가 도구개발 및 타당화 연구 // 청람어문교육 제 103 집, 2025. pp.227-263.
5. Baskara, R. Integrating ChatGPT into EFL writing instruction:Benefots and challenges //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 and Learing, 2023. pp.44-55.

카자흐 민족 지식인 집단의 근대화 이념과 실천
- 주요 간행물 소개를 중심으로 -

오상호
카자흐 아블라이 한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학교
카자흐스탄 알마티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modern-oriented discourse among Kazakh national intellectuals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focusing on Aiqap, Qazaq, and Saryarqa. These periodicals are analyzed as key textual sources that reveal the intellectual foundations of the Alash movement. Aiqap reflected social criticism and enlightenment-oriented concerns before the political institutionalization of the Alash movement. Qazaq expanded these concerns into a broader national public sphere by addressing education, rights, autonomy, language, land, and the future of the Kazakh people. Saryarqa, published during the revolutionary period, demonstrated how the discourse of modernization was transformed into the language of autonomy, political organization, and self-governance. By reading these periodicals as a continuous body of sources, this study argues that the democratic ideas of Kazakh intellectuals should be understood not merely as completed institutional democracy, but as practical efforts toward public discussion, social reform, national self-awareness, rights, and autonomy.
Keywords: Alash movement, Kazakh intellectuals, Aiqap, Qazaq, Saryarqa, Modernization

I. 들어가는 말

20 세기 초 카자흐 사회는 러시아 제국의 행정 질서, 토지 정책, 교육 제도, 종교와 문화의 변화, 그리고 제국 내부의 정치적 변동 속에서 급격한 전환을 경험하였다. 이 시기 카자흐 민족 지식인들은 단순히 외부 지배의 문제를 비판하는 데 머무르지 않았다. 그들은 카자흐 사회 내부의 문맹, 교육 부족, 낡은 관습, 사회적 폐쇄성, 여성의 제한된 지위, 공적 의사소통 구조의 부재 등을 동시에 문제 삼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점차 민족의 장래, 권리, 자치, 대표성, 정치적 조직화에 대한 논의로 확장되었다. 당시 카자흐 민족 지식인 집단으로 불리었던 '알라쉬(Alash)'의 운동은 바로 이러한 역사적 조건 속에서 형성된 카자흐 민족 지식인들의 근대적 사회운동이자 정치적 실천이었다. 그러나 알라쉬 운동을 단지 1917 년 알라쉬 정당의 결성이나 알라쉬 오르다 정부의 수립이라는 정치사적 사건으로만 이해한다면, 그 이전부터 축적되어 온 지식인 담론의 흐름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알라쉬 운동의 정치적 표출은 갑작스럽게 등장한 것이 아니라, 20 세기

초 카자흐어 간행물을 중심으로 형성된 계몽 담론, 사회 비판, 언론 활동, 교육 개혁론, 민족의식, 자치 논의가 축적된 결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아이캅(Aiqap)> 잡지와, <카작(Qazaq)> 신문, <사르아르카(Saryarqa)> 신문은 알라쉬 운동과 카자흐 민족 지식인들의 근대 지향적 이념을 분석하는 데 핵심적인 자료가 된다. <아이캅>은 알라쉬 운동의 정치적 조직화 이전에 카자흐 사회 내부에서 제기된 사회문화적 문제의식과 계몽의 언어를 보여준다. 그리고 <카작>은 이러한 문제의식이 보다 넓은 민족적 공론장과 정치적 담론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보여준다며, <사르아르카>는 혁명기 현실 속에서 자치와 정치적 조직화가 어떻게 구체적인 과제로 제기되었는지를 보여준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이 세 간행물을 중심으로 20 세기 초 카자흐 민족 지식인들의 근대 지향적 이념이 어떠한 방식으로 형성되고 전개되었는지를 분석하는 데 있다. 특히 민주 이념을 완성된 제도적 민주주의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당시 카자흐 사회에는 근대 국민국가의 제도적 민주주의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있지 않았고, 알라쉬 운동 역시 짧은 시간 동안 혁명과 내전의 불안정한 조건 속에서 전개되었다. 따라서 이글에서 말하는 민주 이념은 선거 제도나 의회 제도의 완성 여부가 아니라, 민중의 각성, 공론장의 형성, 권리 의식, 사회 비판, 자치 요구, 공동체의 자기 조직화라는 실천적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다.

Ⅱ.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논문의 주요 연구 자료는 20 세기 초 카자흐어 간행물인 <아이캅>, <카작>, <사르아르카> 이다. 이들 간행물은 발행 시기, 발행 지역, 주도 인물, 주요 의제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모두 카자흐 민족 지식인들의 문제의식과 사회적 실천을 보여주는 핵심 자료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아이캅>은 1911 년부터 1915 년까지 트로이츠크에서 발행된 카자흐어 잡지로, 카자흐 사회의 계몽, 교육, 여성, 관습, 종교, 문명 수용, 사회 비판 등의 문제를 폭넓게 다루었다. 이 잡지는 알라쉬 운동이 정당과 자치정부의 형태로 정치화되기 이전, 카자흐 민족 지식인들이 사회를 어떻게 진단하고 어떤 방향으로 변화시키고자 했는지를 보여주는 선행적 자료이다. 따라서 <아이캅>은 알라쉬 운동의 사회문화적 토대를 분석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카작> 신문은 1913 년부터 1918 년까지 오렌부르크에서 발행된 대표적인 카자흐어 신문이다. 이 신문은 알라쉬 계열 지식인들의 정치적 문제의식과 사회 개혁 구상이 가장 집약적으로 드러나는 매체이다. <카작>은 <아이캅>에서 제기된 계몽적 문제의식을 보다 선명한 정치적 언어와 공적 의제로 확장하였다. 교육, 언론, 법과 권리, 토지, 자치, 여성, 청년, 민족의

장래, 러시아 제국의 정책 등 다양한 의제가 이 신문의 지면에서 다루어졌다.

<사르아르카>는 1917 년 혁명기 이후 세메이 지역을 중심으로 발행된 신문으로, 알라쉬 운동이 자치와 정치적 조직화의 국면으로 나아가던 시기의 문제의식을 보여준다. 이 신문은 알라쉬 정당의 활동, 알라쉬 오르다(Alash Orda)의 구성, 자치의 필요성, 공동체의 조직화, 민족적 결속, 외부 권력과의 관계, 청년층의 역할 등을 다루었다. 따라서 <사르아르카>는 민족 지식인들의 근대 지향적 이념이 혁명기 현실 속에서 자치와 정치적 실천의 언어로 전환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한편 방법론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역사적 문헌 분석이다. 역사적 문헌 분석은 간행물이 생산된 시기와 사회적 조건, 발행 주체, 독자층, 주요 의제, 정치적 환경을 함께 고려하여 자료의 의미를 해석하는 방법이다. 20 세기 초 카자흐어 간행물은 단순한 정보 전달 수단이 아니었다. 그것은 카자흐어를 공적 사고와 사회 비판의 언어로 세우는 작업이었고, 지식인과 민중을 연결하는 새로운 소통 구조를 만드는 시도였다. 따라서 각 간행물의 내용은 그 자체로 근대적 공론장 형성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는 개념사적 접근이다. 개념사 분석은 특정 개념을 고정된 의미로 보지 않고, 역사적 맥락 속에서 그 개념이 어떻게 사용되고 변화하며 사회적 기능을 수행했는지를 살피는 방법이다. 본고에서는 교육, 언론, 권리, 여성, 민족, 자치, 카자흐성 등의 개념이 세 간행물에서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를 분석한다. 이러한 개념들은 단순한 추상어가 아니라, 당시 카자흐 민족 지식인들이 사회를 진단하고 변화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사용한 사상적 도구였다.

이러한 특징들을 바탕으로 하여 본 논문에서는 세 간행물을 개별적 자료로 분리하여 검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들이 형성하는 연속적 흐름에 주목한다. 먼저 <아이캅>에서 교육과 계몽은 사회 내부의 자기반성과 민중의 각성을 의미하였고, <카작>에서는 교육과 언론이 민족 공론장의 형성과 자치의 기반으로 확장되었으며, <사르아르카>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이 민족 자치와 공동체의 내부 조직화 문제로 구체화되었다. 이와 같이 세 간행물은 카자흐 민족 지식인들의 근대 지향적 이념이 사회문화적 문제의식에서 정치적 실천으로 발전해 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Ⅲ. 주요 간행물의 특징 분석

1. <아이캅>의 특징 분석

<아이캅>은 20 세기 초 카자흐 민족 지식인들의 사회적 문제의식과 계몽적 지향을 보여주는 대표적 간행물이다. 본 연구에서 <아이캅>을 주요 문헌으로 선정한 이유는 이 잡지가 알라쉬 정당의 공식적 정치 활동이 본

격화되기 이전부터 카자흐 사회 내부에서 형성되고 있던 근대적 문제의식, 민족적 자각, 교육 개혁의 필요성, 사회 비판의 언어를 비교적 폭넓게 담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아이캅>은 알라쉬 운동이 정당과 자치정부의 형태로 정치화되기 이전, 카자흐 민족 지식인들이 사회를 어떻게 진단하고 어떤 방향으로 변화시키고자 했는지를 보여주는 선행적 자료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아이캅>은 근대화 이념의 직접적 정치 표현 이전 단계, 곧 사회문화적 토대를 분석하기 위한 핵심 문헌으로 활용될 수 있다.

<아이캅>의 명칭은 현대 라틴 카자흐어로 Aiqap 으로 표기된다. 이 명칭은 카자흐어의 감탄 표현으로, “이런, 놓쳐버렸다” 또는 “아, 안타깝다”와 같은 후회와 탄식의 의미를 지닌다. 제호 자체가 하나의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아이캅>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즉 이 제목은 당시 카자흐 사회가 더 이상 과거의 구시대적 관습과 침체 속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교육과 지식, 사회적 자각을 통해 변화해야 한다는 계몽적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었다. <아이캅>은 1911 년부터 1915 년까지 러시아 제국령 트로이츠크에서 발행되었다. 트로이츠크는 현재 러시아 첼랴빈스크주 남부, 카자흐스탄 국경 인근에 위치한 도시로, 제정 러시아 시기에는 오렌부르크 방어선의 요새이자 카자흐 초원 및 중앙아시아와의 교역 거점이었다. 이러한 지역적 조건은 <아이캅>이 카자흐 지식인, 무슬림 지식인, 러시아 제국 행정 질서, 중앙아시아 교역망이 교차하는 공간에서 발행되었음을 보여준다.

<아이캅>의 발행을 주도한 인물은 시인이자 언론인, 사회활동가였던 무하메드잔 세랄린(Mukhamedzhan Seralin, 1872–1929)이었다. 그는 카자흐 근대 언론과 문학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로 평가된다. 세랄린은 1911 년 트로이츠크에서 카자흐 최초의 잡지로 평가되는 <아이캅>을 창간하고 편집하였으며, 이를 통해 교육, 사회개혁, 여성 문제, 토지 문제, 종교와 문화 등 근대 전환기 카자흐 사회의 주요 의제를 공론화하였다. <아이캅>의 책임 서기로는 아크람 갈리모프(Akiram Galimov, 1892–1913)가 언급된다. 주요 필진으로는 바크트잔 카라타예프(Bakhytzhan Karataev, 1863–1934), 사켄 세이풀린(Saken Seifullin, 1894–1938), 베이음베트 마일린(Beimbet Mailin, 1894–1938)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인물 구성은 <아이캅>이 단순한 개인 잡지가 아니라, 20 세기 초 카자흐 지식인 네트워크의 사상과 문제의식이 모이는 공간이었음을 보여준다.

카자흐스탄 국립전자도서관 자료에 따르면 <아이캅>은 1911 년부터 1915 년까지 중단 없이 발행되었으며, 총 88 호가 간행되었다. 특히 1911 년 발행분의 경우 아랍 문자로 된 원문을 현대 문자로 전사한 영인본 형태의 자료가 공개되어 있어, 오늘날 연구자가 원문과 현대 전사본을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아이캅>은 단순히 초기 잡지라는 언론사적 가치만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근대 카자흐 지식인 담론의 형성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1 차 문헌이다.

<아이캅>의 출간 방식과 발행 환경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아이캅>은 트로이츠크의 에네르기야 인쇄소에서 카자흐어로 발행되었고, 아랍 문자로 조판되었다. 처음에는 월 1 회 발행되었으나, 이후에는 월 2 회 발행되었다고 한다. 이는 <아이캅>이 일정한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카자흐 사회 내부에서 잡지 형태의 정기 간행물이 유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당시 카자흐 사회에서 카자흐어로 된 정기 간행물을 발행한다는 것은 단순한 출판 행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카자흐어를 공적 사고와 사회 비판의 언어로 세우는 작업이었고, 지식인과 민중을 연결하는 새로운 소통 구조를 만드는 시도였다.

러시아 제국의 행정 질서 속에서 카자흐 민중은 대체로 제국의 정책 대상이었지만, <아이캅>과 같은 간행물은 카자흐인이 스스로 사회 문제를 논의하고, 자기 사회를 진단하며, 변화의 방향을 제시하는 공적 공간을 제공하였다. 이 점에서 <아이캅>의 발행은 그 자체로 근대적 공론장 형성의 출발점으로 평가될 수 있다. 물론 <아이캅>이 오늘날의 의미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언론 공간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당시 카자흐어 인쇄 언론은 러시아 제국의 검열과 행정적 통제 아래 놓여 있었고, 토지 문제, 교육, 무슬림 사회, 사회개혁 담론을 다루는 과정에서 제국 당국과 긴장 관계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제한적 조건 속에서도 카자흐 지식인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사회 문제를 제기하고 독자층과 소통하려 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아이캅>의 주요 내용은 교육, 언어, 여성, 종교, 문명 수용, 관습 개혁, 사회 비판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 간행물은 카자흐 사회의 현실을 단순히 외부 지배의 문제로만 설명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부의 문맹, 교육 부족, 사회적 폐쇄성, 낡은 관습, 여성의 제한된 지위 등을 중요한 문제로 삼았다. 이러한 점에서 <아이캅>은 카자흐 사회의 변화를 단순한 정치적 독립이나 제도 개혁의 문제로 보지 않고, 사회 내부의 의식 변화와 문화적 개진의 문제로 이해하였다. 가장 중요한 의제 가운데 하나는 교육이었다. <아이캅>에서 교육은 단순히 문자 해득이나 학교 설립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민중이 현실을 인식하고, 자신의 사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변화의 필요성을 깨닫는 과정이었다. 따라서 교육은 계몽의 핵심 수단이자 사회 개혁의 출발점이었다. <아이캅>의 지식인들은 교육을 통해 카자흐 사회가 낡은 관습과 무지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에 대응할 수 있다고 보았다.

여성 문제 또한 중요한 의제였다. <아이캅>은 여성의 제한된 지위, 조혼, 관습적 억압, 교육 기회의 부족 등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었다. 이는 카자흐 사회의 근대화가 남성 엘리트의 정치적 권리만으로 완성될 수 없으며, 사회 내부의 관계와 관습이 변화해야 한다는 인식을 보여준다. 여성 문제는 단순히 개별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명화와 도덕적 개혁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제기되었다. 종교와 문명 수용의 문제도 <아이캅>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카자흐 사회는 이슬람 문화권과 러시아 제국 질

서, 중앙아시아의 전통적 생활 세계가 교차하는 공간에 위치해 있었다. <아이캅>은 종교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기보다는, 종교적 윤리와 근대적 교육, 사회개혁의 필요성을 함께 고려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는 카자흐 지식인들의 근대 지향이 단순한 서구화나 전통 부정으로만 나타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또한 <아이캅>은 토지 문제와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다. 러시아 제국의 식민적 토지 정책과 이주민 정착은 카자흐 유목 사회의 생활 기반을 변화시켰고, 이는 카자흐 공동체의 생존과 직접 연결되는 문제였다. <아이캅>의 토지 관련 논의는 이후 <카작>과 알라쉬 운동의 정치적 의제로 이어지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이러한 의제들을 종합해보면, <아이캅>은 카자흐 사회 내부의 자기반성과 계몽의 언어를 형성한 매체였다고 할 수 있다. <아이캅>은 카자흐 사회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무엇이 문제이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논의하게 만든 공론장의 출발점이었다고 볼 수 있다.

2. <카작>의 특징 분석

<카작> 신문은 20 세기 초 카자흐 민족 지식인들의 정치적 문제의식과 사회 개혁 구상이 가장 집약적으로 드러나는 대표적 간행물이다. 앞서 살펴본 <아이캅>이 알라쉬 운동의 사회문화와 계몽적 기반을 보여주는 자료라면, <카작> 신문은 그러한 문제의식이 보다 선명한 정치적 언어와 공적 의제로 발전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핵심 문헌이다. 이 신문은 1913 년 2 월 2 일 오렌부르크에서 창간되어 1918 년까지 발행되었다. 발행 호수는 자료에 따라 약 250 호 내외로 보고되고 있으나, 1913 년부터 1918 년까지 발행된 대표적인 카자흐어 신문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카작> 신문의 초대 편집장은 아흐메트 바이투르순울르(Akhmet Baitursynuly, 1872–1937)였고, 창간 주도자는 알리한 보케이한(Alikhan Bokeikhan, 1866–1937)이었다. 대표 편집자로는 므르자큽 둘라트울르(Mirzhakyp Dulatuly, 1885–1935)가 활동하였다. 발행인으로는 무스타파 오라자예프(Mustafa Orazayev, 1891–1970)가 언급되며, 주요 필진으로는 무스타파 쇼카이(Mustafa Shokay, 1890–1941), 마그잔 주마바예프(Magzhan Zhumabayev, 1893–1938) 등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인물 구성은 <카작> 신문이 알라쉬 계열 지식인들의 핵심적 발언 공간이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카작>이라는 명칭 자체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당시 러시아 제국의 행정 문서와 외부의 명명 방식에서는 카자흐 민족을 과거 행정구역 분류에 따라 '키르기즈'라고 부르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문이 자신의 이름을 <카작>으로 정했다는 것은 단순한 제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카자흐 민족을 외부의 명명 방식이 아니라, 스스로의 이름으로 호명하려는 시도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카작> 신문은 카자흐성의 형성과

직접 연결된다. 카자흐성은 단순히 민족명이나 혈통적 정체성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카자흐 민족이 자신을 어떠한 역사적 공동체로 이해하고, 어떤 언어와 가치, 제도, 미래 전망을 공유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카작> 신문은 바로 이 질문을 공적 언어 속에서 제기한 매체였다.

<카작> 신문은 민족의 이름을 회복하고, 그 이름 아래에서 카자흐 사회의 문제를 논의하였다. 따라서 이 신문은 카자흐인의 자기 인식과 민족적 주체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카자흐라는 이름은 단순한 표기가 아니라, 제국의 행정적 분류를 넘어 스스로를 명명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의 표현이었다. 이러한 자기 명명은 이후 자치와 자기통치의 논리로 이어진다. 스스로의 이름으로 말할 수 있는 공동체만이 스스로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카작> 신문이 카자흐성의 형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이유는, 이 신문이 민족 정체성을 폐쇄적 민족주의의 형태로만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도 있다. <카작>의 민족 담론은 교육, 언론, 권리, 법, 토지, 자치, 여성, 청년, 종교 등 다양한 사회적 의제와 연결되어 있었다. 즉 카자흐성은 단순한 과거 회귀가 아니라, 근대 사회 속에서 카자흐 민족이 어떠한 공동체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미래지향적 질문이었다. <카작> 신문의 주요 내용은 매우 폭넓다. 이 신문은 교육, 언어, 문자, 토지, 자치, 법과 권리, 종교, 여성, 청년, 민족의 장래, 러시아 제국의 정책, 국제 정세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다. 이러한 주제들은 개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카자흐 민족의 생존과 미래라는 하나의 큰 문제의식 속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카작> 신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적 특징 중 하나는 언론의 공공성에 대한 강한 인식이었다. 신문은 단순한 소식 전달의 도구가 아니라, 민중의 "눈, 귀, 혀"가 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었다. 이는 <카작> 신문이 스스로를 계몽과 공론장의 매체로 인식했음을 보여준다.

이 점에서 <카작> 신문은 실천으로서의 지식인 이념을 분석하기에 매우 적합한 자료이다. <카작> 신문은 바로 이러한 공적 판단의 공간을 형성하고자 했다. 이 신문은 민중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 문제를 공론화하며, 공동체 내부의 판단과 토론을 촉진하였다. 이는 근대화로의 이행에 필요한 공적 참여의 조건을 형성하는 일이었다. 따라서 <카작> 신문은 단순한 언론 매체가 아니라, 알라쉬 지식인들의 근대화 이념이 공론장 속에서 구체화된 공간이었다. 특히 <카작> 신문은 <아이캅>에서 제기된 사회문화적 문제의식을 보다 정치적이고 민족적인 언어로 확장하였다. <아이캅>이 계몽과 사회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면, <카작>은 그러한 문제를 민족의 장래, 정치적 권리, 자치, 법적 질서, 대표성의 문제와 연결하였다. 다시 말해 <카작>은 계몽의 언어를 정치의 언어로 전환한 매체였다.

1917년 <카작> 신문에 게재된 알라쉬 정당 강령 초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이 제도적 언어로 구체화된 사례이다. 이 강령 초안은 민주적 공화국, 카자흐 자치, 지방자치, 기본권, 종교, 사법, 조세, 노동, 과학·교육, 토지 문제

를 주요 항목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평등·직접·비밀 선거, 출신·종교·성별에 따른 차별 없는 선거권,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법적 절차 없는 체포 금지 등을 명시하였다. 이 강령 초안은 알라쉬 지식인들이 근대 이념의 지향을 제도적 언어로 표현하고자 했음을 보여준다. <카작> 신문은 이러한 논의를 민족 공론장 속에서 유통시키고, 독자들이 카자흐 사회의 미래와 정치적 권리에 대해 생각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였다.

3. <사르아르카>의 특징 분석

<사르아르카> 신문은 알라쉬 운동이 계몽과 사회비판의 단계를 넘어 자치와 정치적 조직화의 국면으로 나아가던 시기에 등장한 대표적 카자흐어 간행물이다. 앞에서 살펴본 <아이캅>이 카자흐 지식인들의 계몽적 문제의식과 사회문화적 개혁의 기반을 보여주고, <카작> 신문이 그러한 문제의식을 공론장과 민족적 정치 담론으로 확장한 매체라면, <사르아르카>는 민족 지식인들의 근대화 이념이 혁명기 현실 속에서 자치와 정치적 실천의 언어로 전환되는 장면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서사적 측면에서 <사르아르카>는 알라쉬 오르다의 형성과 자치 담론, 그리고 민족 공동체의 자기통치 의식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문헌으로 활용될 수 있다.

<사르아르카>는 1917 년 세메이 지역에서 창간되었는데, 당시 세메이는 알라쉬 운동과 카자흐 지식인 활동의 중요한 거점 가운데 하나였다. 세메이는 러시아 제국 시기부터 동부 카자흐 초원의 행정·상업 중심지였으며, 아바이로 대표되는 카자흐 계몽과 문학 전통의 상징적 공간이기도 했다. 이러한 지역적 배경은 <사르아르카>가 단순한 지역 신문이 아니라, 동부 카자흐 초원의 지식인 네트워크와 알라쉬 운동의 정치적 문제의식이 결합한 매체였음을 보여준다. 여러 자료에 따르면 <사르아르카>는 1917 년부터 1918 년 또는 1919 년까지 발행된 것으로 정리되며, 지속 기간이 길지는 않다. 그러나 발행 기간의 짧음이 자료적 가치를 약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르아르카>는 혁명과 내전이라는 격변기 속에서 카자흐 민족 지식인들이 자치와 정치적 조직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하려 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사르아르카> 관련 주요 인물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초기 편집자로는 라이음잔 마르세코프(Raiymzhan Marsekov, 1879–1937)가 언급되며, 편집 실무자로는 할렐 가바소프(Khalel Gabbasov, 1888–1931)가 제시된다. 또한 발행 책임자로는 쉰제 케레이바예프(Shynzhe Kereybayev, 1888–?)가 언급되고, 주요 필진으로는 술탄마흐무트 토라이그로프(Sultanmahmut Toraigyrov, 1893–1920), 샤캐름 쿠다이베르드울르(Shakarim Kudaiberdiuly, 1858–1931) 등이 포함된다. 자료에 따라 알리한 보케이한 등 알라쉬 계열 인물도 편집진 또는 필진과 관련하여 언급된다.

이와 같은 편집진과 필진의 구성은 <사르아르카>가 단순한 지역 신문이 아니라, 알라쉬 계열 지식인들의 사상과 사회적 발언이 집중된 매체였음을 보여준다.

<사르아르카>의 주요 내용은 알라쉬 운동의 정치적 현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 신문은 혁명기 정치적 혼란, 알라쉬 정당의 활동, 알라쉬 오르다의 구성, 자치의 필요성, 공동체의 조직화, 민족적 결속, 외부 권력과의 관계, 교육과 계몽, 청년층의 역할 등을 다루었다. 특히 <사르아르카>는 <아이캅>이나 <카작> 신문보다 정치적 긴장도가 높은 시기에 발행되었다. <아이캅>이 주로 사회문화적 계몽과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면, <카작>은 이를 민족 공론장과 정치적 의제로 확장하였다. 이에 비해 <사르아르카>는 혁명기 현실 속에서 자치와 조직화의 문제가 보다 직접적으로 제기되는 매체였다. 지면에서는 카자흐 공동체가 혁명기 혼란 속에서 어떤 방향을 선택해야 하는지, 외부 권력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민족적 자치와 질서를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의제로 다루어졌다. 이는 <사르아르카>가 단순한 해설적 매체가 아니라, 급변하는 정치 현실 속에서 공동체의 방향을 설정하고 민족적 결속을 촉구하는 실천적 매체였음을 보여준다.

혁명기라는 조건은 <사르아르카>의 담론 성격을 규정하였다. 1917 년 이후 러시아 제국 질서가 붕괴하고, 임시정부와 소비에트 권력, 지방 세력과 민족 운동이 복잡하게 충돌하는 상황에서 카자흐 지식인들은 더 이상 사회개혁의 필요성을 일반론적으로 제시하는 데 머무를 수 없었다. 그들에게 중요한 문제는 카자흐 공동체가 정치적 혼란 속에서 어떻게 생존하고, 어떤 방식으로 질서를 유지하며, 누가 공동체를 대표할 것인가였다.

<사르아르카>의 내용적 특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치 담론이다. 알라쉬 운동에서 자치는 단순한 행정구역의 독립이나 권력 분립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카자흐 민족이 스스로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하고, 공동체 내부의 질서를 직접 조직할 수 있는가의 문제였다. <사르아르카>는 이러한 문제를 혁명기라는 구체적 상황 속에서 다루었다. 이 신문은 자치를 추상적 이상으로만 제시하지 않았다. 알라쉬 오르다의 구성, 정치적 대표성, 민족 공동체의 방어, 지역 조직화, 민족 간 관계 속에서 자치가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를 고민하였다. 이 점에서 <사르아르카>의 자치 담론은 알라쉬 근대화 이념의 중요한 측면을 보여준다. 특히 민족 자치는 카자흐 민족 지식인들에게 근대적 정치 주체가 되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었다. 제국의 행정 대상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자치 담론의 핵심이었다.

이 때문에 <사르아르카>의 자치 논의는 카자흐성의 정치적 전환과도 밀접하게 관련된다. <카작>이 카자흐라는 이름을 통해 민족의 자기 명명을 강조하였다면, <사르아르카>는 그 자기 명명이 정치적 자기통치의 요구로 발전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또한 <사르아르카>의 자치 담론은 공동체

내부의 질서와 결속을 강조한다. 자치가 가능하려면 단순히 외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내부적으로 공동체를 조직하고, 대표성을 인정하며, 교육과 언론을 통해 민중의 의식을 형성하고, 지역 사회를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사르아르카>는 이러한 문제를 혁명기 현실 속에서 제기하였다.

<사르아르카>를 분석할 때에는 자료적 한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 신문은 혁명기와 내전이라는 매우 불안정한 역사적 조건 속에서 발행되었다. 따라서 지면에 나타난 주장과 논조는 평시의 신문보다 훨씬 더 정치적이며, 때로는 긴급한 동원과 설득의 성격을 강하게 지닌다. 그러나 이러한 점은 한계이면서 동시에 자료적 의의이기도 하다. <사르아르카>는 안정된 제도와 질서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카자흐 지식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공동체의 미래를 사유했는지를 보여준다. 이 신문은 추상적 이념보다 실천적 과제에 가까운 언어를 사용하였다. 자치, 대표성, 조직화, 방어, 결속, 청년의 역할 등의 의제는 모두 혁명기 현실의 압박 속에서 제기된 문제였다. 따라서 <사르아르카>는 알라쉬 운동의 정치적 실천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문헌이다. <아이캅>이 사회문화적 계몽의 공간이었다면, <카작>은 민족 공론장의 중심이었다. <사르아르카>는 자치와 정치적 조직화의 현장에 가까운 매체였다. 이 세 간행물을 함께 살펴볼 때, 알라쉬 운동의 이념은 단순한 사상적 주장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적 실천과 정치적 조직화의 과정 속에서 발전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이캅>, <카작>, <사르아르카>는 주요 의제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모두 20 세기 초 카자흐 민족 지식인들의 문제의식과 사회적 실천을 보여주는 핵심 간행물이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아이캅>은 계몽과 사회문화적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한 잡지로서, 교육, 여성, 관습, 토지, 문명 수용의 문제를 통해 카자흐 사회 내부의 자기반성과 변화의 필요성을 드러냈다. <카작> 신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보다 넓은 공론장으로 확장한 매체로서, 언론, 교육, 자치, 법과 권리, 민족의 미래를 종합적으로 논의하였다. <사르아르카>는 혁명기와 알라쉬 오르다의 정치적 실천이 본격화되던 시기에 등장하여, 자치, 대표성, 정치적 조직화, 공동체의 문제를 보다 직접적으로 다루었다.

따라서 이 세 간행물은 각각 독립된 언론 자료로도 중요하지만, 함께 분석할 때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 <아이캅>은 사회문화적 계몽의 단계, <카작>은 민족 공론장과 정치 담론의 단계, <사르아르카>는 자치와 정치적 실천의 단계를 보여준다. 이 흐름은 카자흐 민족 지식인들의 근대 지향적 이념이 추상적 사상으로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간행물이라는 공적 매체를 통해 사회적 실천으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세 간행물은 카자흐 근대시기 사상사 분석에 적용하기에 적절한 자료라고 판단된다. <아이캅>에서 교육은 사회 계몽과 민중의 각성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나타나며, <카작> 신문에서는 교육과 언

론이 민족의 공론장 형성과 자치의 기반으로 확장된다. <사르아르카> 신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이 민족 자치와 공동체의 내부 조직화의 문제로 구체화되었다. 이와 같이 근대 지향적 이념들과 관련된 개념들은 간행물에 따라 서로 다른 강조점을 지니고 있다. 결국 카자흐 민족 지식인들의 근대화 이념은 교육, 언론, 권리, 자치, 카자흐성의 개념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아이캅>, <카작>, <사르아르카>를 통해 근대 지향적 개념과 사회적 실천의 관계를 분석하고, 그것이 카자흐성의 형성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를 밝히는 것은 알라쉬 운동의 사상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작업이다. 따라서 이 세 간행물에 대한 문헌 분석은 카자흐 민족 지식인들의 근대화 이념과 실천을 설명하는 데 충분한 실효성을 지닌다고 판단된다.

Ⅳ. 결론

20 세기 초 카자흐 민족 지식인 집단의 근대화 이념과 실천을 <아이캅>, <카작>, <사르아르카>라는 주요 간행물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세 간행물은 알라쉬 운동의 사상적 기반과 정치적 전개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자료이며, 카자흐 민족 지식인들이 사회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떠한 언어로 근대적 전환을 구상하였으며, 이를 어떠한 방식으로 공론화하고 실천하려 했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이 간행물들은 단순한 언론 매체가 아니라, 카자흐 사회가 근대적 정치 공동체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지식인들이 만들어 낸 공적 담론의 장이었다.

먼저 <아이캅>은 알라쉬 운동의 정치적 조직화 이전 단계에서 카자흐 사회 내부의 자기반성과 계몽적 문제의식을 보여주는 잡지였다. 이 잡지의 본질적 특징은 카자흐 사회가 스스로의 현실을 성찰하고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만들었다는 데 있다. <아이캅>은 카자흐 사회의 문제를 단순히 외부 지배나 제국 권력의 억압으로만 설명하지 않았다. 오히려 문맹, 교육 부족, 낡은 관습, 여성의 제한된 지위, 사회적 폐쇄성 등 내부적 문제를 함께 제기하였다. 이는 카자흐 사회의 근대화가 단순히 정치적 독립이나 외부 제도의 도입만으로 완성될 수 없으며, 사회 내부의 의식 변화와 문화적 개진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아이캅>의 계몽적 성격은 교육 문제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 잡지에서 교육은 단순한 문자 해득이나 학교 설립의 차원을 넘어, 민중이 현실을 인식하고 자신의 사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변화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핵심 수단이었다. 또한 여성 문제와 관습 개혁에 대한 관심은 <아이캅>이 카자흐 사회의 근대화를 사회 내부의 관계 변화와 연결하여 이해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아이캅>은 알라쉬 운동의 직접적 정치 문헌은 아니지만, 알라쉬 운동이 등장할 수 있었던 사회문화적 기반을 마련한 간행물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아이캅>의 중요성은 카자흐어 정

기 간행물로서의 의미에서도 찾을 수 있다. 당시 카자흐어로 잡지를 발행한다는 것은 단순한 출판 행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카자흐어를 공적 사고와 사회 비판의 언어로 세우는 작업이었고, 지식인과 독자를 연결하는 새로운 소통 구조를 만드는 시도였다. 이 점에서 <아이캅>은 카자흐 민족 지식인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사회 문제를 제기하고, 독자들과 함께 변화의 방향을 논의하기 시작한 초기 공론장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아이캅>의 본질은 계몽, 자기반성, 사회문화적 개혁, 그리고 카자흐어 공론장의 형성으로 정리할 수 있다.

둘째, <카작> 신문은 <아이캅>에서 형성된 사회문화적 문제의식을 민족적 공론장과 정치적 언어로 확장한 대표적 간행물이었다. <카작>의 본질적 특징은 카자흐 민족의 생존과 미래를 공적 의제로 만들고, 다양한 사회 문제를 민족 전체의 문제로 종합했다는 데 있다. 이 신문은 교육, 언어, 문자, 토지, 자치, 법과 권리, 종교, 여성, 청년, 민족의 장래, 러시아 제국의 정책 등 폭넓은 주제를 다루었다. 그러나 이러한 주제들은 개별적으로 흩어진 것이 아니라, 카자흐 민족이 어떤 공동체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하나의 문제의식 속에서 연결되어 있었다.

특히 <카작>이라는 명칭 자체는 카자흐 민족의 자기 인식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러시아 제국의 행정 질서 속에서 카자흐 민족이 외부의 명명 방식에 따라 불리던 상황에서, 신문이 스스로를 <카작>으로 명명했다는 것은 카자흐 민족이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을 호명하고자 한 시도였다. 이는 단순한 제호의 문제가 아니라, 카자흐 민족의 자기 명명과 주체성의 표현이었다. 따라서 <카작> 신문은 카자흐성의 형성과 발전을 보여주는 중요한 매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사르아르카> 신문은 혁명기와 알라쉬 오르다의 정치적 실천이 본격화되던 시기의 문제의식을 보여주는 간행물이었다. <사르아르카>의 본질적 특징은 알라쉬 운동의 근대화 이념이 자치와 정치적 조직화의 언어로 전환되는 과정을 보여준다는 데 있다. <아이캅>이 사회문화적 계몽의 기반을 마련하고, <카작>이 민족 공론장과 정치적 담론을 확장하였다면, <사르아르카>는 혁명기 현실 속에서 그 담론이 구체적인 정치적 과제로 제기되는 장면을 보여준다.

<사르아르카>는 혁명기 정치적 혼란, 알라쉬 정당의 활동, 알라쉬 오르다의 구성, 자치의 필요성, 공동체의 조직화, 민족적 결속, 외부 권력과의 관계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루었다. 이 신문이 발행되던 시기는 러시아 제국 질서가 붕괴하고, 임시정부와 소비에트 권력, 지방 세력과 민족 운동이 복잡하게 충돌하던 시기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카자흐 민족 지식인들에게 중요한 문제는 더 이상 일반적인 계몽이나 사회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그들은 카자흐 공동체가 정치적 혼란 속에서 어떻게 생존하고, 어떤 방식으로 질서를 유지하며, 누가 공동체를 대표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했다.

이처럼 <아이캅>, <카작>, <사르아르카>는 각각 서로 다른 본질적 특징을 지니면서도 하나의 연속적인 흐름을 형성한다. <아이캅>은 카자흐 사회 내부의 자기반성과 계몽을 통해 근대화의 사회문화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카작>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민족 공론장으로 확장하고, 카자흐 민족의 자기 인식과 정치적 권리, 자치의 문제를 공적 의제로 만들었다. <사르아르카>는 혁명기 현실 속에서 자치와 정치적 조직화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제기하며, 알라쉬 운동의 사상적 지향이 실제 정치적 실천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세 간행물은 알라쉬 운동의 단계를 설명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아이캅>은 사회문화적 계몽의 단계, <카작>은 민족 공론장과 정치 담론의 단계, <사르아르카>는 자치와 정치적 실천의 단계를 대표한다. 이 흐름을 통해 알라쉬 운동은 갑작스럽게 등장한 정치 조직이 아니라, 카자흐 민족 지식인들의 언론 활동과 사회적 문제의식이 축적된 결과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알라쉬 운동은 먼저 사회를 성찰하는 계몽의 언어로 시작되었고, 이후 민족의 미래를 논의하는 공론장의 언어로 확장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자치와 정치적 조직화의 언어로 구체화되었다.

본 연구에서 주목한 근대화 이념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20 세기 초 카자흐 사회는 러시아 제국의 지배, 식민적 토지 정책, 제한된 교육 환경, 혁명과 내전의 혼란 속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안정적인 제도적 정치 체제가 정착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세 간행물에서 확인되는 카자흐 민족 지식인들의 활동은 근대화 이념의 실천적 성격을 보여준다. 그들은 민중의 각성, 교육의 확대, 언론을 통한 공론장 형성, 권리 의식의 제기, 여성과 사회 관습의 개혁, 민족의 자기 명명, 자치와 공동체 조직화를 통해 근대적 정치 공동체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이와 같이 알라쉬 운동의 근대화 이념은 제도적 완성 여부보다 활동과 실천의 차원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카자흐 민족 지식인들은 잡지와 신문을 통해 사회 문제를 공론화하고, 민족의 미래를 논의하며, 카자흐 사회가 스스로 변화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시켰다. 이들의 언론 활동은 단순한 문필 활동이 아니라, 카자흐 사회를 근대적 공론장으로 이끌고 민족 공동체의 정치적 주체성을 형성하려는 실천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아이캅>, <카작>, <사르아르카>는 알라쉬 근대화 이념의 형성과 전개를 보여주는 핵심 매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세 간행물은 카자흐성(Kazakhness)의 형성과 발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카자흐성은 단순한 민족명이나 문화적 정체성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것은 카자흐 민족이 자신을 어떠한 역사적 공동체로 이해하고, 어떤 언어와 가치, 제도, 미래 전망을 공유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아이캅>은 카자흐 사회 내부의 자기반성과 계몽을 통해 카자흐성의 사회문화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카작>은 카자흐라는 이름을 통해 민족의 자기 인식과 공적 발언을 강화하였다. <사르아르카>는 그 자기 인식이 자

치와 자기통치의 요구로 발전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세 간행물은 카자흐성이 사회문화적 정체성에서 정치적 주체성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아이캅>, <카작>, <사르아르카>는 20 세기 초 카자흐 민족 지식인 집단의 근대화 이념과 실천을 보여주는 핵심 간행물이다. 이들 간행물은 카자흐 지식인들이 교육, 언론, 권리, 여성, 자치, 카자흐성의 문제를 통해 사회를 진단하고 변화의 방향을 제시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들은 알라쉬 운동이 단순한 정치 조직의 역사로만 설명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알라쉬 운동은 카자흐 민족 지식인들이 언론과 지식을 통해 공동체의 미래를 구상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며, 민족의 정치적 주체성을 형성하고자 한 근대적 실천의 역사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세 간행물에 수록된 개별 기사와 논설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교육, 언론, 권리, 여성, 자치, 카자흐성 등의 주제가 실제 문헌 속에서 어떠한 표현과 논리로 전개되었는지를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알라쉬 운동의 민주 이념과 카자흐 민족 지식인들의 근대화 실천이 지닌 역사적 의미를 더욱 입체적으로 밝힐 수 있을 것이다.

CONTRACTION AND CONNOTATIONAL SHIFTS OF KINSHIP TERMS IN MODERN KOREAN SOCIETY

Ilkhomjon Rojiboev
Uzbekistan State World Languages University
Tashkent, Uzbekistan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the linguistic and sociological transformation of kinship terms in contemporary South Korea. Traditionally rooted in strict Confucian hierarchies, the Korean system of address is currently undergoing a process of simplification and semantic shift. The study analyzes how factors such as the rise of nuclear families, gender equality movements, digital communication, and globalization are leading to the obsolescence of complex traditional titles. Special attention is paid to the decline of the "외-" (external) prefix in maternal kinship terms and the emergence of more intimate, child-centered forms like "Mommy-Grandma." The findings suggest a transition from hierarchical social roles toward emotional proximity and egalitarian communication strategies, reflecting a modern reinterpretation of traditional family structures.
Keywords: Korean language, kinship terms, sociolinguistics, semantic shift, Confucianism, nuclear family, gender equality, linguistic economy

Название статьи: Сокращение и коннотативные изменения терминов родства в современном корейском обществе
Автор: Илхомжон Рожибоев, Узбек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мировых языков, Ташкент, Узбекистан
Аннотация: В данной статье рассматривается лингвистическая и социологическая трансформация терминов родства в современной Южной Корее. Корейская система обращений, традиционно основанная на строгой конфуцианской иерархии,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проходит через процесс упрощения и семантических изменений. Исследование анализирует, как такие факторы, как переход к нуклеарной семье, движение за гендерное равенство, цифровая коммуникация и глобализация, приводят к выходу из употребления сложных традиционных титулов.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уделяется сокращению использования префикса «외-» (внешний) в терминах родства по материнской линии и появлению более интимных, ориентированных на ребенка форм, таких как «папа-бабушка» или «мама-бабушка». Результаты исследования указывают на переход от иерархических социальных ролей к эмоциональной близости и эгалитарным стратегиям общения, что отражает современную реинтерпретацию традиционных семейных структур.

Ключевые слова: корейский язык, термины родства, социолингвистика, семантический сдвиг, конфуцианство, нуклеарная семья, гендерное равенство, лингвистическая экономия

In the Korean language, kinship terms (친족 호칭어) emerged not merely as linguistic units, but as expressions of social order, moral norms, and cultural values based on Confucianism. In traditional society, these address forms meticulously defined various degrees of kinship, gender, age, family status, and even social ties established through marriage. However, under the influence of structural changes in modern society – such as individualism, gender equality trends, the rise of hybrid family models, and the impact of technological culture and communication tools – this system is undergoing significant transformations in both form and semantics.

In the Korean language, kinship terms are not merely functional labels for biological relatives; they are a sophisticated reflection of the nation's historical social order. Rooted deeply in Neo-Confucianism, the traditional Korean system of address served as a linguistic manual for navigating moral norms, gender roles, and generational hierarchies. For centuries, a speaker's choice of words signaled their exact position within a complex web of family ties.

However, as South Korea moved from an agrarian, clan-based society to a hyper-modern, individualistic global hub, the language began to shift. The structural changes in modern society – most notably the rise of the nuclear family and the digital revolution – have triggered a process of "contraction" where the once-vast vocabulary of kinship is shrinking and taking on new, informal connotations.

The Traditional System: Based on Complexity and Order

The traditional Korean kinship system possessed a complex and strictly hierarchical structure, where an individual's position within the family network dictated the specific form of address. For instance, there were distinct terms used by males to differentiate between an elder paternal uncle (큰아버지), younger paternal uncles (작은아버지), maternal aunts (이모), and various siblings.

Furthermore, specific address terms existed for a married woman to refer to her husband's parents. In every interaction, factors such as age, birth order, and familial roles were strictly considered. Such a system regulated respect, discipline, and social roles within society through the medium of language.

Reasons for Contraction: Modern Lifestyle and Changes in Communication

Several factors are driving the contraction of kinship terms in contemporary Korean society. First and foremost, the rise of the **nuclear family model** (부부와 자녀 중심의 핵가족) and the decline of the **extended family system** (대가족 제도) have led to the practical obsolescence of many distant kinship terms. Furthermore, the popularity of abbreviations among the younger generation, phonetic simplification, informal interaction, and the culture of communication on social networks have reduced the functional burden of these titles.

Another factor is the linguistic simplicity arising from technological communication (chat, SNS, blogs), where intimacy takes precedence over formality. In many cases, young people opt for simpler and shortened forms of address even toward elders in the family; for example, "아빠" (appa) instead of "아버지" (abeoji), "엄마" (eomma) instead of "어머니" (eomeoni), or even dialectal and affectionate forms like "아부지" (abuji) and "오마니" (omani) are becoming more widespread.

Connotational Shifts: The Displacement of Semantic Weight

The process of contraction has produced not only structural but also connotational (synonymous and emotional) shifts. In traditional social relations, a term like "형수님" (hyeongsunim – elder brother's wife) was used with deep respect; today, such terms are used less frequently, replaced by more neutral and modern forms like "**Name + 님**" (-nim) or "그분" (geubun – that person). This indicates a decrease in the expression of social roles in language, while person-centered forms of address are strengthening.

Moreover, many women – particularly young brides – are beginning to prefer expressions that are closer to names or professional titles, or simplified versions, rather than traditional terms for their husband's parents (시아버지, 시어머니). This phenomenon signifies a shift in intergenerational norms of respect.

Influence of Media and Pop Culture

Television dramas, web series, and social networks are exerting a powerful influence on the simplification of kinship terms. For instance, in dramas, spouses who are close to each other limit themselves to terms

like "자기야" (jagiya), "여보" (yeobo), or child-centric references such as "○○ eomma" (○○'s mom) and "○○ appa" (○○'s dad). Even "여보" is frequently replaced by "자기," evolving into an informal linguistic unit based on emotional proximity.

Furthermore, the names of famous characters are increasingly replacing traditional kinship terms. For older individuals, "선생님" (seonsaengnim – teacher/sir) is becoming a universal form of general respect. This trend signifies a transition from hierarchical addresses toward generalized, contextual modes of communication.

European and Global Influence

Under the influence of globalization and Western culture, addressing individuals by name – a practice previously reserved for those of lower status or between close friends – is becoming popularized in Korean society today. This has led to a narrowing of the scope of kinship terms. While cases of children calling their parents by their first names remain an exception, they are on the rise. The European model of horizontal communication is encouraging the structuring of language within the family based on equality.

In contemporary Korean society, kinship terms as an important linguistic and social mechanism are contracting and shifting their semantic weight. The transition from formality to intimacy, hierarchy to equality, and mandatory structure to contextual freedom is driving the evolution of these linguistic units. From a linguistic and cultural perspective, this phenomenon can be evaluated as a modern reinterpretation of traditional social roles and a modernized form of cultural sovereignty. Each unit of address now carries a semantic dimension linked not just to kinship, but to emotional proximity, personal identity, and communication strategy.

Terms for "Wife" in Korean

In the Korean language, the word "아내" (ane) is used to denote a wife or spouse, meaning "a woman who lives with a man after marriage." *Examples:*

1. 그는 아내와 사이 좋게 지낸다. (He gets along well with his wife.)
2. 명랑한 아내는 생애를 즐겁게 한다. (A cheerful wife makes life joyful.)

Korean men address their wives using terms such as "여보" (yeobo), "부인" (buin), "자기야" (jagiya), "마누라" (manura), "집사람" (jipsaram), or "애기 엄마" (aegi eomma – baby's mom).

Additionally, there is the word "계집" (kyejib), which is more common in the speech of older generations to refer to a woman. While "계집" is a pure Korean word, it carries a derogatory or belittling connotation in modern usage. There is even a specific proverb associated with this word: "계집 입 싼 것" (A woman's mouth is a cheap thing). This ironic expression alludes to a stereotypical habit of women talking nonsense or speaking excessively without due thought.

Terminology for Middle-Aged Women and Formal Addresses

The terms "아줌마" (ajumma) or "아주머니" (ajumoni) are used to address middle-aged women, historically carrying the meaning of "aunt" (maternal or paternal). In daily life, these are the most common words used for middle-aged women. In ancient times, because women married early, the term "아줌마" was applied to women as young as twenty. Today, it is generally used for those aged thirty and older. However, some women perceive the use of this word as having a belittling or derogatory connotation.

Consequently, it is often more appropriate to use the term "이모" (imo – maternal aunt). It should be noted that "이모" is considered a much softer and friendlier form of address compared to "아줌마," which has recently taken on a more negative social image. For this reason, many older female listeners prefer being addressed with this term. In speech, adding the suffix "-님" (-nim) to create "이모님" (imonim) imbues the address with even greater respect and politeness.

Other variations used in place of "아줌마" include "아주머니," "여사님," and "사모님". Notably, "여사님" (yeosanim) is a term of high respect (높이는 말) in Korean. Usually, it refers to an older, married woman and is also used to address women who hold a certain social status or reputation.

The term "사모님" (samonim) is semantically close to "부인" (buin); it is used as a respectful way to refer to another man's wife in the third person. Although its literal meaning is "teacher's mother", it was originally used to address the wife of one's teacher or mentor with respect. Today, it is widely used for the wives of older acquaintances or friends.

Given the high status of teachers in Korean society, "사모님" generally carries a more polite nuance than "부인". Since the traditional image of a teacher is that of an older person, using this term for the wife of an older friend is appropriate; however, using it for the wife of a much younger acquaintance may feel awkward.

Literally translated, "부인" (buin) signifies "a person belonging to a husband or man" and serves as a polite reference to someone else's wife. An even more refined version of this is "영부인" (yeongbuin), meaning "First Lady" or "Beautiful Lady." This term is used as a high compliment for another person's wife, particularly those of high-ranking officials. In daily life, many recognize this form specifically as the title for the "President's wife."

Interestingly, standard Korean dictionaries do not strictly limit the definition of "영부인" to the President's spouse. Its widespread use in that context is likely due to the extreme level of praise and courtesy inherent in the word. Similarly, in the Uzbek language, rather than saying "the President's wife," the phrase "First Lady" (First lady) is preferred. This serves as an informal title, and its use reflects a culture of linguistic respect and euphemism.

Historically, kinship-based address terms in the Korean language constituted an exceptionally complex and detailed system. Within this structure, every relative's biological lineage (paternal or maternal side), age, gender, and familial role were expressed through precise lexical units. Specifically, distinguishing terms such as "할머니" (paternal grandmother) vs. "외할머니" (maternal grandmother) and "할아버지" (paternal grandfather) vs. "외할아버지" (maternal grandfather) played a vital pragmatic role.

However, in modern Korean society, the use of address terms with the 외- (oe-) prefix is steadily declining, being replaced by more neutral and generalized forms – 할머니 and 할아버지. This shift is attributed to several linguo-cultural, social, and communicative factors:

1. Nuclear Families and the Weakening of Intergenerational Ties

In recent decades, the process of "**nuclearization**" (핵가족화) in Korean society has reduced the need to strictly differentiate between paternal and maternal relatives. Children now primarily live with their parents, and instances of living with or maintaining regular contact with grandparents have decreased. Consequently, the linguistic units that distinguish biological kinship networks are undergoing simplification.

2. Linguistic Economy and Lexical Simplification

In modern Korean, especially among the younger generation, there is a strong trend toward abbreviation and phonetic/syntactic simplification. Instead of complex terms with a two-syllable prefix like 외할머니, the term 할머니 is being utilized as a universal tool of address. From the perspective of **linguistic economy** theory, this is a natural process: the user seeks maximum communicative effect with minimum effort.

3. Cultural Neutralization and Values of Equality

Kinship terms in Korean often reflect a patriarchal structure (where the paternal side is dominant). There were eras when maternal relatives, denoted by the 외- prefix, were considered secondary in a socio-legal sense. As gender equality and horizontal approaches to family structure strengthen in modern society, such distinctions are viewed by many as discriminatory or redundant. As a result, the language is adapting toward equa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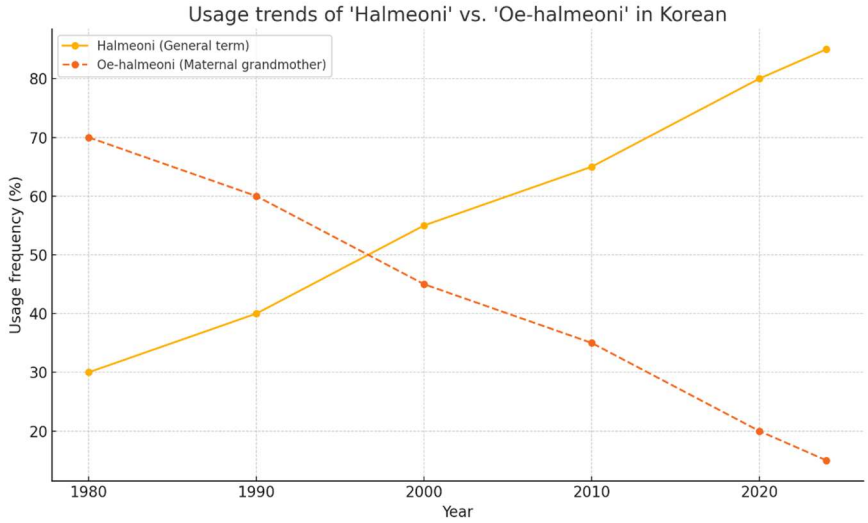
4. Echoes in Popular Culture and Literature

A preference for the address 할머니 over 외할머니 is increasingly observed in modern children's literature, drama, and film. For instance, in a recent young adult novel, the editor recommended that the author replace the word "외할머니" with "할머니". Such editorial shifts demonstrate that linguistic norms are being reshaped based on public sentiment.

5. Connotational Shift: Abandoning the Emotional Weight of the "외" Prefix

The prefix 외- (oe-) in Korean signifies "outer" or "from another side." This semantic weight is often loaded with emotional connotations of "strangerhood," distance, or secondary status. The younger generation, no longer feeling this distinction, prefers to call everyone simply "할머니". This illustrates the direct link between social emotions and language.

Figure 1. *Trends in the usage frequency of the terms "할머니" (Grandmother) and "외할머니" (Maternal Grandmother) from 1980 to 2024.*



The graph mentioned above illustrates the usage frequency trends of the terms "할머니" (Grandmother) and "외할머니" (Maternal Grandmother) in the Korean language from 1980 to 2024. As seen in the graph, the general term "할머니" has become increasingly popular year by year, gaining dominance in modern society. Conversely, the traditional distinguishing term "외할머니" is significantly declining. This phenomenon is explained by linguistic simplification, values of social equality, and a preference for phonetic convenience.

The contraction of distinctive kinship address terms like 외할머니 (maternal grandmother) and 외할아버지 (maternal grandfather) is closely linked to social dynamics in Korean society, linguistic economy, gender equality ideology, and cultural neutralization. The traditional hierarchical linguistic system is being replaced by context-adaptive, simplified, and emotionally neutral forms. This situation can be evaluated as a vivid example of semantic simplification and connotational lightening in linguistics.

According to the article, the use of distinguishing address terms such as "친할머니" (Paternal Grandmother) and "외할머니" (Maternal Grandmother) is increasingly viewed as an unfavorable custom originating from patriarchal society. In particular, the semantic

discrepancy between the *Hanja* character 친- (chin—close, blood relation) used in "친할머니" and the character 외- (oe—outside, external) used in "외할머니" is seen as a linguistic unit that undermines the equal family structure in modern society.

In contemporary society, especially with the rise of dual-income families, maternal grandmothers (외할머니) have begun to play a more active role in childcare. Consequently, the term "외할머니", which denotes maternal lineage, is increasingly perceived as a form that expresses "alienation" or "distance," leading to its decreased frequency of use.

Currently, instead of distinctions like 친할머니/외할머니, neutral addresses linked to the grandparent's place of residence are becoming more common among the youth. For example: "울산 할머니" (Grandmother in Ulsan) or "제주 할아버지" (Grandfather in Jeju). This trend signifies the erosion of traditional hierarchies within the family structure at a linguistic level.

Another related shift in modern society involves the emergence of expressions like "아빠 할미" (Daddy-Grandma) and "엄마 할미" (Mommy-Grandma). In modern Korean, these are intimate, child-centered forms that are replacing the formal "친할머니" and "외할머니", moving away from officiality toward warmth and sincerity.

1. Semantic Simplification and Functional Ease

The forms "아빠 할미" (Daddy-Grandma) and "엄마 할미" (Mommy-Grandma) are much more understandable, phonetically convenient, and quickly perceived in communication by language users, particularly children and the younger generation. While maintaining the function of biological differentiation (paternal vs. maternal), they simplify complex, written, and formal linguistic elements like "외할머니" or "친할머니".

2. Contextual and Emotional Neutrality

The traditional "외-" (outer) prefix can evoke feelings of alienation or secondary status. In contrast, the phrase "엄마 할미" strengthens the sense of intimacy associated with the mother. This leads to the language possessing a positive connotation at a psycholinguistic level.

3. Adaptation to Cultural Changes

Trends favoring gender equality, horizontal family models, and casual communication are increasing in Korean society. The phrases "아빠 할미" and "엄마 할미" are viewed as linguistic reflections of these

socio-cultural shifts. They are widely used, especially among preschool-aged children, in cartoons, and in parental communication with children.

"아빠 할미" and "엄마 할미" are intuitive, pragmatic, and simplified forms of address that respond to the cultural and emotional needs of modern language users. They clearly demonstrate the semantic lightening and emotional democratization of the traditional kinship system in the Korean language.

For me personally, this new linguistic phenomenon has become a scientifically significant conclusion that encourages a re-evaluation of relationship titles and provides a fresh perspective. This proves once again that language is a social phenomenon that evolves over time.

The Traditional Paradigm: Complexity as Order

The classical Korean kinship system was characterized by its extreme specificity. Every relative was categorized based on:

Lineage: Whether they belonged to the paternal (inner) or maternal (outer) side.

Seniority: Precise distinctions between elder and younger siblings or uncles.

Gender: Different terms used by male vs. female speakers (e.g., Oppa for a girl's elder brother vs. Hyung for a boy's).

For example, a man would distinguish between his eldest paternal uncle, younger paternal uncles, and maternal uncles. This precision ensured that every interaction reinforced a person's duty and level of respect toward others. This was not just "language"; it was a mechanism of social discipline.

The modern era has acted as a catalyst for the simplification of these terms. Several sociological factors are responsible:

The Rise of the Nuclear Family

The shift from the extended family to the nuclear family has made many distal kinship terms obsolete. When families lived in large clusters, terms for "second cousins twice removed" were necessary. Today, with most Koreans living in small city apartments, the functional need for such specific vocabulary has vanished. Distant relatives are often grouped under general terms or forgotten entirely.

Linguistic Economy and Efficiency

In a fast-paced society, the principle of Linguistic Economy – the desire to achieve maximum communication with minimum effort – dominates. Younger generations find the traditional honorifics cumbersome. We see a shift from formal titles like Abeoji (Father) to the

softer, two-syllable Appa (Dad). This phonetic simplification is a natural evolution as the language moves from a written, formal tradition to a spoken, casual one.

The Digital Influence (SNS and Chat)

Communication on platforms like KakaoTalk and Instagram prioritizes speed and emotional expression over formal etiquette. In digital spaces, long kinship titles are often replaced by nicknames, emojis, or shortened suffixes. The use of "half-honorifics" is becoming common, where speakers use polite endings but informal address terms, blending respect with intimacy.

Connotational Shifts: The Displacement of Semantic Weight

As the structure of terms contracts, their "meaning" or "feeling" (connotation) changes. We are witnessing a shift from Status-Oriented language to Person-Oriented language.

The "Imo" (Maternal Aunt) Phenomenon

One of the most fascinating shifts is the use of Imo in the public sphere. Traditionally meaning "maternal aunt," it has become the standard address for waitresses in restaurants or middle-aged women in service.

The term Ajumma (auntie/middle-aged woman) has developed negative stereotypes of being aggressive or unfashionable.

The Shift: Imo carries a connotation of "mother-like warmth" and "closeness." By using a kinship term for a stranger, Koreans use "pseudo-kinship" to create a friendly atmosphere, but they specifically choose the maternal side because it feels less "strict" than the paternal side.

Gender Equality and the "Outer" Prefix

Historically, Korean kinship was patriarchal. Relatives on the mother's side were prefixed with "외-" (外), meaning "outside" or "external."

Deconstructing the "외-" Prefix

In modern society, the distinction of maternal relatives as "external" is increasingly viewed as discriminatory. As gender equality becomes a core social value, younger parents are intentionally dropping the 외- prefix. To a modern child, a grandmother is simply 할머니, regardless of whether she is the father's or mother's mother. This represents a "Cultural Neutralization" of the language.

The "Grandmother Economy"

Due to the rise of dual-income households, maternal grandmothers are now the primary caregivers for many Korean children. This has led to the emergence of terms like "Oma-halmi" (Mommy-Grandma) and "아빠 할미" (Daddy-Grandma). These terms bypass the formal 친/외- distinction and focus on the child's direct emotional connection. This is a vivid example of "semantic lightning," where the heavy baggage of patriarchal history is removed in favor of functional warmth.

Globalization and Media Impact

Korean media (K-Dramas) and global Western influences have popularized horizontal communication styles. In modern dramas, spouses are rarely seen using traditional, duty-bound terms. Instead, they use 자기야 (honey) or 오빠야 (a flirty variation of elder brother), focusing on romantic proximity. Furthermore, the English-influenced practice of using names followed by -님 (Mr./Ms.) is replacing kinship hierarchies in the workplace, fostering a more egalitarian environment.

The contraction of Korean kinship terms is not a sign of linguistic decay, but rather an indicator of a healthy, evolving society. The transition from Formality to Intimacy, Hierarchy to Equality, and Lineage to Identity reflects the changing soul of the Korean people. While the traditional system was a masterpiece of social architecture, the modern system is a masterpiece of emotional pragmatism. As the language continues to adapt, it proves that while blood relations remain important, the way we speak about them will always be shaped by the values of the era in which we live.

References:

1. Ashirbayeva D. R. *Koreys va o‘zbek diskursida murojaat birliklarining qiyosiy tadqiqi*: филол. фан. бўйича PhD диссертация автореферати. Тошкент, 2023. 14 б.
2. Chul Woo Son. *The Motives of Self-Sacrifice in Korean American Culture, Family and Marriage*. 27 p.
3. Deuchler M. *The Confucian Transformation of Korea: A Study of Society and Ideolog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92. pp. 337–340.
4. Yo‘lchiyeva Z. Koreys va o‘zbek lingvomadaniyatida ayolga bo‘lган munosabatning lingvomadaniy xususiyatlari // *Journal of New Century Innovations*. 2023. С. 161–162.

5. Yoon K.-J. Confucianism and Family Ethics in Korea //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 9. No. 1.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04. pp. 45–67.
6. 김혜숙. 가족 호칭어 변화 양상에 대한 고찰 // *현대언어학*. 2007. T. 31. № 1. C. 87–108.
7. 국립국어연구원. *표준 화법 지침안*.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1992.
8. 김광해. *한국어 어휘론*. 서울: 태학사, 2005.
9. 김덕호. *한국어 호칭어의 사회언어학적 연구*. 서울: 박이정출판사, 2006.
10. 강소산, 전은주. 한국어의 호칭어 및 지칭어 체계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학술지*. 2013. T. 59. № 2. C. 365.
11. 울산매일. “두루 높임 호칭어를 두루 써요 <나는 이렇게 불리는 것이 불편합니다 3>”. 2020.
12. [시니어그룹] '아빠 할미'라 부르는 손자. 조부모를 어떻게 부르시나요?
13. Korean Language Notes. https://koreanlanguagenotes.blogspot.com
14. Wipf and Stock Publishers. https://www.wipfandstock.com

МЯГКАЯ СИЛА КАК ИНСТРУМЕНТ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ОЙ СТРАТЕГИИ ЮЖНОЙ КОРЕИ: КОНЦЕПЦИИ, МЕХАНИЗМЫ И РЕГИОНАЛЬНЫЕ ПРАКТИКИ

Сакенова А.М.
PhD докторант КазУМОиМЯ
им. Абылай хана, Алматы, Казахстан

Аннтотация. В статье рассматривается мягкая сила как один из ключевых инструментов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ой стратеги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условиях растущей конкуренции великих держав в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Актуальность исследования* обусловлена тем, что Южная Корея, обладая статусом средней державы, вынуждена сочетать традиционные инструменты безопасности с гибкими механизмами дипломатическ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и институционального влияния. *Цель статьи* заключается в выявлении роли мягкой силы во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ом позиционировани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определении ее основных механизмов и оценке практической эффективности в региональной политике. В работе использованы сравнительный, системный, институциональный и дискурс-анализ, а также элементы кейс-стади применительно к межкорейскому диалогу, политике посредничества и продвижению многосторонне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Научная значимость исследования* состоит в уточнении взаимосвязи между концепцией средней державы, стратегией хеджирования и ресурсами мягкой силы. *Практическая значимость связана* с возможностью использования выводов при анализе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средних держав в условиях геополитической турбулентности. В результате установлено, что мягкая сил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роявляется через посредничество, продвижение норм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культурную дипломатию, развитие международных сетей и формирование привлекательного образа государства. Сделан вывод, что эффективность мягкой силы Южной Кореи наиболее высока в сочетании с институциональной дипломатией и стратегией регионального балансирования.

Ключевые слова: мягкая сила,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внешняя политика, средняя держава, хеджирование, региональная безопасность, культурная дипломатия

Title: Soft Power as an Instrument of South Korea’s Foreign Policy Strategy: Concepts, Mechanisms, and Regional Practices

Author: Sakenova A.M., Kazakh Ablai Khan University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World Languages, Almaty, Kazakhstan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soft power as a key instrument of South Korea's foreign policy strategy in the context of growing great power competition in Northeast Asia. The relevance of this study lies in the fact that South Korea, as a middle power, is forced to combine traditional security instruments with flexible mechanisms of diplomatic, cultural, and institutional influenc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identify the role of soft power in South Korea's foreign policy positioning, define its main mechanisms, and assess its practical effectiveness in regional policy. This paper utilizes comparative, systemic, institutional, and discourse analysis, as well as case studies, applied to inter-Korean dialogue, mediation, and the promotion of multilateral cooperation. The research's scientific significance lies in clarif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cept of a middle power, hedging strategy, and soft power resources. The practical significance of the study lies in the potential application of these findings to the analysis of middle powers' foreign policy in the face of geopolitical turbulence. It was found that the Republic of Korea's soft power manifests itself through mediation, the promotion of norms of cooperation, cultural diplomacy,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networks, and the formation of an attractive national image. It is concluded that the effectiveness of South Korea's soft power is highest when combined with institutional diplomacy and a regional balancing strategy.
Keywords*:* soft power, Republic of Korea, foreign policy, middle power, hedging, regional security, cultural diplomacy

Введение

В современных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ях мягкая сила становится одним из наиболее значимых инструментов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ого влияния, особенно для государств, не обладающих доминирующим военно-политическим потенциалом, но стремящихся укрепить собственный международный статус и воздействовать на формирование региональной повестки. В этом контексте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представляет особый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й интерес как государство, сочетающее признаки средней державы, высокую степень экономической развитости, активную дипломатическую практику и выраженное стремление к расширению своего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присутствия.

Актуальность темы обусловлена тем, что внешняя политика Южной Кореи развивается в условиях сложной региональной среды, характеризующейся соперничеством США и Китая, сохраняющейся ядерной проблемой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дефицитом устойчивых многосторонних механизмов безопасности и необходимостью постоянного поиска баланса между союзническими обязательствами и национальными интересами. В этой ситуации мягкая сила становится для Сеула не дополнительным, а системообразующим ресурсом, позволяющим выстраивать образ надежного партнера, посредника, инициатора диалога и носителя привлекательной модели развития. Такая логика прямо прослеживается в загруженном тексте, где Южная Корея рассматривается как средняя держава, стремящаяся влиять на региональный порядок не только за счет жестких, но и за счет мягких инструментов — дипломатии, знаний, культурного влияния, посредничества и создания международных сетей.

Объектом исследования выступает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ая стратег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современных международных условиях. Предметом исследования является мягкая сила как механизм реализации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их целей Южной Кореи в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и за ее пределами.

Цель статьи состоит в том, чтобы определить место мягкой силы во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ой стратеги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раскрыть ее основные формы и инструменты, а также оценить ее роль в обеспечени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влияния, посреднических функций и институционального присутствия государства.

Для достижения указанной цели поставлены следующие задачи:

1. Раскрыть теоретические основы анализа Южной Кореи как средней державы;
2. Определить содержание понятия мягкой силы в контексте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и безопасности;
3. Выявить ключевые инструменты мягкой силы Южной Кореи;
4. Оценить возможности и ограничения мягкой силы Южной Кореи в условиях геополитической конкуренции.

Гипотеза исследования заключается в том, что мягкая сил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является важнейшим компенсаторным ресурсом средней державы, который позволяет ей расширять международное влияние, снижать издержки прямого силового давления и усиливать свою роль в трансформаци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орядка. При этом эффективность мягкой силы оказывается наиболее высокой тогда, когда она сочетается с институциональной дипломатией, многосторонним взаимодействием и стратегией хеджирования.

Теоретическая и практическая значимость исследования заключается в возможности более глубоко понять механизмы поведения средних держав в международной системе, а также использовать полученные выводы при дальнейшем анализе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государств Индо-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региона и стран, стремящихся сочетать ограниченные ресурсы жесткой силы с расширением инструментов символическ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и дипломатического влияния.

Методология исследования

Методология исследования построена на междисциплинарном подходе, сочетающем инструменты теори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й, политического анализа и сравнительной регионалистики. В качестве исходной теоретической рамки использованы концепция средней державы, теория мягкой силы, а также подходы к анализу хеджирования 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балансирования.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й вопрос формулируется следующим образом, каким образом мягкая сила используется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для достижения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их целей в условиях трансформаци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орядка в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Материалом исследования выступают научные труды по теории средних держав и мягкой силы, аналитические публикации по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е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а также текстовые фрагменты, посвященные южнокорейской дипломатии, межкорейским отношениям, безопасности в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и механизмам регионально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уделяется кейсам, связанным с посреднической ролью Южной Кореи, политикой в отношении КНДР, продвижением многосторонне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и формированием привлекательного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образа государства. Исследование включает несколько этапов. На первом этапе проводится концептуализация понятий «средняя держава», «мягкая сила», «хеджирование», «региональная безопасность» и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ая стратегия». На втором этапе анализируются основные направлени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которых проявляется мягкая сила: публичная дипломатия, посредничество, гуманитарные и институциональные инициативы, культурное влияние, участие в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рганизациях и формирование региональных сетей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На третьем

этапе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интерпретация полученных данных с точки зрения эффективности мягкой силы в условиях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проблемы, китайско-американского соперничества и трансформации архитектуры безопасности в регионе.

Литературный обзор

Для объяснения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их целей Южной Кореи, роли её мягкой силы и положения страны в международной системе полезным инструментом является теория средних держав.

Одно из наиболее известных определений «средней державы» было предложено канадским дипломатом Робертом Джеральдом «Джерри» Ридделлом в 1948 году. Он описал средние державы как «те, которые в силу своего размера, материальных ресурсов, готовности брать на себя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влияния и стабильности близки к великим державам» [1].

Ридделл считал, что благодаря своим ценным ресурсам и стратегическому положению средние державы в большей степени подвержены внешним угрозам, чем малые государства, и в меньшей степени способны защитить себя, чем великие державы [1, с. 132].

Однако Мартин Уайт утверждал обратное опасениям Ридделла. Он доказывал, что, поскольку державы среднего размера не проявляют агрессивности по отношению к другим и обладают достаточной мощью для собственного выживания, они с меньшей вероятностью столкнутся с внешней опасностью. Следовательно, шансы на их сохранение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й арене выше [2].

Кеннет Уолц,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придерживался равнодушного подхода к вопросу о средних державах. Поскольку он определяет власть как сочетание шести ресурсов: военной мощи, численности населения и территории, политической стабильности, компетентности, экономических возможностей и ресурсной обеспеченности, между ними нет существенных различий [3].

Как уже упоминалось в разделе об иерархическом подходе, Южная Корея не обладает ни экономическим, ни военным потенциалом, как США, но и не уступает по этому показателю таким слаборазвитым странам, как Руанда или Камерун. В целом, её потенциал находится где-то посередине между потенциалом великих и малых держав. Поэтому, учитывая тот факт, что экономика Южной Кореи обычно занимает 12-е место в мировом рейтинге ВВП, Южная Корея, входящая в пятерку сильнейших в военном отношении стран Индо-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региона, может

быть отнесена к числу средних держав на основе иерархического подхода.

1. Южная Корея как строитель мостов

Как и многие страны Восточной и Юг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Южная Корея также страдает от соперничества между США (исторически главным союзником Южной Кореи) и Китаем (крупнейшим торговым партнером Южной Кореи). Поскольку обе страны являются крупными игроками на азиатском континенте, и конкуренция за региональное господство между ними растет, напряженность между ними негативно сказывается на стабильности региона. Поэтому правительства Южной Кореи неоднократно прилагают усилия для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США и Китаем [4].

Например, 6 мая 2009 года Китай направил бывшему Генеральному секретарю ООН Пан Ги Муну вербальную ноту, в которой утверждал, что Китай обладает суверенитетом над островами в этом регионе.

2. Международная сеть Южной Кореи

Международные связи формируются политическими решениями правительств, такими как участие в международных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ях (МПО) или создание преференциальных торговых соглашений (ПТС) для усиления влияния государства или ослабления влияния других. Например, в 2021 году Южная Корея подписала 4 торговых соглашения, 10 соглашений находились на стадии переговоров, а 20 соглашений уже вступили в силу [5].

Кроме того, в 2018 году число меж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в которых участвует Южная Корея, достигло 91. Южная Корея на многосторонней основе сотрудничает с другими государствами, внося свой вклад в международную повестку дня в области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и развития, охраны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освоения ресурсов и борьбы с болезнями. В 2010 году правительство Южной Кореи инициировало создание меж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под названием «Глобальный институт зеленого роста» (GGGI) для поддержки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и экологической устойчивости менее развитых стран.

После шокирующего импичмента Пак Кын Хе, Мун Чжэ Ин вступил в должность 10 мая 2017 года. Большинство источников утверждают, что он запомнится успешным урегулированием конфликтов в период пика китайско-американского соперничества.

Несмотря на критику со стороны общественности в связи с его политикой в отношении пандемии COVID-19 из-за быстрого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вируса. Его внешняя политика в условиях пандемии была примечательна тем, что ему удалось сделать Южную Корею все более значимым международным игроком благодаря наращиванию военной мощи Южной Кореи, ее приверженности демократическим ценностям и экономическому развитию [6].

Гранд-стратегия во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е включает в себя следующие аспекты: долгосрочные цели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определение друзей и врагов; характер внешних угроз; наличие широкого спектра политических средств; масштабы деятельности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субъектов и регионов; будущий статус страны в системе. В отличие от великих держав, которые разрабатывали сложные глобальные стратегии и подкрепляли их конкретными политическими средствами, малым державам было трудно разработать глобальную стратегию, а еще больше трудностей в ее реализации возникало из-за системных ограничений. Южная Корея, как относительно слабая страна, не смогла разработать последовательную и долгосрочную глобальную стратегию во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е. После вступления в систему современных государств Южная Корея страдала от конкурентного характера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й с окружающими великими державами [7].

С исчезновением серьезных системных ограничений, оставшихся со времен холодной войны, Южная Корея осознала необходимость разработки масштабной стратегии во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е. Быстрое эконом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и политическая демократизация, наряду с определенным уровнем социально-культурных достижений, стимулировали потребность в долгосрочной перспективе.

Возможность Южной Кореи приблизиться к этим целям зависит от характера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й, особенно отношений в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Этот регион характеризуется особыми особенностями, отличающимися от других регионов, что требует специфического подхода к региональному порядку и международным отношениям. Теоретически этот регион имеет следующие особенности: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механизмов баланса сил и перехода власти; неполное формирование современных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структур; сохранение традиционных и

современных переходных черт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й во многих вопросах, таких как национализм, территориальные споры; отсутствие региональных многосторонних механизмов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и, наконец, сочетание различных организационных принципов и конституционных структур.

В условиях отсутствия механизмов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страны этого региона по-прежнему полагаются на самопомощь, двусторонние альянсы, роль внерегиональных глобальных держав, таких как США, и слабые многосторонние диалоги, например, Шестисторонние переговоры. Быстрая смена власти, вызванная подъемом Китая и развитием России, например, осложняет ситуацию с балансом сил. Еще сложнее то, что этот переход происходит не в типичных современных условиях. Два Китая, две Кореи, и все еще не «нормальная» Япония пытаются достичь единого или современного статуса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единиц, истоки которого лежат в первой половине XX века. Системное наследие уходит корнями еще дальше, в XIX век, когда идеология национализма и новая политика территориальной конкуренции зародились в современной логике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й. Политика памяти или политика идентичности в условиях современного перехода и незавершенная полемика о территориальном разграничении смешиваются с современной логикой баланса сил. Развитие гражданского общества и нового движения за эффективный многосторонний диалог могут помочь решить эти проблемы. Государственно-центричные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тношения могут быть преодолены с появлением более ориентированных н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управление конституционных структур, хотя демократизация Китая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еще не завершена.

Обсуждения

«Мягкая сила» и политика безопасности Южной Кореи

Очевидно, что безопасность может быть гарантирована жесткой силой, такой как военная и экономическая мощь, поддерживаемой надлежащими институтами, такими как альянсы и коллективная безопасность. Однако проблема заключается в том, что в условиях меняющейся обстановки в сфере безопасности, особенно в рамках логики баланса сил или перехода власти, безопасность, обеспечиваемая жесткой силой, подвержена бесчисленным факторам неопределенности. «Мягкие» аспекты

политики безопасности, такие как стратегические знания и видение, восприятие роли, а также дипломатическая и стратегическая культура, будут противопоставляться «жестким» аспектам политики безопасности. Мягкие аспекты политики безопасности различаются не только природой этих сил, но и характеристиками поля власти. Мягкая сила применяется во взаимодействующем поле власти, в котором объекты власти привлекаются или убеждаются, а не принуждаются или угнетаются. Следовательно, субъекты, использующие мягкую силу, должны подчеркивать общие интересы вовлеченных сторон, а не преследовать собственные интересы.

Кроме того, желательно, чтобы Южная Корея преуспела в поиске новых политических вопросов, которые будут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проекту «нормализации отношений с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Это следует отличать от простого поощрения Севера за его поведение в процессе ядерных переговоров. Проект «нормализации отношений с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будет включать в себя политический,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й, военный, экономический и социально-культурный аспекты, что практически равнозначно проекту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Южной Корее необходимо убедить Север в том, что совместные проекты Южной Кореи и США носят долгосрочный характер.

Будущее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Эти проекты могут касаться долгосрочных политических областей, таких как образование,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финансы. Поэтому Южной Корее и США необходимо определить новые политические вопросы, которые будут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достижению самых фундаментальных целей [8].

В-третьих, Южной Корее необходимо расширить перспективу рассматриваемого вопроса, выработав новый дискурс и видение «будущего управления» на полуострове, выходящие за рамки ограниченного представления о создании единого «современного» национальн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Если Южная Корея уделит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процессу формирования различных региональных сетей, могут появиться новые представления о том, как две Кореи будут мирно сосуществовать в меняющихся условиях. Существует вероятность того, что концепция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уверенитета» будет меняться медленно, но коренным образом, определяя будущий курс нового управления полуостровом [9].

В-четвертых, Южная Корея могла бы разработать новую систему безопасности, в которой проблемы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решались бы с помощью многоуровневых сетей. Южная Корея могла бы создать новую многостороннюю структуру для решения ядерной проблемы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и проблемы самой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Нынешние шестисторонние переговоры потеряли темп не только из-за провокаций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но и из-за растущего скептицизма в других странах. Для решения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проблемы шестисторонние переговоры необходимо реструктурировать в сложную сеть многосторонних, минилатеральных и двусторонних переговоров для решения различных вопросов, от ядерных до вопросов нормализации отношений с Севером. Для этого Южной Корее необходимо проконсультироваться с другими странами региона, особенно с Китаем и Россией, относительно желаемого будущего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Южная Корея должна прийти к общему пониманию того, что преобразованная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и новые межкорейские отношения не нанесут ущерба национальным интересам Китая или России, и что соответствие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международным нормам принесет им пользу.

В-пятых, Южная Корея может развить чувство политической осмотрительности в решени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проблемы, а возможно, и других региональных проблем. Затем Южной Корее необходимо укрепить реалистичное понимание осмотрительности, избегая моральной оценк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и сосредотачиваясь на конкретных вопросах, руководствуясь стратегическими принципами. Необходимо разработать новые системы дискурса и речевых актов для иного представления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в общественном дискурсе. Новые концепции и новые наборы гипотез убедят не только общественность в странах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но 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е руководство. «Умное»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должно включать как «жесткие», так и «мягкие» средства [10].

Решение серьезных проблем безопасности, таких как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ядерный кризис, с помощью разумного уровня «мягкой силы» будет иметь важное значение, особенно с учетом возможности трансформации нынешней логики баланса сил в региональную многостороннюю. Как обсуждалось выше, Северо-Восточная Азия движется по логике баланса сил. Все великие державы были бывшими империалистическими державами, стремящимися к региональному или глобальному лидерству или

гегемонии в XXI веке. На фоне усилий по региональному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и интеграции ситуация в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плачевна. Поэтому важнейшая роль Южной Кореи должна заключаться в содействии региональному урегулированию конфликтов и, следовательно, в преобразовании логики баланса сил.

Стратегии мягкой силы

Стратегия мягкой силы как важное направление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ачала активно формироваться в конце XX — начале XXI века, особенно в условиях усиления глобализации, демократизации страны и стремления Сеула укрепить свои международные позиции ненасильственными средствами. Ее развитие было обусловлено необходимостью расширения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ого влиян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формирования позитивного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имиджа, продвижения национальной культуры, образования и технологий, а также укрепления статуса страны как средней державы. Существенную роль в институционализации данной стратегии сыграл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структуры, ответственные за публичную дипломатию, международное развитие, культурное и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На рисунке 1 показана стратегические пути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ой стратегии мягкой сил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Рисунок 1 – Стратегические пути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ой стратегии «Мягкой сил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римечание[1]

Как показано на рисунке 1, данная стратегия включает пять взаимосвязанных элементов: основу, ресурсы, инструменты, механизм реализации и результат. Концептуальные основы стратегии мягкой силы восходят к идеям Дж. Ная, который обосновал возможность достижения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их целей не только посредством принуждения или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давления, но и через привлекательность культуры, ценностей и институтов.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данная стратегия получила активное развитие в конце XX — начале XXI века, когда Сеул начал последовательно использовать культурные,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гуманитарные и технологические ресурсы для укрепления своих международных позиций.

Эволюция южнокорейской стратегии мягкой силы свидетельствует о ее постепенном переходе от фрагментарного

[1] Сделано автором на основе источника [8]

использования отдельных инструментов к формированию целостной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ой модели. Если на раннем этапе доминировали культурные и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формы влияния, то в последующем к ним были добавлены программы официальной помощи развитию, публичная дипломатия, диаспоральная политика, а также технологическая и цифровая дипломатия. Тем самым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сформировала многоуровневую систему ненасильственного внешнего воздействия, ориентированную не только на создание привлекательного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имиджа, но и на формирование устойчивых политических, экономических и общественных связей с зарубежными государствами. На рисунке 1 показана модель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ой стратегии мягкой сил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отражающая ее целевую направленность, ресурсную базу, инструменты реализации и каналы воздействия.



Рисунок 1 – Модель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ой стратегии мягкой сил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римечание[2]

Как показано на рисунке 1, центральным элементом модели выступает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ая цель, которая заключается в укреплени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позиций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расширении ее влияния ненасильственными средствами и формировании устойчивого позитивного образа государства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й арене. В отличие от традиционных подходов, основанных на военной мощи или политическом принуждении, стратегия мягкой силы ориентирована на формирование доверия, привлекательности и долгосрочной лояльности со стороны зарубежных обществ, элит и институтов.

Мягкая сила и глобальное управление

Как показано выше, глобальное управление построением определенной структуры или модели процессов распределения ценностей относится к области мягкой силы, поскольку дискурсы глобаль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как правило, делают акцент на ненасильственных способах управления глобальными делами. Например, глобальное управление, которое делает акцент на теориях и дискурсах об изменении климата, как правило, меняет идеи и предпочтения как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так и не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субъектов, таких как гражданские группы, компании и потребители в целом. Это изменение повлияет как на глобальные, так и на внутренние процессы распределения ценностей, поскольку люди постепенно начинают неохотно потреблять ископаемое топливо, производители энергии начинают беспокоиться о реструктуризации рынка, а внутренние и глобальные правила, нормы и принципы начинают меняться. Выгоду от этого изменения процесса распределения ценностей могут получить экологические группы, компании с сильным конкурентным преимуществом в области альтернативных энергетических технологий и страны, которые уже провели реформы в энергетическом секторе, и это лишь некоторые примеры.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компании, потребители и страны, зависящие от ископаемого топлива, сильно пострадают, если будет введено жесткое регулирование прежней модели потребления энергии. Это типичная модель глобаль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2] Сделано автором

опирающаяся на новые идеи, теории или дискурсы, что в конечном итоге приводит к введению новых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нормативных актов.

По оценкам, Ли Чжэ Ёна,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Евразией рассматривалось Сеулом как поиск «новых двигателей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оста» на будущее [11]. Действительно, Центральная Азия, обладающая значительными ресурсами и логистическим потенциалом, виделась РК новым рынком и звеном в трансконтинентальных проектах (железнодорожных коридорах, трубопроводах), которые могли бы связать Корейский полуостров с Европой через Северную Евразию.

Более того, в экспертном сообществе продвигалась идея, что вовлечение КНДР в такие евразийские проекты через многосторонне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Россия–РК–КНДР (например, соединение Транссиба с корейскими железными дорогами) могло бы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мирному урегулированию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12].

Третья и четвертая категории мягкой силы, описанные выше, особенно актуальны для обсуждения глобаль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в данной работе. Кроме того, третья стратегия, а именно стратегия сетевого эффекта, является основным инструментом глобаль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поскольку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ненасильственный и косвенный способ установления определенной структуры или модели глобальных процессов распределения ценностей. В частности, такие инструменты глобаль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как «глобальный стандарт» и «Вашингтонский консенсус», или теория «неолиберализма», являются типичными примерами проекции мягкой силы группой людей, которые в основном извлекают выгоду из глобального стандарта, а именно Вашингтонского консенсуса или неолиберализма, когда эти инструменты становятся основными элементами глобаль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Результаты

Важнейшей составляющей мягкой силы РК является официальная помощь развитию и гуманитарные инициативы. Южная Корея – уникальный пример государства, прошедшего путь от получателя иностранной помощи до донора: в 2009 году она присоединилась к Комитету по развитию ОЭСР, став первой страной с таким обращенным статусом. Увеличение объёмов внешней помощи было заложено ещё в доктрине «Глобальная

Корея» Ли Мён Бака, где подчёркивалось, что активная донорская политика служит одновременно моральному долгу и национальным интересам РК [12].

По концепции И. Уотсона, Южная Корея, вступая в эпоху глобализации, стремилась посредством программ помощи соединить *«глобальную Корею»* с продвижением своих национальных интересов. Фактически, наращивая помощь, Сеул решал двуединую задачу: повышал свой международный статус, укрепляя образ «ответственного державы среднего уровня», и открывал новые рынки и политические связи благодаря благодарности получателей помощи [13].

Теория *«экономической дипломатии»* Д. Болдуина как раз указывает на использование экономических инструментов – торговых соглашений, инвестиций, кредитов, гуманитарных проектов – для достижения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их целей [14].

Смысл управления, поддержание стабильного процесса распределения ценностей

1) Управление внутри государства - феномен политики в целом относится к процессу распределения ценностей между различными субъектами. Поскольку люди, проживающие в одном национальном государстве, стремятся к различным видам и объемам ограниченных ценностей, всегда возникает проблема распределения ценностей. Проще говоря, внутренняя политика — это «авторитетное распределение ценностей», или вопрос о том, «кто что получает, когда и как».[1] В стабильном национальном обществе процесс распределения должен быть очень авторитарным, и поэтому правительство, которое считается высшим авторитетным органом, в основном и в значительной степени отвечает за распределение ограниченного количества ценностей различным людям и группам людей. Другими словам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должно быть основным инструментом распределения ценностей в стабильном национальном обществе, поскольку оно монополизирует законное применение насилия, законную способность мобилизовать экономические ресурсы и законные права на создание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институтов, включая рынки и другие экономические институты.

Следовательно, политические силы, захватившие власть, будут пытаться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этим и использовать правительство для распределения ценностей в свою пользу, основываясь на своих интересах, идентичности или философии.

Когда будет создана благоприятная структура распределения, политические силы, захватившие власть, снова попытаются институционализировать эту структуру.

Правительство обеспечивает соблюдение правил и законов, поддерживающих структуру, распространяет нормы, идеи и теории, оправдывающие эту структуру, и кооптирует конкурирующие политические силы финансовыми и другими средствами, или принуждает сопротивляющиеся политические силы посредством «легитимного» насилия. Правительство можно рассматривать как важный инструмент правящих политических сил для поддержания и укрепления стабильного и благоприятного процесса распределения внутренних ценностей. Конечно, когда различные политические силы захватывают власть либо посредством легитимных избирательных процессов, либо посредством незаконного захвата,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нова будет использовано новыми политическими силами для изменения существующих процессов распределения, моделей и структуры в свою пользу. Затем последует новый набор институтов, правил, законов, норм, идей, теорий, кооптации и принуждения.

В сложном современном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м обществе вышеупомянутые функции поддержания и укрепления процесса распределения ценностей не могут выполняться исключительно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В то же время, поскольку цена принуждения и потери голосов на выборах слишком высока, согласие народа приобретает все большее значение. Поэтому политические силы, захватывающие власть, будут использовать не только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инструменты, но и группы поддержки в гражданском обществе, а также обширные сети ресурсов, информации, норм и идей для «управления» государством и народом. Совокупность всех этих ресурсов и инструментов нейтрально концептуализируется как «управление». Но, как уже говорилось выше, концепция управления не может быть свободной от ценностей и нейтральной, поскольку она отражает интересы правящей власти. Фактически, «управление» и «правление» могут быть взаимозаменяемыми понятиями, хотя последнее звучит более авторитарно.

В полной мере данная характеристика применима и к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внешняя политика которой приобрела выраженную экономическую направленность. Администрации различных президентов последовательно продвигали масштабные

торгово-инвестиционные инициативы, включая соглашения о свободной торговле, пакеты взаимовыгодных проектов и модел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основанные на обмене экономической помощи на доступ к ресурсам. В этом контексте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действует в логике классической модели «государства-торговца», рассматриваемой в теории взаимозависимости Р. Кеохейна и Дж. Ная, делая ставку на углубление международной взаимозависимости как на фактор обеспечения безопасности и устойчивого развития [15].

Например, 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о чём будет подробно сказано далее, Сеул предложил странам региона значительный пакет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инвестиции в энергетику, инфраструктуру, техническую помощь через Корейское агентство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KOICA). Ориентация на взаимовыгодное развитие соответствует концепции «общей процветающей Азии», которую продвигали южнокорейские лидеры в 2000-е гг.

Так, в период президентства, Но Му Хёна в рамках концепции «мира и процветания в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особое значение придавалось региональному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как условию обеспечения стабильности и общего процветания [16].

Южная Корея, не обладая сырьевыми ресурсами, искала стабильные каналы их поставок и новые рынки для своей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ой продукции. Поэтому энергетическая дипломатия стала ещё одним важным направлением идеологического обосновани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В 2000-е годы Сеул запустил ряд инициатив по обеспечению *«энергетическ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предполагающих диверсификацию источников нефти, газа, урана и др. Поиск ресурсов привёл к активизации связей с Ближним Востоком, Африкой, Латинской Америкой, а также с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ей, богатыми углеводородами и ураном.

Сеть различных субъектов, включая правительство,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между ними, похоже, заменяют и проникают во многие традиционные функции и рол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Это не означает, чт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тало просто одним из равных в сети управления. Скорее, относительная важность других субъектов возросла. На этом фоне концепция управления возникла как новая всеобъемлющая концепция, заменившая концепцию правительства или «правления», которая подразумевает, по сути, однонаправленные процессы. Но опять же, концепцию управления

можно понимать как синоним политики в том смысле, что она включает в себя стабильные способы и модели распределения ценностей внутри общества.

2) Управление на уровне штата - процесс распределения ценностей происходит не только внутри общества, но и между государствами. В рамках этих процессов распределения ценностей между государствами различные субъекты и политические силы конкурируют за создание модели или структуры распределения ценностей, которая выгодна им. Это то, что мы называем «международной политикой или отношениями». В этой сфере, как и во внутренней политике, национальн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выступает в качестве наиболее значимого инструмента для национальных субъектов в построении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порядка, который им выгоден. Реалисты утверждают, что

Экс-президент Ли Мён Бак открыто обозначил курс на активизацию энергетической дипломатии, придав ей значение одного из приоритетных направлений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ой стратеги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дейно данный курс обосновывался необходимостью обеспечения экономическ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страны, а также стремлением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нести вклад в поддержание стабильности мировых энергетических рынков.

Южная Корея после демократизации пережила трансформацию национальной идентичности от фокусировки исключительно на угрозе с Севера к более сложной самоидентификации: как развитой демократии, как «азиатского тигра», как наследницы корейской традиции и одновременно космополитичной, глобализированной страны. В терминах А. Вендта, изменения во внешней среде и внутреннем дискурсе привели к переосмыслению национальных интересов РК через призму новых социальных ролей.

В ней содержался призыв к южнокорейскому обществу и дипломатическому корпусу – мыслить на уровне мировых проблем, будь то борьба с бедностью в Африке, миротворчество на Ближнем Востоке или климатические изменения. Такой сдвиг в идентичности – от узконациональной к глобальной – как раз соответствует представлениям о росте роли средних держав в формировании нового мирового порядка.

Южная Корея явно стремится войти в эту категорию новых ответственных акторов, конструируя вокруг себя образ миротворца, донора, культурного лидера.

Важным компонентом национальной идентичности, влияющим на внешнюю политику, является отношение к заморской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е (корё-сарам), значительная часть которой проживает в государствах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Исторически этнический национализм в Корее был очень силён, определяя нацию преимущественно в этнокультурных терминах крови и происхождения [20].

К примеру, по линии OKF и KOICA регулярно организуются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программы, стажировки для молодежи из диаспоры, помощь в создании корейских культурных центров, поставки учебной литературы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Эта деятельность служит своего рода «народной дипломатией» – диаспора рассматривается как мост дружбы между Кореей и Центрально-Азиатского республиками. Кроме того, наличие давних корейских общин в регионе смягчает восприятие растущего влияния РК, как отмечалось выше, корейцев 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давно считают «своими», они вписались в местные общества, выучили местные языки, что делает культурную экспансию современной Южной Кореи менее конфликтной.

Оценка возможности и ограничения мягкой силы Южной Кореи в условиях геополитической конкуренции

Оценка возможностей и ограничений мягкой силы Южной Кореи в условиях современной геополитической конкуренции позволяет глубже понять специфику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ого поведен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как средней державы. В отличие от великих держав, располагающих широким набором инструментов жесткого давления, Южная Корея в значительной степени опирается на ресурсы привлекательности, дипломатического посредничества, культурного влияния, институционального участия и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Именно поэтому мягкая сила выступает для Сеула не только средством формирования позитивного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имиджа, но и важным механизмом повышения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ой субъектности.

К числу основных возможностей мягкой силы Южной Кореи относится способность формировать образ современного, технологически развитого,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го и культурно привлекательн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Благодаря успехам в сфере массовой культуры, образования, цифровых технологий, публичной дипломатии и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развития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смогла значительно усилить свое присутствие в глобальном

информационном и политическ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Корейская волна, активное продвижение национального бренда, гуманитарные инициативы, участие в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рганизациях и развитие многосторонних форматов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оздают для страны благоприятные условия для укрепления доверия и расширения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ого влияния.

Другой важной возможностью мягкой силы Южной Кореи является ее посреднический потенциал. Находясь между интересами США и Китая, а также сохраняя особую вовлеченность в проблему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Сеул способен выступать в роли гибкого дипломатического актора, ориентированного на снижение напряженности и развитие диалога. Именно в этом проявляется практическая ценность мягкой силы: она позволяет Южной Корее занимать более заметное место в региональной политике, не вступая в открытую конфронтацию с ведущими центрами силы. В условиях стратегической неопределенности такая модель поведения обеспечивает государству дополнительное пространство для маневра и поддержания баланса между союзническими обязательствами и национальными интересами.

Вместе с тем возможности мягкой силы Южной Кореи не являются безграничными. Ее эффективность существенно зависит от внешней среды, прежде всего от характера соперничества между США и Китаем. По мере усиления поляризации международной системы пространство для гибкой дипломатии и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хеджирования может сокращаться. В ситуации, когда великие державы требуют большей определенности и политической лояльности, средняя держава сталкивается с ограничениями в проведении самостоятельного курса. Это означает, что даже высокий уровень международной привлекательности не всегда способен компенсировать давление со стороны более сильных государств.

Серьезным ограничением мягкой силы Южной Кореи также выступает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фактор. Несмотря на посреднические усилия, гуманитарные инициативы и попытки выстроить диалог, Южная Корея не обладает достаточными ресурсами для одностороннего решения проблем безопасности на полуострове. Северокорейская ядерная проблема, цикличность кризисов, зависимость от позиций США и Китая, а также непредсказуемость поведения Пхеньяна снижают практическую результативность мягкой силы и демонстрируют, что в вопросах высокой политики

она не может полностью заменить механизмы жесткого сдерживания.

Кроме того, ограничения мягкой силы проявляются и в том, что привлекательность государства не всегда автоматически трансформируется в политическое влияние. Культурная популярность, развитая публичная дипломатия и позитивный международный имидж укрепляют символический капитал страны, однако их прямое воздействие на стратегические решения других государств остается ограниченным. Иными словами, мягкая сила способна формировать благоприятную среду для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но не всегда обеспечивает достижение конкретных политических результатов в условиях жесткой геополитической конкуренции.

Заключение

Проведенное исследование показало, что мягкая сила занимает важное место во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ой стратеги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 выступает не вспомогательным, а системным инструментом продвижения ее национальных интересов. В условиях усиливающейся конкуренции между США и Китаем, нестабильност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и сохраняющегося дефицита устойчивых механизмов рег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Южная Корея стремится компенсировать ограниченность ресурсов жесткой силы за счет дипломатической гибкости, культурной привлекательности, институционального участия и посреднической активности. В ходе исследования было установлено, что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ая стратег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значительной степени строится на сочетании концепции средней державы, стратегии хеджирования и ресурсов мягкой силы. Это позволяет Сеулу одновременно сохранять союзнические отношения с Соединенными Штатами, поддерживать рабочие и стратегически значимые контакты с Китаем, а также выступать как самостоятельный региональный актор, способный инициировать диалог, формировать международные сет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и продвигать нормы многосторонне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Именно в этом проявляется особенность южнокорейской модели: мягкая сила используется не только для формирования позитивного образа государства, но и как практический механизм снижения напряженности, укрепления доверия и расширения политическ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для маневра.

Анализ показал, что к основным инструментам мягкой сил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относятся публичная и культурная дипломатия, развитие международных институтов и сетевых форматов, посредничество в меж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коммуникациях, продвижение идей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и устойчивого развития, а также создание привлекательного образа современного, технологически развитого и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При этом значимость мягкой силы особенно возрастает в тех вопросах, где применение жестких инструментов либо ограничено, либо может привести к росту конфронтации.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это касается меж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ядерной проблемы и более широкой архитектуры безопасности в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Список использованных источников:

1. Riddell R. G. The Role of the Middle Powers in the United Nations // Statements and Speeches. — 1948. — Vol. 48, No. 40. — Mount Holyoke College Institute on the United Nations, 22 June.
2. Wight M. Power Politics / ed. by H. Bull, C. Holbraad. — Leicester: Leicester University Press, 1978. — ISBN 9780718511609.
3. Waltz K. N.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 Reading, MA: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1979. — ISBN 9780201083491.
4. Ha H. T., Ong G. Assessing the ROK's New Southern Policy towards ASEAN // ISEAS Perspective. — 2020. — No. 7 (30 January). — URL: https://www.iseas.edu.sg/articles-commentaries/iseas-perspective/20207-assessing-the-roks-new-southern-policy-towards-asean-by-hoang-thi-ha-and-glenn-ong/ (дата обращения: 09.04.2026).
5. Kim S. M. South Korea's Middle-Power Diplomacy: Changes and Challenges. — London: Chatham House, 2016. — URL: https://www.chathamhouse.org/sites/default/files/publications/research/2016-06-22-south-korea-middle-power-kim.pdf (дата обращения: 09.04.2026).
6. Ayhan K. J. Rethinking Korea's Middle Power Diplomacy as a Nation Branding Project // Korea Observer. — 2019. — Vol. 50, No. 1. — P. 1–24. — DOI: https://doi.org/10.29152/KOIKS.2019.50.1.1
7. Kim M.-h. Hedging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South Korea's Strategic Ambiguity under the Moon Jae-in Government //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Asia-Pacific. — 2023. — Vol. 23, No. 1. — P. 129–160.
8. Yun S., Galas J. V. The Evolution of South Korea's New Southern Policy (NSP-K): The Moon and Yoon Administrations // Asian Affairs. — 2023. — Vol. 54, No. 2. — DOI: https://doi.org/10.1080/03068374.2023.2213113
9. Park G.-h. Keynote Address by H.E. Park Geun-hy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t the Eurasia Friendship Express Opening Ceremony

[Электронный ресурс]. — 28.09.2015. — URL: https://www.korea.net/koreanet/fileDown?fileUrl=%2Fupload%2Fcontent%2Ffile%2F1443580146927.pdf (дата обращения: 09.04.2026).
10. Лукин А. Л., Коротич С. А. Евразийская инициатива после Пак Кын Хе: развитие, современное состояние и перспективы южнокорейских интеграционных проектов // Известия Восточного института. — 2016. — № 4 (32). — С. 102–112. — URL: https://cyberleninka.ru/article/n/evraziyskaya-initsiativa-posle-pak-kyn-he-razvitie-sovremennoe-sostoyanie-i-perspektivy-yuzhnokoreyskih-integratsionnyh-proektov (дата обращения: 09.04.2026).
11. Lee J.-Y. The New Northern Policy and Korean-Russian Cooperation // Global Affairs. — 15.11.2017. — URL: https://eng.globalaffairs.ru/articles/the-new-northern-policy-and-korean-russian-cooperation/ (дата обращения: 09.04.2026).
12. Snyder S. Lee Myung-bak's Foreign Policy: A 250-Day Assessment //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 2009. — Vol. 21, No. 1. — P. 85–102. — DOI: https://doi.org/10.1080/10163270902745711
13. Watson I. Global Korea: Foreign Aid and National Interests in an Age of Globalization // Contemporary Politics. — 2011. — Vol. 17, No. 1. — P. 53–69. — DOI: https://doi.org/10.1080/13569775.2011.552688
14. Baldwin D. A. Economic Statecraft. —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5. — ISBN 9780691101750.
15. Keohane R. O., Nye J. S. Power and Interdependence. — 4th ed. — Boston: Longman, 2012. — ISBN 9780205082919.
16. Presidential Committee on the Northeast Asian Cooperation Initiative. Toward Peace and Prosperity in Northeast Asia [Электронный ресурс]. — Seoul: Office of the President, 2004. — URL: https://www.korea.net/FILE/pdfdata/2018/04/2007Inter-KoreanSummit_EN.pdf (дата обращения: 08.04.2026).

ОСОБЕННОСТИ ФУНКЦИОНИРОВАНИЯ ЭМОТИВНОЙ ЛЕКСИКИ В СОВРЕМЕННОМ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НА МАТЕРИАЛЕ СОЦИАЛЬНЫХ СЕТЕЙ)

Слямгажиева Д.С.
КазУМОиМЯ им. Абылай хана
Алматы, Казахстан

Аннотация: В данной статье рассматриваются особенности функционирования эмотивной лексики в современном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на материале социальных сетей. Автор анализирует специфику употребления эмоционально окрашенных единиц, включая междометия, разговорные выражения, сленг и графические средства передачи эмоций (эмодзи, удвоение букв, сокращения). В рамках исследования выявляются основные функции эмотивной лексики в онлайн-коммуникации, такие как выражение субъективного отношения, усиление экспрессии и установление межличностного контакта.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уделяется влиянию цифровой среды на трансформацию языковых норм и формирование новых способов выражения эмоций. Результаты исследования способствуют более глубокому пониманию динамики развития современного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в условиях интернет-коммуникации.
Ключевые слова: эмотивная лексика, корейский язык, социальные сети, интернет-коммуникация, экспрессивность, эмоциональная окраска, языковые изменения, сленг, междометия, эмодзи

Title: Features of the Functioning of Emotive Vocabulary in Modern Korean Language (Based on Social Media Materials)
Author: Slyamgazhiyeva D.S., Kazakh Ablai Khan University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World Languages, Almaty, Kazakhstan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the features of the functioning of emotive vocabulary in the modern Korean language based on social media materials. The study analyzes the specific use of emotionally colored lexical units, including interjections, colloquial expressions, slang, and graphic means of conveying emotions (such as emojis, letter repetition, and abbreviations). It identifies the main functions of emotive vocabulary in online communication, including the expression of subjective attitude, intensification of expressiveness, and establishment of interpersonal interaction. Particular attention is paid to the influence of the digital environment on the transformation of language norms and the emergence of new ways of expressing emotions. The findings contribute to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development of the modern Korean language in the context of internet communication.

Keywords: emotive vocabulary, Korean language, social media, internet communication, expressiveness, emotional connotation, language change, slang, interjections, emojis

Введение

Теоретические основы изучения эмотивной лексики в современной лингвистике формируются на пересечении нескольких научных направлений — семантики, прагматики, психолингвистики и лингвокультурологии. В рамках этих дисциплин эмотивность рассматривается не только как свойство отдельных языковых единиц, но и как комплексное явление, отражающее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языка, мышления и эмоциональной сферы человека. Исследователи подчеркивают, что язык выполняет не только номинативную и коммуникативную функции, но и экспрессивную, позволяя говорящему выражать чувства, оценки и субъективное восприятие действительности. [1]

Эмотивная лексика в этом контексте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совокупность языковых средств, обладающих способностью передавать эмоциональное состояние субъекта речи или вызывать определённую эмоциональную реакцию у адресата. При этом важно различать собственно эмотивные и оценочные элементы. Если эмотивность связана с непосредственным выражением чувств (радости, гнева, удивления, разочарования и т.д.), то оценочность отражает рационализированное отношение говорящего к объекту (хорошо — плохо, красиво — некрасиво). Однако на практике эти категории часто пересекаются, образуя сложные семантические структуры, в которых эмоциональный и оценочный компоненты функционируют совместно. [1]

С точки зрения структуры, эмотивная лексика может включать различные типы единиц: междометия, эмоционально окрашенные прилагательные и наречия, разговорную и сниженную лексику, а также устойчивые выражения и фразеологизмы. Кроме того, важную роль играют слово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средства — суффиксы и префиксы, способные усиливать или ослаблять эмоциональную окраску. В ряде случаев эмотивность формируется не на уровне отдельного слова, а в рамках контекста, где значение высказывания приобретает экспрессивный характер за счёт сочетания лексических, синтаксических и интонационных средств. [1]

Особое значение в исследовании эмотивной лексики имеет прагматический аспект. Эмоциональная окраска высказывания всегда ориентирована на адресата и зависит от коммуникативной ситуации. Один и тот же языковой элемент может восприниматься как нейтральный, ироничный или даже агрессивный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контекста употребления, интонации и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участниками общения. Таким образом, эмотивная лексика выступает важным инструментом регулирования межличностно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позволяя не только выражать внутренние состояния, но и воздействовать на собеседника. [2]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эмотивная лексика обладает рядом специфических особенностей, обусловленных культурными и социальными факторами. Традиционная корейская коммуникативная культура характеризуется высокой степенью регламентированности, где значительное внимание уделяется иерархии, возрасту, социальному статусу и степени близости между участниками общения. В связи с этим выражение эмоций часто подчинено нормам вежливости и сдержанности. Эмотивные элементы могут смягчаться или, наоборот, усиливаться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выбранного уровня речи и грамматических форм. [6]

Например, вежливые окончания, модальные частицы и специальные формы обращения способны не только передавать грамматическое значение, но и выражать эмоциональное отношение говорящего. Даже нейтральное по содержанию высказывание может приобретать эмотивный оттенок за счёт выбора определённой формы, что свидетельствует о тесной связи между грамматикой и прагматикой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Таким образом, эмотивность здесь проявляется не только на уровне лексики, но и в морфологической и синтаксической структуре высказывания.

С развитием цифровых технологий и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м интернет-коммуникации наблюдаются значительные изменения в функционировании эмотивной лексики. Социальные сети, мессенджеры и онлайн-платформы создают новые условия для языково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в которых традиционные нормы могут ослабевать или трансформироваться. Пользователи стремятся к более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му и эмоционально насыщенному общению, что приводит к активному использованию разговорных форм,

сокращений, неологизмов, а также графических средств — эмодзи, повторов букв, знаков препинания.

В корейской интернет-коммуникации это проявляется особенно ярко. Распространены такие формы, как 반복 문자 (повторение букв для усиления эмоции), использование специфических интернет-выражений, а также заимствования из английского языка. Подобные элементы позволяют передавать тонкие оттенки эмоций, которые трудно выразить средствами стандартного письменного языка. В результате формируется особый тип дискурса, сочетающий черты устной и письменной речи. [3]

Размывание границ между устной и письменной формами общения является одной из ключевых характеристик современного языков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Письменная речь становится более динамичной, спонтанной и эмоционально насыщенной, тогда как устная речь может включать элементы, характерные для письменной коммуникации. В этом процессе эмотивная лексика играет центральную роль, выступая средством компенсации отсутствия невербальных компонентов общения — мимики, жестов, интонации.

Кроме того, эмотивная лексика в цифровой среде выполняет функцию конструирования идентичности. Выбор определённых языковых средств позволяет пользователю выразить свою индивидуальность, принадлежность к определённой социальной группе или сообществу. Таким образом, эмотивность становится не только средством выражения чувств, но и важным элементом самопрезентации в коммуникативн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4]

В целом, эмотивная лексика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сложное и многогранное явление, отражающее как универсальные особенности человеческой коммуникации, так и специфические черты отдельных языков и культур. Её изучение позволяет глубже понять механизмы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языка и эмоций, а также проследить изменения, происходящие в языке под влиянием социальных и технологических факторов. В условиях стремительного развития цифровой коммуникации значение эмотивной составляющей продолжает возрастать, что делает её одним из ключевых объектов современных лингвистиче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Специфика функционирования эмотивной лексики в корейской интернет-коммуникации обусловлена не только

особенностями самого языка, но и характером цифровой среды, в которой происходит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пользователей. В отличие от традиционной письменной речи, онлайн-дискурс характеризуется высокой степенью спонтанности, интерактивности и стремлением к максимальной экспрессивности. Это создаёт благоприятные условия для активного использования разнообразных эмотивных средств, которые позволяют компенсировать отсутствие живого контакта между собеседниками.

Одной из ключевых характеристик эмотивной лексики в корейских социальных сетях является её контекстуальная зависимость и многозначность. Многие выражения приобретают конкретное эмоциональное значение только в определённой коммуникативной ситуации. Так, слова и междометия могут интерпретироваться по-разному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сопровождающих их элементов — эмодзи, повторов букв, знаков препинания или даже предыдущих реплик в диалоге. Это делает эмотивную лексику особенно гибкой и адаптивной, позволяя пользователям тонко регулировать степень эмоциональной вовлечённости. [4]

Характерной особенностью является также тенденция к усилению экспрессивности за счёт комбинации различных языковых и паралингвистических средств. Например, междометия нередко сопровождаются повторением символов (와 аааа, 헐ㅋㅋㅋ), что создаёт эффект усиленного эмоционального отклика. Подобные конструкции не только передают интенсивность переживания, но и выполняют функцию привлечения внимания адресата, делая сообщение более «живым» и динамичным. В этом смысле эмотивная лексика выходит за пределы чисто языкового уровня и начинает взаимодействовать с визуальными элементами текста. [5]

Интернет-сленг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отдельный пласт эмотивной лексики, который постоянно обновляется и трансформируется. Его особенностью является высокая скорость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и кратковременность существования отдельных единиц. Новые выражения могут возникать в рамках определённых онлайн-сообществ, быстро набирать популярность и так же быстро выходить из употребления. Это связано с общей динамикой цифровой культуры, ориентированной на новизну и оригинальность. При этом значительная часть сленговых единиц сохраняет ярко выраженную эмоциональную окраску, что делает их удобным инструментом для выражения субъективного отношения.

Важно отметить, что использование эмотивной лексики в корейской интернет-коммуникации тесно связано с прагматическими стратегиями общения. Пользователи сознательно выбирают те или иные выражения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цели коммуникации — будь то поддержание дружеского контакта, выражение солидарности, демонстрация иронии или, напротив, дистанцирование. Например, использование смягчающих элементов (ㅎㅎ, ^^) позволяет снизить категоричность высказывания и сделать его более вежливым, тогда как отсутствие подобных маркеров может восприниматься как холодность или даже грубость.

Особую роль играет и фактор анонимности или относительной анонимности интернет-общения. В отличие от офлайн-коммуникации, где выражение эмоций часто ограничено социальными нормами и ожиданиями, в онлайн-среде пользователи чувствуют большую свободу в выборе языковых средств. Это приводит к усилению экспрессивности, появлению более резких или, наоборот, гиперболизированных форм выражения эмоций. В то же время сохраняются культурно обусловленные особенности корейской коммуникации, такие как стремление избегать прямой конфронтации и поддерживать гармонию в общении.

Графические средства, как уже отмечалось, играют ключевую роль в передаче эмотивности. Их использование позволяет воспроизводить элементы устной речи, включая интонацию, темп и эмоциональную окраску. Например, многократное повторение гласных или согласных может имитировать протяжённость звука в устной речи, создавая эффект эмоционального «растягивания» высказывания. Аналогичным образом, комбинации символов типа ㅠㅠ или ㅋㅋㅋ функционируют как визуальные аналоги мимики — слёз, смеха, улыбки.

Кроме того, эмотивная лексика в корейской интернет-коммуникации выполняет важную социальную функцию, связанную с формированием и поддержанием групповой идентичности. Использование определённых выражений и сленговых форм может служить маркером принадлежности к конкретному сообществу — будь то фан-культура, студенческая среда ил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ая группа. Таким образом, язык становится не только средством передачи информации, но и инструментом социального позиционирования.

Интересным аспектом является также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эмотивной лексики с заимствованиями, прежде всего из английского языка. В корейском интернет-дискурсе нередко встречаются гибридные формы, сочетающие элементы разных языков. Такие выражения могут усиливать экспрессивность высказывания или придавать ему определённый стилистический оттенок, например ироничность или современность. Это свидетельствует о высокой степени открытост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к внешним влияниям в условиях глобализированного цифров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В целом, эмотивная лексика в корейской интернет-коммуникации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динамичную, многоуровневую систему, в которой взаимодействуют традиционные языковые средства и инновационные формы, обусловленные спецификой цифровой среды. Её функционирование отражает как универсальные тенденции развития современного языка, так и уникальные особенности корейской лингвокультуры. Именно в онлайн-дискурсе наиболее ярко проявляется способность языка адаптироваться к новым условиям коммуникации, сохраняя при этом свою культурную специфику и выразительный потенциал.

Дополнительным аспектом, характеризующим функционирование эмотивной лексики в корейской интернет-коммуникации, является её тесная связь с темпоральностью и ситуативностью цифрового общения. Онлайн-дискурс развивается в условиях высокой скорости обмена информацией, что требует от языковых средств максимальной краткости при сохранении выразительности. В этой связи эмотивная лексика часто приобретает сжатые формы, позволяющие в минимальном объёме передать сложный эмоциональный спектр. Подобная компрессия смысла становится возможной благодаря коллективному опыту пользователей, которые интерпретируют такие единицы на основе общих коммуникативных практик.

Следует отметить, что эмотивные элементы в корейской интернет-среде нередко выполняют функцию регуляторов диалогическо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Они могут сигнализировать о начале, продолжении или завершении коммуникативного акта, а также выполнять роль реактивных маркеров, выражающих отношение к высказыванию собеседника. Например, краткие реплики, состоящие исключительно из эмотивных символов или междометий, могут заменять развернутые ответы, тем самым

ускоряя коммуникацию и делая её более динамичной. Это особенно характерно для чатов и комментариев, где важна оперативность реакции.

Интересной особенностью является также феномен «наслоения» эмотивных средств, при котором в одном высказывании сочетаются несколько типов выражения эмоций. Так, текст может одновременно включать междометие, повтор букв, эмодзи и знаки препинания, образуя сложную многослойную структуру. Подобные конструкции позволяют не только передать эмоцию, но и уточнить её оттенки, интенсивность и отношение говорящего к содержанию сообщения. В результате создаётся эффект «эмоциональной насыщенности», приближающий письменную речь к устной коммуникации.

Важным направлением анализа является также гендерный и возрастной аспект использования эмотивной лексики. Исследования показывают, что различные социальные группы могут по-разному использовать эмотивные средства. Например, молодёжная аудитория чаще прибегает к инновационным формам, сленгу и графическим элементам, тогда как представители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могут предпочитать более традиционные способы выражения эмоций. Аналогично, различия могут наблюдаться и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гендерной принадлежности пользователей, что проявляется в выборе определённых маркеров вежливости, смягчения или, напротив, усиления экспрессии.

Кроме того, эмотивная лексика в корейской интернет-коммуникации активно участвует в формировании дискурсивных стратегий, связанных с иронией, сарказмом и юмором. В условиях отсутствия невербальных сигналов такие стратегии требуют особых языковых средств для корректной интерпретации. Именно эмотивные элементы позволяют «сигнализировать» о несоответствии между буквальным и подразумеваемым смыслом высказывания. Например, сочетание положительно окрашенного слова с определённым эмотивным маркером может указывать на ироническое отношение, что становится понятным только в рамках конкретного контекста.

Отдельного внимания заслуживает влияние медийного контента на развитие эмотивной лексики. Популярные телешоу, дорамы, музыкальная индустрия и блогосфера становятся источниками новых выражений, которые затем активно распространяются в интернет-коммуникации. Цитаты, мемы и

устойчивые выражения, заимствованные из медийн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часто приобретают эмотивную окраску и используются для передачи определённых эмоций или состояний. Таким образом, происходит постоянное обновление эмотивного словаря за счёт внешних культурных источников.

Не менее значимым является и когнитивный аспект функционирования эмотивной лексики. Использование эмоционально окрашенных единиц связано с особенностями восприятия и обработки информации в цифровой среде. Эмотивные элементы привлекают внимание, усиливают запоминаемость сообщения и способствуют более быстрому пониманию его содержания. В условиях информационной перегруженности это становится важным фактором эффективной коммуникации, поскольку позволяет выделить сообщение среди множества других.

Также следует учитывать, что эмотивная лексика может выполнять функцию смягчения коммуникативных рисков. В онлайн-общении, где отсутствует непосредственный контакт, существует повышенная вероятность недопонимания или негативной интерпретации высказывания. Добавление эмотивных маркеров, таких как 웃음 обозначения (ㅎㅎ, ㅋㅋ) или смягчающие символы, помогает снизить потенциальную конфликтность и сделать сообщение более дружелюбным. Таким образом, эмотивность выступает как средство поддержания коммуникативного баланса.

В то же время чрезмерное или неуместное использование эмотивной лексики может приводить к противоположному эффекту. Избыточная экспрессивность иногда воспринимается как неискренность, инфантильность или нарушение норм общения, особенно в более формальных контекстах. Это свидетельствует о том, что функционирование эмотивных средств регулируется негласными правилами, которые формируются внутри конкретных онлайн-сообществ и зависят от их коммуникативной культуры.

В заключение можно подчеркнуть, что эмотивная лексика в корейской интернет-коммуникации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сложный механизм, обеспечивающий не только передачу эмоций, но и эффективное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между пользователями. Её специфика проявляется в многоуровневости, динамичности и способности адаптироваться к различным коммуникативным условиям. В условиях цифровизации языка именно эмотивные средства

становятся одним из ключевых факторов, определяющих характер и качество современного онлайн-дискурса.

Трансформация языковых норм в цифровой среде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один из наиболее заметных процессов, характеризующих современное состояние языка. Развитие интернет-коммуникации, социальных сетей и мессенджеров приводит к тому, что традиционные представления о нормативности постепенно пересматриваются, а сами нормы становятся более гибкими и вариативными.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этот процесс проявляется особенно ярко, поскольку изначально он отличается высокой степенью регламентированности и зависимостью от социальных факторов, таких как возраст, статус и степень близости между коммуникантами.

Одним из ключевых проявлений трансформации является снижение уровня формальности общения. В условиях цифровой среды пользователи чаще отказываются от строгого соблюдения норм речевого этикета, характерных для офлайн-коммуникации. Это связано с тем, что онлайн-общение воспринимается как менее официальное и более личное, даже если оно происходит между людьми, не состоящими в близких отношениях. В результате наблюдается более свободное использование разговорных форм, упрощённых грамматических конструкций и сокращённых выражений.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это может проявляться, например, в опущении вежливых окончаний или выборе менее формальных речевых стилей, что в традиционном контексте могло бы считаться нарушением нормы.

Однако данное снижение формальности не означает полного исчезновения норм, а скорее их трансформацию и адаптацию к новым условиям. В цифровой среде формируются собственные правила общения, которые регулируют выбор языковых средств. Пользователи интуитивно ориентируются на контекст, платформу и аудиторию, подбирая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й уровень формальности. Таким образом, можно говорить о появлении новой системы норм, отличающейся большей гибкостью и ситуативностью.

Смешение письменной и устной речи является ещё одной важной характеристикой цифровой коммуникации. Письменные тексты в социальных сетях всё чаще воспроизводят особенности устной речи: спонтанность, неполноту синтаксических конструкций, использование междометий и эмоционально

окрашенных выражений. Это приводит к формированию гибридных форм, в которых традиционные границы между устной и письменной речью размываются.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подобные процессы сопровождаются активным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разговорной лексики, сокращений и графических средств, имитирующих интонацию и мимику.

Следствием этого является изменение представлений о «правильности» письменной речи. Если ранее письменный текст ассоциировался с нормативностью, структурированностью и формальностью, то в цифровой среде он становится более динамичным и вариативным. Ошибки, с точки зрения традиционной грамматики, могут восприниматься как допустимые или даже функционально оправданные, если они способствуют более точной передаче эмоций или намерений говорящего. Таким образом, критерии оценки языковой правильности смещаются в сторону коммуникативной эффективности.

Особое значение в трансформации языковых норм приобретает креативность пользователей. Цифровая среда стимулирует создание новых языковых форм, которые возникают в результате экспериментов с лексикой, графикой и структурой высказывания. Пользователи активно комбинируют различные элементы, создавая оригинальные выражения, способные передать уникальные эмоциональные оттенки. В корейской интернет-коммуникации это проявляется, например, в образовании новых сокращений, нестандартных написаний слов, а также в использовании символов и знаков, выходящих за рамки традиционной письменности.

Креативность становится неотъемлемой частью языковой практики, позволяя пользователям выделяться, демонстрировать индивидуальность и принадлежность к определённым сообществам. В этом контексте язык выполняет не только коммуникативную, но и социально-идентификационную функцию. Новые формы могут быстро распространяться внутри определённых групп, становясь маркерами «своих» и «чужих», что усиливает их значение в структуре онлайн-дискурса.

Следует также отметить, что цифровая среда способствует ускорению языковых изменений. Если в традиционных условиях процесс закрепления новых языковых норм мог занимать длительное время, то в интернете он происходит значительно быстрее. Новые выражения, конструкции и формы могут за

короткий срок получить широкое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благодаря высокой скорости передачи информации. Это делает язык более динамичным, но одновременно усложняет его описание и нормирование.

Влияние цифровой среды распространяется не только на лексику, но и на другие уровни языка. Меняются синтаксические структуры, способы организации текста, а также принципы построения диалога. Коммуникация становится более фрагментарной, ориентированной на быстрый обмен короткими сообщениями. Это, в свою очередь, усиливает роль эмотивной лексики и графических средств, которые позволяют компенсировать сокращение вербального компонента.

Важно подчеркнуть, что трансформация языковых норм не означает их деградацию, как это иногда представляется в рамках нормативного подхода. Напротив, речь идёт о естественном процессе адаптации языка к новым условиям функционирования. Цифровая среда создаёт новые коммуникативные потребности, на которые язык отвечает развитием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средств. В этом смысле изменения следует рассматривать как проявление жизнеспособности и гибкости языковой системы.

Таким образом, социальные сети и другие формы интернет-коммуникации выступают важным фактором языковой эволюции. Они не только влияют на способы выражения эмоций, но и трансформируют сами принципы организации речи.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это проявляется в снижении формальности, смешении устной и письменной форм, развитии креативности и ускорении языковых изменений. В результате формируется новая коммуникативная реальность, в которой традиционные нормы сосуществуют с инновационными практиками, определяя дальнейшее развитие языка в условиях цифровизации.

Рассмотрение конкретных примеров из социальных сетей позволяет более детально и наглядно проанализировать механизмы функционирования эмотивной лексики в корейской интернет-коммуникации. Практический материал демонстрирует, что эмотивные средства в онлайн-дискурсе редко выступают в изолированном виде. Напротив, они функционируют в тесном взаимодействии с оценочной лексикой, графическими символами, разговорными конструкциями и средствами пунктуационного усиления, образуя сложные многокомпонентные структуры, направленные на максимальную экспрессивность высказывания.

Так, высказывание «진짜 대박이다 ㅋㅋㅋ» является типичным примером сочетания оценочной лексики и графического средства передачи эмоции. Лексема «대박» в современном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используется для выражения сильного положительного впечатления, удивления или восхищения. Усиление с помощью наречия «진짜» дополнительно подчеркивает степень эмоциональной вовлеченности говорящего. Завершение высказывания последовательностью «ㅋㅋㅋ», которая в интернет-коммуникации функционирует как эквивалент смеха, придает сообщению неформальный характер и одновременно смягчает категоричность оценки. Таким образом, данная конструкция выполняет сразу несколько функций: выражает положительную эмоциональную реакцию, маркирует дружеский стиль общения и усиливает экспрессивность высказывания.

Важно отметить, что подобные конструкции отражают характерную для цифровой коммуникации тенденцию к синкретизму языковых средств. Эмоциональный смысл формируется не за счет одного элемента, а за счет их совокупно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В результате значение высказывания становится более объемным и многослойным, чем в традиционной письменной речи.

Другой пример — «아 너무 슬퍼 ㅠㅠ» — демонстрирует противоположную эмоциональную направленность, связанную с выражением грусти и сочувствия. Здесь междометие «아» выполняет функцию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го эмоционального отклика, сигнализируя о спонтанности реакции. Усилительная частица «너무» подчеркивает интенсивность переживания, а прилагательное «슬퍼» фиксирует само эмоциональное состояние. Завершающий элемент «ㅠㅠ», визуально напоминающий слезы, выступает графическим маркером печали и усиливает общее впечатление эмоциональной вовлеченности.

Данный пример особенно важен для понимания того, каким образом в интернет-коммуникации компенсируется отсутствие невербальных средств выражения эмоций. В устной речи интонация, паузы и мимика играют ключевую роль в передаче эмоционального состояния. В письменной же цифровой коммуникации эти функции берут на себя графические элементы и эмотивная лексика, которые совместно формируют целостное эмоциональное сообщение.

Следующий пример — «와 이거 미쳤다!!!» — иллюстрирует использование эмоционально окрашенной разговорной лексики в сочетании с графическим усилением. Междометие «와» выражает удивление и восхищение, а выражение «미쳤다» в данном контексте используется метафорически и не несет буквального значения «сойти с ума», а служит для передачи крайней степени эмоциональной реакции. Множественные восклицательные знаки «!!!» усиливают эффект эмоционального подъема и подчеркивают интенсивность переживания.

Подобные примеры демонстрируют важную особенность корейской интернет-коммуникации: грамматические и пунктуационные средства начинают выполнять функции, выходящие за пределы традиционной нормы. Знаки препинания перестают быть исключительно структурными элементами текста и превращаются в инструменты эмоциональной маркировки. Это свидетельствует о расширении функционального диапазона письменной речи в условиях цифровой среды.

Дополнительный интерес представляют высказывания, содержащие элементы иронии или гиперболизации, например: «아 진짜 너무 웃겨서 죽을 뻔 ㅋㅋㅋㅋ».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наблюдается сочетание гиперболического выражения «죽을 뻔» (буквально «чуть не умер») с эмотивным маркером смеха «ㅋㅋㅋㅋ». Такая комбинация подчеркивает не буквальное значение фразы, а её эмоционально-оценочную функцию, направленную на передачу сильного смеха и эмоционального возбуждения. Гиперболизация здесь выступает как важный стилистический прием, характерный для интернет-дискурса, в котором преувеличение становится нормой экспрессивного выражения.

Еще одним показателем специфики эмотивной лексики является использование сокращенных форм и фонетических имитаций, например: «헐 대박… ㅠㅠㅠ». Междометие «헐» выражает шок или неожиданность, а многоточие усиливает эффект паузы, создавая впечатление «размышления в моменте». Повтор символа «ㅠㅠㅠ» усиливает эмоциональную окраску и демонстрирует более глубокую степень переживания. Таким образом, даже минимальные графические изменения способны существенно модифицировать смысл высказывания.

Следует подчеркнуть, что эмотивная лексика в подобных случаях функционирует не только как средство выражения эмоций,

но и как инструмент социально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Использование определенных выражений позволяет участникам коммуникации демонстрировать близость, участие, эмпатию или, напротив, дистанцию. Например, активное использование «ㅋㅋㅋ» может сигнализировать о дружеском, непринужденном характере общения, тогда как его отсутствие в аналогичном контексте может восприниматься как эмоциональная холодность.

Анализ более сложных примеров показывает, что эмотивные конструкции могут включать целые цепочки взаимодействующих элементов: «와 진짜 너무 예쁘다ㅠㅠㅠ 미쳤어 완전». Здесь одновременно присутствуют междометие «와», усилительное наречие «진짜», оценочные слова «예쁘다» и «미쳤어», а также графический маркер эмоции «ㅠㅠㅠ». Такая структура демонстрирует высокую степень эмоциональной насыщенности и иллюстрирует тенденцию к «накоплению экспрессии», характерную для интернет-коммуникации.

Важно отметить, что подобные конструкции являются не просто спонтанными речевыми проявлениями, но отражают устойчивые модели цифрового языкового поведения. Они формируются в процессе коллективного использования языка и постепенно закрепляются как нормы внутри онлайн-сообществ. Таким образом, эмотивная лексика в социальных сетях приобретает характер системного явления, регулируемого не официальными грамматическими правилами, а практиками цифрового общения.

В целом, рассмотренные примеры позволяют сделать вывод о том, что эмотивная лексика в корейской интернет-коммуникации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многослойную и высокодинамичную систему. Её функционирование основано на взаимодействии лексических, грамматических и графических средств, которые совместно обеспечивают максимально точную передачу эмоциональных состояний. При этом ключевой особенностью остается контекстуальная зависимость, благодаря которой одно и то же выражение может приобретать различные оттенки значения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ситуации общения.

Таким образом, анализ конкретных языковых примеров подтверждает, что цифровая среда не только расширяет возможности выражения эмоций, но и формирует новые принципы организации эмотивной лексики, в которых важнейшую роль играют гибкость, вариативность и многокомпонентность языковых средств.

Заключение

Проведённое исследование позволяет сделать вывод о том, что эмотивная лексика занимает одно из центральных мест в системе современной корейской интернет-коммуникации, выступая важнейшим средством выражения субъективного отношения говорящего к высказыванию и окружающей действительности. В условиях цифровой среды её роль значительно усиливается, поскольку именно эмоционально окрашенные языковые средства обеспечивают эффективность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между пользователями, компенсируя отсутствие невербальных компонентов общения, таких как интонация, мимика и жесты.

Анализ теоретического материала и практических примеров показал, что функционирование эмотивной лексики характеризуется высокой степенью вариативности, гибкости и контекстуальной обусловленности. Одно и то же языковое средство может приобретать различные оттенки значения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коммуникативной ситуации, участников общения и сопровождающих графических элементов. Это свидетельствует о том, что эмотивная лексика в интернет-дискурсе не является статичной системой, а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динамически развивающееся явление, тесно связанное с изменениями в коммуникативных практиках общества. [7]

Особое значение имеет тот факт, что в корейской интернет-коммуникации эмотивная лексика функционирует в тесном взаимодействии с другими языковыми и паралингвистическими средствами. Междометия, разговорные выражения, оценочная лексика, сокращённые формы, эмодзи, повторения букв и знаков препинания образуют сложные многокомпонентные структуры, направленные на усиление эмоционального воздействия высказывания. Такая интеграция различных средств позволяет максимально точно передавать оттенки чувств и эмоциональных состояний, что является одной из ключевых особенностей цифрового дискурса.

Следует подчеркнуть, что активное развитие интернет-коммуникации приводит к трансформации традиционных языковых норм. Наблюдается тенденция к снижению формальности, усилению экспрессивности и сближению письменной и устной речи. При этом формируются новые коммуникативные нормы, характерные исключительно для

цифровой среды, где важную роль играют краткость, эмоциональная насыщенность и креативность языкового выражения. В этом контексте эмотивная лексика становится одним из основных факторов, определяющих направление языковых изменений.

Кроме того, эмотивная лексика выполняет не только экспрессивную, но и социально значимую функцию. Она способствует формированию и поддержанию межличностных отношений, выражению солидарности, демонстрации принадлежности к определённым социальным группам и созданию идентичности пользователя в цифров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Таким образом, язык в интернет-коммуникации выступает не только как средство передачи информации, но и как инструмент социально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и самопрезентации.

В целом, результаты исследования подтверждают, что эмотивная лексика является важнейшим компонентом современного корейского интернет-дискурса. Её развитие отражает общие тенденции эволюции языка в условиях цифровизации, включая усиление роли эмоциональности, повышение креативности языковых средств и формирование новых коммуникативных стратегий. Таким образом, эмотивная лексика выступает не только как средство выражения эмоций, но и как значимый механизм организации общения в цифровой среде, отражающий динамику и специфику современного языкового развития.

Список использованных источников:

1. Шаховский В.И. Категория эмотивности в лексике и речи. Волгоград: Перемена, 2008.
2. Wierzbicka A. Emotions Across Languages and Cultures: Diversity and Universal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3. Crystal D. Language and the Interne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4. Brown P., Levinson S.C. Politeness: Some Universals in Language Us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5. Yule G. Pragmatic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6. 최정순 (Чхве Чжонсун). 현대 한국어의 감정 표현 연구 (Исследование выражения эмоций в современном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서울: 한국문화사, 2015.
7. 김유정 (Ким Юджон). 인터넷 언어와 한국어 변화 연구 (Исследование интернет-языка и изменений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서울: 박이정, 2018.

EXPLORING PHRASAL VERBS IN KOREAN: A LINGUISTIC ANALYSIS

Tileuzhan A.A.
Kazakh Ablai Khan Univ.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World Languages
Almaty, Kazakhstan

Abstract: This article is a study of the nature and usage of phrasal verbs in Korea that focuses on their structural features, meanings and syntactic behavior as well as examples from English. However, as phrasal verbs are a feature unique to languages such as English their existence and function in Korean often go misunderstood. This is due to differences not only of syntactic structure but also of lexical composition. The nuances of phrasal verbs in Korean are illustrated in this paper. We see how such verbs function, their syntactic relations to other words in a sentence, and the problems that learners of Korean. Through collecting and comparing examples from both native and foreign sources, it seeks to give a detailed account of how phrasal verbs operate within the Korean language and to provide new insights on language teaching and acquisition. Phrasal verbs, which is a distinctly English (and to a lesser degree because it's also widely used in a number of languages) grammatical construct, make up some of the more complex verb construction in English. Korean has no phrasal verbs, being a non-Indo-European language, but that doesn't mean it lacks a similar sort of thing; Korean has a few subtle mechanisms to create meaning drift in verbs. Earlier, English phrasal verbs and their closest counterparts are discussed in Korean with reference to their syntactic, morphological, and semantic characteristics. This analysis also extends to compound verbs, verb-particle combinations, and auxiliary verb constructions, and offers only analysis of their similarities to phrasal verbs. And, more importantly, the influence of English in the development of new phrasal constructions in modern Korean and the globalization effect on the language are addressed. These results also contribute to our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Korean verb structures, and they also have important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on language acquisition and language instruction for learners with English as the first language.
Keywords: phrasal verbs, Korean language, construction, usage

Название статьи: Изучение фразовых глаголов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лингвистический анализ
Автор: Тілеужан А.А., Казах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й и мировых языков им. Абылай хана, Алматы, Казахстан
Аннотация: Эта статья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исследование природы и использования фразовых глаголов в Корее, которое фокусируется на их структурных особенностях, значениях и синтаксическом поведении, а

также на примерах из английского языка. Однако, поскольку фразовые глаголы являются особенностью, уникальной для таких языков, как английский, их существование и функция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часто остаются непонятыми. Это связано с различиями не только в синтаксической структуре, но и в лексическом составе. В этой статье проиллюстрированы нюансы фразовых глаголов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Мы видим, как функционируют такие глаголы, их синтаксические связи с другими словами в предложении и проблемы, с которыми сталкиваются изучающие корейский язык. Собирая и сравнивая примеры как из местных, так и из иностранных источников, она стремится дать подробный отчет о том, как фразовые глаголы действуют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и предоставить новые идеи о преподавании и освоении языка. Фразовые глаголы, которые являются отчетливо английской (и в меньшей степени, потому что они также широко используются во многих языках) грамматической конструкцией, составляют некоторые из наиболее сложных глагольных конструкций в английском языке.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нет фразовых глаголов, поскольку он не является индоевропейским языком, но это не значит, что в нем нет подобных вещей;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есть ряд тонких механизмов для создания дрейфа смысла в глаголах. Ранее английские фразовые глаголы и их ближайшие аналоги обсуждались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с особым упором на их синтаксические, морфологические и семантические характеристики. Этот анализ также распространяется на сложные глаголы, комбинации глаголов и частиц и вспомогательные глагольные конструкции и предлагает единственный анализ их сходств с фразовыми глаголами. И, что еще важнее, рассматривается влияние английского языка на развитие новых фразовых конструкций в современном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и влияние глобализации на язык. Эти результаты также способствуют нашему пониманию природы корейских глагольных структур, а также имеют важные последствия для будущ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по изучению языка и языкового обучения для учащихся, для которых английский является родным языком.

Ключевые слова: фразовые глаголы,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конструкция, использование

Introduction

Phrasal verbs are important because they form a basic element in the spoken and written discourse of English and other languages. In English, for example, a phrasal verb typically consists of a verb plus one or more particles (prepositions or adverbs) that modify its meaning. Common expressions such as "get up", "put off" and "run out" all resemble phrasal verbs in form since the meaning that results from combining a verb with its particle is often not literal even though this is a logically possible navigational outcome. By contrast, Korean lacks a

category of phrasal verbs that is identical to those found in English [1, p. 23]. Nevertheless there is still design resemblance: phrases in Korean carry out a similar or modal function and in using structure which performs the same function, though the course followed by obvious syntactic semantic acts may be quite different. Let us now investigate the corresponding expressions and phenomena in the Korean language which have phrasal verb modalities, and consider how they are incorporated into native grammar by contrast with those of foreign origin. What this shows us is the flexibility of Korean in dealing with all sorts of verbal constructs.

Materials and methods

Here we present the materials and methods that were used to look at the phenomenon of Korean phrasal verbs, with a particular emphasis on their syntax and semantics. Alongside theoretical frameworks for this description. It has been to settle on such an insane pre-printed future in black ink at some time before ready for publication online even before arrangements were made in typesetting looking long back but never before upon reviewing the manuscript because we were not thinking about this point then to how much it can round up is already upwards exponentially diminishing. That means pigeons arriving at homeor do resurface fewer than what were there a while for the same amount of food. Nevertheless its syntax was able to be analyzed, so for this purpose the study used it [2, p. 29]. This approach, specifically designed for Korean, can find out how a sentence is structured and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verb and particle In addition to qualitative analysis, we applied a statistical method to study the frequency of different kinds of phrasal verbs across the gathered data [3, p. 56]. Descriptive statistics, comprising frequency distributions of pairs verb and associated meanings, were also calculated. This helped to identify both common phrasal verb constructions as well as somewhat tenuous but linguistically significant forms on the otherhand [4, p. 345]. While this research makes a thorough analysis of contemporary Korean phrasal verbs its data primarily represents standard, written and spoken forms of the language.

Literature review

1. How to Define Korean Procedures of Making Phrasal Verbs

Phrasal verbs in English are created by adding an adverbial or prepositional particle to a verb, making it a complete meaning unit. On

the other hand, in Korean this is not the case. In English, the idea of adding suffixes to a main verb to make it mean something else is unknown altogether [4, p.345]. At the same time as it does not use prepositions in the way English does, Korean doesn't usually create verbs with particles that function to change their meanings in quite such a direct fashion. More often, the modifying elements in Korean take the form of suffixes or auxiliary verbs [6, p. 100].

For instance, the verb 가다 (gada, "to go") can be changed into one with a different nuance by following it with different suffixes: 가다 + -아/어 (to go + to do) or 가다 + -다가 (to go + while doing). These transformations, though somewhat analogous to English phrasal verbs in that they modify the meaning of the core verb, are from a syntactical point of view quite different than true phrasal verbs in English [7, p. 77].

2. Consistencies in Structure and Use

Korean,is able to make multiword verb phrases through several techniques such as:

Verb + Particle Structures While Korean particles don't have the potential seen in English prepositions or adverbs, they still do have a meaning-altering effect on verbs of exactly the same kind as phrasal verbs. For example, the verb 보다 (boda,"to see") combined with particles like -다 (to emphasize or stress) "You see it now" vs."If he sees it" says more about that particular object of sight in Korean(as in English, in does not - 'if' or not 'if.') and -며 (used when joining clauses together). In both these cases, the adding of extra particles to the verb changes nuance or function [8, p. 47].

Verb + Auxiliary Verb Constructions: Auxiliary verbs are widely used in Korean to form verb combinations that convey meanings akin to phrasal verbs. For example 부엉다 (to do something in preparation or in a state of completeness), 놔 버리다 (to finish or complete something in a way that is unforeseen) ing that of the root verb significantly different. Compound Verbs: One of the most effective ways that Korean makes verb phrases which are very similar in form and function to Phrasal Verbs is by means of compound verbs [9, p. 210]. Compound verbs are formed by combining any verb together with another verb or noun; the resulting phrase has a combined meaning that differs from both the individual verbs taken together Accordingly, 떠나다 (to leave) combines 떠 (to depart) and 나다 (to go out) to produce a verb meaning "to leave" or even "to go forth". This group includes compound verbs using motion verbs such as 가다 (to go) and 오다 (to

come) as well as verbs indicating movement directions or completions like 들다 (to carry) or 나가다 (to go out).

3. Influence of Foreign Languages

While Korean native constructions don't feature phrasal verbs in the English sense, there has been significant influence from foreign languages, particularly English, in recent decades. Because of the prevalence of English in South Korean media and education, English phrasal verbs have been brought over into Korean syntax [10, p. 581]. As a result, you see expressions like 밀어떠내다 ("to postpone") cropping up- Korean verbs combined with particles of English origin which change the verb's meaning according to how they're used.

Teaching Implications and Linguistic Challenges:

The subtle distinctions among the verb phrases that Korean often behaves like complicate things for most learners of Korean, including those whose native language is English. Korean attaches more elements that add on to verbs, such as particles and auxiliary verbs, in combination than English, and this may take some adjusting for even a foreign student studying in Korea who is at a fairly high level. In fusion of verb and particle, that is. It is really a deep knowledge of Korean syntax and context which will enable a person to understand how those various constructions are used, the nuances involved in them. Another challenge is the difference between native and borrowed expressions, and students have to learn to distinguish when they have not only begun producing new hybrid expressions but also when this happens Korean does take something from the English [11, p. 189]. In language teaching, it is necessary to address these two problems that foreign language learners usually encounter. Teachers should help students understand Korean verbal expressions in more depth, for instance by concentrating on verb construction, auxiliary verbs and compound verbs, or noun-verb combinations as they may be called.

Results and discussion

This borrowing from English is an interesting subject for future studies. It shows how the Korean language can improve on other languages by borrowing from them and making its own expressions even more flexible in use as a result of globalization. Learner countermeasures [12, p. 62]. Since the ways in which phrasal verbs resemble other Korean verbal forms can be difficult for learners to grasp, especially those whose first language is English, there are a number of phrasal verb constructions

which simply defy literal translation. Tremendous obstacles to learning Korean for English speakers include how particles and auxiliary verbs can modify the meaning of verbs, people's habit of using verbs + prepositions and adverbs to create layered meaningsmeanings piling or nested entire insid another beforesense. By being precise about the interpretation, it must be clear and exact which of these meanings is intended at any particular time; without this understanding, some words could be misconstrued entirely [13, p. 48]. And further, learners must also be aware of the nuances that can exist within particles when they are used under different conditions. With this as investment for their study, for a learner to correctly produce the relational particle even once better requires them to have deeply penetrated the syntactic structure of Korean. We know if we look at these constructions, from combined verbs to particle modifications, that instead of using a suffixed modifier Korean has its own peculiar yet effective way of creating overtones in verbal meaning.This also illustrates the importance of peer teachers and learners understanding such phenomena in language, provides a firm basis for further research in both comparative grammar and second language acquisition. That way as Korean continues to evolve under the influence of foreign languages — especially English another source of confusion for newcomers coming here from overseas who frequently find themselves in strange local customs is whether on any given day one ought be standing out like a sore thumb by referring to your minister wife as "thoracic physician" while another otherwise perfectly respectable young woman wearing high-heeled of clinking anklets and hands purplish red from arm Track changes parallel [14, p. 99]. As a result about harmony between native Korean grammatical structures and outside elements from another land, one is likely not to be able simply into leaping off to the right bank as we have been accustomed since earliest childhood. Phrasal verbs are inherently regular in English, and in their form: a base verb followed by an adjacent preposition or adverb; get up run out break down. An experienced reader can tell that it is practically impossible to translate idioms word by word, but instead one should have a good hold on both the meaning of an idiom separately and its meaning given in this context. While English verbs taking prepositions are not to be found in Korean, the concomitant expansions of meaning do appear in the form of complex verbal expressions. When auxiliary verbs, particles, or compound verbs are added during Korean conversion the meaning of the root can be altered [15, p. 515]. They are

structurally different from phrasal verbs, yet they do have similar functions textually.

Conclusion

Although Korean lacks phrasal verbs like those in English, it has several ways to accomplish the same purpose of imparting a exchanged meaning. Numerous shades of meaning are achieved with compound verbs, verbs with auxiliary verb combinations of the sort often used in phrasal verbs, verbs plus particles similar to English phrasal verbs. Especially in technical and everyday use, English and the way it makes it's phrasal verbs into an English hybrid have had a big effect on modern usage of the language. By looking at this type of construct, we can aid Korean language learners. So this article belongs in the similar literature on comparative linguistics and moreover reflects a living language's constant changes in vast clear waters. The researchers presented a rigorous method for phrasal verbs in Korean, using both corpus-based methods and theories of grammar to do it. A combination of rich data sources and various linguistic tools allows for a more profound examination of phrasal verbs. Their syntactic, semantic, and morphological property is also described here. Such detailed analysis surely helps us in understanding the role phrasal verbs play in modern Korean.

References:

1. Goldberg A.E. Constructions: A Construction Grammar Approach to Argument Structur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5. 271 p.
2. Langacker R.W. Foundations of Cognitive Grammar: Volume 1: Theoretical Prerequisite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7. 516 p.
3. Choi S.J., Kim H.J. A Study on the Semantic Functions of Phrasal Verbs in Korean // Journal of Korean Linguistics. 2010. Vol.56, №3. P.45–67.
4. Lee H.G. The Syntax of Verb-Phrase Particles in Korean // Studies in Language. 2007. Vol.31, №4. P.919–950.
5. Park H.Y. Analyzing Verb-Particle Constructions in Korean: A Corpus-Based Approach // Korean Linguistics. 2015. Vol.25, №1. P.123–146.

6. Kim Y.S. A Cognitive Approach to Korean Verb-Particle Combinations // Korean Language Research. 2013. Vol.10, №2. P.98–116.
7. Shin M.W., Lee C.H. Syntactic Structures of Korean Phrasal Verbs and Their Functional Variants // Language and Information. 2009. Vol.33, №2. P.73–92.
8. Jung H.R. Syntactic Analysis of Particle-Verb Constructions in Korean: Evidence from Dependency Grammar // Journal of Korean Syntax. 2018. Vol.12, №1. P.37–58.
9. Yoon J.J. Korean Phrasal Verbs and Their Cross-Linguistic Comparison with English // Studies in Applied Linguistics. 2017. Vol.30, №2. P.201–226.
10. Baker C.L., Bobaljik J.D. The Syntax of Argument Structure // Linguistic Inquiry. 2001. Vol.32, №4. P.568–596.
11. Bybee J.L., Pagliuca W. The Evolution of Grammar: Tense, Aspect, and Modality in the Languages of the Worl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7. 398 p.
12. Kang Y.W. The Role of Particles in the Formation of Korean Phrasal Verbs: A Corpus-Based Analysis // Linguistic Research. 2012. Vol.29, №3. P.45–70.
13. Song J.J. Korean Particles and Their Interaction with Verbs in Phrasal Constructions // Korean Linguistics Journal. 2019. Vol.24, №1. P.33–58.
14. Lee B.H. Phrasal Verbs in the Korean Language: A Cognitive and Semantic Analysis // Language and Cognition. 2014. Vol.19, №2. P.88–105.
15. Kwon Y.K., Cho S.H. The Role of Verb-Particle Constructions in Korean Discourse: A Pragmatic Approach // Discourse Studies. 2016. Vol.18, №4. P.503–521.

ОҢТҮСТІК КОРЕЯДАҒЫ АРТЫҚ ЖҰМЫС ІСТЕУ (OVERWORK) ФЕНОМЕНІ: СЕБЕПТЕРІ МЕН САЛДАРЫ

Токтарбаева А., Қанапия Қ.
Абылай хан атындағы ҚазХҚжӘТУ
Алматы, Қазақстан

Түйін: Бұл мақалада Оңтүстік Кореядағы артық жұмыс істеу (과로사) феномені оның әлеуметтік, мәдени, тарихи және экономикалық себептері тұрғысынан жан-жақты қарастырылады. Зерттеу нәтижелері бұл құбылыстың тек еңбек нарығымен ғана емес, сонымен қатар конфуцийлік құндылықтар, иерархиялық корпоративтік құрылым, «빨리-빨리» (жылдамдық) мәдениеті және еңбек тәжірибесімен тығыз байланысты екенін көрсетеді. Артық жұмыс істеу жеке таңдау емес, институционалдық және әлеуметтік нормалар арқылы қалыптасатын еңбек тәжірибесі. Сонымен қатар, мақалада артық жұмыстың еңбек өнімділігіне, өмір сапасына, демографиялық дағдарысқа және әлеуметтік құрылымға әсері талданады.
Тірек сөздер: Оңтүстік Корея, артық жұмыс, еңбек мәдениеті, иерархия, коллективизм, жұмыс уақыты, 과로 (gwaro), 과로사 (gwarosa)

Tile: The Phenomenon of Overwork in South Korea: Causes and Consequences
Author: Toktarbayeva Akbayan, Kanapiya Kundyz, Kazakh Ablai Khan University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World Languages, Almaty, Kazakhstan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the phenomenon of overwork in South Korea from social, cultural, historical, and economic perspectives. The research findings show that this phenomenon is closely linked not only to the labor market but also to Confucian values, hierarchical corporate structures, the "ppalli-ppallli" culture, and labor practices. Overwork is described not as an individual choice, but as a form of labor practice shaped by institutional and social norms. In addition, its impact on labor productivity, quality of life, demographic crisis, and social structure is analyzed.
Keywords: overwork, labor culture, South Korea, hierarchy, collectivism, working hours, gwaro, gwarosa

Қазіргі Оңтүстік Корея – әлемдегі ең дамыған экономикалардың бірі және технологиялық инновациялардың орталығы. Алайда, осы экономикалық «кереметтің» артында ұзақ жұмыс уақытының сақталуына байланысты үлкен әлеуметтік мәселе жатыр. Экономикалық ынтымақтастық және даму

ұйымының (ЭЫДҰ/OECD) деректеріне сәйкес, ел дамыған мемлекеттер арасында жылдық жұмыс сағаты бойынша ең жоғары көрсеткіштердің бірін сақтап келеді [1].

Артық жұмыс істеу (과로사) – бұл қызметкерлердің заңмен белгіленген жұмыс уақытынан жүйелі түрде артық жұмыс істеуі. Корей тілінде бұл құбылыс 과로 (gwaro) деп аталады, ал оның ең ауыр салдары 과로사 (gwarosa) – артық жұмыс салдарынан болатын өлім ретінде белгілі [2]. Бұл мәселе тек экономикалық қажеттілік емес, сонымен қатар әлеуметтік нормалар, дәстүрлер мен корпоративтік мәдениетпен тығыз байланысты күрделі феномен.

Қазіргі таңда Оңтүстік Кореядағы артық жұмыс істеу феномені халықаралық деңгейде де өзекті әлеуметтік мәселелердің бірі ретінде қарастырылуда. Әсіресе жаһандану мен технологиялық дамудың күшеюі еңбек нарығындағы бәсекелестікті арттырып, қызметкерлерге қойылатын талаптарды өзгертіп отыр. Осыған байланысты overwork құбылысын тек экономикалық тұрғыдан ғана емес, әлеуметтік, мәдени және лингвомәдени аспектіде зерттеу маңызды болып табылады.

Бұл зерттеудің өзектілігі – артық жұмыс істеудің қазіргі корей қоғамындағы әлеуметтік мінез-құлыққа, жастардың өмір салтына және демографиялық жағдайға әсерін кешенді түрде талдауға бағытталуында.

Оңтүстік Кореяның бүгінгі еңбек нарығының қалыптасуына Корея соғысынан кейінгі экономикалық өсім – Хан өзеніндегі ғажайып (Miracle on the Han River) кезеңі қатты әсер етті. 1960–1980 жылдардағы индустрияландыру кезінде мемлекет экономиканы көтеру үшін еңбек ресурсов барынша қатаң пайдалануға бағытталған саясат жүргізді. Осы кезеңде қалыптасқан «Палли-палли» (빨리-빨리 – «тез-тез») мәдениеті уақыттың маңыздылығын және нәтижеге тез жетуді талап ететін корей қоғамының негізгі ерекшелігіне айналды. Ол тек құрылыс немесе логистикада ғана емес, кеңсе жұмыстарында да жылдамдық пен өнімділіктің жоғары болуын талап етіп, ұзақ жұмыс істеуге әкеледі. Сонымен қатар, Samsung, Hyundai, LG сияқты ірі конгломераттардың (Чэболь) басым болуы бәсекелестікті арттырып, компаниялардағы менеджмент жүйесінің қатаң иерархияға және қызметкерлердің толық берілуіне негізделуіне ықпал етті.

Оңтүстік Кореядағы еңбек мәдениеті конфуцийлік философияның ережелерімен де терең астасқан. Бұл ілімде қоғамдағы үлкендерге, басшыларға және мемлекеттік

институттарға құрмет көрсету басты әлеуметтік міндет болып табылады. Корпоративтік ортада бұл қағида қатаң иерархиялық жүйе ретінде көрінеді. Мәселен, жоғары тұрғандарға бағыну (상명하복) ережесі бойынша қызметкерлер өздерінің тікелей басшысының немесе директордың жұмыс орнынан кеткенін күтуге мәжбүр. Егер бастық кеңседе болса, қызметкерлер жұмысы аяқталса да кете алмайды, себебі бұл бағынбаушылық немесе жұмысқа немқұрайлы қарау ретінде қабылдануы мүмкін. Ұжымшылдық (집단주의) салдарынан корей қоғамында жеке мүддеден гөрі топтық мүдде жоғары қойылады. Көмек сұрау немесе өз уақытында кету «ұжымды сату» немесе сенімсіздік деп бағаланады, ал мансаптық ілгерілету көбіне қызметкерлердің біліктілігіне емес, олардың жұмыс өтіліне негізделеді.

Сонымен қатар, корей қоғамындағы еңбекке деген көзқарас паремиялық қорда да айқын көрініс табады. Паремиялар – халықтың тарихи тәжірибесі мен құндылықтарын қысқа әрі нұсқа түрде жеткізетін тілдік бірліктер. Мысалы, корей тіліндегі «고생 끝에 낙이 온다» («Қиындықтың соңында қуаныш бар») немесе «열심히 일한 자, 먹을 자격이 있다» («Еңбек еткен адам ғана жеуге лайық») сияқты мақал-мәтелдер еңбекқорлықты, төзімділікті және ұзақ уақыт жұмыс істеуді моральдық тұрғыдан ақтайтын мәдени нормаларды көрсетеді. Мұндай паремиялар қоғамда еңбек ету тек экономикалық қажеттілік емес, сонымен қатар адамгершілік міндет ретінде қабылданатынын дәлелдейді. Нәтижесінде, артық жұмыс істеу тек ұйымдық талаптармен емес, сонымен қатар тілдік-мәдени деңгейде де бекітіледі.

Паремиялар қоғамдағы еңбекке деген қатынастың тарихи тұрғыдан қалай қалыптасқанын түсінуге мүмкіндік береді. Корей паремияларында шыдамдылық, сабырлық және үздіксіз еңбек ету идеясы жиі кездеседі. Мысалы, «성실한 길에는 실패가 없다» («Еңбекқор адамның жолы сәтсіз болмайды») немесе «땀 흘린 만큼 거둔다» («Қанша тер төксең, сонша нәтиже аласың») сияқты мақал-мәтелдер корей қоғамында еңбекқорлықтың басты құндылықтардың бірі ретінде қабылданатынын көрсетеді. Бұл корей қоғамындағы жетістікке тек ұзақ еңбек арқылы жетуге болады деген түсініктің тілдік санада берік орныққанын байқатады. Яғни, тілдік бірліктер тек мәдени құндылықтарды бейнелеп қана қоймай, белгілі бір әлеуметтік мінез-құлық үлгілерін қалыптастыруға да ықпал етеді. Осы тұрғыдан алғанда, Оңтүстік

Кореядағы артық жұмыс істеу феноменін тек экономикалық немесе әлеуметтік мәселе ретінде емес, лингвомәдени құбылыс ретінде де қарастыруға болады

Ұзақ жұмыс уақыты тек кеңседе отырумен шектелмейді. Ол жұмыстан тыс уақыттағы іс-шаралармен де толығады. Оның бірі – Оңтүстік Кореяның корпоративтік мәдениетіндегі ең маңызды әрі кең тараған құбылыстардың бірі болып табылатын 회식 дәстүрі. Бұл – жұмыс күнінен кейін ұжыммен бірге тамақтану және ішімдік ішу дәстүрі [3]. Іс-шаралар ресми түрде міндетті болмаса да, оған қатыспау қызметкердің мансабына, көтерілуіне тікелей теріс әсер етеді. Ол қызметкерлердің демалу уақытын қысқартып, денсаулыққа зиян тигізеді.

Оңтүстік Кореяның корпоративтік мәдениетіндегі тағы бір ерекше құбылыс – «Нундочжан» (눈도장) ұғымы. Сөзбе-сөз аударғанда «көз мөрі» немесе «көзге түсу» деген мағынаны білдіреді. Бұл – қызметкерлердің жұмыс сапасы мен нәтижесіне емес, тек басшылықтың көз алдында болуына мән беретін еңбек тәжірибесі. Бастапқыда бұл сөз «адамды көзбен тану» немесе «келді деп белгі қою» мағынасында қолданылса, қазір ол қызметкердің өзінің бар екенін, жұмысқа берілгенін басшылыққа күн сайын сездіру әрекеттерін білдіреді. Бұл Батыс елдеріндегі Presenteeism (қатысу мәдениеті) ұғымына өте жақсы келеді. Қызметкердің өз жұмысын уақытында аяқтағанына қарамастан, басшы кеңседен кетпейінше орнынан тұруға моральдық тұрғыдан қысым сезінуі және нақты тапсырма болмаса да компьютер алдында отырғандай уақыт өткізуі осының дәлелі [4]. Бұл құбылысқа басшылардың қызметкердің өнімділігіне емес, оның кеңседе қанша уақыт отырғанына мән беруі себеп болады.

Оңтүстік Кореядағы артық жұмыс істеу мәдениеті әсіресе жастар арасында психологиялық қысымның күшеюіне әсер етеді. Қазіргі корей жастары еңбек нарығындағы жоғары бәсекелестікке байланысты университет кезеңінен бастап болашақ мансап үшін үздіксіз дайындалуға мәжбүр. Көптеген студенттер күндіз университетте оқып, кешкі уақытта қосымша курстарға (학원) қатысады немесе жартылай жұмыс істейді. Нәтижесінде қоғамда «демалыссыз өнімді болу» түсінігі қалыптасып, адамның жеке уақыты мен эмоционалдық жағдайы екінші орынға ығысады.

Соңғы жылдары Оңтүстік Кореяда эмоционалдық күйзеліс (burnout syndrome) пен созылмалы шаршау мәселесі жиі талқылануда. Әсіресе кеңсе қызметкерлері мен жас мамандар

арасында депрессия, мазасыздық және әлеуметтік оқшаулану деңгейі артып келеді. Кейбір зерттеулер бойынша, қызметкерлердің көпшілігі жұмыстан кейін де толық демала алмайды, себебі олар жұмысқа байланысты хабарламаларға жауап беруге немесе келесі жұмыс күніне дайындалуға мәжбүр болады. Бұл құбылыс еңбек пен жеке өмір арасындағы шекараның біртіндеп жойылып бара жатқанын көрсетеді.

Смартфондар мен корпоративтік мессенджерлердің кең таралуы қызметкерлердің жұмыс орнынан тыс уақытта да еңбек процесіне қосылып отыруына мүмкіндік береді. Көптеген компанияларда қызметкерлерден кешкі уақытта немесе демалыс күндері жұмысқа қатысты хабарламаларға жауап беру күтіледі. Нәтижесінде, адамның физикалық тұрғыда жұмыстан шыққанына қарамастан, психологиялық тұрғыдан жұмыстан ажырай алмауы қазіргі еңбек мәдениетінің маңызды мәселелерінің біріне айналды.

COVID-19 пандемиясынан кейін қашықтан жұмыс істеу форматы кең таралғанымен, бұл кей жағдайда жұмыс уақытының одан әрі ұзаруына алып келді. Себебі үй мен жұмыс кеңістігінің шекарасы әлсіреп, қызметкерлердің тәулік бойы «онлайн» болу қажеттілігі артты. Бұл жағдай Оңтүстік Кореядағы еңбек мәдениетінің тек дәстүрлі кеңсе жүйесімен ғана емес, қазіргі цифрлық қоғаммен де тығыз байланысты екенін көрсетеді.

Сонымен қатар, қазіргі жастар арасында «욜로 (YOLO – You Only Live Once)» және «워라밸 (work-life balance)» сияқты жаңа құндылықтар кең тарай бастады. Бұл ұғымдар адамның тек жұмыс үшін өмір сүрмеуі керек екенін және жеке өмірдің де маңызды екенін насихаттайды. Дегенмен, дәстүрлі корпоративтік мәдениет пен қоғамдағы жоғары бәсекелестік бұл өзгерістердің толық жүзеге асуына әлі де кедергі келтіруд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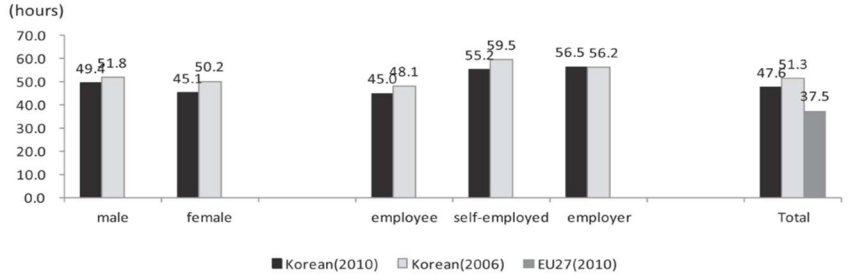


Fig. 1. Average weekly working hours in Korea (2010 Working Conditions Survey)
Source: Park et al. (2012),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search Institute (KOSHA) [5].

Эмпирикалық деректер мен статистикалық мәліметтерді талдау Оңтүстік Кореядағы жұмыс уақытының ұзақтығы еуропалық көрсеткіштерден айтарлықтай асып түсетінін көрсетеді, бұл орташа апталық жұмыс сағаттарының диаграммасында анық көрінеді. Кореяның 2006 және 2010 жылдардағы деректерін 2010 жылғы ЕО-27 елдерінің орташа көрсеткіштерімен салыстыру осы саладағы жоғары жүктемені айқын көрсетеді. Жалпы алғанда, Кореядағы орташа апталық жұмыс уақыты 2006 жылы 51,3 сағатты құрап, 2010 жылы 47,6 сағатқа дейін қысқарғанымен, бұл көрсеткіш Еуропалық одақ елдерінің орташа деңгейінен (37,5 сағат) әлдеқайда жоғары болып қалуда. Жыныс бойынша бөліп қарастырсақ, ерлердің апталық орташа жұмыс сағаты 2006 жылғы 51,8 сағаттан 2010 жылы 49,4 сағатқа дейін, ал әйелдерде 50,2 сағаттан 45,1 сағатқа дейін азайды. Жұмыспен қамту мәртебесіне келетін болсақ, ең жоғары жұмыс жүктемесі өзін-өзі жұмыспен қамтығандарға (self-employed) түседі, олардың көрсеткіштері 2006 жылы 59,5 сағатты және 2010 жылы 55,2 сағатқа жеткен, сондай-ақ жұмыс берушілер (employer) арасындағы көрсеткіштер 2006 жылы 56,2 сағатты, 2010 жылы 56,5 сағатты құрайды. Жалдамалы қызметкерлер (employee) үшін бұл көрсеткіш 2006 жылы 48,1 сағатты, ал 2010 жылы 45,0 сағатты құрап, қалыпты нормалардан айтарлықтай жоғары екенін байқатады. Бұл статистикалық деректер экономикалық бәсекелестік пен ұзақ жұмыс істеу мәдениеті еуропалық стандарттармен салыстырғанда корей қоғамында терең қалыптасқанын дәлелдейді [5].

Экономикалық зерттеулер көрсеткендей, жұмыс уақытының ұзақтығы еңбек өнімділігінің жоғары болуын білдірмейді. Мысалы, Германия сияқты елдерде жұмыс уақыты аптасына 34–35 сағатты құрайды, бірақ өнімділік көрсеткіші Оңтүстік Кореядан әлдеқайда жоғары [1]. Кореядағы жұмыс уақытының көп бөлігін бос уақытты күту, тиімсіз бюрократиялық процестер мен жиналыстар алады.

Батыс елдерінің еңбек мәдениетінде жұмыс нәтижесіне басымдық беру қағидасы кең таралған. Мысалы, Еуропаның көптеген мемлекеттерінде қызметкердің жұмыстан кейінгі

уақытына қол сұқпау маңызды құқықтардың бірі ретінде қарастырылады. Францияда 2017 жылдан бастап «right to disconnect» заңы енгізіліп, қызметкерлердің жұмыс уақытынан тыс кезде электрондық хаттар мен жұмыс хабарламаларына жауап бермеу құқығы заң жүзінде қорғалады. Мұндай тәжірибе адамның психологиялық денсаулығын сақтауға және кәсіби күйзелістің алдын алуға бағытталған.

Ал Оңтүстік Кореяда қызметкердің ұйымға толық берілуі әлі де кәсіби адалдықтың белгісі ретінде қабылданады. Сондықтан көптеген корей қызметкерлері демалыс кезінде де жұмысқа қатысты тапсырмалар орындап, әрдайым «қолжетімді» болуға тырысады. Бұл еңбек мәдениетіндегі айырмашылықтар Шығыс пен Батыс қоғамдарының құндылықтық жүйесіндегі ерекшеліктерді айқын көрсетеді.

Дүниежүзілік денсаулық сақтау ұйымының (WHO) зерттеуіне сәйкес, аптасына 55 сағаттан артық жұмыс істеу жүрек-қан тамырлары аурулары мен инсульт қаупін 35 пайызға арттырады. Сонымен қатар, артық жұмыс салдарынан қайтыс болу жағдайлары «과로사» деп аталып, Кореяда ол ресми түрде кәсіби ауру ретінде мойындалады [6]. Ұйқының жетіспеушілігі, стресс және депрессия деңгейінің артуы адамның жүйке жүйесін зақымдап, денсаулығына кері әсер етеді. Артық жұмыс пен отбасылық өмірдің теңгерімсіздігі Оңтүстік Кореядағы демографиялық дағдарыстың негізгі себептерінің бірі болып табылады [4]. 2023-2024 жылдары Оңтүстік Кореядағы бала туу көрсеткіші 0.72-ге дейін түсіп, әлемдегі ең төменгі көрсеткішті тіркеді [7]. Осыған байланысты жастар қарым-қатынастан, некеден және бала сүюден бас тартатын «삼포세대 (Sampo sedae)» – үш нәрседен бас тартқан буын (연애 – романтикалық қарым-қатынас, 결혼 – неке, 출산 – бала туу) ұрпағын қалыптастырып, отбасын құруға уақыт пен қаржы таппайды [4].

Мәселені шешу мақсатында Оңтүстік Корея үкіметі бірқатар заңнамалық реформалар қабылдады. 2018 жылы енгізілген 52 сағаттық жұмыс аптасы туралы заң аптасына максималды жұмыс уақытын 52 сағат (40 сағат негізгі және 12 сағат артық жұмыс) етіп шектеді. Алайда бұл заң шағын кәсіпорындар үшін кезең-кезеңімен енгізіліп, көптеген компаниялар оны айналып өту жолдарын тапты. Ал 2023 жылы үкімет жұмыс уақытын икемдеу мақсатында 69 сағатқа дейін арттыруды ұсынғанымен, бұл жастар мен кәсіподақтардың үлкен наразылығына ұшырап, кейінге шегерілді.

Шетелдік тәжірибемен салыстыратын болсақ, Жапониядағы «Кароси» (過労死 - артық жұмыс салдарынан өлім) ұғымы Оңтүстік Кореядағы «과로사» ұғымымен өте ұқсас, өйткені екі ел де конфуцийлік дәстүрге және ұжымдық еңбек мәдениетіне негізделген. Екі елде де басшыға бағыну, жұмыстан ерте кетуден қорқу және жұмыстан тыс уақыттағы іс-шараларның міндеттілігі байқалады. Алайда, Жапония үкіметі «Premium Friday» және босаңсу саясатын енгізіп, біраз жетістікке жетті, ал Оңтүстік Кореяда заңдық шектеулер болғанымен, мәдени нормалар оны айналып өтуге мүмкіндік береді.

Артық жұмыс істеу мәселесін түпкілікті шешу үшін тек заңнамалық шаралар жеткіліксіз, кешенді тәсіл қажет. Корпоративтік мәдениетті өзгертіп, жұмыс уақыты аяқталғаннан кейін қызметкерлердің демалыс құқығын құрметтеу маңызды. Қызметкердің кеңседе қанша уақыт отырғанына емес, оның атқарған жұмысының сапасына мән беретін бағалау жүйесін енгізу керек. Сондай-ақ, икемді жұмыс уақытын ұсыну және ішімдік ішуге негізделген дәстүрлерді отбасылық немесе мәдени іс-шараларға ауыстыру арқылы еңбек пен жеке өмір арасындағы тепе-теңдікке қол жеткізуге болады [8].

Соңғы жылдары Оңтүстік Корея қоғамында еңбекке деген көзқарастың біртіндеп өзгеріп келе жатқанын байқауға болады. Әсіресе жас буын арасында «жұмыс – өмірдің жалғыз мақсаты емес» деген түсінік кең таралуда. Көптеген жастар жоғары жалақыдан гөрі психологиялық тұрақтылыққа, бос уақытқа және жеке өмір сапасына көбірек мән бере бастады. Бұл тенденция дәстүрлі еңбек мәдениетіне қарсы жаңа әлеуметтік құндылықтардың қалыптасып келе жатқанын көрсетеді.

Әлеуметтік желілер мен бұқаралық ақпарат құралдарында артық жұмыс істеудің зияны туралы пікірталастардың көбеюі де қоғамдағы көзқарастың өзгеруіне әсер етуде. Қазіргі таңда көптеген корей компаниялары қызметкерлердің психологиялық жағдайына назар аударып, икемді жұмыс кестесін енгізу, демалыс мәдениетін дамыту және корпоративтік қысымды азайту сияқты шараларды қарастыра бастады.

ҚОРЫТЫНДЫ

Оңтүстік Кореядағы артық жұмыс істеу («과로사») феномені – бұл тек экономикалық қажеттіліктерден емес, елдің тарихы, конфуцийлік құндылықтар мен ұжымшылдық дәстүрінен бастау

алатын күрделі әлеуметтік құбылыс. «빨리-빨리» қарқыны, қатаң иерархиялық жүйе және «눈도장» (көз мөрі) сияқты корпоративтік тәжірибелер қызметкерлерді жұмыс орнында ұзақ уақыт болуға мәжбүрлейді, бұл өз кезегінде өнімділік сапасына емес, уақытқа басымдық береді. Статистикалық талдаулар корей қызметкерлерінің апталық жұмыс уақыты еуропалық нормалардан едәуір асып түсетінін, ал еңбек өнімділігінің басқа дамыған елдерге қарағанда төмен екенін көрсетеді.

Бұл құбылыстың әлеуметтік-демографиялық салдары өте ауыр: ұзақ уақыт жұмыс істеу салдарынан болатын «과로사» (артық жұмыс салдарынан қайтыс болу) қаупі, жүрек-қан тамырлары ауруларының көбеюі, сондай-ақ отбасын құруға және балалы болуға уақыт таппайтын «삼포» (Sampo) ұрпағының қалыптасуы. Оңтүстік Корея үкіметі тарапынан қабылданған 52 сағаттық жұмыс аптасы секілді заңнамалық реформалар оң қадам болғанымен, терең сіңіп қалған әлеуметтік және корпоративтік нормаларды өзгертуге жеткіліксіз болып отыр.

Сондықтан, артық жұмыс істеу мәселесін шешу үшін кешенді тәсіл қажет. Корпоративтік мәдениетті ізгілендіру, жұмыс уақытынан тыс тапсырмаларды шектеу, қызметкерлердің жеке уақыты мен демалыс құқығын құрметтеу, сондай-ақ жұмыс орнында отырған уақытты емес, атқарылған жұмыстың сапасын бағалау жүйесіне көшу маңызды. Тек осы өзгерістер арқылы ғана еңбек пен жеке өмір арасындағы тепе-теңдікке қол жеткізіп, Оңтүстік Кореяның әлеуметтік және демографиялық дағдарысын еңсеруге болады.

Пайдаланылған әдебиеттер тізімі

1.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2023). *OECD Employment Outlook 2023*. Paris: OECD Publishing.
2. Park, J., & Kim, S. (2012). Working conditions and health in South Korea. Seoul: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search Institute (KOSHA).
3. Kim, Y., & Lee, J. (2022). Korean labor culture and work-life balance. Seoul: Korean Labor Institute.
4. Chun, H., & Kim, J. (2019). Presenteeism and demographic crisis in South Korea. *Journal of Asian Economics*, 62, 45–58.
5.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KOSHA). (2012). *Working Conditions Survey Report*. Seoul: KOSHA.
6. World Health Organization &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WHO/ILO). (2021). *Global monitoring report on the health of the working population*. Geneva: WHO.
7. Statistics Korea. (2024). *Birth statistics in South Korea 2023–2024*. Seoul: Statistics Korea.
8. Lee, S. (2020). *Work hour reduction policies in South Korea*. Seoul: Korean Labor Institute.

РОЛЬ НЕЙРОСЕТЕЙ В КОРЕЙСКО-РУССКОМ ПЕРЕВОДЕ: КАЧЕСТВО И ПРОБЛЕМЫ

Жайлауова А.Т.
КазУМОиМЯ им. Абылай хана
Алматы, Казахстан

Аннотация: В статье рассматриваются особенности применения нейросетевых технологий в корейско-русском переводе. Анализируются факт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качества перевода, а также ключевые проблемы, связанные с лексикой, грамматикой, прагматикой и культурной спецификой. Отдельное внимание уделяется сравнению различных нейросетевых моделей перевода, их сильным и слабым сторонам в работе с корейским языком. Рассматривается влияние контекста и жанра текста на точность перевода. Делается вывод 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сочетания машинного и человеческого перевода, а также о перспективах дальнейшего развития гибридных переводческих решений.
Ключевые слова: нейросетевой перевод, корейский язык, русский язык, машинный перевод, NMT, переводческие ошибки

Title: The Role of Neural Networks in Korean Russian Translation: Quality and Challenges
Author: Zhailauova Aruzhan, Kazakh Ablai Khan University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World Languages, Almaty, Kazakhstan
Abstract: The article examines the features of applying neural network technologies in Korean Russian translation. It analyzes empirical indicators of translation quality, as well as key issues related to lexis, grammar, pragmatics, and cultural specificity. Attention is paid to the comparison of various neural machine translation models, highlighting their strengths and weaknesses when working with the Korean language. The influence of context and text genre on translation accuracy is also considered. The study concludes that an effective combination of machine and human translation is necessary and outlines the prospects for the further development of hybrid translation solutions.
Keywords: neural machine translation, Korean language, Russian language, machine translation, NMT, translation errors

Развитие нейросетевых технологий существенно повлияло на сферу перевода. Современные системы машинного перевода демонстрируют высокую скорость обработки текста и приемлемое качество при работе с распространенными языковыми парами. Однако при переводе между типологически различными языками,

такими как корейский и русский, сохраняется ряд системных трудностей.

Корейский язык характеризуется агглютинативной структурой, высокой контекстуальностью и развитой системой вежливости. Русский язык, в свою очередь, относится к флективным языкам с иной синтаксической организацией. Эти различия создают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сложности для нейросетевых моделей.

Цель данной работы – проанализировать качество нейросетевого перевода с корейского на русский язык и выявить основные проблемы.

В рамках исследования рассматриваются принципы работы современных систем нейросетевого машинного перевода (NMT), основанных на архитектурах типа Transformer, а также механизмах внимания. Анализируется влияние обучающих корпусов на качество перевода, включая проблемы недостатка параллельных данных для корейско-русской языковой пары.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уделяется ошибкам, возникающим при передаче грамматических категорий, таких как время, вежливость и модальность, а также при переводе устойчивых выражений и идиом.

1. Особенности корейско-русского перевода

Корейский и русский языки существенно различаются по грамматической структуре.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преобладает порядок слов SOV (подлежащее — дополнение — сказуемое), тогда как в русском – SVO (подлежащее – сказуемое – дополнение).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допускает опущение подлежащего и дополнения, если они понятны из контекста. Это усложняет автоматическое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смысла при переводе. Также важной особенностью является система речевой вежливости, которая выражается через глагольные окончания.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отсутствует прямой аналог данной системы, что приводит к потере прагматической информации при переводе.

Кроме того, значительные различия наблюдаются в морфологической структуре языков. Корейский язык является агглютинативным, где грамматические значения выражаются с помощью последовательного присоединения аффиксов, тогда как русский язык использует флексию, изменяя форму слова. Это создает трудности при автоматическом сопоставлении грамматических категорий.

Сложности возникают и на уровне лексики.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широко используются заимствования из китайского (ханча) и английского языков, а также слова с высокой степенью многозначности. При этом многие корейские слова не имеют прямых эквивалентов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что требует контекстуальной интерпретации. Дополнительной проблемой является передача идиоматических выражений и устойчивых конструкций. Нейросетевые системы часто склонны к буквальному переводу, что приводит к искажению смысла.

Наконец, различия в культурных нормах и коммуникативных стратегиях также оказывают влияние на перевод. Корейская речь часто более косвенная и контекстуально зависимая, тогда как русский язык допускает более прямое выражение мысли. Это требует от переводческих систем не только языковой, но и культурной адаптации текста.

2. Нейросетевой машинный перевод

Современные системы машинного перевода основаны на нейросетевых моделях, использующих архитектуру Transformer. Они обрабатывают текст целиком, учитывая контекст и взаимосвязи между словами.

Основные характеристики нейросетевого перевода:

– использование больших параллельных корпусов;

– контекстная обработка предложений;

– генерация более естественного текста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едыдущими методами;

– способность учитывать дальний контекст внутри текста, а не только отдельное предложение; адаптация к различным стилям речи и жанрам текста при достаточном обучении.

Дополнительно важной особенностью нейросетевого машинного перевода является его зависимость от качества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го обучения. Если данные содержат ошибки, несбалансированные примеры или ограничены по тематике, это напрямую отражается на результате перевода. Качество перевода также варьируется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домена текста: технические и новостные тексты, как правило, переводятся точнее, чем художественные или разговорные, где требуется глубокое понимание контекста и прагматики.

Кроме того, современные NMT-системы способны улучшать результаты за счёт механизмов дообучения и

использования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ых моделей для конкретных языковых пар, включая низко ресурсные направления, такие как корейско-русский перевод.

3. Качество перевода

Лексический уровень

Нейросети демонстрируют высокую точность при переводе общеупотребительной лексики. Частотные слова и устойчивые выражения передаются корректно. Проблемы возникают при работе с многозначными словами и терминологией. Нейросеть часто выбирает наиболее вероятное значение, игнорируя контекст. Например, корейское слово 사람 может переводиться как «человек», «люди» или «представитель», но система не всегда учитывает точную ситуацию употребления. Также слово 정 может передаваться как «чувство», «привязанность» или «эмоциональная связь», что требует культурной интерпретации.

Особую сложность представляют слова с культурной нагрузкой:

눈치 없다

→ нейросеть: *«Вы ничего не понимаете»*

→ корректно: *«нету догадливости то есть не понимает намёков»*

정이 많다

→ нейросеть: *«много увств»*

→ корректно: *«очень ласковый / душевный человек»*

Нейросеть не интерпретирует социокультурный смысл, а переводит компоненты слова.

Синтаксический уровень

В простых предложениях структура перевода, как правило, корректна. Однако в сложных синтаксических конструкциях наблюдаются ошибки:

- нарушение логических связей;
- калькирование корейского порядка слов;
- упрощение структуры.

Например, корейское предложение с вложенными конструкциями и деепричастными связями может быть переведено с потерей логической последовательности, что приводит к неестественному русскому тексту. Также часто наблюдается буквальное сохранение структуры SOV, что делает перевод стилистически тяжёлым.

Пример: **비가 와서 우산을 가져갔어요.**
→ нейросеть: *«Пошёл дождь, поэтому зонт взял»*
→ корректно: *«Я взял зонт, потому что шёл дождь»*

Прагматический уровень

Наиболее уязвимой областью является передача прагматических значений. Основные проблемы:

– утрата уровня вежливости;
– стилистическая нейтрализация текста;
– некорректная передача коммуникативного намерения.

Например, корейское выражение формальной вежливости, такое как окончания -ㅂ니다 / -습니다,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часто переводится просто как нейтральное утверждение без отражения степени уважительности. В результате теряется социальный контекст общения (статус говорящего и адресата). Также в диалогах нейросетевые системы могут неверно интерпретировать косвенные просьбы. Например, фраза, выраженная через намёк или смягчённую форму отказа, может быть переведена как прямое утверждение, что искажает коммуникативное намерение автора.

Нейросети демонстрируют высокую точность при переводе общеупотребительной лексики. Частотные слова и устойчивые выражения передаются корректно. Проблемы возникают при работе с многозначными словами и терминологией. Нейросеть часто выбирает наиболее вероятное значение, игнорируя контекст.

Пример: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 нейросеть: *«Можешь немного помочь?»*
→ корректно: *«Не могли бы вы помочь?»*

Теряется:
– уровень вежливости
– смягчённость просьбы
– социальная дистанция

4. Основные проблемы нейросетевого перевода

Полисемия

Многозначные слова часто переводятся некорректно из-за выбора наиболее вероятного значения без учета контекста. В результате один и тот же корейский лексический элемент может интерпретироваться по-разному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ситуации, что приводит к смысловым неточностям. Например, слово 눈 может

означать «глаз» или «снег», и нейросеть не всегда корректно различает значение в тексте.

Опущенные элементы

Отсутствие подлежащего или дополнения в корейском предложении приводит к ошибкам интерпретации при переводе. Нейросетевые системы вынуждены «достраивать» пропущенные элементы, что иногда приводит к добавлению лишней или неточной информации. Например, в предложении без явного подлежащего система может неверно определить субъект действия. Например слово 갔어요, нейросеть переводит как *«Пошёл».* Однако перевод может звучать как *«Я пошёл», «Он пошёл»* или *«Она ушла»*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контекста текста**.** То есть нейросеть угадывает субъект, который может полностью изменить смысл предложения.

Система вежливости

Нейросети не способны адекватно передавать уровни формальности и уважения, что приводит к искажению коммуникативного смысла. Корейские формы вежливости, выраженные через окончания глаголов (-습니다, -아요/-어요, -해요), часто переводятся на русский язык без отражения различий в статусе и социальной дистанции между собеседниками.

Культурные реалии

Идиомы, реалии и культурно обусловленные выражения часто переводятся буквально, что снижает точность передачи смысла. Например, выражения, связанные с корейскими традициями или повседневной культурой, могут быть непонятны без адаптации и культурного пояснения. Например слово 회식 нейросеть переводит как *«ужин»*, однако корректный перевод *«корпоративный ужин с коллегами»*

Грамматические конструкции

Сложности вызывают специфические конструкци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не имеющие прямых аналогов в русском. Их перевод требует интерпретации, а не буквальной передачи. Например, конструкция -게 되다 часто выражает «в итоге получилось / пришлось», но нейросети могут переводить её слишком буквально как «становиться», что искажает смысл: 한국에 가게 되었어요

→ нейросеть: *«Я стал ехать в Корею»*
→ корректно: *«Мне пришлось поехать в Корею / так получилось, что я поехал»*

Конструкция -는 대로 («сразу после / по мере того как») также требует контекстного анализа, иначе перевод становится неточным.

도착하는 대로 연락 주세요
→ нейросеть: *«Свяжитесь как прибываете»*
→ корректно: *«Свяжитесь сразу по прибытии»*

Конструкция -자마자 («как только») иногда передается корректно, но при сложных предложениях теряет временную связь.

집에 오자마자 잤어요
→ нейросеть: *«Пришёл домой и сразу спал»*
→ корректно: *«Как только пришёл домой, сразу уснул»*

5. Типичные ошибки

К наиболее распространенным ошибкам нейросетевого перевода относятся:

– калькирование структуры исходного языка (сохранение корейского порядка слов и синтаксиса в русском тексте, что делает перевод неестественным);

– потеря смысла (неверная интерпретация контекста, особенно в сложных или многозначных высказываниях);

– добавление лишних элементов (введение в перевод информации, которой нет в оригинале, из-за попытки «достроить» пропущенные части предложения);

– чрезмерное упрощение текста (сокращение сложных конструкций и смысловых связей, что приводит к снижению точности и стилистической бедности перевода).

Также часто наблюдается нестабильность перевода внутри одного текста: одинаковые слова или конструкции могут передаваться по-разному, что снижает терминологическую и стилистическую согласованность. В художественных и публицистических текстах это особенно заметно, так как нарушается целостность стиля и авторского намерения.

6. Сравнение с человеческим переводом

Нейросетевой перевод значительно превосходит человеческий по скорости обработки текста и способности

обрабатывать большие объемы информации за короткое время. Он также эффективен при работе с простыми и стандартизированными текстами, где не требуется глубокая интерпретация смысла.

Однако он уступает человеческому переводу по глубине понимания контекста, точности передачи культурных и прагматических аспектов, а также по стилистической адаптации текста под целевую аудиторию. Человеческий переводчик способен учитывать скрытые смыслы, авторскую интенцию, эмоциональную окраску и коммуникативную ситуацию, что особенно важно при работе с корейским языком, где высокий уровень контекстуальности играет ключевую роль.

Также нейросетевые системы пока не способны стабильно обеспечивать единообразие терминологии и стиля в пределах одного текста, особенно при сложных или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ых материалах.

Человеческий перевод остается необходимым в следующих случаях:

– научные и академические тексты, требующие точности терминологии и логической строгости;

– юридические документы, где критична однозначность формулировок и отсутствие смысловых искажений;

– художественная литература, где важны стиль, образность, эмоциональная передача и авторский замысел.

Таким образом, наиболее эффективным подходом в современной практике становится гибридная модель, в которой нейросетевой перевод используется как инструмент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й обработки текста, а человек выполняет постредактирование и финальную адаптацию.

7. Перспективы развития

Основные направления развития нейросетевого машинного перевода включают:

– увеличение объема и качества обучающих данных, особенно для низко ресурсных языковых пар, таких как корейско-русская;

– адаптация моделей под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ые предметные области (медицина, право, технические тексты и др.);

– улучшение обработки контекста на уровне всего текста, а не отдельных предложений, включая развитие механизмов моделирования;

–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е систем постредактирования, позволяющих автоматически выявлять и исправлять типичные ошибки перевода.

Дополнительно важным направлением является интеграция культурно-лингвистических моделей, способных учитывать прагматические и социокультурные особенности языка оригинала. Это особенно актуально дл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где значение часто зависит от уровня вежливости и контекста общения.

Также перспективным считается использование гибридных систем, объединяющих нейросетевой перевод, терминологические базы данных и инструменты контроля качества текста. Это позволяет повысить стабильность и точность перевода в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среде. Наиболее эффективной моделью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является комбинация машинного перевода и последующей редакторской обработки человеком, что обеспечивает баланс между скоростью обработки и качеством конечного результата.

Вывод

Нейросетевые технологии значительно улучшили качество корейско-русского перевода, особенно на уровне лексики и базового синтаксиса. Современные системы машинного перевода обеспечивают высокую скорость обработки текста и достаточно высокую точность при работе со стандартными и контекстно предсказуемыми конструкциями.

Однако сохраняются системные ограничения, связанные с грамматическими, прагматическими и культурно-специфическими особенностями языка. Особенно это проявляется при переводе контекстно-зависимых и социокультурно обусловленных высказываний, где требуется не только языковое соответствие, но и интерпретация смысла.

Ключевые проблемы нейросетевого перевода можно обобщить следующим образом:

– недостаточная передача прагматических значений (вежливость, интенция, социальная дистанция);

– трудности в интерпретации многозначных и культурно-обусловленных единиц;

– ошибки при обработке опущенных элементов и сложных синтаксических структур;

– буквальный перевод идиом и устойчивых выражений.

Дополнительно следует отметить, что эффективность нейросетевого перевода существенно зависит от типа текста и доменной области. Наибольшую точность системы демонстрируют в новостных, технических и стандартизированных текстах, тогда как в художественных, публицистических и разговорных жанрах количество ошибок возрастает из-за высокой степени интерпретации и культурной нагрузки.

Таким образом, полная замена человеческого переводчика на современном этапе развития технологий невозможна, поскольку нейросетевые модели не обладают полноценным пониманием авторской интенции, культурного контекста и коммуникативной ситуации.

Наиболее перспективным направлением является развитие гибридного подхода, при котором нейросетевой перевод используется как инструмент первичной обработки текста, а человек выполняет постредактирование, стилистическую адаптацию и контроль смысловой точности. Такой подход обеспечивает оптимальный баланс между скоростью перевода и его качеством.

Список использованных источников:

1. Vaswani A., Shazeer N., Parmar N. et al. Attention Is All You Need // Advances in 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NeurIPS). 2017. P. 5998–6008.
2. Koehn P. Neural Machine Translation.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0. 550 p.
3. Wu Y. et al. Google’s Neural Machine Translation System: Bridging the Gap between Human and Machine Translation // arXiv preprint arXiv:1609.08144. 2016.
4. Zhang J., Zong C. Neural Machine Translation: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 IEEE/ACM Transactions on Audio, Speech, and Language Processing. 2020.
5. Tan Z. et al. Neural Machine Translation: A Review of Methods, Resources, and Tools // arXiv preprint arXiv:2012.15515. 2020.
6. Jhee I.-Y., Kim H.-D. A Study on the Evolution of Neural Machine Translation Technology and Translation Quality // Translation Studies Journal. 2020. Vol. 24. No. 3. P. 191–210.

<참고 1> 표기 원칙

1. 한국 인명 지명의 러시아어 표기

자음	홀로도비치 -콘체비치(1966)	모음	홀로도비치 -콘체비치(1966)
ㄱ	К-, -г-, -к	아	А
ㅋ	КХ, -к	어	О [ŏ, ɔ]
ㄲ	КК	오	О
ㄷ	Т-, -д-, -т	우	У
ㅌ	ТХ	으	Ы
ㄸ	ТТ	이	И
ㅂ	П-, -б-, -п	애	Э
ㅍ	ПХ	에	Е
ㅃ	ПП	외	ВЕ
ㅅ	С, -т	위	ВИ
ㅆ	СС, -т	야	Я
ㅈ	Ч-, -дж-, -т	여	Ё/ЙО [йŏ, йɔ]
ㅊ	ЧХ, -т	요	Ё/ЙО
ㅉ	ЧЧ	유	Ю
ㅎ	Х	얘	ЙЯ
ㄴ	Н	예	ЙЕ/-Е
ㄹ	-р-, -ль	와	ВА
ㅁ	М	워	ВО
ㅇ	-н [-нъ]	왜	ВЭ
		웨	ВЕ
		의	ЫЙ

1) 한국 인명과 지명의 러시아어 표기는 홀로도비치-콘체비치(1966)의 간략전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특수기호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글 복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을 병기한다.
3) 성과 이름을 분리하여 각각의 독립된 단위로 표기한다.
예) 장정진 Чан Джонджин (콘체비치 체계) → Чан Чонджин

2. CIS (구 소련) 인명 지명의 한글 표기

키릴 문자	한글			키릴 문자	한글		
	모음앞	자음앞	어말		모음앞	자음앞	어말
А	아			**Р**	ㄹ	르	
Б	ㅂ	ㅂ, 브	프	**С**	ㅅ	스	
В	ㅂ	ㅂ, 브	프	**Т**	ㅌ	ㅅ, 트	트
Г	ㄱ	ㄱ, 그	크	**У**	우		
Д	ㄷ	ㅅ, 드	트	**Ф**	ㅍ	ㅂ, 프	프
Е	에, 예			**Х**	ㅎ	흐	
Ё	요			**Ц**	ㅊ	츠	
Ж	ㅈ	즈, 시	시	**Ч**	ㅊ	치	
З	ㅈ	즈, 스	스	**Ш**	시	시	
И	이			**Щ**	시	시	
Й	이			**Ъ**	–		
К	ㅋ	ㄱ, 크	크	**Ы**	이		
Л	ㄹ, ㄹㄹ	ㄹ		**Ь**	(이)		
М	ㅁ	ㅁ, 므	ㅁ	**Э**	에, 예		
Н	ㄴ	ㄴ		**Ю**	유		
О	오			**Я**	야		
П	ㅍ	ㅂ, 프	프				

1) 러시아의 인명, 지명은 “러시아어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한다.
2)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의 인명과 지명은 자국어의 로마자 표기를 우선으로 하여 한글로 옮긴다.
3)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의 인명과 지명은 러시아어 표기를 우선으로 하되, 자국어에서 유래한 인명과 지명은 일반적인 외래어 표기법 규정을 따르기도 한다.

<참고 2> 러시아어 외래어 표기법

장호종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이하는 “러시아어 외래어 표기법”(문화관광부 고시 제 2005-32 호, 2005.12.28.)의 내용을 러시아어 화자가 이해하기 쉽게 편집한 것이다.

<표> 러시아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

키릴 문자	한글			보기
	모음앞	자음앞	어말	
а	아			Аксаков 악사코프 Абакан 아바칸
б	ㅂ	ㅂ, 브	프	Болотов 볼로토프 Бобров 보브로프 Курбский 쿠릅스키 Глеб 글레프
в	ㅂ	ㅂ, 브	프	Веревкин 베렙킨 Достоевский 도스토옙스키 Владивосток 블라디보스토크 Марков 마르코프
г	ㄱ	ㄱ, 그	크	Гоголь 고골 Мусоргский 무소륵스키 Богдан 보그단 Андарбаг 안다르바크
д	ㄷ	ㅅ, 드	트	Дмитрий 드미트리 Бенедиктов 베네딕토프 Находка 나홋카 Восход 보스호트
е	에(자음 뒤) 예(모음 뒤, 어두)			Петров 페트로프 Евгений 예브게니 Алексеев 알렉세예프
ё	요			Соловьёв 솔로비요프 Артём 아르툠

ж (дж)	ㅈ	ㅈ, 시	시	Жадовская 자돕스카야 Жданов 즈다노프 Лужков 루시코프 Кебеж 케베시
з (дз)	ㅈ	ㅈ, 스	스	Зайчев 자이체프 Кузнецов 쿠즈네초프 Агрыз 아그리스
и	ㅇ			Иванов 이바노프 Иосиф 이오시프
й	ㅇ			Юрий 유리 Андрей 안드레이 Белый 벨리
к	ㅋ	ㄱ, 크	크	Калмык 칼미크 Аксаков 악사코프 квас 크바스
л	ㄹ, ㄹㄹ	ㄹ		Ленин 레닌 Николай 니콜라이 Крылов 크릴로프 Павел 파벨
м	ㅁ	ㅁ, 므	ㅁ	Михаийл 미하일 Максим 막심 Мценск 므첸스크
н	ㄴ	ㄴ		Надя 나댜 Стефан 스테판
о	오			Хомяков 호먀코프 Ока 오카
п	ㅍ	ㅂ, 프	프	Пётр 표트르 Ростопчиня 로스톱치냐 Псков 프스코프 Майкоп 마이코프
р	ㄹ	르		Рыбинск 리빈스크 Лермонтов 레르몬토프 Артём 아르툠
с	ㅅ	스		Василий 바실리 Стефан 스테판 Борис 보리스

т	ㅌ	ㅅ, 트	트	Татьяна 타티야나 Хватков 흐밧코프 Тверь 트베리 Бурят 부랴트
у	우			Ушаков 우샤코프 Сарапул 사라풀
ф	ㅍ	ㅂ, 프	프	Фёдор 표도르 Ефремов 예프레모프 Иосиф 이오시프
х	ㅎ	흐		Хабаровск 하바롭스크 Ахматова 아흐마토바 Ойстрах 오이스트라흐
ц (тс)	ㅊ	츠		Капица 카피차 Цветаева 츠베타예바 Брятск 브랴츠크 Якутск 야쿠츠크
ч (тч)	ㅊ	치		Гончаров 곤차로프 Манечка 마네치카 Якубович 야쿠보비치
ш	시	시		Шелгунов 셸구노프 Шишков 시시코프
щ	시	시		Щербаков 셰르바코프 Щирец 시레츠 борщ 보르시
ъ	–			–
ы	이			Салтыков 살티코프 Кыра 키라 Белый 벨리
ь	(이)			
э	에(자음 뒤) 예(모음 뒤, 어두)			Эртель 예르텔
ю	유			Юрий 유리 Юрга 유르가
я	야			Ясинский 야신스키 Адыгея 아디게야

'표기세칙'

<표> 러시아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에 따르고, 다음과 같은 특징을 살려서 적는다.

제1항 п, т, к, б, д, г, ф, в

파열음과 마찰음 ф, в는 무성 자음 앞에서는 앞 음절의 받침으로 적고, 유성 자음 앞에서는 '으'를 붙여 적는다.

<보기>	Садко	삿코
	Агрыз	아그리스
	Акбаур	아크바우르
	Ростопчиня	로스톱치냐
	Акмеизм	아크메이즘
	Рубцовск	룹초스크
	Брятск	브랴츠크
	Лопатка	로팟카
	Ефремов	예프레모프
	Достоевский	도스토옙스키

제2항 з, ж

з와 ж는 유성 자음 앞에서는 '즈'로 적고 무성 자음 앞에서는 각각 '스, 시'로 적는다.

<보기>	Назрань	나즈란
	Нижний Тагил	니즈니타길
	Острогожск	오스트로고시스크
	Лужков	루시코프

제3항 지명의 -град와 -город는 관용을 살려 각각 '-그라드', '-고로드'로 표기한다.

<보기>	Волгоград	볼고그라드
	Калининград	칼리닌그라드
	Славгород	슬라브고로드

제4항 자음 앞의 дс는 '츠'로 적는다.

<보기>	Петрозаводск	페트로자보츠크
	Вернадский	베르나츠키

제5항 어말 또는 자음 앞의 л은 받침 'ㄹ'로 적고, 어중의 l이 모음 앞에 올 때에는 'ㄹㄹ'로 적는다.

<보기>	Павел	파벨
	Николаевич	니콜라예비치
	Земля	제믈랴
	Цимлянск	치믈랸스크

제6항 ль, м이 어두 자음 앞에 오는 경우에는 각각 ‘리’, ‘므’로 적는다.

<보기>	Львовна	리보브나
	Мценск	므첸스크

제7항 같은 자음이 겹치는 경우에는 겹치지 않은 경우와 같이 적는다. 다만, мм, нн은 모음 앞에서 ‘ㅁㅁ’, ‘ㄴㄴ’으로적는다.

<보기>	Гиппиус	기피우스
	Аввакум	아바쿰
	Одесса	오데사
	Акколь	아콜
	Соллогуб	솔로구프
	Анна	안나
	Гамма	감마

제8항 е, э는 자음 뒤에서는 ‘에’로 적고, 그 외의 경우에는 ‘예’로 적는다.

<보기>	Алексей	알렉세이
	Егвекинот	예그베키노트

제9항 연음 부호 ь

연음 부호 ь은 ‘이’로 적는다. 다만 ль, мь, нь이 자음 앞이나 어말에 오는 경우에는 적지 않는다.

<보기>	Льбовна	리보브나
	Игорь	이고리
	Илья	일리야
	Дьяково	디야코보
	Ольга	올가
	Пермь	페름
	Рязань	랴잔
	Гоголь	고골

제10항 дз, дж는 각각 з, ж와 같이 적는다.

<보기>	Дзержинский	제르진스키
	Таджикистан	타지키스탄

<참고 3> CIS(구 소련) 인명의 한글 표기 용례

장호종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이하의 용례는 <외래어 표기 용례집(포르투갈어, 네덜란드어, 러시아어)>과 국립국어원 홈페이지(http://korean.go.kr)에서 공개한 외래어 표기 용례 자료 파일에서 인용하였다. “러시아어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지속적으로 미비한 내용을 보충하고 잘못된 정보를 수정하기로 한다.

각 용례는 “러시아어 표기 / (원어 표기) #1: (영어) / 로마자 표기 #2: 한글 표기 #3: 국가”의 순서로 기술되었다.

<A>

Абальян, Борис Георгиевич #1Abal’yan, Boris (Georgievich) #2 아발리얀, 보리스 (게오르기예비치) #3 러시아

Абдулатипов, Рамазан Гаджимурадович #1Abdulatipov, Ramazan Gadzhimuradovich #2 아브둘라티포프, 라마잔 가지무라도비치 #3 러시아

Абдулбасиров, Магомедтагир Меджидович #1Abdulbasirov, Magomedtagir Medzhidovich #2 아브둘바시로프, 마고메타기르 메지도비치 #3 러시아

Абельцев, Сергей Николаевич #1Abeltsev, Sergei Nikolaevich #2 아벨체프, 세르게이 니콜라예비치 #3 러시아

Абрамов, Александр Сергеевич #1Abramov, Aleksandr Sergeevich #2 아브라모프, 알렉산드르 세르게예비치 #3 러시아

Аввакум Петрович #1Avvakum Petrovich #2 아바쿰 페트로비치 #3 러시아

Авдеев, Александр Алексеевич #1Avdeev, Aleksandr Alekseevich #2 아브데예프, 알렉산드르 알렉세예비치 #3 러시아

Аверчев, Владимир Петрович #1Averchev, Vladimir Petrovich #2 아베르체프, 블라디미르 페트로비치 #3 러시아

Аверченко, Аркадий Тимофеевич #1Averchenko, Arkady Timofeevich #2 아베르첸코, 아르카디 티모페예비치 #3 제정 러시아

Аверченко, Владимир Александрович #1Averchenko, Vladimir Aleksandrovich #2 아베르첸코, 블라디미르 알렉산드로비치 #3 러시아

Агапов, Борис Николаевич #1Agapov, Boris Nikolaevich #2 아가포프, 보리스 니콜라예비치 #3 러시아

Агафонов, Валентин Алексеевич #1Agafonov, Valentin Alekseevich #2 아카포노프, 발렌틴 알렉세예비치 #3 러시아

Адамкус, Валдас #1Adamkus, Valdas #2 아담쿠스, 발다스 #3 리투아니아

Адамов, Артюр #1Adamov, Arthur #2 아다모프, 아르튀르[1] #3 제정 러시아 태생

Адамов, Евгений Олегович #1Adamov, Yevgeni Olegovich #2 아다모프, 예브게니 올레고비치 #3 러시아

Адашев, Алексей Фёдорович #1Adashev, Aleksei Fyodorovich #2 아다셰프,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3 제정 러시아

Азаренко, Виктория (Фёдоровна) / Азаранка, Вікторыя (Фёдараўна) <벨라루스어> #1Azaranka, Viktoryya (Fyodarawna) 〔Azarenka, Victoria (Feodorovna)〕 #2 아자란카, 빅토리야 (표다라우나). <러시아어> 아자렌코, 빅토리야 표도로브나. Azarenko, Viktoriya Fyodorovna #3 벨라루스

Азаров, Николай Янович / Азаров, Микола Янович <우크라이나어> #1Azarov, Mykola (Yanovych) #2 아자로프, 미콜라 (야노비치) #3 우크라이나

Азарова, Надежда Борисовна #1Azarova, Nadezhda Borisovna #2 아자로바, 나데즈다 보리소브나 #3 러시아

Акаев, Аскар #1Akayev, Askar A. #2 아카예프, 아스카르 #3 키르기스스탄

Акилов, Акил #1Akilov, Akil #2 아킬로프, 아킬 #3 타지키스탄

Аксаков, Иван Сергеевич #1Aksakov, Ivan Sergeevich #2 악사코프, 이반 세르게예비치 #3 제정 러시아

Аксаков, Сергей Тимофеевич #1Aksakov, Sergey Timofeyevich #2 악사코프, 세르게이 티모페예비치 #3 러시아

Аксёненко, Николай Емелянович #1Aksyonenko, Nikolai Emelyanovich #2 악쇼넨코, 니콜라이 예멜랴노비치 #3 러시아

Аксёнов, Василий (Павлович) #1Aksyonov, Vasily (Pavlovich) #2 악쇼노프, 바실리 (파블로비치) #3 러시아

Алданов, Марк Александрович / Ландау, Марк Александрович <본명> #1Aldanov, Mark Aleksandrovich #2 알다노프, 마르크 알렉산드로비치. <본명> 란다우, M. A. Landau, M. A. #3 러시아

Александр Михайлович #1Aleksandr Mikhailovich #2 알렉산드르 미하일로비치 #3 트베리와 블라디미르의 대공후

Александров, Алексей Иванович #1Aleksandrov, Aleksei Ivanovich #2 알렉산드로프, 알렉세이 이바노비치 #3 러시아

Алексеев, Алексей Алексеевич #1Alekseev, Aleksei Alekseevich #2 알렉세예프, 알렉세이 알렉세예비치 #3 러시아

Алексеев, Евгений Иванович #1Alekseev, Evgeni Ivanovich #2 알렉세예프, 예브게니 이바노비치 #3 러시아

---

[1] “프랑스어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 표기임.

Алексей I Михайлович #1Alexis of Russia / Aleksei I Mikhailovich #2 알렉세이 미하일로비치 #3 제정 러시아

Алексей Петрович #1Aleksei Petrovich #2 알렉세이 페트로비치 #3 제정 러시아

Алексий II #1Aleksiy II #2 알렉시 2 세 #3 러시아

Аленичев, Дмитрий #1Alenichev, Dmitri #2 알레니체프, 드미트리 #3 러시아

Алиев, Гейдар (Алиевич) / Əliyev, Heydər Əlirza oğlu <아제르바이잔어> #1Aliyev, Geidar / Aliyev, Heydar #2 알리예프, 게이다르 #3 아제르바이잔

Алиев, Ильхам (Гейдарович) / Əliyev, İlham Heydər oğlu <아제르바이잔어> #1Aliyev, Ilham #2 알리예프, 일함 #3 아제르바이잔

Алкснис Виктор Имантович #1Alksnis, Viktor Imantovich #2 알크스니스, 빅토르 이만토비치 #3 러시아

Алтухов, Василий Петрович #1Altukhov, Vasily Petrovich #2 알투호프, 바실리 페트로비치 #3 러시아

Алфёров, Жорес И. #1Alfyorov, Zhores I. #2 알표로프, 조레스 #3 러시아

Алханов, Али (Дадашевич) #1Alkhanov, Alu #2 알하노프, 알루 #3 체첸

Амиров, Курбан-Али Амирович #1Amirov, Kurban-Ali Amirovich #2 아미로프, 쿠르반알리 아미로비치 #3 러시아

Андреев, Леонид Николаевич #1Andreev, Leonid Nikolaevich #2 안드레예프, 레오니트 니콜라예비치 #3 러시아

Андреев, Сергей Юрьевич #1Andreev, Sergei Yurievich #2 안드레예프, 세르게이 유리예비치 #3 러시아

Андрей Ярославич #1Andrei Yaroslavich #2 안드레이 야로슬라비치 #3 수즈달 공국

Андропов, Юрий Владимирович #1Andropov, Yurii Vladimirovich #2 안드로포프, 유리 블라디미로비치 #3 소련

Анна Ивановна #1Anna Ivanovna #2 안나 이바노브나 #3 제정 러시아

Анна Леопольдовна #1Anna Leopol’dovna #2 안나 레오폴도브나 #3 제정 러시아

Анохин, Павел Викторович #1Anokhin, Pavel Viktorovich #2 아노힌, 파벨 빅토로비치 #3 러시아

Антонова, Ирина (Александровна) #1Antonova, Irina #2 안토노바, 이리나 #3 러시아

Арбатов, Алексей Георгиевич #1Arbatov, Aleksei Georgievich #2 아르바토프, 알렉세이 게오르기예비치 #3 러시아

Арбузов, Алексей Николаевич #1Arbuzov, Aleksei Nikolaevich #2 아르부조프, 알렉세이 니콜라예비치 #3 소련

Арбузов, Борис Александрович #1Arbuzov, Boris Aleksandrovich #2 아르부조프, 보리스 알렉산드로비치 #3 러시아

Аренский, Антон Степанович #1Arensky, Anton Stepanovich #2 아렌스키, 안톤 스테파노비치 #3 제정 러시아

Архипенко, Александр (Порфирьевич) #1Archipenko, Alexander #2 아르키펭코, 알렉산더[2] #3 제정 러시아 태생

Арцыбашев, Михаил Петрович #1Artsybashev, Mikhail Petrovich #2 아르치바셰프, 미하일 페트로비치 #3 러시아

Астафьев, Виктор Петрович #1Astafyev, Viktor Petrovich #2 아스타피예프, 빅토르 페트로비치 #3 러시아

Атамбаев, Алмазбек (Шаршенович) #1Atambaev, Almazbek (Sharshenovich) #2 아탐바예프, 알마즈베크 (샤르셰노비치) #3 키르기스스탄

Аулов, Александр Петрович #1Aulov, Aleksandr Petrovich #2 아울로프, 알렉산드르 페트로비치 #3 러시아

Афанасьев, Евгений Владимирович #1Afanasiev, Evgeni Vladimirovich #2 아파나시예프, 예브게니 블라디미로비치 #3 러시아

Ахмадулина, Белла Ахатовна #1Akhmadulina Bella Akhatovna #2 아흐마둘리나, 벨라 아하토브나 #3 러시아

Ахматова, Анна Андреевна #1Akhmatova, Anna Andreevna #2 아흐마토바, 안나 안드레예브나. <본명> 안나 고렌코(Anna Gorenko). #3 러시아

Ашкенази, Владимир (Давидович) #1Ashkenazi, Vladimir #2 아시케나지, 블라디미르 #3 러시아

<Б>

Бабель, Исаак Эммануилович #1Babel, Isaak Emmanuilovich #2 바벨, 이사크 옘마누일로비치 #3 소련

Бабичев, Владимир #1Babychev, Vladimir #2 바비체프, 블라디미르 #3 러시아

Багрицкий, Эдуард Георгиевич #1Bagritskii, Eduard Georgievich #2 바그리츠키, 예두아르트 게오르기예비치 #3 러시아

Баженов, Василий Иванович #1Bazhenov, Vasilii Ivanovich #2 바제노프, 바실리 이바노비치 #3 러시아

Бакиев, Курманбек (Салиевич) #1Bakiyev, Kurmanbek #2 바키예프, 쿠르만베크 (살리예비치) #3 키르기스스탄

Бакрадзе, Давид (Шукриевич) / ბაქრაძე, დავით <조지아어> #1Bakradze, Davit #2 바크라제, 다비트 #3 조지아

---

[2] “영어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 표기임.

Бакст, Леон Николаевич #1Bakst, Leon Nikolaevich #2 박스트, 레온 니콜라예비치 #3 러시아

Бакунин, Михаил Александрович #1Bakunin, Mikhail Aleksandrovich #2 바쿠닌, 미하일 알렉산드로비치 #3 러시아

Балакирев, Милий Алексеевич #1Balakirev, Milii Alekseevich #2 발라키레프, 밀리 알렉세예비치 #3 러시아

Баланчин, Джордж / Баланчивадзе, Георгий (Мелитонович) / ბალანჩივაძე, გიორგი <조지아어> #1Balanchin, George #2 발란친, 게오르게 #3 제정러시아 태생

Балгимбаев, Нурлан (Утебович) / Балғымбаев, Нұрлан Өтепұлы <카자흐어> #1Balgimbayev, Nurlan (Utebovich) #2 발김바예프, 누를란 (우테보비치) #3 카자흐스탄

Бальмонт, Константин Дмитриевич #1Bal'mont, Konstantin Dmitrievich #2 발몬트, 콘스탄틴 드미트리예비치 #3 러시아

Баратынский, Евгений Абрамович #1Baratynski, Evgenii Abramovich #2 바라틴스키, 예브게니 아브라모비치 #3 러시아

Бартольд, Василий Владимирович #1Bartol'd, Vasilii Vladimirovich #2 바르톨트, 바실리 블라드미로비치 #3 러시아

Баршай, Рудольф (Борисович) #1Barshai, Rudol'f (Borisovich) #2 바르샤이, 루돌프 (보리소비치) #3 러시아 출신

Басин, Ефим (Владимирович) #1Basin, Yefim (Vladimirovich) #2 바신, 예핌 (블라디미로비치) #3 러시아

Басов, Николай Геннадьевич #1Basov, Nikolai Gennadijevich #2 바소프, 니콜라이 겐나디예비치 #3 러시아

Бату / Батый #1Batu #2 바투 #3 킵차크 한국(汗國)

Батурин, Юрий Михайлович #1Baturin, Yuri Mikhailovich #2 바투린, 유리 미하일로비치 #3 러시아

Батюшков, Константин Николаевич #1Batyushkov, Konstantin Nikolaevich #2 바튜시코프, 콘스탄틴 니콜라예비치 #3 러시아

Бахтин, Михаил Михайлович #1Bakhtin, Mikhail Mikhailovich #2*바흐친, 미하일 미하일로비치 #3 러시아

Бедный, Демьян / Придворов, Ефим Алексеевич <본명> #1Bedny, Dem'yan #2 베드니, 데미얀. <본명> 프리드보로프, 예핌 알렉세예비치. Pridvorov, Efim Alekseevich #3 러시아

Безбородов, Николай Максимович #1Bezborodov, Nikolai Maksimovich #2 베즈보로도프, 니콜라이 막시모비치 #3 러시아

Белинский, Виссарион Григорьевич #1Belinskii, Vissarion Grigorievich #2 벨린스키, 비사리온 그리고리예비치 #3 러시아

Беллинсгаузен, Фаддей Фаддеевич #1Bellingshausen, Fabian Gottlieb von #2 벨링스하우젠, 파비안 고틀리프 폰. <러시아어> Bellinsgauzen, Faddei Faddeevich 벨린스가우젠, 파데이 파데예비치 #3 러시아

Белый, Андрей / Бугаев, Борис Николаевич #1Bely, Andrei #2 벨리, 안드레이. <본명> 부가예프, 보리스 니콜라예비치. Bugaev, Boris Nikolaevich #3 러시아

Белый, Михаил (Михайлович) #1Bely, Mikhail (Mikhailovich) #2 벨리, 미하일 (미하일로비치) #3 러시아

Бенуа, Александр Никлаевич #1Benua, Aleksandr Nikolaevich #2 베누아, 알렉산드르 니콜라예비치 #3 러시아

Бердымухамедов, Гурбангулы (Мяликгулыевич) #1Berdymukhammedov, Gurbanguly (Myalikgulyyevich) #2 베르디무함메도프, 구르반굴리 (먈리크굴리예비치) #3 투르크메니스탄

Бердяев, Николай Александрович #1Berdyaev, Nikolai Aleksandrovich #2 베르댜예프, 니콜라이 알렉산드로비치 #3 러시아

Березовский, Борис (Абрамович) #1Berezovsky, Boris (Abramovich) #2 베레좁스키, 보리스 (아브라모비치) #3 러시아

Берзиньш, Андрис #1Berzinš, Andris #2 베르진시, 안드리스 #3 라트비아

Беринг, Витус (Ионассен) #1Bering, Vitus (Jonassen) #2 베링, 비투스 (요나센) #3 덴마크 태생의 러시아 탐험가

Берия, Лаврентий Павлович #1Beriya, Lavrentii Pavlovich #2 베리야, 라브렌티 파블로비치 #3 소련

Берлявски-Невельсон, Луиза #1Nevelson, Louise #2 니벨슨, 루이즈[3] #3 소련 태생

Бесчастных, Владимир #1Beschastnykh, Vladimir #2 베스차스트니흐, 블라디미르 #3 러시아

Бйков, Владимир Иванович #1Bykov, Vladimir Ivanovich #2 비코프, 블라디미르 이바노비치 #3 러시아

Биндюков, Николай Гаврилович #1Bindyukov, Nikolai Gavrilovich #2 빈듀코프, 니콜라이 가브릴로비치 #3 러시아

Блаватская, Елена Петровна #1Blavatsky, Helena Petrovna #2 블라바츠키, 헬레나 페트로브나 #3 우크라이나 태생

Блок, Александр Александрович #1Blok, Aleksandr Aleksandrovich #2 블로크, 알렉산드르 알렉산드로비치 #3 러시아

Блюллов, Карл Павлович #1Bryullov, Karl Pavlovich #2 브률로프, 카를 파블로비치 #3 러시아

[3] “영어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 표기임.

Богалий-Титовец, Анна (Ивановна) #1Bogaliy-Titovets, Anna (Ivanovna) #2 보갈리티토베츠, 안나 (이바노브나) #3 러시아

Боголюбский, Андрей Юрьевич #1Bogolyubsky, Andrei Yurievich #2 보골륩스키, 안드레이 유리예비치 #3 블라디미르 수즈달 공국

Большаков, Алексей Алексеевич #1Bolshakov, Aleksey (Alekseevich) #2 볼샤코프, 알렉세이 (알렉세예비치) #3 러시아

Бондарчук, Сергей Фёдорович #1Bondarchuk, Sergei Fyodorovich #2 본다르추크, 세르게이 표도로비치 #3 소련

Боннэр, Елена Георгиевна #1Bonner, Elena (Georgievna) #2 본네르, 옐레나 (게오르기예브나) #3 러시아

Бордюжа, Николай #1Bordyuzha, Nikolai #2 보르듀자, 니콜라이 #3 러시아

Бородин, Александр (Порфирьевич) #1Borodin, Aleksandr (Porfirevich) #2 보로딘, 알렉산드르 (포르피리예비치) #3 러시아

Ботка, Николай Петрович #1Botka, Nikolai Petrovich #2 봇카, 니콜라이 페트로비치 #3 러시아

Брагиш, Дмитрий (Петрович) #1Braghis, Dumitru #2 브라기슈, 두미트루 #3 몰도바

Бразаускас, Альгирдас (Миколас) #1Brazauskas, Algirdas #2 브라자우스카스, 알기르다스 #3 리투아니아

Брежнев, Леонид Ильич #1Brezhnev, Leonid Il'ich #2 브레즈네프, 레오니트 일리치 #3 소련

Брин, Сергей (Михайлович) #1Brin, Sergey #2 브린, 세르게이 #3 러시아 출신

Бродский, Иосиф Александрович #1Brodsky, Joseph #2 브로드스키, 조지프.[4] <본명> Brodskii, Iosif Aleksandrovich. 브롯스키, 이오시프 알렉산드로비치 #3 러시아 태생

Брусникин, Николай Юрьевич #1Brusnikin, Nikolai Yurievich #2 브루스니킨, 니콜라이 유리예비치 #3 러시아

Брынцалов, Владимир Алексеевич #1Bryntsalov, Vladimir Alekseevich #2 브린찰로프, 블라디미르 알렉세예비치 #3 러시아

Брюсов, Валерий Яковлевич #1Bryusov, Valerii Yakovlevich #2 브류소프, 발레리 야코블레비치 #3 러시아

Бубка, Сергей (Назарович) / Бубка, Сергій (Назарович) <우크라이나어> #1Bubka, Sergei #2 붑카, 세르게이 #3 우크라이나

Будажапов, Сергей Пурбуевич #1Budazhapov, Sergei Purbuevich #2 부다자포프, 세르게이 푸르부예비치 #3 러시아

---

[4] "영어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 표기임.

Бударин, Николай (Михайлович) #1Budarin, Nikolai #2 부다린, 니콜라이 #3 러시아

Бузникин, Максим #1Buznikin, Maxim #2 부즈니킨, 막심 #3 러시아

Булаев, Николай Иванович #1Bulaev, Nikolai Ivanovich #2 불라예프, 니콜라이 이바노비치 #3 러시아

Булатов, Виктор#1Bulatov, Victor #2 불라토프, 빅토르 #3 러시아

Булгак, Владимир Борисович #1Bulgak, Vladimir Borisovich #2 불가크, 블라디미르 보리소비치 #3 러시아

Булгаков, Михаил Афанасьевич #1Bulgakov, Mikhail Afanasievich #2 불가코프, 미하일 아파나시예비치 #3 러시아

Булгаков, Сергей Николаевич #1Bulgakov, Sergei Nikolaevich #2 불가코프, 세르게이 니콜라예비치 #3 러시아

Булганин, Николай Александрович #1Bulganin, Nikolai Aleksandrovich #2 불가닌, 니콜라이 알렉산드로비치 #3 소련

Бунин, Иван Алексеевич #1Bunin, Ivan Alekseevich #2 부닌, 이반 알렉세예비치 #3 러시아

Бунин, Станислав (Станиславович) #1Bunin, Stanislav (Stanislavovich) #2 부닌, 스타니슬라프 (스타니슬라보비치) #3 러시아

Бурбулис, Геннадий (Эдуардович) #1Burbulis, Gennadii (Eduardovich) #2 부르불리스, 겐나디 (예두아르도비치) #3 러시아

Бурджанадзе, Нино (Анзоровна) / ბურჯანაძე, ნინო <조지아어> #1Burjanadze, Nino #2 부르자나제, 니노 #3 조지아

Бут, Виктор (Анатольевич) #1Bout, Viktor (Anatolyevich) #2 부트, 빅토르 (아나톨리예비치) #3 러시아

Буткявичюс, Альгирдас #1Butkevičius, Algirdas #2*부트케비추스, 알기르다스 #3 리투아니아

Бутлеров, Александр Михайлович #1Butlerov, Aleksandr Mikhailovich #2 부틀레로프, 알렉산드르 미하일로비치 #3 러시아

Бухарин, Николай Иванович #1Bukharin, Nikolai Ivanovich #2 부하린, 니콜라이 이바노비치 #3 소련

Бэр, Карл Эрнст фон #1Baer, Karl Ernst von #2 베어, 카를 에른스트 폰[5] #3 러시아 태생

<B>

Вавилов, Николай Иванович #1Vavilov, Nikolai Ivanovich #2 바빌로프, 니콜라이 이바노비치 #3 소련

[5] “독일어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 표기임.

Ваксман, Зельман Абрахама #1Waksman, Selman Abraham #2 왁스먼, 셀먼 에이브러햄 #3 우크라이나 태생

Варга, Евгений Самуилович #1Varga, Evgenii Samuilovich #2 바르가, 예브게니 사무일로비치 #3 헝가리 태생의 소련 경제학자

Василевская, Ванда Львовна #1Vasilevskaya, Vanda L'vovna #2 바실렙스카야, 반다 리보브나 #3 폴란드 태생의 소련 작가

Василий II Васильевич Тёмный #1Vasily II of Moscow / Vasilii II Vasilievich Tyomny #2 바실리 바실리예비치 툄니 2 세 #3 모스크바의 대공

Василий III Иванович #1Vasili III of Russia / Vasilii III Ivanovich #2 바실리 이바노비치 3 세 #3 블라디미르와 모스크바의 대공후

Василий IV Шуйский / Василий Иванович Шуйский #1Vasili IV of Russia / Vasilii Ivanovich Shuisky #2 바실리 이바노비치 슈이스키 #3 제정 러시아

Василий I Дмитриевич #1Vasily I of Moscow / Vasilii I Dmitrievich #2 바실리 드미트리예비치 #3 블라디미르 대공국

Василий Ярославич #1Vasily of Kostroma / Vasilii Yaroslavich #2 바실리 야로슬라비치 #3 블라디미르의 대공후

Васильев, Владимир (Викторович) #1Vasiliev, Vladimir (Viktorovich) #2 바실리예프, 블라디미르 (빅토로비치) #3 러시아

Вассиан Кошка #1Vassian Koshka #2 바시안 코시카 #3 러시아

Вассиан Патрикеев #1Vassian Patrikeev #2 바시안 파트리케예프 #3 러시아

Вахтангов, Евгений #1Vakhtangov, Evgenii #2 바흐탄고프, 예브게니 #3 소련

Вебер, Карл Иванович #1Veber, Karl Ivanovich #2 베베르, 카를 이바노비치 #3 제정 러시아

Венгеров, Максим (Александрович) #1Vengerov, Maxim (Aleksandrovich) #2 벤게로프, 막심 (알렉산드로비치) #3 러시아-이스라엘

Вересаев, Викентий #1Veresaev, Vikenti #2 베레사예프, 비켄티 #3 소련

Верещетин, Владлен (Степанович) #1Vereshchetin, Vladlen (Stepanovich) #2 베레셰틴, 블라들렌 (스테파노비치) #3 러시아

Вертов, Дзига #1Vertov, Dziga #2 베르토프, 지가 #3 소련

Вертов, Константин Владимирович #1Vertov, Konstantin Vladimirovich #2 베르토프, 콘스탄틴 블라디미로비치 #3 러시아

Вике-Фрейберга, Вайра #1Viķe-Freiberga, Vaira #2 비케프레이베르가, 바이라 #3 라트비아

Виктор, Хлыстун #1Viktor, Khlystun #2 빅토르, 흘리스툰 #3 러시아

Виноградов, Иван Матвеевич #1Vinogradov, Ivan Matreevich #2 비노그라도프, 이반 마트베예비치 #3 소련

Виноградов, Павел Гаврилович #1Vinogradoff, Paul[6] Gavrilovich #2 비노그라도프, 폴 가브릴로비치 #3 제정 러시아 태생

Висковатый, Иван Михайлович #1Viskovaty, Ivan Mikhailovich #2 비스코바티, 이반 미하일로비치 #3 제정 러시아

Витте, Сергей Юлиевич #1Vitte, Sergei Yulievich #2 비테, 세르게이 율리예비치 #3 제정 러시아

Владимир I Святославич #1Vladimir Sviatoslavich the Great / Vladimir I #2 블라디미르 1 세 #3 키예프 대공국

Владимир Всеволодович Мономах II #1Vladimir II Monomakh / Vladimir Vsevolodovich Monomakh #2 블라디미르 프세볼로도비치 모노마흐 2 세 #3 키예프의 대공후

Владиславлев, Александр Павлович #1Vladislavlev, Aleksandr Pavlovich #2 블라디슬라블레프, 알렉산드르 파블로비치 #3 러시아

Внуков, Константин #1Vnukov, Konstantin #2 브누코프, 콘스탄틴 #3 러시아

Внуков, Константин (Васильевич) #1Vnukov, Konstantin (Vasil'evich) #2 브누코프, 콘스탄틴 (바실리예비치) #3 러시아

Воевода, Алексей (Иванович)#1Voevoda, Alexey (Ivanovich) #2 보예보다, 알렉세이 (이바노비치) #3 러시아

Воеводский, Владимир #1Voevodsky, Vladimir #2 보예보츠키, 블라디미르 #3 러시아 출신

Вознесенский, Андрей Андреевич #1Voznesensky, Andrei Andreevich #2 보즈네센스키, 안드레이 안드레예비치 #3 소련

Волков, Андрей Романович #1Volkov, Andrei Romanovich #2 볼코프, 안드레이 로마노비치 #3 러시아

Волков, Фёдор Григорьевич #1Volkov, Fyodor Grigorievich #2 볼코프, 표도르 그리고리예비치 #3 러시아

Володин, Вячеслав Викторович #1Volodin, Byacheslav Viktorovich #2 볼로딘, 뱌체슬라프 빅토로비치 #3 러시아

Волосожар, Татьяна (Андреевна) / Волосожар, Тетяна (Андріївна) <우크라이나어> #1Volosozhar, Tetyana (Andriyivna) #2 볼로소자르, 테탸나 (안드리이브나) #3 우크라이나

Волочкова, Анастасия (Юрьевна) #1Volochkova, Anastasia #2 볼로치코바, 아나스타샤 #3 러시아

Воронин, Владимир (Николаевич) #1Voronin, Vladimir #2 보로닌, 블라디미르 #3 몰도바

---

[6] 영어 이름에 따라 표기함.

Воронцов, Юлий М. #1Vorontsov, Yuli M. #2 보론초프, 율리 #3 러시아
Ворошилов, Климент Ефремович #1Voroshilov, Kliment Efremovich #2 보로실로프, 클리멘트 예프레모비치 #3 소련
Врангель, Пётр Николаевич #1Wrangel, Pyotr Nikolaevich #2 브란겔, 표트르 니콜라예비치 #3 제정 러시아
Всеволод I Ярославич #1Vsevolod I of Kiev / Vsevolod I Yaroslavich #2 프세볼로트 야로슬라비치 1 세 #3 키예프의 대공후
Всеволод II Олегович #1Vsevolod II of Kiev / Vsevolod II Olegovich #2 프세볼로트 올레고비치 2 세 #3 체르니고프 공후, 키예프의 대공후
Всеволод Юрьевич Большое Гнездо / Всеволод III Юрьевич #1Vsevolod the Big Nest / Vsevolod III Yurievich #2 프세볼로트 유리예비치 3 세 #3 블라디미르의 대공후
Высоцкий, Владимир Семёнович #1Vysotsky, Vladimir Semyonovich #2 비소츠키, 블라디미르 세묘노비치 #3 소련
Вышинский, Андрей Януарьевич #1Vyshinskii, Andrey Yanuar'evich #2 비신스키, 안드레이 야누아리예비치 #3 소련

<Г>

Габо, Наум #1Gabo, Naum #2 가보, 나움 #3 제정 러시아 태생
Габуния, Георги #1Gabuniya, Georgi #2 가부니야, 게오르기 #3 러시아
Гагарин, Юрий Алексеевич #1Gagarin, Yurii Alekseevich #2 가가린, 유리 알렉세예비치 #3 소련
Газизуллин, Фарит Рафикович #1Gazizullin, Farit Rafikovich #2 가지줄린, 파리트 라피코비치 #3 러시아
Гайдар, Аркадий Петрович #1Gaidar, Arkadii Petrovich #2 가이다르, 아르카디 페트로비치 #3 소련
Гайдар, Егор (Тимурович) #1Gaidar, Yegor (Timurovich) #2 가이다르, 예고르 (티무로비치) #3 러시아
Галушкин, Василий Иванович #1Galushkin, Vasily Ivanovich #2 갈루시킨, 바실리 이바노비치 #3 러시아
Гамзатова, Хаписат Магомедовна #1Gamzatova, Khapisat Magomedovna #2 감자토바, 하피사트 마고메도브나 #3 러시아
Гапон, Георгий Аполлонович #1Gapon, Georgii Apollonovich #2 가폰, 게오르기 아폴로노비치 #3 제정 러시아
Гаршин, Всеволод Михайлович #1Garshin, Vsevolod Mikhailovich #2 가르신, 프세볼로트 미하일로비치 #3 제정 러시아
Гачинский, Артур (Андреевич) #1Gachinskii, Artur (Andreevich) #2 가친스키, 아르투르 (안드레예비치) #3 러시아

Гейм, Андрей (Константинович) #1Geim, Andre #2 가임, 안드레. <러시아어> 게임, 안드레이 (콘스탄티노비치) #3 러시아 출신

Гельфанд, Израиль Моисеевич / Гельфанд Ізраїль Мойсейович <우크라이나어> #1Gel'fand, Israel' Moiseevich #2 겔판트, 이즈라일 모이세예비치 #3 러시아

Генералов, Сергей Владимирович #1Generalov, Sergei Vladimirovich #2 게네랄로프, 세르게이 블라디미로비치 #3 러시아

Генералов, Сергей Всеволодович #1Generalov, Sergei Vsevolodovich #2 게네랄로프, 세르게이 프세볼로도비치 #3 러시아

Герасимов, Александр Михайлович #1Gerasimov, Aleksandr Mikhailovich #2 게라시모프, 알렉산드르 미하일로비치 #3 소련

Герасимов, Иннокентий Петрович #1Gerasimov, Innokentii Petrovich #2 게라시모프, 인노켄티 페트로비치 #3 소련

Гермоген #1Germogen #2 게르모겐 #3 카자흐 출신

Герцен, Александр Иванович #1Gertsen, Aleksandr Ivanovich #2 게르첸, 알렉산드르 이바노비치 #3 제정 러시아

Гесс, Герман Иванович #1Hess, Germain Henri #2 헤스, 게르마인 헨리 #3 스위스 태생의 제정 러시아 화학자

Гилельс, Эмиль Григорьевич #1Gilel's, Emil' Grigor'evich #2 길렐스, 에밀 그리고리예비치 #3 소련

Гинзбург, Виталий (Лазаревич) #1Ginzburg, Vitaly (Lazarevich) #2 긴즈부르크, 비탈리 (라자레비치) #3 러시아

Гитри, Саша #1Gitry, Sacha #2 기트리, 사샤 #3 제정 러시아 태생

Гладков, Фёдор Васильевич #1Gladkov, Fyodor Vasilievich #2 글랏코프, 표도르 바실리예비치 #3 소련

Глазунов, Александр Константинович #1Glazunov, Aleksandr Konstantinovich #2 글라주노프, 알렉산드르 콘스탄티노비치 #3 제정 러시아

Глазунов, Илья Сергеевич #1Glazunov, Il'ya Sergeevich #2 글라주노프, 일리야 세르게예비치 #3 러시아

Глинка, Михаил Иванович #1Glinka, Mikhail Ivanovich #2 글린카, 미하일 이바노비치 #3 제정 러시아

Глинская, Елена Васильевна #1Glinskaya, Yelena Vasilyevna #2 글린스카야, 옐레나 바실리예브나 #3 제정 러시아.

Гнесин, Михаил Фабианович #1Gnesin, Mikhail Fabianovich #2 그네신, 미하일 파비아노비치 #3 러시아

Гоголь, Николай Васильевич #1Gogol', Nikolai Vasilievich #2 고골, 니콜라이 바실리예비치 #3 제정 러시아

Годунов, Борис (Фёдорович) #1Godunov, Boris #2 고두노프, 보리스 #3 제정 러시아

Годунов, Фёдор Борисович #1Godunov, Fyodor Borisovich #2 고두노프, 표도르 보리소비치 #3 제정 러시아

Голдман, Эмма #1Goldmann, Emma #2 골드만, 엠마 #3 소련

Головлев, Владимир Иванович #1Golovlev, Vladimir Ivanovich #2 골로블레프, 블라디미르 이바노비치 #3 러시아

Гончар, Николай Николаевич #1Gonchar, Nikolai Nikolaevich #2 곤차르, 니콜라이 니콜라예비치 #3 러시아

Гончаров, Иван Александрович #1Goncharov, Ivan Aleksandrovich #2 곤차로프, 이반 알렉산드로비치 #3 제정 러시아

Горбачёв, Михаил Сергеевич #1Gorbachyov, Mikhail Sergeevich #2 고르바초프, 미하일 세르게예비치 #3 소련

Горбачёва, Раиса Максимовна #1Gorbachyova, Raisa Maksimovna #2 고르바초바, 라이사 막시모브나 #3 소련

Горки, Аршиль #1Gorky, Arshile #2 고키, 아실 #3 아르메니아 태생

Горовиц, Владимир (Самойлович) #1Horowitz, Vladimir #2 호로비츠, 블라디미르 #3 소련 태생

Горчаков, Александр Михайлович #1Gorchakov, Aleksandr Mikhailovich #2 고르차코프, 알렉산드르 미하일로비치 #3 제정 러시아의 외교관, 정치가(1798~1883). #4 표준

Горячева, Светлана Петровна #1Goryacheva, Svetlana Petrovna #2 고랴체바, 스베틀라나 페트로브나 #3 러시아

Гостев, Руслан Георгиевич #1Gostev, Ruslan Georgievich #2 고스테프, 루슬란 게오르기예비치 #3 러시아

Грачев, Владимир Александрович #1Grachev, Vladimir Aleksandrovich #2 그라체프, 블라디미르 알렉산드로비치 #3 러시아

Грачев, Иван Дмиртиевич #1Grachev, Ivan Dmitrievich #2 그라체프, 이반 드미트리예비치 #3 러시아

Греков, Борис Дмитриевич #1Grekov, Boris Dmitrievich #2 그레코프, 보리스 드미트리예비치 #3 소련

Гречаная, Зинаида Петровна #1Greceanîi, Zinaida #2 그레체아느이, 지나이다. <러시아어> Grechanaya, Zinaida Petrovna 그레체나야, 지나이다 페트로브나 #3 몰도바

Грибаускайте, Даля #1Grybauskaitė, Dalia #2 그리바우스카이테, 달리아 #3 리투아니아

Грибоедов, Александр Сергеевич #1Griboedov, Aleksandr Sergeevich #2 그리보예도프, 알렉산드르 세르게예비치 #3 제정 러시아

Григорович, Юрий Николаевич #1Grigorovich, Jurij Nikolajevich #2 그리고로비치, 유리 니콜라예비치 #3 러시아

Грин, Александр Степанович #1Grin, Aleksandr Stepanovich #2 그린, 알렉산드르 스테파노비치 #3 폴란드계의 소련 소설가

Гришин, Виктор Иванович #1Grishin, Viktor Ivanovich #2 그리신, 빅토르 이바노비치 #3 러시아

Громыко, Анрей Андреевич #1Gromyko, Andrei Andreevich #2 그로미코, 안드레이 안드레예비치 #3 소련

Гроссман, Василий Семёнович #1Grossman, Vasilii Semyonovich #2 그로스만, 바실리 세묘노비치 #3 러시아

Грызлов, Борис #1Gryzlov, Boris #2 그리즐로프, 보리스 #3 러시아

Гумилёв, Николай Степанович #1Gumilyov, Nikolai Stepanovich #2 구밀료프, 니콜라이 스테파노비치 #3 러시아

Гурвич, Георгий (Давидович) #1Gurvitch, Georges #2 귀르비치, 조르주[7] #3 제정 러시아 태생

Гургенидзе, Владимир (Ираклиевич) / გურგენიძე, ვლადიმერ [ლადო] <조지아어> #1Gurgenidze, Vladimer “Lado” #2 구르게니제, 블라디메르 “라도” #3 조지아 총리

Гурджиев, Георгий Иванович #1Gurdzhiev, Georgii Ivanovich #2 구르지예프, 게오르기 이바노비치 #3 소련

Гуров, Александр Иванович #1Gurov, Aleksandr Ivanovich #2 구로프, 알렉산드르 이바노비치 #3 러시아

Гусев, Ролан #1Gusev, Rolan #2 구세프, 롤란 #3 러시아

Гусенков, Владимир Петрович #1Gusenkov, Vladimir Petrovich #2 구센코프, 블라디미르 페트로비치 #3 러시아

Густов, Вадим Анатольевич #1Gustov, Vadim Anatolievich #2 구스토프, 바딤 아나톨리예비치 #3 러시아

<Д>

Давыдов, Олег (Дмитриевич) #1Davydov, Oleg (Dmitriyevich) #2 다비도프, 올레크 (드미트리예비치) #3 러시아

Даев, Вячеслав #1Daev, Vyacheslav #2 다예프, 뱌체슬라프 #3 러시아

Даль, Владимир Иванович #1Dal, Vladimir Ivanovich #2 달, 블라디미르 이바노비치 #3 제정 러시아

Даниил #1Daniil #2 다닐 #3 모스크바와 러시아의 총대주교

---

[7] “프랑스어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 표기임.

Даниил Александрович #1Daniil Aleksandrovich #2 다닐 알렉산드로비치 #3 모스크바의 대공후

Даниил Чёрный #1Daniil Chyorny #2 다닐 초르니 #3 러시아

Данилевский, Николай Яковлевич #1Danilevskii, Nikolai Yakovlevich #2 다닐렙스키, 니콜라이 야코블레비치 #3 제정 러시아

Данченко, Борис Иванович #1Danchenko, Boris Ivanovich #2 단첸코, 보리스 이바노비치 #3 러시아

Даргомыжский, Александр Сергеевич #1Dargomyzhskii, Aleksandr Sergeevich #2 다르고미시스키, 알렉산드르 세르게예비치 #3 제정 러시아

Дашкова, Екатерина Романовна #1Dashkova, Ekaterina Romanovna #2 다시코바, 예카테리나 로마노브나 #3 러시아

Деборин, Абрам Моисеевич #1Deborin, Abram Moiseevich #2 데보린, 아브람 모이세예비치 #3 소련

Дементьева, Наталья Леонидовна #1Dementyeva, Natalya Leonidovna #2 데멘티예바, 나탈리야 레오니도브나 #3 러시아

Деникин, Антон Иванович #1Denikin, Anton Ivanovich #2 데니킨, 안톤 이바노비치 #3 소련

Державин, Гаврила Романович #1Derzhavin, Gavrila Romanovich #2 데르자빈, 가브릴라 로마노비치 #3 제정 러시아

Десятников, Василий Алексеевич #1Desyatnikov, Vasily Alekseevich #2 데샤트니코프, 바실리 알렉세예비치 #3 러시아

Дзержинский, Феликс Эдмундович #1Dzerzhinskii, Feliks Edmundovich #2 제르진스키, 펠릭스 예드문도비치 #3 소련

Дмитриева, Оксана Генриховна #1Dmitrieva, Oksana Genrikhovna #2 드미트리예바, 옥사나 겐리호브나 #3 러시아

Дмитриева, Татьяна #1Dmitrieva, Tatyana #2 드미트리예바, 타티야나 #3 러시아

Дмитрий Александрович #1Dmitri Aleksandrovich #2 드미트리 알렉산드로비치 #3 노브고로드의 공후와 블리디미르의 대공후

Добржанский, Феодосий (Григорьевич) #1Dobzhansky, Theodosius #2 도브잔스키, 테오도시우스[8] #3 소련 태생

Добролюбов, Николай Александрович #1Dobrolyubov, Nikolai Aleksandrovich #2 도브롤류보프, 니콜라이 알렉산드로비치 #3 제정 러시아

[8] 영어 이름에 따라 표기함.

Добрынин, Анатолий (Фёдорович) #1Dobrynin, Anatoly (Fyodorovich) #2 도브리닌, 아나톨리 (표도로비치) #3 러시아

Добрынин, Анатолий Фёдрович #1Dobrynin, Anatoly Fyodorovich #2 도브리닌, 아나톨리 표도로비치 #3 소련

Довженко, Александр (Петрович) #1Dovzhenko, Aleksandr (Petrovich) #2 도브젠코, 알렉산드르 (페트로비치) #3 소련

Домнина, Оксана (Александровна) #1Domnina, Oksana (Alexandrovna) #2 돔니나, 옥사나 (알렉산드로브나) #3 러시아

Дондуков, Александр Николаевич #1Dondukov, Aleksandr Nikolaevich #2 돈두코프, 알렉산드르 니콜라예비치 #3 러시아

Донской, Дмитрий Иванович #1Donskoy, Dmitri Ivanovich #2 돈스코이, 드미트리 이바노비치 #3 모스크바와 블라디미르의 대공후

Достоевский, Фёдор Михайлович #1Dostoevskii, Fyodor Mikhailovich #2 도스토옙스키, 표도르 미하일로비치 #3 제정 러시아

Дроздов, Юрий #1Drozdov, Yuri #2 드로즈도프, 유리 #3 러시아

Дубинин, Сергей К. #1Dubinin, Sergei K. #2 두비닌, 세르게이 #3 러시아

Дубов, Владимир Матвеевич #1Dubov, Vladimir Matveevich #2 두보프, 블라디미르 마트베예비치 #3 러시아

Дудаев, Джохар Мусаевич #1Dudayev, Dzhokhar (Musayevich) #2 두다예프, 조하르 (무사예비치) #3 체첸

Дурова, Надежда Андреевна #1Durova, Nadezhda Andreevna #2 두로바, 나데즈다 안드레예브나 #3 제정 러시아

Душевина, Вера (Евгеньевна) #1Dushevina, Vera (Yevgenyevna) #2 두셰비나, 베라 (예브게니예브나) #3 러시아

Дьяченко, Татьяна (Борисовна) #1Diyachenko, Tatiyana (Borisovna), #2 디야첸코, 타티야나 (보리소브나) #3 러시아

Дягилев, Сергей Павлович #1Dyagilev, Sergei Pavlovich #2 댜길레프, 세르게이 파블로비치 #3 제정 러시아

<E>

Евтушенко, Евгений Александрович #1Evtushenko, Yevgeny Aleksandrovich #2 옙투셴코, 예브게니 알렉산드로비치 #3 러시아

Егоров, Владимир #1Egorov, Vladimir #2 예고로프, 블라디미르 #3 러시아

Екатерина #1Ekaterina #2 예카테리나 #3 제정 러시아

Елизавета Петровна #1Elizaveta Petrovna #2 옐리자베타 페트로브나 #3 제정 러시아

Ельцин, Борис Николаевич #1Yel’tsin, Boris Nikolaevich #2 옐친, 보리스 니콜라예비치 #3 러시아

Ермак, Тимофеевич #1Ermak, Timofeevich #2 예르마크, 티모페예비치 #3 제정 러시아 카자흐의 수령

Ермошин, Владимир Васильевич / Ярмошын, Уладзімір (Васілевіч) <벨라루스어> #1Yermoshin, Vladimir (Vasilevich) #2 예르모신, 블라디미르 #3 벨라루스

Есенин, Сергей Александрович #1Esenin, Sergei Aleksandrovich #2 예세닌, 세르게이 알렉산드로비치 #3 제정 러시아의 시인(1895~1925). #4 표준

Ехануров, Юрий Иванович / Єхануров, Юрій (Іванович) <우크라이나어> #1Yekhanurov, Yury #2 예하누로프, 유리 #3 우크라이나

<Ж>

Жданов, Андрей Александрович #1Zhdanov, Andrei Aleksandrovich #2 즈다노프, 안드레이 알렉산드로비치 #3 소련

Жданов, Юрий (Андреевич) #1Zhdanov, Yurii (Andreevich) #2 즈다노프, 유리 (안드레예비치) #3 러시아

Жириновский, Владимир В. #1Zhirinovsky, Vladimir V. #2 지리놉스키, 블라디미르 #3 러시아

Жукеев, Тулеген #1Zhukeyev, Tulegen T. #2 주케예프, 툴레겐 #3 카자흐스탄

Жуков, Георгий Константинович #1Zhukov, Georgii Konstantinovich #2 주코프, 게오르기 콘스탄티노비치 #3 소련

Жуковский, Василий Аднреевич #1Zhukovskii, Vasilii Andreevich #2 주콥스키, 바실리 안드레예비치 #3 제정 러시아

Жуковский, Николай Егорович #1Zhukovsky, Nikolai Egorovich #2 주콥스키, 니콜라이 예고로비치 #3 제정 러시아

<З>

Забелин, Иван Егорович #1Zabelin, Ivan Egorovich #2 자벨린, 이반 예고로비치 #3 제정 러시아

Заверюха, Александр К. #1Zaveryukha, Aleksandr K. #2 자베류하, 알렉산드르 #3 러시아

Задорнов, Михаил Михайлович #1Zadornov, Mikhail Mikhailovich #2 자도르노프, 미하일 미하일로비치 #3 러시아

Зайков, Лев. Н. #1Zaikov, Lev N. #2 자이코프, 레프 #3 소련

Зайцева, Ольга (Алексеевна) #1Zaitseva, Olga (Alekseyevna) #2 자이체바, 올가 (알렉세예브나) #3 러시아

Западнова, Наталья Леонидова #1Zapadnova, Natal'ya Leonidova #2 자파드노바, 나탈리야 레오니도바 #3 러시아

Засулич, Вера Ивановна #1Zasulich, Vera Ivanovna #2 자술리치, 베라 이바노브나 #3 제정 러시아

Затлерс, Валдис #1Zatlers, Valdis #2 자틀레르스, 발디스 #3 라트비아

Зельманов, Ефим (Исаакович) #1Zel'manov, Efim (Isaakovich) #2 젤마노프, 예핌 (이사코비치) #3 러시아

Зиновьев, Григорий Евсеевич #1Zinovyev, Grigorii Evseevich #2 지노비예프, 그리고리 옙세예비치 #3 소련

Зорькин, Валерий (Дмитриевич) #1Zorkin, Valery (Dmitrievich) #2 조르킨, 발레리 (드미트리예비치) #3 러시아

Зощенко, Михаил Михайлович #1Zoshchenko, Mikhail Mikhailovich #2 조셴코, 미하일 미하일로비치 #3 소련

Зубков, Александр (Юрьевич) #1Zubkov, Alexandr (Yuryevich) #2 줍코프, 알렉산드르 (유리예비치) #3 러시아

Зубков, Виктор (Алексеевич) #1Zubkov, Viktor (Alekseyevich) #2 줍코프, 빅토르 (알렉세예비치) #3 러시아

Зуганов, Генадий А. #1Zhuganov, Gennadiy A. #2 주가노프, 겐나디 #3 러시아

Зурабишвили, Саломе (Левановна) / ზურაბიშვილი, სალომე <조지아어> #1Zurabishvili, Salome #2 주라비슈빌리, 살로메 #3 조지아

Зыкина, Людмила Георгиевна #1Zykina, Lyudmila (Georgievna) #2 지키나, 류드밀라 (게오르기예브나) #3 러시아

<И>

Ибрагимбеков, Рустам (Мамед Ибрагим оглы) / İbrahimbəyov, Rüstəm <아제르바이잔어> #1Ibrahimbeyov, Rustam #2 이브라힘배요프, 뤼스탬. <러시아어> 이브라김베코프, 루스탐. Ibragimbekov, Rustam #3 아제르바이잔

Иван #1Ivan #2 이반 #3'존(John)'의 러시아 어명.

Иван I #1Ivan 1 세 #2 이반 1 세 #3 모스크바 공국

Иван I Данилович Калита #1Ivan I of Moscow / Ivan Danilovich Kalita #2 이반 다닐로비치 칼리타 / 이반 1 세 #3 제정 러시아

Иван II Иванович Красный #1Ivan II of Moscow / Ivan II Ivanovich Krasny #2 이반 이바노비치 크라스니 / 이반 2 세 #3 제정 러시아

Иван III Васильевич / Иван Великий #1Ivan III Vasilievich #2 이반 바실리예비치 3 세 #3 제정 러시아

Иван IV Васильевич / Иван Грозный #1Ivan 4 세 #2 이반 4 세 #3 제정 러시아

Иван IV Васильевич / Иван Грозный #1Ivan IV Vasilievich #2 이반 바실리예비치 4 세 #3 제정 러시아

Иван V Алексеевич #1Ivan V Alekseevich #2 이반 알렉세예비치 5 세 #3 제정 러시아

Иван VI Антонович #1Ivan VI Antonovich #2 이반 안토노비치 6 세 #3 제정 러시아

Иванишвили, Бидзина (Григорьевич) / ივანიშვილი ბიძინა <조지아어> #1Ivanishvili, Bidzina #2 이바니슈빌리, 비지나 #3 조지아

Иванов, Александр Андреевич #1Ivanov, Aleksandr Andreevich #2 이바노프, 알렉산드르 안드레예비치 #3 제정 러시아 고전주의

Иванов, Всеволод Вячеславович #1Ivanov, Vsevolod Vyacheslavovich #2 이바노프, 프세볼로트 뱌체슬라보비치 #3 소련

Иванов, Вячеслав Иванович #1Ivanov, Vyacheslav Ivanovich #2 이바노프, 뱌체슬라프 이바노비치 #3 소련

Иванов, Игорь Сергеевич #1Ivanov, Igor' Sergeevich #2 이바노프, 이고리 세르게예비치 #3 러시아

Иванов, Лев Иванович #1Ivanov, Lev Ivanovich #2 이바노프, 레프 이바노비치 #3 제정 러시아

Иванов, Сергей Борисович #1Ivanov, Sergei Borisovich #2 이바노프, 세르게이 보리소비치 #3 러시아

Ивашенцов, Глев #1Ivashentsov, Glev #2 이바셴초프, 글레프 #3 러시아

Игнатенко, Виталий Н. #1Ignatenko, Vitaly N. #2 이그나텐코, 비탈리 #3 러시아

Игнатий #1Ignaty #2 이그나티 #3 그리스 출신의 모스크바와 전 러시아 총대주교

Игнатьев, Николай Павлович #1Ignatiev, Nikolai Pavlovich #2 이그나티예프, 니콜라이 파블로비치 #3 제정 러시아

Игнатьев, Сергей (Михайлович) #1Ignatiev, Sergey (Mikhailovich) #2 이그나티예프,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 #3 러시아

Игнашов, Алексей (Викторович) / Ігнашоў, Аляксей <벨라루스어> #1Ignashov, Alexey #2 이그나쇼프, 알렉세이 #3 벨라루스

Игорь I #1Igor' 1 세 #2 이고리 1 세 #3 키예프 대공

Измайлов, Марат #1Izmailov, Marat #2 이즈마일로프, 마라트 #3 러시아

Изяслав Мстиславич #1Izyaslav Mstislavich #2 이자슬라프 므스티슬라비치 #3 키예프의 공후

Изяслав Ярославич #1Izyaslav Yaroslavich #2 이자슬라프 야로슬라비치 #3 키예프의 공후

Ильвес, Тоомас Хендрик #1Ilves, Toomas Hendrik #2 일베스, 토마스 헨드리크 #3 에스토니아

Ильин, Михаил #1Il'in, Mikhail #2 일린, 미하일 #3 소련

Ильюшин, Владимир (Сергеевич) #1Ilyushin, Viktor #2 일류신, 빅토르 #3 러시아

Ильюшин, Сергей Владимирович #1Il'yushin, Sergei Vladimirovich #2 일류신, 세르게이 블라디미로비치 #3 소련

Илюмжинов, Кирсан (Николаевич) #1Ilyumzhinov, Kirsan (Nikolayevich) #2 일륨지노프, 키르산 (니콜라예비치) #3 러시아 연방 칼미크공화국

Илюхина, Екатерина (Сергеевна) #1Ilyukhina, Ekaterina (Sergeyevna) #2 일류히나, 예카테리나 (세르게예브나) #3 러시아

Иоаким (Патриарх Московский) / #1Patriarch Joachim of Moscow / Savelov, Ivan Petrovich #2 사벨로프, 이반 페트로비치 #3 러시아와 모스크바의 대주교

Иоасаф I #1Ioasaf 1 세 #2 이오아사프 1 세 #3 모스크바와 러시아 총대주교

Иоасаф II #1Ioasaf 2 세 #2 이오아사프 2 세 #3 모스크바와 러시아의 총대주교

Иосиф Волоцкий #1Iosif Volotsky #2 이오시프 볼로츠키 #3 제정 러시아

Иоффе, Адолф Абрамович#1Ioffe, Adolf Abramovich #2 이오페, 아돌프 아브라모비치 #3 소련

Ипполитов-Иванов, Михаил Михайлович #1Ippolitov Ivanov, Mikhail Mikhailovich #2 이폴리토프 이바노프, 미하일 미하일로비치 #3 소련

Исабеков, Азим #1Isabekov, Azim #2 이사베코프, 아짐 #3 키르기스스탄

Исидор #1Isidor #2 이시도르 #3 러시아의 대주교

<К>

Кабаева, Алина #1Kabaeva, Alina #2 카바예바, 알리나 #3 러시아

Кабалевский, Дмитрий Борисович #1Kabalevskii, Dmitrii Borisovich #2 카발렙스키, 드미트리 보리소비치 #3 소련

Каверин, Вениамин Александрович #1Kaverin, Veniamin Aleksandrovich #2 카베린, 베니아민 알렉산드로비치 #3 소련

Кадыров, Ахмат (Абдулхамидович) / Къадири, Iабдулхьамидан кIант Ахьмад-Хьажи <체첸어> #1Kadyrov, Akhmad #2 카디로프, 아흐마트 #3 체첸

Кадыров, Рамзан (Ахматович) / Къадири, Ахьмадан кIант Рамзан <체첸어> #1Kadyrov, Ramzan (Akhmadovich) #2 카디로프, 람잔 (아흐마토비치) #3 체첸

Казаков, Юрий Павлович #1Kazakov, Yurii Pavlovich #2 카자코프, 유리 파블로비치 #3 소련

Калашников, Михаил #1Kalashnikov, Mikhail #2 칼라시니코프, 미하일 #3 러시아

Калашников, Сергей #1Kalashnikov, Sergei #2 칼라시니코프, 세르게이 #3 러시아

Калашников, Сергей (Вячеславович) #1Karashinikov, Sergei #2 카라시니코프, 세르게이 (뱌체슬라보비치) #3 러시아

Калинин, Михаил Иванович #1Kalinin, Mikhail Ivanovich #2 칼리닌, 미하일 이바노비치 #3 소련

Каллас, Сийм #1Kallas, Siim #2 칼라스, 심 #3 에스토니아

Каменев, Лев Борисович #1Kamenev, Lev Borisovich #2 카메네프, 레프 보리소비치 #3 소련

Камилов, Абдулазиз #1Kamilov, Abdulaziz K. #2 카밀로프, 압둘라지즈 #3 우즈베키스탄

Кандинский, Василий #1Kandinskii, Vasilii #2 칸딘스키, 바실리 #3 소련

Кантемир, Антиох Дмитриевич #1Kantemir, Antiokh Dmitrievich #2 칸테미르, 안티오흐 드미트리예비치 #3 제정 러시아

Кантемир, Дмитрий Константинович #1Kantemir, Dmitri Konstantinovich #2 칸테미르, 드미트리 콘스탄티노비치 #3 제정 러시아

Канторович, Леонид Витальевич #1Kantorovich, Leonid Vitalievich #2 칸토로비치, 레오니트 비탈리예비치 #3 소련

Кануни, Юнис #1Qanuni, Yunis #2 카누니, 유니스 #3 타지크 출신

Капица, Пётр Леонидович #1Kapitsa, Pyotr Leonidovich #2 카피차, 표트르 레오니도비치 #3 소련

Каплер, Алексей (Яковлевич) / Каплер, Лазарь (Яковлевич) <본명> #1Kapler, Aleksei (Yakovlevich) #2 카플레르, 알렉세이 (야코블레비치). <본명> 카플레르, 라자리 (야코블레비치). Kapler, Lazar' (Yakovlevich) #3 소련

Караваева, Ирина #1Karavaeva, Irina #2 카라바예바, 이리나 #3 러시아

Караев, Алан (Таймуразович) #1Karaev, Alan #2 카라예프, 알란 #3 러시아

Карамзин, Николай Михайлович #1Karamzin, Nikolai Mikhailovich #2 카람진, 니콜라이 미하일로비치 #3 제정 러시아

Карахан, Лев Михайлович #1Karakhan, Lev Mikhailovich #2 카라한, 레프 미하일로비치 #3 소련

Каримов, Ислам #1Karimov, Islam A. #2 카리모프, 이슬람 #3 우즈베키스탄

Карпин, Валерий #1Karpin, Valeri #2 카르핀, 발레리 #3 러시아

Карпов, Фёдор Иванович #1Karpov, Fyodor Ivanovich #2 카르포프, 표도르 이바노비치 #3 제정 러시아

Каррер, Пауль #1Karrer, Paul #2 카러, 파울 #3 소련 태생

Карсавина, Тамара Платоновна #1Karsavina, Tamara Platonovna #2 카르사비나, 타마라 플라토노브나 #3 제정 러시아 태생

Каспаров, Гарри (Кимович) #1Kasparov, Garri (Kimovich) #2 카스파로프, 가리 (키모비치) #3 러시아

Касьянов, Михаил М. #1Kas’yanov, Mikhail M. #2 카시야노프, 미하일 #3 러시아

Катаев, Валентин Петрович #1Kataev, Valentin Petrovich #2 카타예프, 발렌틴 페트로비치 #3 소련

Кафельников, Евгений #1Kafelnikov, Yevgeny #2 카펠니코프, 예브게니 #3 러시아

Качалов, Василий Иванович #1Kachalov, Vasilii Ivanovich #2 카찰로프, 바실리 이바노비치 #3 소련

Келдибеков, Ахматбек #1Keldibekov, Akhmatbek #2 켈디베코프, 아흐마트베크 #3 키르기스스탄

Кёппен, Владимир Петрович #1Köppen, Wladimir Peter #2 쾨펜, 블라디미르 페터 #3 러시아 태생

Керенский, Александр Фёдрович #1Kerenskii, Aleksandr Fyodorovich #2 케렌스키, 알렉산드르 표도로비치 #3 소련

Кинах, Анатолий Кириллович / Кінах Анатолій (Кирилович) <우크라이나어> #1Kinah, Anatoliy (Kyrylovych) #2 키나흐, 아나톨리 (키릴로비치) #3 우크라이나

Кинелёв, Владимир Г. #1Kinelyov, Vladimir G. #2 키넬료프, 블라디미르 #3 러시아

Киреевский Иван Васильевич #1Kireevsky, Ivan Vasilievich #2 키레옙스키, 이반 바실리예비치 #3 제정 러시아

Кириенко, Сергей Владиленович #1Kirienko, Sergei Vladilenovich #2 키리옌코, 세르게이 블라딜레노비치 #3 러시아

Кириленко, Мария (Юрьевна) #1Kirilenko, Maria (Yuryevna) #2 키릴렌코, 마리야 (유리예브나) #3 러시아

Кирилл (Патриарх Московский) / Митрополит Кирилл / Гундяев, Владимир Михайлович <속명> #1Metropolitan Kirill #2 키릴 대주교. <속명> 군댜예프, 블라디미르 미하일로비치. Gundyayev, Vladimir Mikhailovich #3 러시아 정교회 제 16 회 총주교

Киркилас, Гедиминас #1Kirkilas, Gediminas#2 키르킬라스, 게디미나스 #3 리투아니아

Киров, Сергей Миронович #1Kirov, Sergei Mironovich #2 키로프, 세르게이 미로노비치 #3 소련

Кирпичников, Валерий #1Kirpichnikov, Valerii #2 키르피치니코프, 발레리 #3 러시아

Кирпичников, Михаил Петрович #1Kirpichnikov, Mikhail Petrovich #2 키르피치니코프, 미하일 페트로비치 #3 러시아

Киселева, Мария #1Kiseleva, Mariya #2 키셀레바, 마리야 #3 러시아

Китаенко, Дмитрий (Георгиевич) #1Kitaenko, Dmitri (Georgievich) #2 키타옌코, 드미트리 (게오르기예비치) #러시아

Кишенко, Артур (Николаевич) #1Kyshenko, Artur #2 키셴코, 아르투르 #3 우크라이나

Клейбанова, Алиса (Михаиловна) #1Kleybanova, Alisa (Mikhaelovna) #2 클레이바노바, 알리사 (미하일로브나) #3 러시아

Кличко, Виталий Владимирович / Кличко Віталій Володимирович <우크라이나어> #1Klychko〔Klitschko〕, Vitalij〔Vitali〕 (Volodymyrovych) #2 클리치코, 비탈리 (볼로디미로비치) #3 우크라이나

Клишина, Дарья #1Klishina, Dar'ya #2 클리시나, 다리야 #3 러시아

Клочкова, Яна Александровна / Клочкова Яна (Олександрівна) <우크라이나어> #1Klochkova, Yana #2 클로치코바, 야나 #3 우크라이나

Клуг, Аарон #1Klug, Sir Aaron #2 클루그, 에런 경 #3 리투아니아 태생

Ковалёв, Валентин #1Kovalyov, Valentin #2 코발료프, 발렌틴 #3 러시아

Ковалёв, Николай #1Kovalyov, Nikolai #2 코발료프, 니콜라이 #3 러시아

Ковалевская, София Васильевна #1Kovalevskaya, Sofiya Vasilievna #2 코발렙스카야, 소피야 바실리예브나 #3 제정 러시아

Ковтун, Юрий #1Kovtun, Yuri #2 콥툰, 유리 #3 러시아

Коган, Ксения #1Kogan, Ksenia #2 코간, 크세니야 #3 러시아

Коган, Леонид Борисович #1Kogan, Leonid Borisovich #2 코간, 레오니트 보리소비치 #3 소련

Козлов, Пётр Кузьмич #1Kozlov, Pyotr Kuzimich #2 코즐로프, 표트르 쿠지미치 #3 소련

Кокойты, Эдуард Джабеевич / Кокойты, Джабейы фырт Эдуард <오세티야어> #1Kokoity, Eduard (Dzhabeyevich) #2 코코이티, 예두아르트 (자베예비치) #3 남오세티야

Коллонтай, Александра Михайловна #1Kollontai, Aleksandra Mikhailovna #2 콜론타이, 알렉산드라 미하일로브나 #3 소련

Колмогоров, Анрей Николаевич #1Kolmogorov, Andrei Nikolaevich #2 콜모고로프, 안드레이 니콜라예비치 #3 소련

Колосков, Вячеслав Иванович #1Koloskov, Vyacheslav (Ivanovich) #2 콜로스코프, 뱌체슬라프 (이바노비치) #3 러시아

Кольцов, Алексей Васильевич #1Koltsov, Aleksei Vasilievich #2 콜초프, 알렉세이 바실리예비치 #3 제정 러시아

Кондратьев, Николай Дмитриевич #1Kondratiev, Nikolai Dmitrievich #2 콘드라티예프, 니콜라이 드미트리예비치 #3 소련

Корбут, Ольга #1Korbut, Ol'ga #2 코르부트, 올가 #3 러시아

Корнейчук, Александр Евдокимович #1Korneichuk, Aleksandr Evdokimovich #2 코르네이추크, 알렉산드르 에브도키모비치 #3 소련

Корнилов, Лавр Георгиевич #1Kornilov, Lavr Georgievich #2 코르닐로프, 라브르 게오르기예비치 #3 제정 러시아

Королёв, Сергей Павлович #1Korolyov, Sergei Pavlovich #2 코롤료프, 세르게이 파블로비치 #3 소련

Короленко, Владимир Галактионович #1Korolenko, Vladimir Galaktionovich #2 코롤렌코, 블라디미르 갈락티오노비치 #3 제정 러시아

Корсаков, Сергей Сергеевич #1Korsakov, Sergei Sergeevich #2 코르사코프, 세르게이 세르게예비치 #3 제정 러시아

Косыгин, Алексей Николаевич #1Kosygin, Aleksei Nikolaevich #2 코시긴, 알렉세이 니콜라예비치 #3 소련

Кочарян, Роберт (Седракович) / Քոչարյան, Ռոբերտ (Սեդրակի) <아르메니아어> #1Kocharyan, Robert #2 코차랸, 로베르트 #3 아르메니아

Крамской, Николай Иванович #1Kramskoj, Nikolai Ivanovich #2 크람스코이, 니콜라이 이바노비치 #3 제정 러시아

Крашенинников, Павел Владимирович #1Krasheninnikov, Pavel Vladimirovich #2 크라셰닌니코프, 파벨 블라디미로비치 #3 러시아

Криштопанс, Вилис #1Kristopans, Vilis #2 크리스토판스, 빌리스 #3 라트비아

Кропоткин, Пётр Алексеевич #1Kropotkin, Pyotr Alekseevich #2 크로폿킨, 표트르 알렉세예비치 #3 제정 러시아

Крупская, Надежда Константиновна #1Krupskaya, Nadezhda Konstantinovna #2 크룹스카야, 나데즈다 콘스탄티노브나 #3 소련

Крылов, Иван Анреевич #1Krylov, Ivan Andreevich #2 크릴로프, 이반 안드레예비치 #3 제정 러시아

Крюков, Никита (Валерьевич) #1Kriukov, Nikita (Valeryevich) #2 크류코프, 니키타 (발레리예비치) #3 러시아

Кудрин, Алексей (Леонидович) #1Kudrin, Aleksei (Leonidovich) #2 쿠드린, 알렉세이 (레오니도비치) #3 러시아

Кудрявцева, Яна (Алексеевна) #1Kudryavtseva, Yana (Alekseevna) #2 쿠드랍체바, 야나 (알렉세예브나) #3 러시아

Кузнец, Саймон Смит / Кузнец, Сямён Абрамавіч <벨라루스어> #1Kuznets, Simon Smith #2 쿠즈네츠, 사이먼 스미스 #3 벨라루스 태생

Кузнецов, Анатолий Васильевич #1Kuznetsov, Anatoli Vasilievich #2 쿠즈네초프, 아나톨리 바실리예비치 #3 소련

Кукрыниксы #1Kukryniksy #2 쿠크리닉시 #3 소련

Кулибин, Иван Петрович #1Kulibin, Ivan Petrovich #2 쿨리빈, 이반 페트로비치 #3 제정 러시아

Кулик, Геннадий Васильевич #1Kulik, Gennady Vasilievich #2 쿨리크, 겐나디 바실리예비치 #3 러시아

Куликов, Анатолий С. #1Kulikov, Anatoly S. #2 쿨리코프, 아나톨리 #3 러시아

Куназе, Георгий #1Kunaze, Georgiy #2 쿠나제, 게오르기 #3 러시아

Куприн, Александр Иванович #1Kuprin, Aleksandr Ivanovich #2 쿠프린, 알렉산드르 이바노비치 #3 제정 러시아

Курбский, Андрей Михайлович #1Kurbsky, Andrei Mikhailovich #2 쿠릅스키, 안드레이 미하일로비치 #3 제정 러시아

Курникова, Анна #1Kurnikova, Anna #2 쿠르니코바, 안나 #3 러시아

Куропаткин, Алексей Николаевич #1Kuropatkin, Aleksei Nikolaevich #2 쿠로팟킨, 알렉세이 니콜라예비치 #3 제정 러시아

Кусевицкий, Сергей #1Kussevitzky, Sergei #2 쿠세비츠키, 세르게이 #3 러시아 태생

Кутузов, Михаил Илларионович #1Kutuzov, Mikhail Illarionovich #2 쿠투조프, 미하일 일라리오노비치 #3 제정 러시아

Кучма, Леонид Данилович / Кучма, Леонід (Данилович) <우크라이나어> #1Kuchma, Leonid #2 쿠치마, 레오니트 #3 우크라이나

<Л>

Лаар, Март #1Laar, Mart #2 라르, 마르트 #3 에스토니아

Лавров, Сергей (Викторович) #1Lavrov, Sergei (Viktorovich) #2 라브로프, 세르게이 (빅토로비치) #3 러시아

Ландау, Лев Давидович #1Landau, Lev Davidovich #2 란다우, 레프 다비도비치 #3 아제르바이잔

Ландсбергис, Витаутас #1Landsbergis, Vytautas #2 란즈베르기스, 비타우타스 #3 리투아니아

Лебедев, Пётр Николаевич #1Lebedev, Pyotr Nikolaevich #2 레베데프, 표트르 니콜라예비치 #3 제정 러시아

Лебедев, Сергей Васильевич #1Lebedev, Sergei Vasilievich #2 레베데프, 세르게이 바실리예비치 #3 소련

Левитан, Исаак Ильич #1Levitan, Isaak Il'ich #2 레비탄, 이사크 일리치 #3 제정 러시아

Левитин, Игорь (Евгеньевич) #1Levitin, Igor' (Evgen'evich) #2 레비틴, 이고리 (예브게니예비치) #3 러시아

Лем, Станислав #1Lem, Stanisław #2 렘, 스타니스와프[9] #3 우크라이나 리비프(L'viv) 태생.

[9] "폴란드어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 표기임.

Ленин, Николай / Ульянов, Владимир Ильич <본명> #1Lenin, Nikolai #2 레닌, 니콜라이. <본명> 울리야노프, 블라디미르 일리치. Ulyanov, Vladimir Ilyich #3 소련

Ленц, Якоб Михаэль Рейнхольд #1Lenz, Jakob Michael Reinhold #2 렌츠, 야코프 미하엘 라인홀트[10] #3 제정 러시아 태생

Леонов, Евгений Павлович #1Leonov, Yevgeny Pavlovich #2 레오노프, 예브게니 파블로비치 #3 소련

Леонов, Леонид Максимович #1Leonov, Leonid Maximovich #2 레오노프, 레오니트 막시모비치 #3 소련

Леонтьев, Василий (Васильевич) #1Leontief, Wassily #2 레온티예프, 바실리 #3 러시아 태생

Леонтьев, Константин Николаевич #1Leontief, Konstantin Nikolaevich #2 레온티예프, 콘스탄틴 니콜라예비치 #3 제정 러시아

Лермонтов, Михаил Юрьевич #1Lermontov, Mikhail Yurievich #2 레르몬토프, 미하일 유리예비치 #3 제정 러시아

Лесков, Николай Семёнович #1Leskov, Nikolai Semyonovich #2 레스코프, 니콜라이 세묘노비치 #3 제정 러시아

Леся Украинка #1Ukrainka, Lesya #2 우크라인카, 레샤 #3 우크라이나

Лившиц, Александр #1Livshits, Aleksandr #2 립시츠, 알렉산드르 #3 러시아

Лиги, Юрген #1Ligi, Jürgen #2 리기, 위르겐 #3 에스토니아

Липницкая, Юлия (Вячеславовна) #1Lipnitskaya, Yuliya (Vyacheslavovna) / Lipnitskaia, Julia (Viacheslavovna) #2 리프니츠카야, 율리야 (뱌체슬라보브나) #3 러시아

Липшиц, Жак #1Lipchitz, Jacques #2 립시츠, 자크 #3 제정 러시아 태생

Литвинов, Максим Максимович #1Litvinov, Maksim Maksimovich #2 리트비노프, 막심 막시모비치 #3 소련

Лихачёв, Дмитрий Сергеевич #1Likhachyov, Dmitri Sergeevich #2 리하초프, 드미트리 세르게예비치 #3 러시아

Лобачевский, Николай Иванович #1Lobachevskii, Nikolai Ivanovich #2 로바첩스키, 니콜라이 이바노비치 #3 제정 러시아

Лобов, Олег #1Lobov, Oleg #2 로보프, 올레크 #3 러시아

Ломоносов, Михаил Васильевич #1Lomonosov, Mikhail Vasilievich #2 로모노소프, 미하일 바실리예비치 #3 제정 러시아

Лопаткина, Ульяна (Вячеславовна) #1Lopatkina, Ul'yana (Vyacheslavovna) #2 로팟키나, 울리야나 (뱌체슬라보브나) #3 러시아

[10] "독일어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 표기임.

Лосев, Алексей Фёдорович #1Losev, Aleksei Fyodorovich #2 로세프,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3 소련

Лошков, Александр #1Loshkov, Aleksandr P. #2 로시코프, 알렉산드르 #3 러시아

Лужков, Юрий М. #1Luzhkov, Juriy M. #2 루시코프, 유리 #3 러시아

Лукашенко, Александр Григорьевич / Аляксандр Рыгоравіч Лукашэнка <벨라루스어> #1Lukashenko, Aleksandr (Grigoryevich) #2 루카셴코, 알렉산드르 #3 벨라루스

Луначарский, Анатолий Васильевич #1Lunacharskii, Anatorii Vasilievich #2 루나차르스키, 아나토리 바실리예비치 #3 소련

Лунгу, Ирина #1Lungu, Irina #2 룬구, 이리나 #3 몰도바

Лунтовский, Георгий (Иванович) #1Luntovsky, Georgy (Ivanovich) #2 룬톱스키, 게오르기 (이바노비치) #3 러시아

Лурия, Александр Романович #1Luriya, Aleksandr Romanovich #2 루리야, 알렉산드르 로마노비치 #3 소련

Лучинский, Пётр (Кириллович) #1Lucinski, Petru #2 루친스키, 페트루 #3 몰도바 공화국

Лысенко, Трофим Денисович #1Lysenko, Trofim Denisovich #2 리센코, 트로핌 데니소비치 #3 소련

<M>

Майков, Аполлон Николаевич #1Maykov, Apollon Nikolaevich #2 마이코프, 아폴론 니콜라예비치 #3 제정 러시아

Майлстоун, Льюис #1Milestone, Lewis #2 마일스톤, 루이스[11] #3 제정 러시아 태생

Макаренко, Антон Семёнович #1Makarenko, Anton Semyonovich #2 마카렌코, 안톤 세묘노비치 #3 소련

Макарова, Екатерина (Валерьевна) #1Makarova, Ekaterina (Valeryevna) #2 마카로바, 예카테리나 (발레리예브나) #3 러시아

Макарова, Наталия Романовна #1Makarova, Nataliya (Romanovna) #2 마카로바, 나탈리야 (로마노브나) #3 러시아

Макоров, Степан Осипович #1Makarov, Stepan Osipovich #2 마카로프, 스테판 오시포비치 #3 제정 러시아

Максим Горький / Пешков, Алексей Максимови <본명> #1Gor'kii, Maksim #2 고리키, 막심. <본명> 페시코프 알렉세이 막시모비치 #3 제정 러시아

---

[11] "영어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 표기임.

Максим Грек #1Maximus the Greek / Maksim Grek #2 막심 그레크 #3 제정 러시아

Максимова, Екатерина (Сергеевна) #1Maksimova/Maximova, Ekaterina (Sergeevna) #2 막시모바, 예카테리나 (세르게예브나) #3 러시아

Малевич, Казимир Северинович #1Malevich, Kazimir Severinovich #2 말레비치, 카지미르 세베리노비치 #3 소련

Маленков, Георгий Максимильянович #1Malenkov, Georgii Maksimil'yanovich #2 말렌코프, 게오르기 막시밀리야노비치 #3 소련

Малиновский, Родион Яковлевич #1Malinovskii, Rodion Yakovlevich #2 말리놉스키, 로디온 야코블레비치 #3 소련

Маргарян, Андраник (Наапетович) / Մարգարյան, Անդրանիկ <아르메니아어> #1Margaryan, Andranik #2 마르가랸, 안드라니크 #3 아르메니아

Маргвелашвили, Георгий / მარგველაშვილი, გიორგი <조지아어> #1Margvelashvili, Giorgi #2 마르그벨라슈빌리, 기오르기 #3 조지아

Маргелов, Михаил #1Margelov, Mikhail #2 마르겔로프, 미하일 #3 러시아

Марков, Андрей Андреевич #1Markov, Andrei Andreevich #2 마르코프, 안드레이 안드레예비치 #3 제정 러시아

Марковников, Владимир Васильевич #1Markovnikov, Vladimir Vasilyevich #2 마르코브니코프, 블라디미르 바실리예비치 #3 제정 러시아

Марр, Николай Яковлевич #1Marr, Nikolai Yakovlevich #2 마르, 니콜라이 야코블레비치 #3 소련

Масимов, Карим (Кажимканович) / Мәсімов, Кәрім (Қажымқанұлы) <카자흐어> #1Massimov, Karim (Qajymqanuly) #2 마시모프, 카림 (카짐카눌리) #3 카자흐스탄

Маслюков, Юрий Дмитриевич #1Maslyukov, Yuri Dmitrievich #2 마슬류코프, 유리 드미트리예비치 #3 러시아

Масхадов, Аслан (Алиевич) #1Maskhadov, Aslan #2 마스하도프, 아슬란 #3 체첸

Матвиенко, Валентина Ивановна #1Matvienko, Valentina Ivanovna #2 마트비옌코, 발렌티나 이바노브나 #3 러시아

Маяковский, Владимир Владимирович #1Mayakovskii, Vladimir Vladimirovich #2 마야콥스키, 블라디미르 블라디미로비치 #3 소련

Медведев, Дмитрий Анатольевич #1Medvedev, Dmitri (Anatolyevich) #2 메드베데프, 드미트리 (아나톨리예비치) #3 러시아

Медведцева, Ольга (Валерьевна) #1Medvedtseva, Olga (Valeryevna) #2 메드벳체바, 올가 (발레리예브나) #3 러시아

Меделеев, Дмитрий Иванович #1Mendeleev, Dmitrii Ivanovich #2 멘델레예프, 드미트리 이바노비치 #3 제정 러시아

Мейерхольд, Всеволод Эмильевич #1Meierkhol'd, Vsevolod Emil'evich #2 메이예르홀트, 프세볼로드 에밀리예비치 #3 소련

Меликян, Геннадий (Георгиевич) #1Melikyan, Gennady (Georgievich) #2 멜리캰, 겐나디 (게오르기예비치) #3 러시아

Меншиков, Александр Данилович #1Menshikov, Aleksandr Danilovich #2 멘시코프, 알렉산드르 다닐로비치 #3 제정 러시아

Мережковский, Дмитрий Сергеевич #1Merezhkovskii, Dmitrii Sergeevich #2 메레시콥스키, 드미트리 세르게예비치 #3 소련

Мери, Леннарт #1Meri, Lennart #2 메리, 렌나르트 #3 에스토니아

Мессерер, Асаф (Михайлович) #1Messerer, Asaf (Mikhailovich) #2 메세레르, 아사프 #3 리투아니아

Мечников, Илья (Ильич) #1Metchnikoff, Élie #2 메치니코프, 엘리 #3 우크라이나 태생

Мечников, Илья Ильич #1Metchnikoff, Il'ya Il'ich #2 메치니코프, 일리야 일리치 #3→메치니코프, 엘리(Metchnikoff, Élie)

Миклухо-Маклай, Николай Николаевич #1Miklukho-Maklai, Nikolai Nikolaevich #2 미클루호마클라이, 니콜라이 니콜라예비치 #3 소련

Микоян, Анастас Иванович #1Mikoyan, Anastas Ivanovich #2 미코얀, 아나스타시 이바노비치 #3 소련

Миллер, Алексей #1Miller, Aleksei #2 밀레르, 알렉세이 #3 러시아

Милюков, Павел Николаевич #1Milyukov, Pavel Nikolaevich #2 밀류코프, 파벨 니콜라예비치 #3 소련

Минковский, Герман #1Minkowskii, Hermann #2 민코프스키, 헤르만 #3 제정 러시아 태생

Мирзиёев, Шавкат Мираманович #1Mirziyoyev, Shavkat (Miromonovich) #2 미르지요예프, 샵카트 (미로모노비치) #3 우즈베키스탄

Миронов, Сергей Михайлович #1Mironov, Sergei (Mikhailovich) #2 미로노프,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 #3 러시아

Михайлов, Виктор Н. #1Mikhailov, Viktor N. #2 미하일로프, 빅토르 #3 러시아

Михайлов, Вячеслав (Александрович) #1Mikhailov, Vyacheslav (Aleksandrovich) #2 미하일로프, 뱌체슬라프 (알렉산드로비치) #3 러시아

Михайловский, Николай Константинович #1Mikhailovskii, Nikolai Konstantinovich #2 미하일롭스키, 니콜라이 콘스탄티노비치 #3 제정 러시아

Михалков, Никита Сергеевич #1Mikhalkov, Nikita Sergeevich #2 미할코프, 니키타 세르게예비치 #3 러시아

Михалков, Сергей Владимирович #1Mikhalkov, Sergei Vladimirovich #2 미할코프, 세르게이 블라디미로비치 #3 러시아

Михельсон, Леонид (Викторович) #1Mikhel'son, Leonid (Viktorovich) #2 미헬손, 레오니트 (빅토로비치) #3 러시아

Мичурин, Иван Владимирович #1Michurin, Ivan Vladimirovich #2 미추린, 이반 블라디미로비치 #3 소련

Моисеев, Игорь Александрович #1Moiseev, Igor' Aleksandrovich #2 모이세예프, 이고리 알렉산드로비치 #3 러시아

Молотов, Вячеслав Михайлович #1Molotov, Vyacheslav Mihailovich #2 몰로토프, 뱌체슬라프 미하일로비치 #3 소련

Морилов, Николай (Сергеевич) #1Morilov, Nikolay (Sergeyevich) #2 모릴로프, 니콜라이 (세르게예비치) #3 러시아

Морозов, Борис Иванович #1Morozov, Boris Ivanovich #2 모로조프, 보리스 이바노비치 #3 제정 러시아

Мостовой, Александр #1Mostovoi, Aleksandr #2 모스토보이, 알렉산드르 #3 러시아

Мохаммади, Джума #1Mohammadi, Juma #2 모하마디, 주마 #3 타지크 태생

Мравинский, Евгений Александрович#1Mravinski, Evgeni Aleksandrovich #2 므라빈스키, 예브게니 알렉산드로비치 #3 소련

Мстислав Владимирович Великий / Мстислав Владимирович I #1Mstislav I Vladimirovich the Great / Mstislav Vladimirovich 1 세 #2 므스티슬라프 블라디미로비치 1 세 #3 키예프 공국

Мстислав, Пётр Тимофеевич #1Mstislav, Pyotr Timofeevich #2 므스티슬라프, 표트르 티모페예비치 #3 러시아

Муравьёв-Амурский, Николай Николаевич #1Murav'yov-Amurskii, Nikolai Nikolaevich #2 무라비요프아무르스키, 니콜라이 니콜라예비치 #3 제정

Мусаси, Гегард / Մուսասի, Գեղարդ <아르메니아어> #1Mousasi, Gegard #2 무사시, 게가르 #3 아르메니아

Мусоргский, Модест Петрович #1Musorgskii, Modest Petrovich #2 무소륵스키, 모데스트 페트로비치 #3 제정 러시아

Мхитарян, Генрих Гамлетович / Մխիթարյան, Հենրիխ Համլետի <아르메니아어> #1Mkhitaryan, Henrikh (Hamleti) #2 므히타랸, 헨리흐 (함레티) #3 아르메니아

Мясин, Леонид (Фёдорович) #1Myasin, Leonid (Fyodorovich) / Massine, Léonide #2 마신, 레오니트 #3 소련

Мясковский, Николай Яковлевич #1Myaskovskii, Nikolai Yakovlevich #2 먀스콥스키, 니콜라이 야코블레비치 #3 소련

<H>

Набиуллина, Эльвира Сахипзадовна / Нәбиуллина Эльвира Сәхипзадәкызы <타타르어> #1Nabiullina, El'vira S(akhipzadovna) 〔Nabiullina, Elvira S(akhipzadovna)〕 #2 나비울리나, 엘비라 (사히프자도브나) #3 러시아

Набоков, Владимир Владимирович #1Nabokov, Vladimir Vladimirovich #2 나보코프, 블라디미르 블라디미로비치 #3 소련 태생

Навальный, Алексей #1Navalny, Alexey #2 나발니, 알렉세이 #3 러시아

Назарбаев, Нурсултан (Абишевич) / Назарбаев, Нұрсұлтан (Әбішұлы) <카자흐어> #1Nazarbayev, Nursultan A. #2 나자르바예프, 누르술탄 #3 카자흐스탄

Нарышкин, Сергей Евгеньевич #1Naryshkin, Sergei E(vgen'evich) #2 나리시킨, 세르게이 (예브게니예비치) #3 러시아

Неверов, Александр Сергеевич #1Neverov, Aleksandr Sergeyevich #2 네베로프, 알렉산드르 세르게예비치 #3 소련

Невский, Александр (Ярославич) #1Nevskii, Aleksandr (Yaroslavich) #2 넵스키, 알렉산드르 (야로슬라비치) #3 러시아의 대공

Некрасов, Николай Алексеевич #1Nekrasov, Nikolai Alekseevich #2 네크라소프, 니콜라이 알렉세예비치 #3 제정 러시아

Некрутенко, Виктор Юрьевич #1Nekrutenko, Viktor Yurievich #2 네크루텐코, 빅토르 유리예비치 #3 러시아

Немирович-Данченко, Владимир Иванович #1Nemirovich-Danchenko, Vladimir Ivanovich #2 네미로비치단첸코, 블라디미르 이바노비치 #3 소련

Немов, Алексей #1Nemov, Alexei #2 네모프, 알렉세이 #3 러시아

Немцов, Борис Ефимович #1Nemtsov, Boris Yefimovich #2 넴초프, 보리스 예피모비치 #3 러시아

Несмеянов, Александр Николаевич #1Nesmeyanov, Aleksandr Nikolaevich #2 네스메야노프, 알렉산드르 니콜라예비치 #3 소련

Нестеренко, Татьяна Геннадьевна #1Nesterenko, Tat'yana Gennad'evna #2 네스테렌코, 타티야나 겐나디예브나 #3 러시아

Нестор #1Nestor #2 네스토르 #3 러시아의 성직자

Нечаев, Сергей Геннадьевич #1Nechaev, Sergei Gennadievich #2 네차예프, 세르게이 겐나디예비치 #3 제정 러시아

Нигматуллин, Руслан #1Nigmatullin, Ruslan #2 니그마툴린, 루슬란 #3 러시아

Нижинский, Вацлав Фомич #1Nizhinskii, Vatslav Fomich #2 니진스키, 바츨라프 포미치 #3 소련

Никитин, Афанасий #1Nikitin, Afanacii #2 니키틴, 아파나시 #3 트베리

Никифоров, Николай (Анатольевич) #1Nikiforov, Nikolai (Anatol'evich) #2 니키포로프, 니콜라이 (아나톨리예비치) #3 러시아

Никифоров, Юрий #1Nikiforov, Yuri #2 니키포로프, 유리 #3 러시아

Николаева, Галина Евгеньевна #1Nikolaeva, Galina Evgen'evna #2 니콜라예바, 갈리나 예브게니예브나 #3 소련

Николай II #1Nicholas II of Russia / Nikolai 2 세 #2 니콜라이 2 세 #3 제정 러시아

Николай I Nicholas I of Russia / #1Nikolai 1 세 #2 니콜라이 1 세 #3 제정 러시아

Никон #1Nikon #2 니콘 #3 제정 러시아

Нил Сорский #1Nilus of Sora / Nil Sorsky #2 닐 소르스키 #3 제정 러시아

Ниязов, Сапармурат #1Niyazov, Saparmurat A. #2 니야조프, 사파르무라트 #3 투르크메니스탄

Новак, Александр (Валентинович) #1Novak, Aleksandr (Valentinovich) ［Novak, Alexander (Valentinovich)］ #2 노바크, 알렉산드르 (발렌티노비치) #3 러시아

Новиков, Николай Иванович #1Novikov, Nikolai Ivanovich #2 노비코프, 니콜라이 이바노비치 #3 제정 러시아

Новосёлов, Константин Сергеевич #1Novoselov, Konstantin (Sergeevich) #2 노보셀로프, 콘스탄틴 (세르게예비치) #3 러시아 출신

Ногаидели, Зураб (Теймуразович) / ნოღაიდელი, ზურაბ <조지아어> #1Noghaideli, Zurab #2 노가이델리, 주라브 (즈바니아) #3 조지아

Нуреев, Рудольф #1Nureyev, Rudolf #2 누레예프, 루돌프 #3 소련 태생

<O>

Овечкин, Валентин Владимирович #1Ovechkin, Valentin Vladimirovich #2 오베치킨, 발렌틴 블라디미로비치 #3 소련

Огарёв, Николай Платонович #1Ogaryov, Nikolai Platonovich #2 오가료프, 니콜라이 플라토노비치 #3 제정 러시아

Одоевский, Александр Иванович #1Odoevskii, Aleksandr Ivanovich #2 오도옙스키, 알렉산드르 이바노비치 #3 제정 러시아의 시인(1802~1839). #4 표준

Одоевский, Владимир Фёдорович #1Odoevskii, Vladimir Fyodorovich #2 오도옙스키, 블라디미르 표도로비치 #3 제정 러시아

Ожешко, Элиза #1Orzeszkowa, Eliza #2 오제슈코바, 엘리자[12] #3 리투아니아 태생

---

[12] "폴란드어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 표기임.

Ойстрах, Давид Фёдорович #1Oistrakh, David Fyodorovich #2 오이스트라흐, 다비트 표도로비치 #3 소련

Окуджава, Булат Шалвович #1Okudzhava, Bulat Shalvovich #2 오쿠자바, 불라트 샬보비치 #3 조지아 출신

Олег #1Oleg #2 올레크 #3 러시아 공국

Олеша, Юрий Карлович #1Olesha, Yurii Karlovich #2 올레샤, 유리 카를로비치 #3 소련

Онопко, Виктор #1Onopko, Viktor #2 오놉코, 빅토르 #3 러시아

Опарин, Александр Иванович #1Oparin, Aleksandr Ivanovich #2 오파린, 알렉산드르 이바노비치 #3 소련

Ослябя Родион #1Oslyabya Rodion #2 오슬랴뱌 로디온 #3 삼위일체 세르기 수도원의 수도사

Островский, Александр Николаевич #1Ostrovskii, Aleksandr Nikolaevich #2 오스트롭스키, 알렉산드르 니콜라예비치 #3 제정

Островский, Николай Алексеевич #1Ostrovskii, Nikolai Alekseevich #2 오스트롭스키, 니콜라이 알렉세예비치 #3 소련

Отунбаева, Роза (Исаковна)#1Otunbayeva, Roza (Isakovna) #2 오툰바예바, 로자 (이사코브나) #3 키르기스스탄

<П>

Павел I #1Pavel I #2 파벨 1 세 #3 제정 러시아

Павлов, Валентин С. #1Pavlov, Valentin S. #2 파블로프, 발렌틴 #3 소련

Павлов, Иван Петрович #1Pavlov, Ivan Petrovich #2 파블로프, 이반 페트로비치 #3 소련

Павлова, Анна Павловна #1Pavlova, Anna Pavlovna #2 파블로바, 안나 파블로브나 #3 제정 러시아

Павлюченкова, Анастасия (Сергеевна) #1Pavlyuchenkova, Anastasia (Sergeyevna) #2 파블류첸코바, 아나스타시야 (세르게예브나) #3 러시아

Пак, Жиновий #1Pak, Zinovy #2 파크, 지노비 #3 러시아

Паксас, Роландас #1Paksas, Rolandas #2 팍사스, 롤란다스 #3 리투아니아

Панжинский, Александр (Эдуардович) #1Panzhinskiy, Alexander (Eduardovich) #2 판진스키, 알렉산드르 (예두아르도비치) #3 러시아

Панов, Александр #1Panov, Aleksandr N. #2 파노프, 알렉산드르 #3 러시아

Панова, Вера Фёдоровна #1Panova, Vera Fyodorovna #2 파노바, 베라 표도로브나 #3 소련

Пастернак, Борис Леонидович #1Pasternak, Boris Leonidovich #2 파스테르나크, 보리스 레오니도비치 #3 소련

Паустовский, Константин Георгиевич #1Paustovskii, Konstantin Georgievich #2 파우스톱스키, 콘스탄틴 게오르기예비치 #3 소련

Певзнер, Антуан #1Pevsner, Antoine #2 페프스너, 앙투안 #3 제정 러시아 태생

Перельман, Григорий (Яковлевич) #1Perelman, Grigori (Yakovlevich) #2 페렐만, 그리고리 (야코블레비치) #3 러시아

Перов, Василий Григорьевич #1Perov, Vasilii Grigorievich #2 페로프, 바실리 그리고리예비치 #3 제정 러시아

Петипа, Мариус (Иванович) #1Petipa, Marius #2 페티파, 마리우스 #3 프랑스 태생의 제정 러시아 무용가

Пётр I Алексеевич #1Pyotr I Alekseevich #2 표트르 알렉세예비치 1 세 #3 제정 러시아

Пётр II Алексеевич #1Pyotr II Alekseevich #2 표트르 알렉세예비치 2 세 #3 제정 러시아

Пётр III Фёдорович #1Pyotr III Fyodorovich #2 표트르 표도로비치 3 세 #3 제정 러시아.

Пётр Великий #1Peter the Great #2 표트르 대제 #3 제정 러시아. →Пётр I Алексеевич

Петрашевский, Михаил Васильевич #1Petrashevsky, Mikhail Vasilievich #2 페트라셉스키, 미하일 바실리예비치 #3 제정 러시아

Петренко, Кирилл #1Petrenko, Kirill #2 페트렌코, 키릴 #3 러시아

Петров-Водкин, Кузьма Сергеевич #1Petrov-Vodkin, Kuz'ma Sergeevich #2 페트로프봇킨, 쿠지마 세르게예비치 #3 소련

Петров, Виталий (Александрович) #1Petrov, Vitaly (Aleksandrovich) #2 페트로프, 비탈리 (알렉산드로비치) #3 러시아

Петрова, Надя / Петрова Надежда Викторовна <본명> #1Petrova, Nadya #2 페트로바, 나댜 <본명> 페트로바, 나데즈다 빅토로브나. Petrova, Nadezhda Viktorovna #3 러시아

Петухов, Алексей Евгеньевич #1Petukhov, Alexey (Yevgenyevich) #2 페투호프, 알렉세이 (예브게니예비치) #3 러시아

Пиебалгс, Андрис #1Piebalgs, Andris #2 피에발그스, 안드리스 #3 라트비아

Пильняк, Борис Андреевич #1Pilnyak, Boris Andreevich #2 필냐크, 보리스 안드레예비치 #3 소련

Писарев, Дмитрий Иванович #1Pisarev, Dmitrii Ivanovich #2 피사레프, 드미트리 이바노비치 #3 제정 러시아

Писемский, Алексей Феофилактович #1Pisemski, Aleksei Feofilaktovich #2 피셈스키, 알렉세이 페오필락토비치 #3 제정 러시아

Пичкунов, Александр (Николаевич) #1Pichkunov, Aleksandr #2 피치쿠노프, 알렉산드르 #3 러시아

Платонов, Андрей Платонович #1Platonov, Andrei Platonovich #2 플라토노프, 안드레이 플라토노비치 #3 소련

Плетнев, Михаил #1Pletnev, Mikhail #2 플레트네프, 미하일 #3 러시아

Плеханов, Георгий Валентинович #1Plekhanov, Georgii Valentinovich #2 플레하노프, 게오르기 발렌티노비치 #3 제정 러시아

Плисецкая, Майя Михайловна #1Plisetskaja, Majja Mikhajlovna #2 플리세츠카야, 마이야 미하일로브나 #3 러시아

Плющенко, Евгений (Викторович) #1Plushenko, Evgeni (Viktorovich) #2 플류셴코, 예브게니 (빅토로비치) #3 러시아

Погорилая, Анна Алексеевна #1Pogorilaya, Anna (Alekseevna) #2 포고릴라야, 안나 (알렉세예브나) #3 러시아

Подгорный, Николай Викторович #1Podgorny, Nikolai Viktorovich #2 포드고르니, 니콜라이 빅토로비치 #3 소련

Пожарский, Дмитрий Михайлович #1Pozharsky, Dmitri Mikhailovich #2 포자르스키, 드미트리 미하일로비치 #3 중세 러시아

Полевой, Борис Николаевич #1Polevoi, Boris Nikolaevich #2 폴레보이, 보리스 니콜라예비치 #3 소련

Полевой, Николай Алексеевич #1Polevoy, Nikolai Alekseevich #2 폴레보이, 니콜라이 알렉세예비치 #3 제정 러시아

Ползунов, Иван Иванович #1Polzunov, Ivan Ivanovich #2 폴주노프, 이반 이바노비치 #3 제정 러시아의 열공학자. 화력 발동기 고안자(1728~1766). #4 용례집

Полоцкий, Симеон #1Polotsky, Simeon #2 폴로츠키, 시메온 #3 제정 러시아

Понтрягин, Лев Семёнович #1Pontryagin, Lev Semyonovich #2 폰트랴긴, 레프 세묘노비치 #3 소련

Попов, Александр Степанович #1Popov, Aleksandr Stepanovich #2 포포프, 알렉산드르 스테파노비치 #3 제정 러시아

Попов, Денис #1Popov, Denis #2 포포프, 데니스 #3 러시아

Попович, Павел (Романович) / Попович Павло (Романович) <우크라이나어> #1Popovich, Pavel (Romanovich) #2 포포비치, 파벨 (로마노비치) #3 러시아

Порошенко, Пётр (Алексеевич) / Порошенко, Петро (Олексійович) <우크라이나어> #1Poroshenko, Petro (Oleksijovych) #2 포로셴코, 페트로 (올렉크시요비치) #3 우크라이나

Потанин, Владимир #1Potanin, Vladimir #2 포타닌, 블라디미르 #3 러시아

Потёмкин, Григорий Александрович #1Potyomkin, Grigori Aleksandrovich #2 포툠킨, 그리고리 알렉산드로비치 #3 제정 러시아

Пржевальский, Николай Михайлович #1Przheval'skii, Nikolai Mikhailovich #2 프르제발스키, 니콜라이 미하일로비치 #3 제정 러시아

Пригожин, Илья (Романович) #1Prigogine, Ilya #2 프리고진, 일리야 #3 러시아 태생

Примаков, Евгений Максимович #1Primakov, Evgeni Maksimovich #2 프리마코프, 예브게니 막시모비치 #3 러시아

Пришвин, Михаил Михайлович #1Prishvin, Mikhail Mikhailovich #2 프리시빈, 미하일 미하일로비치 #3 소련

Прокопович, Феофан #1Prokopovich, Feofan #2 프로코포비치, 페오판 #3 제정 러시아

Прокофьев, Сергей Сергеевич #1Prokofiev, Sergei Sergeevich #2 프로코피예프, 세르게이 세르게예비치 #3 소련

Прохоров, Александр Михайлович #1Prokhorov, Aleksandr Mikhailovich #2 프로호로프, 알렉산드르 미하일로비치 #3 러시아

Прохоров, Михаил (Дмитриевич) #1Prokhorov, Mikhail (Dmitrievich) #2 프로호로프, 미하일 (드미트리예비치) #3 러시아

Пугачёв, Эмельян Иванович #1Pugachov, Emelyan Ivanovich #2 푸가초프, 에멜리얀 이바노비치 #3 제정 러시아

Пугачёва, Алла Борисовна #1Pugachyova, Alla Borisovna #2 푸가초바, 알라 보리소브나 #3 러시아

Пудовкин, Всеволод Илларионович #1Pudovkin, Vsevolod Illarionovich #2 푸돕킨, 프세볼로트 일라리오노비치 #3 소련

Пустухов, Борис Николаевич #1Pastukhov, Boris Nikolaevich #2 파스투호프, 보리스 니콜라예비치 #3 러시아

Путин, Владимир Владимиович #1Putin, Vladimir Vladimirovich #2 푸틴, 블라디미르 블라디미로비치 #3 러시아

Пушкин, Александр Сергеевич #1Pushkin, Aleksandr Sergeevich #2 푸시킨, 알렉산드르 세르게예비치 #3 제정 러시아

Пятигорский, Грегор #1Piatigorsky, Gregor #2 퍄티고르스키, 그레고르 #3 러시아 태생

<P>

Радионова, Елена (Игоревна) #1Radionova, Elena (Igorevna) #2 라디오노바, 옐레나 (이고레브나) #3 러시아

Радищев, Александр Николаевич #1Radishchev, Aleksandr Nikolaevich #2 라디셰프, 알렉산드르 니콜라예비치 #3 제정

Радлов, Василий Васильевич #1Radlov, Vasilii Vasilievich #2 라들로프, 바실리 바실리예비치 #3 독일 태생의 제정 러시아 동양학자

Разин, Степан Тимофеевич #1Razin, Stepan Timofeevich #2 라진, 스테판 티모페예비치 #3 제정 러시아

Разм, Мохаммад Алем #1Razm, Mohammad Alim #2 라즘, 모하마드 알림 #3 우즈베크 출신

Рамишвили, Теймураз #1Ramishvili, Teymuraz #2 라미시빌리, 테이무라스 #3 러시아

Расизаде, Артур (Таир оглы) #1Rasizade, Artur (Tahir oğlu) #2 라시자데, 아르투르 #3 아제르바이잔

Распутин, Валентин Григорьевич #1Rasputin, Valentin Grigorievich #2 라스푸틴, 발렌틴 그리고리예비치 #3 러시아

Распутин, Григорий Ефимович #1Rasputin, Grigorii Efimovich #2 라스푸틴, 그리고리 예피모비치 #3 제정 러시아

Растрелли, Варфоломей Варфоломеевич / Растрелли, Бартоломео Франческо #1Rastrelli, Varfolomei Varfolomeevich #2 라스트렐리, 바르폴로메이 바르폴로메예비치 #3 제정 러시아

Рахманинов, Сергей Васильевич #1Rakhmaninov, Sergei Vasil'evich #2 라흐마니노프, 세르게이 바실리예비치 #3 소련

Рахманов, Амангельды #1Rakhmanov, Amangeldy #2 라흐마노프, 아만겔디 #3 투르크메니스탄

Рахмон, Эмомали #1Rahmon, Emomalii #2 라흐몬, 에모말리 #3 타지키스탄

Рахмонов, Эмомали #1Rakhmonov, Emomali S. #2 라흐모노프, 에모말리 #3 타지키스탄

Резник, Михаил / Резнік, Михайло (Борисович) <우크라이나어> #1Reznik, Mykhailo (Borisovich) #2 레즈니크, 미하일로 #3 우크라이나

Репин, Илья Ефимович #1Repin, Il'ya Efimovich #2 레핀, 일리야 예피모비치 #3 제정 러시아

Римский-Корсаков, Николай Андреевич #1Rimskii-Korsakov, Nikolai Andreevich #2 림스키코르사코프, 니콜라이 안드레예비치 #3 제정 러시아

Родионов, Игорь #1Rodionov, Igor' #2 로디오노프, 이고리 #3 러시아

Рождественский, Генадий Николаевич #1Rozhdestvenski, Gennadi Nikolayevich #2 로즈데스트벤스키, 겐나디 니콜라예비치 #3 러시아

Рождественский, Роберт Иванович #1Rozhdestvensky, Robert Ivanovich #2 로즈데스트벤스키, 로베르트 이바노비치 #3 소련

Розанов, Василий Васильевич #1Rozanov, Vasilii Vasilievich #2 로자노프, 바실리 바실리예비치 #3 제정 러시아

Романов #1Romanov #2 로마노프 #3 러시아

Романов, Александр Михайлович #1Romanov, Aleksandr Mikhailovich #2 로마노프, 알렉산드르 미하일로비치 #3 제정 러시아

Романов, Алексей Александрович #1Romanov, Aleksei Aleksandrovich #2 로마노프,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 #3 제정 러시아

Романов, Алексей Николаевич #1Romanov, Aleksei Nikolaevich #2 로마노프, 알렉세이 니콜라예비치 #3 제정 러시아

Романов, Кирилл Владимирович #1Romanov, Kirill Vladimirovich #2 로마노프, 키릴 블라디미로비치 #3 제정 러시아

Романов, Михаил Фёдорович #1Romanov, Mikhail Fyodorovich #2 로마노프, 미하일 표도로비치 #3 제정 러시아

Романова, Елизавета Фёдоровна #1Romanova, Elizaveta Fyodorovna #2 로마노바, 옐리자베타 표도로브나 #3 제정 러시아

Романова, Татьяна Николаевна #1Romanova, Tat'yana Nikolaevna #2 로마노바, 타티야나 니콜라예브나 #3 제정 러시아

Романцев, Олег #1Romantsev, Oleg #2 로만체프, 올레크 #3 러시아

Ростовцев, Михаил Иванович #1Rostovtzeff, Michael Ivanovich #2 로스톱체프, 미하일 이바노비치 #3 제정 러시아 태생

Ростропович, Мстислав Леопольдович #1Rostropovich, Mstislav Leopoldovich #2 로스트로포비치, 므스티슬라프 레오폴도비치 #3 아제르바이잔

Рубинштейн, Антон Григорьевич #1Rubinshtein, Anton Grigorievich #2 루빈시테인, 안톤 그리고리예비치 #3 제정 러시아

Рубинштейн, Ида (Львовна) #1Rubinstein, Ida (Lvovna) #2 루빈시테인, 이다 #3 소련

Рубинштейн, Николай Григорьевич #1Rubinshtein, Nikolai Grigorievich #2 루빈시테인, 니콜라이 그리고리예비치 #3 제정 러시아

Рублёв, Анрей #1Rublyov, Andrei #2 루블료프, 안드레이 #3 중세 러시아

Румянцев, Александр #1Rumyantsev, Aleksandr #2 루먄체프, 알렉산드르 #3 러시아

Рутковский, Олег #1Rutkovsky, Oleg #2 룻콥스키, 올레크 #3 러시아

Рушайло, Владимир (Борисович) #1Rushailo, Vladimir (Borisovich) #2 루샤일로, 블라디미르 (보리소비치) #3 러시아

Рыжков, Николай #1Ryzhkov, Nikolai #2 리시코프, 니콜라이 #3 소련

Рыков, Алексей Иванович #1Rykov, Aleksei Ivanovich #2 리코프, 알렉세이 이바노비치 #3 소련

Рылеев, Кондратий Фёдорович #1Ryleev, Kondraty Fyodorovich #2 릴레예프, 콘드라티 표도로비치 #3 제정 러시아

Рэнд, Айн / Розенбаум, Алиса Зиновьевна <본명> #1Rand, Ayn #2 랜드, 에인.[13] <본명> 로젠바움, 알리사 지노비예브나. Rosenbaum, Alisa Zinov'yevna #3 러시아 태생

[13] "영어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 표기임.

Рюйтель, Арнольд #1Rüütel, Arnold #2 뤼텔, 아르놀드 #3 에스토니아
Рюрик #1Ryurik #2 류리크 #3 러시아의 건국자(?~879). #4 표준

<C>

Саакашвили, Михаил (Николозович) / სააკაშვილი, მიხეილ <조지아어> #1Saakashvili, Mikhail #2 사카슈빌리, 미하일 #3 조지아
Савинков, Борис Викторович #1Savinkov, Boris Viktorovich #2 사빈코프, 보리스 빅토로비치 #3 소련
Сазонов, Сергей Дмитриевич #1Sazonov, Sergei Dmitrievich #2 사조노프, 세르게이 드미트리예비치 #3 소련
Салтыков, Михаил Евграфович #1Saltykov, Mikhail Eevgrafovich #2 살티코프, 미하일 예브그라포비치 #3 제정 러시아
Сапиро, Евгений Саулович #1Sapiro, Evgenii Saulovich #2 사피로, 예브게니 사울로비치 #3 러시아
Саргсян, Вазген (Завенович) / Սարգսյան, Վազգեն #1Sarkisyan, Vazgen (Zavenovich) #2 사르키샨, 바즈겐 #3 아르메니아
Саргсян, Серж (Азатович) / Սարգսյան, Սերժ (Ազատի) <아르메니아어> #1Sargsyan, Serzh (Azati) #2 사르키샨, 세르지 (아자티) #3 아르메니아
Саргсян, Тигран (Суренович) / Սարգսյան, Տիգրան <아르메니아어> #1Sargsyan, Tigran #2 사르키샨, 티그란 #3 아르메니아
Саррот, Натали / Черняк, Наталья Ильинична <본명> #1Sarraute, Nathalie #2 사로트, 나탈리. <본명> 체르냐크, 나탈리야 일리니치나. Chernyak, Nathaliya Ilinichna #3 러시아 이바노보(Ivanovo) 태생
Сарьян, Мартирос (Сергеевич) / Սարյան, Մարտիրոս <아르메니아어> #1Sariyan, Martiros (Sergeevich) #2 사리얀, 마르티로스 (세르게예비치) #3 아르메니아
Сахаров, Андрей Дмитриевич #1Sakharov, Andrei Dmitrievich #2 사하로프, 안드레이 드미트리예비치 #3 소련
Святослав I Игоревич #1Sviatoslav I of Kiev / Svyatoslav Igorevich #2 스뱌토슬라프 이고레비치 #3 고대 러시아
Святослав II Ярославич #1Sviatoslav II of Kiev / Svyatoslav II Yaroslavich #2 스뱌토슬라프 야로슬라비치 2 세 #3 키예프 공국
Севастова, Анастасия #1Sevastova, Anastasija #2 세바스토바, 아나스타시야 #3 라트비아

Сёдергран, Эдит Ирене #1Södergran, Edith Irene #2 쇠데르그란, 에디트 이레네[14] #3 러시아 태생

Селезнёв, Геннадий (Николаевич) #1Seleznyov, Gennady (Nikolayevich) #2 셀레즈뇨프, 겐나디 (니콜라예비치) #3 러시아

Семак, Сергей #1Semak, Sergei #2 세마크, 세르게이 #3 러시아

Семён Иванович Гордый #1Semyon Ivanovich Gordy #2 세뮨 이바노비치 고르디 #3 모스크바와 블라디미르의 대공후

Семёнов, Виктор Александрович #1Semyonov, Viktor Aleksandrovich #2 세묘노프, 빅토르 알렉산드로비치 #3 러시아

Семёнов, Николай Николаевич #1Semyonov, Nikolai Nikolaevich #2 세묘노프, 니콜라이 니콜라예비치 #3 제정 러시아

Серапион Печерский #1Serapion Vladimirsky #2 세라피온 블라디미르스키 #3 고대 러시아

Серафимович, Александр #1Serafimovich, Aleksandr #2 세라피모비치, 알렉산드르 #3 소련

Сергеев, Игорь Дмитриевич #1Sergeev, Igor’ Dmitrievich #2 세르게예프, 이고리 드미트리예비치 #3 러시아

Сергий Радонежский #1Sergius of Radonezh/ Sergy Radonezhsky #2 세르기 라도네시스키 #3 중세 러시아

Сердюков, Анатолий (Эдуардович) #1Serdyukov, Anatoly (Eduardovich) #2 세르듀코프, 아나톨리 (에두아르도비치) #3 러시아

Серов, Валерий Михайлович #1Serov, Valery (Mikhailovich) #2 세로프, 발레리 (미하일로비치) #3 러시아

Сечин, Игорь (Иванович) #1Sechin, Igor’ (Ivanovich) #2 세친, 이고리 (이바노비치) #3 러시아

Сидорский, Сергей (Сергеевич) / Сідорскі, Сяргей (Сяргеевіч) <벨라루스어> #1Sidorsky, Sergei #2 시도르스키, 세르게이 #3 벨라루스

Сикорский, Игорь Иванович #1Sikorsky, Igor’ Ivanovich #2 시코르스키, 이고리 이바노비치 #3 소련 태생

Силуанов, Антон (Германович) #1Siluanov, Anton (Germanovich) #2 실루아노프, 안톤 (게르마노비치) #3 러시아

Симкин, Даниил #1Simkin, Daniil #2 심킨, 다닐 #3 러시아

Скобрев, Иван (Александрович) #1Skobrev, Ivan (Aleksandrovich) #2 스코브레프, 이반 (알렉산드로비치) #3 러시아

---

[14] 현재 핀란드어는 별도의 외래어 표기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일반적인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함.

Скрынник Елена (Борисовна) #1Skrynnik, Elena (Borisovna) #2 스크린니크, 옐레나 (보리소브나) #3 러시아

Скрябин, Александр Николаевич #1Skryabin, Aleksandr Nikolaevich #2 스크랴빈, 알렉산드르 니콜라예비치 #3 제정

Слепцова, Светлана (Юрьевна) #1Sleptsova, Svetlana (Yuryevna) #2 슬렙초바, 스베틀라나 (유리예브나) #3 러시아

Слуцкая, Ирина #1Slutskaya, Irina #2 슬루츠카야, 이리나 #3 러시아

Смертин, Алексей #1Smertin, Alexei #2 스메르틴, 알렉세이 #3 러시아

Собчак, Анатолий Александрович #1Sobchak, Anatoly Aleksandrovich #2 솝차크, 아나톨리 알렉산드로비치 #3 러시아

Собянин, Сергей (Семёнович) #1Sobyanin, Sergei (Semyonovich) #2 소뱌닌, 세르게이 (세묘노비치) #3 러시아

Солженицын, Александр Исаевич #1Solzhenitsyn, Aleksandr Isajevich #2 솔제니친, 알렉산드르 이사예비치 #3 러시아

Соловьёв, Владимир Сергеевич #1Solov'yov, Vladimir Sergeevich #2 솔로비요프, 블라디미르 세르게예비치 #3 제정 러시아

Соловьёв, Николай Николаевич #1Soloviyov. Nikolai Nikolaevich #2 솔로비요프, 니콜라이 니콜라예비치 #3 러시아

Соловьёв, Сергей Михайлович #1Solov'yov, Sergei Mikhailovich #2 솔로비요프,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 #3 제정 러시아

Сологуб, Фёдор #1Sologub, Fyodor #2 솔로구프, 표도르 #3 제정 러시아

Соломатин, Андрей #1Solomatin, Andrei #2 솔로마틴, 안드레이 #3 러시아

Сорокин, Питрим Александрович #1Sorokin, Pitirim Alexandrovich #2 소로킨, 피티림 알렉산드로비치 #3 제정 러시아 태생

Спасский, Борис Васильевич #1Spassky, Boris Vasilyevich #2 스파스키, 보리스 바실리예비치 #3 러시아

Сперанский, Михаил Михайлович #1Speranski, Mikhail Mikhailovich #2 스페란스키, 미하일 미하일로비치 #3 제정 러시아

Спиваков, Владимир (Теодорович) #1Spivakov, Vladimir (Teodorovich) #2 스피바코프, 블라디미르 (테오도로비치) #3 러시아

Сталин, Иосиф Виссарионович #1Stalin, Iosif Vissarionovich #2 스탈린, 이오시프 비사리오노비치 #3 소련

Станиславский, Константин Сергеевич #1Stanislavskii, Konstantin Sergeevich #2 스타니슬랍스키, 콘스탄틴 세르게예비치 #3 제정 러시아

Станкевич, Николай Владимирович #1Stankevich, Nikolai Vladimirovich #2 스탄케비치, 니콜라이 블라디미로비치 #3 제정 러시아

Станюта, Мелитина (Дмитриевна) / Станюта, Меліціна (Дзмітрыеўна) <벨라루스어> #1Stanyuta, Myelitsina (Dzmitryyewna) 〔Staniouta, Melitina〕.

#2 스타뉴타, 멜리치나 (즈미트리예우나). <러시아어> 스타뉴타, 멜리티나 드미트리예브나 Stanyuta, Melitina Dmitrievna #3 벨라루스

Стародубов, Вдадимир #1Starodubov, Vladimir #2 스타로두보프, 블라디미르 #3 러시아

Стасов, Владимир Васильевич #1Stasov, Vladimir Vasilievich #2 스타소프, 블라디미르 바실리예비치 #3 제정 러시아

Степашин, Сергей Вадимович #1Stepashin, Sergei Vadimovich #2 스테파신, 세르게이 바디모비치 #3 러시아

Стерн, Исаак / Ісаак Штерн <우크라이나어> #1Stern, Isaac #2 스턴, 아이작[15] #3 우크라이나 태생

Столыпин, Пётр Аркадьевич #1Stolypin, Pëtr Arkad'evich #2 스톨리핀, 표트르 아르카디예비치 #3 제정 러시아

Стравинский, Игорь Фёдорович #1Stravinsky, Igor' Fedorovich #2 스트라빈스키, 이고리 페도로비치 #3 제정 러시아 태생

Строганов, Павел Александрович #1Stroganov, Pavel Aleksandrovich #2 스트로가노프, 파벨 알렉산드로비치 #3 제정 러시아

Строев, Егор Семёнович #1Stroev, Yegor (Semyonovich) #2 스트로예프, 예고르 (세묘노비치) #3 러시아

Суворов, Александр Петрович #1Suvorov, Aleksandr Petrovich #2 수보로프, 알렉산드르 페트로비치 #3 제정 러시아

Султанов, Уткир (Тухтамурадович) #1Sultanov, Utkir (Tukhtamuradovich) #2 술타노프, 웃키르 (투흐타무라도비치) #3 우즈베키스탄

Сумароков, Александр Петрович #1Sumarokov, Aleksandr Petrovich #2 수마로코프, 알렉산드르 페트로비치 #3 제정 러시아

Суриков, Василий Иванович #1Surikov, Vasilii Ivanovich #2 수리코프, 바실리 이바노비치 #3 제정 러시아

Сурков, Владислав (Юрьевич) #1Surkov, Vladislav (Yur'evich) #2 수르코프, 블라디슬라프 (유리예비치) #3 러시아

Суслов, Михаил Андреевич #1Suslov, Mikhail Andreevich #2 수슬로프, 미하일 안드레예비치 #3 소련

Сутин, Хаим Соломонович #1Soutine, Chaim #2 수틴, 샘[16] #3 제정 러시아 태생

Сысуев, Олег Николаевич #1Sysuyev, Oleg Nikolaevich #2 시수예프, 올레크 니콜라예비치 #3 러시아

---

[15] "영어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 표기임.

[16] "프랑스어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 표기임.

<T>

Таиров, Александр Яковлевич #1Tairov, Aleksandr Yakovlevich #2 타이로프, 알렉산드르 야코블레비치 #3 소련

Тамерлан / Тимур #1Timour #2 티무르 #3 티무르 왕조

Тамм, Игорь Евгеньевич #1Tamm, Igor' Jevgen'jevich #2 탐, 이고리 예브게니예비치 #3 소련

Тарковский, Андрей Арсеньевич #1Tarkovsky, Andrei Arsen’evich #2 타르콥스키, 안드레이 아르세니예비치 #3 소련

Тасмагамбетов, Имангали #1Tasmagambetov, Imangali #2 타스마감베토프, 이망갈리 #3 카자흐스탄

Татишвили, Анна (Дмитриевна) / ტატიშვილი, ანა <조지아어> #1T'at'ishvili, Ana 〔Tatishvili, Anna〕 #2 타티슈빌리, 아나 #3 조지아

Татищев, Василий Никитич #1Tatishchev, Vasilii Nikitich #2 타티셰프, 바실리 니키티치 #3 제정 러시아

Татлин, Владимир Евграфович #1Tatlin, Vladimir Evgrapovich #2 타틀린, 블라디미르 예브그라포비치 #3 소련

Твардовский, Александр Трифонович #1Tvardovskii, Aleksandr Trifonovich #2 트바르돕스키, 알렉산드르 트리포노비치 #3 소련

Текебаев, Омурбек #1Tekebayev, Omurbek #2 테케바예프, 오무르베크 #3 키르기스스탄

Тёмкин, Дмитрий (Зиновьевич) #1Tyomkin, Dmitri #2 툠킨, 드미트리 #3 제정 러시아 태생

Темучин #1Temuchin #2 테무친 #3 칭기즈 칸(Chingiz Khan)의 본명.

Тендряков, Владимир Фёдорович #1Tendryakov, Vladimir Fyodrovich #2 텐드랴코프, 블라디미르 표드로비치 #3 소련

Терешкова, Валентина #1Tereshkova, Valentina #2 테레시코바, 발렌티나 #3 러시아

Тетрадзе, Омари #1Tetradze, Omari #2 테트라제, 오마리 #3 러시아

Тимирязев, Климент Аркадьевич #1Timiryazev, Kliment Arkadievich #2 티미랴제프, 클리멘트 아르카디예비치 #3 제정 러시아

Тимофти, Николае (Васильевич) #1Timofti, Nicolae #2 티모프티, 니콜라에 #3 몰도바

Тимошенко, Юлия (Владимировна) / Тимошенко Юлія (Володимирівна) <우크라이나어> #1Tymoshenko, Yuliya #2 티모셴코, 율리야 #3 우크라이나

Титов, Егорь #1Titov, Egor’ #2 티토프, 예고리 #3 러시아

Тихон (Патриарх Московский) #1Tikhon #2 티혼 #3 제정 러시아

Тихонов, Александр Николаевич #1Tikhonov, Aleksandr Nikolaevich #2 티호노프, 알렉산드르 니콜라예비치 #3 러시아

Тихонов, Николай Семёнович #1Tikhonov, Nikolai Semyonovich #2 티호노프, 니콜라이 세묘노비치 #3 소련

Токаев, Касым-Жомарт (Кемелевич) / Тоқаев, Қасым-Жомарт (Кемелұлы) #1Tokayev, Kasymzhomart K. #2 토카예프, 카심조마르트 #3 카자흐스탄

Толорая, Георгий (Давидович) #1Toloraya, Georgii (Davidovich) #2 톨로라야, 게오르기 (다비도비치) #3 러시아

Толстой, Алексей Николаевич #1Tolstoi, Aleksei Nikolaevich #2 톨스토이, 알렉세이 니콜라예비치 #3 소련

Толстой, Лев Николаевич #1Tolstoi, Lev Nikolaevich #2 톨스토이, 레프 니콜라예비치 #3 제정 러시아

Траньков, Максим (Леонидович) #1Tran'kov, Maxim (Leonidovich) #2 트란코프, 막심 (레오니도비치) #3 러시아

Тренин, Дмитрий (Витальевич) #1Trenin, Dmitri #2 트레닌, 드미트리 #3 러시아 태생

Третьяков, Александр (Владимирович) #1Tretyakov, Alexander (Vladimirovich) #2 트레티야코프, 알렉산드르 (블라디미로비치) #3 러시아

Третьяков, Павел Михайлович #1Tret'yakov, Pavel Mikhailovich #2 트레티야코프, 파벨 미하일로비치 #3 제정 러시아

Третьяков, Сергей Михайлович #1Tret'yakov, Sergei Mikhailovich #2 트레티야코프,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 #3 제정 러시아

Троцкий, Леон #1Trotskii, Leon #2 트로츠키, 레온 #3 소련

Трояновский, Олег А. #1Troyanovsky, Oleg A. #2 트로야놉스키, 올레크 #3 소련

Туктамышева, Елизавета (Сергеевна) #1Tuktamysheva, Elizaveta (Sergeevna〔Sergeyevna〕) #2 툭타미셰바, 옐리자베타 (세르게예브나) #3 러시아

Туполев, Алексей #1Tupolev, Aleksej #2 투폴레프, 알렉세이 #3 러시아

Туполев, Андрей Николаевич #1Tupolev, Andrei Nikolaevich #2 투폴레프, 안드레이 니콜라예비치 #3 소련

Тургенев, Иван Сергеевич #1Turgenev, Ivan Sergeevich #2 투르게네프, 이반 세르게예비치 #3 제정 러시아

Тухачевский, Михаил Николаевич #1Tukhachevskii, Mikhail Nikolaevich #2 투하쳅스키, 미하일 니콜라예비치 #3 소련

Тютчев, Фёдор Иванович #1Tyutchev, Fyodor Ivanovich #2 튜체프, 표도르 이바노비치 #3 제정 러시아의 시인(1803~1873). #4 표준

<У>

Улицкая, Людмила (Евгеньевна) #1Ulitskaya, Lyudmila (Evgen'evna) #2 울리츠카야, 류드밀라 (예브게니예브나) #3 러시아

Улугбек #1Ulugh Beg #2 울루그베그 #3 티무르 왕조

Ульянова, Ольга #1Ul'yanova, Ol'ga #2 울리야노바, 올가 #3 러시아

Уринсон, Яков Моисеевич #1Urinson, Yakov Moiseevich #2 우린손, 야코프 모이세예비치 #3 러시아

Успенский, Глеб Иванович #1Uspenskii, Gleb Ivanovich #2 우스펜스키, 글레프 이바노비치 #3 제정 러시아

Устинов, Александр #1Ustinov, Alexander #2 우스티노프, 알렉산드르 #3 러시아

Устюгов, Евгений (Романович) #1Ustyugov, Evgeny (Romanovich) #2 우스튜고프, 예브게니 (로마노비치) #3 러시아

Ушаков, Симон Федорович #1Ushakov, Simon Fyodorovich #2 우샤코프, 시몬 표도로비치 #3 제정 러시아

Ушаков, Фёдор #1Ushakov, Fyodor #2 우샤코프, 표도르 #3 제정 러시아

<Ф>

Фадеев, Александр Алексанрович #1Fadeev, Aleksandr Aleksandrovich #2 파데예프, 알렉산드르 알렉산드로비치 #3 소련

Федин, Константин Александрович #1Fedin, Konstantin Aleksandrovich #2 페딘, 콘스탄틴 알렉산드로비치 #3 소련

Федков, Андрей #1Fedkov, Andrei #2 펫코프, 안드레이 #3 러시아

Фёдор Алексеевич #1Fyodor Alekseevich #2 표도르 알렉세예비치 #3 제정 러시아

Фёдор Иванович #1Fyodor Ivanovich #2 표도르 이바노비치 #3 제정 러시아

Фёдоров, Борис #1Fyodorov, Boris #2 표도로프, 보리스 #3 러시아

Фёдоров, Борис (Григорьевич) #1Fyodorov, Boris #2 표도로프, 보리스 #3 러시아

Фёдоров, Иван #1Fyodorov, Ivan #2 표도로프, 이반 #3 제정 러시아

Федотов, Павел Андреевич #1Fedotov, Pavel Andreevich #2 페도토프, 파벨 안드레예비치 #3 제정 러시아

Фен, Виталий #1Fen, Vitaly #2 펜, 비탈리 #3 우즈베키스탄

Феофан Грек #1Theophanes the Greek / Grek Feofan #2 페오판 그레크 #3 러시아에서 활동한 그리스 화가

Фет, Афанасий Афанасьевич #1Fet, Afanasii Afanasievich #2 페트, 아파나시 아파나시예비치 #3 제정 러시아

Филат, Владимир (Васильевич) #1Filat, Vlad #2 필라트, 블라드 <본명> 필라트, 블라디미르. Filat, Vladimir #3 몰도바

Филимонов, Александр #1Filimonov, Aleksandr #2 필리모노프, 알렉산드르 #3 러시아

Филипов, Владимир #1Filipov, Vladimir #2 필리포프, 블라디미르 #3 러시아

Филипп / <본명> #1Filipp #2 필리프 <본명> 콜리체프, 표도르 스테파노비치. Kolychev, Fyodor Stepanovich #3 제정 러시아

Флоренский, Павел Александрович #1Florensky, Pavel Aleksandrovich #2 플로렌스키, 파벨 알렉산드로비치 #3 제정 러시아

Фокин, Михаил Михайлович #1Fokin, Mihail Mihailovich #2 포킨, 미하일 미하일로비치 #3 소련 태생

Фонвизин, Денис Иванович #1Fonvizin, Denis Ivanovich #2 폰비진, 데니스 이바노비치 #3 제정 러시아

Фрадков, Михаил (Ефимович) #1Fradkov, Mikhail #2 프랏코프, 미하일 #3 러시아

Франк, Илья Михайлович #1Frank, Il'ja Mikhailovich #2 프란크, 일리야 미하일로비치 #3 소련

Франк, Сергей Оттович #1Frank, Sergei Ottovich #2 프란크, 세르게이 오토비치 #3 러시아

Фриче, Владимир Максимович #1Friche, Vladimir Maksimovich #2 프리체, 블라디미르 막시모비치 #3 소련

Фрунзе, Михаил Васильевич #1Frunze, Mikhail Vasilievich #2 프룬제, 미하일 바실리예비치 #3 소련

Фурманов, Дмитрий Андреевич #1Furmanov, Dmitrii Andreevich #2 푸르마노프, 드미트리 안드레예비치 #3 소련

<X>

Хазова Ирина (Викторовна) #1Khazova, Irina (Viktorovna) #2 하조바, 이리나 (빅토로브나) #3 러시아

Халсман, Филипп / Halsmans, Filips <라트비아어> #1Halsman, Philippe #2 홀스먼, 필리프 #3 라트비아 태생

Харитонов, Сергей (Валерьевич) #1Kharitonov, Sergei (Valerievich) #2 하리토노프, 세르게이 (발레리예비치) #3 러시아

Хатятурян, Арам Ильич #1Khachaturyan, Aram Iliich #2 하탸투랸, 아람 일리치 #3 소련

Хватков, Николай #1Khvatkov, Nikolai #2 흐밧코프, 니콜라이 #3 러시아

Хейфец, Яша / Хейфец, Ио́сиф Рувѝмович #1Heifetz, Jascha #2 하이페츠, 야샤 #3 소련 태생

Хлебников, Велемир Владимирович #1Khlebnikov, Velemir Vladimirovich #2 흘레브니코프, 벨레미르 블라디미로비치 #3 제정 러시아

Хлестов, Дмитрий #1Khlestov, Dmitri #2 흘레스토프, 드미트리 #3 러시아
Ходорковский, Михаил (Борисович) #1Khodorkovsky, Mikhail (Borisovich) #2 호도르콥스키, 미하일 (보리소비치) #3 러시아
Ходырев, Геннадий #1Khodyrev, Gennady #2 호디레프, 겐나디 #3 러시아
Хомяков, Алексей Степанович #1Khomyakov, Aleksei Stepanovich #2 호먀코프, 알렉세이 스테파노비치 #3 제정 러시아
Хохлов, Дмитрий #1Khokhlov, Dmitri #2 호흘로프, 드미트리 #3 러시아
Христенко, Виктор Борисович #1Khristenko, Viktor Borisovich #2 흐리스텐코, 빅토르 보리소비치 #3 러시아
Хрусталёва, Елена (Владимировна) #1Khrustaleva, Elena (Vladimirovna) #2 흐루스탈료바, 옐레나 (블라디미로브나) #3 러시아
Хрущёв, Никита Сергеевич #1Khrushchyov, Nikita Sergeevich #2 흐루쇼프, 니키타 세르게예비치 #3 소련
Хрущёв, Сергей #1Khrushchyov, Sergei #2 흐루쇼프, 세르게이 #3 소련

<Ц>

Цадкин, Осип #1Zadkine, Ossip #2 자킨, 오시 #3 제정 러시아 태생
Цах, Николай П. #1Tsakh, Nikolai P. #2 차흐, 니콜라이 #3 러시아
Цветаев, Иван Владимирович #1Tsvetaev, Ivan Vladimirovich #2 츠베타예프, 이반 블라디미로비치 #3 제정 러시아
Цветаева, Марина Ивановна #1Tsvetaeva, Marina Ivanovna #2 츠베타예바, 마리나 이바노브나 #3 제정 러시아
Циолковский, Константин Эдуардович #1Tsiolkovskii, Konstantin Eduardovich #2 치올콥스키, 콘스탄틴 예두아르도비치 #3 소련

<Ч>

Чаадаев, Пётр Яковлевич #1Chaadaev, Pyotr Yakovlevich #2 차다예프, 표트르 야코블레비치 #3 제정 러시아
Чагатай #1Chaghatai #2 차가타이 #3 차가타이 한국(汗國)
Чайка, Юрий (Яковлевич) #1Chaika, Yuri (Yakoblevich) #2 차이카, 유리 (야코블레비치) #3 러시아
Чайковский, Пётр Ильич #1Chaikovskii, Pyotr Il'ich #2 차이콥스키, 표트르 일리치 #3 제정 러시아
Чебышёв, Пафнутий Львович #1Chebyshov, Pafnuti L’vovich #2 체비쇼프, 파프누티 리보비치 #3 제정 러시아
Чебышёв, Пафнутий Львович #1Chebyshov, Pafnuti Lvovich #2 체비쇼프 #3 제정 러시아
Черезов, Иван (Юрьевич) #1Tcherezov, Ivan (Yuryevich) #2 체레조프, 이반 (유리예비치) #3 러시아

Черенков, Алексеевич Павел #1Cherenkov, Alekseyevich Pavel #2 체렌코프, 알렉세예비치 파벨 #3 소련

Чермный, Михаил Всеволодович #1Chermny, Mikhail Vsevolodovich #2 체름니, 미하일 프세볼로도비치 #3 키예프의 대공후

Черненко, Константин Устинович #1Chernenko, Konstantin Ustinovich #2 체르넨코, 콘스탄틴 우스티노비치 #3 소련

Чернов, Виктор Михайлович #1Chernov, Viktor Mikhailovich #2 체르노프, 빅토르 미하일로비치 #3 제정 러시아

Черномырдин, Виктор С. #1Chernomyrdin, Viktor S. #2 체르노미르딘, 빅토르 #3 러시아

Чернышевский, Николай Гаврилович #1Chernyshevsky, Nikolay Gavrilovich #2 체르니솁스키, 니콜라이 가브릴로비치 #3 제정 러시아

Чехов, Антон Павлович #1Chekhov, Anton Pavlovich #2 체호프, 안톤 파블로비치 #3 제정 러시아

Чингисхан #1Chingiz Khan #2 칭기즈 칸 #3 몽고국

Чубайс, Анатолий #1Chubais, Anatoly B. #2 추바이스, 아나톨리 #3 러시아

Чугайнов, Игорь #1Chugainov, Igor’ #2 추가이노프, 이고리 #3 러시아

Чудинов, Игорь Витальевич #1Igor’ Vitalyevich Chudinov #2 추디노프, 이고리 비탈리예비치 #3 키르기스스탄

Чудов, Максим (Александрович) #1Tchoudov, Maxim (Alexandrovich) #2 추도프, 막심 (알렉산드로비치) #3 러시아

Чуковский, Корней Иванович #1Chukovskii, Kornei Ivanovich #2 추콥스키, 코르네이 이바노비치 #3 제정 러시아

<Ш>

Шабалин, Максим (Андреевич) #1Shabalin, Maxim (Andreevich) #2 샤발린, 막심 (안드레예비치) #3 러시아

Шагал, Марк (Захарович) #1Chagall, Marc #2 샤갈, 마르크 #3 러시아 태생

Шагинян, Мариетта Сергеевна #1Shaginyan, Marietta Sergeevna #2 샤기냔, 마리예타 세르게예브나 #3 소련

Шаляпин, Фёдор Иванович #1Chaliapin, Fyodor Ivanovich #2 샬랴핀, 표도르 이바노비치 #3 소련

Шан, Бен #1Shahn, Ben #2 샨, 벤 #3 제정 러시아 태생

Шаповальянц, Андрей Георгиевич #1Shapoval’yants, Andrei Georgievich #2 샤포발리얀츠, 안드레이 게오르기예비치 #3 러시아

Шарапова, Мария (Юрьевна) #1Sharapova, Maria (Yuryevna) #2 샤라포바, 마리야 (유리예브나) #3 러시아

Шверник, Николай Михайлович #1Shvernik, Nikolai Mikhailovich #2 시베르니크, 니콜라이 미하일로비치 #3 소련

<참고> CIS(구 소련) 인명의 한글 표기 용례

Шеварднадзе, Эдуард (Амвросиевич) / შევარდნაძე, ედუარდ <조지아어> #1Shevardnadze, Eduard (Amvrosijevich) #2 셰바르드나제, 예두아르트 (암브로시예비치) #3 조지아

Шевченко, Тарас Григорьевич / Шевченко Тарас Григорович <우크라이나어> #1Shevchenko, Taras Grigorievich #2 셰프첸코, 타라스 그리고리예비치 #3 우크라이나

Шейк, Ирина / Шайхлисламова, Ирина Валерьевна <본명> #1Sheik〔Shayk〕, Irina #2 셰이크, 이리나. <본명> 샤이흘리슬라모바, 이리나 발레리예브나. Shajkhlislamova, Irina Valer'evna #3 러시아

Шемета, Альгирдас #1Šemeta, Algirdas (Gediminas) #2 셰메타, 알기르다스 (게디미나스) #3 리투아니아

Шестов, Лев Исакович #1Shestov, Lev Isakovich #2 셰스토프, 레프 이사코비치 #3 제정 러시아

Шилов, Александр Александрович #1Shilov, Aleksandr Aleksandrovich #2 실로프, 알렉산드르 알렉산드로비치 #3 러시아

Шиманов, Александр Алексеевич #1Shimanov, Aleksandr Alekseevich #2 시마노프, 알렉산드르 알렉세예비치 #3 러시아

Шипулин, Антон (Владимирович) #1Shipulin, Anton (Vladimirovich) #2 시풀린, 안톤 (블라디미로비치) #3 러시아

Шишкин, Иван Иванович #1Shishkin, Ivan Ivanovich #2 시시킨, 이반 이바노비치 #3 제정 러시아

Шкеле, Андрис #1Skele, Andris #2 슈켈레, 안드리스 #3 라트비아

Шкловский, Виктор Борисович #1Shklovskii, Viktor Borisovich #2 시클롭스키, 빅토르 보리소비치 #3 소련

Шматко, Сергей Иванович #1Shmatko, Sergei (Ivanovich) #2 시맛코, 세르게이 (이바노비치) #3 러시아

Шмидт, Отто Юрьевич #1Schmidt, Otto Iurievich #2 시미트, 오토 유리예비치 #3 소련

Шоигу, Сергей Кужугетович #1Shoigu, Sergei Kuzhugetovich #2 쇼이구, 세르게이 쿠주게토비치 #3 러시아

Шолохов, Михаил Александрович #1Sholokhov, Mikhail Aleksandrovich #2 숄로호프, 미하일 알렉산드로비치 #3 소련

Шостакович, Дмитрий Дмитриевич #1Shostakovich, Dmitrii Dmitrievich #2 쇼스타코비치, 드미트리 드미트리예비치 #3 소련

Штыков, Терентий Фомич #1Shtykov, Terenty Fomich #2 시티코프, 테렌티 포미치 #3 소련

Шубин, Федот Иванович #1Shubin, Fedot Ivanovich #2 슈빈, 페도트 이바노비치 #3 제정 러시아

Шувалов, Игорь (Иванович) #1Shuvalov, Igor’ (Ivanovich) #2 슈발로프, 이고리 (이바노비치) #3 러시아

Шукшин, Василий Макарович #1Shukshin, Vasily Makarovich #2 슉신, 바실리 마카로비치 #3 소련

<Щ>

Щёголев, Игорь (Олегович) #1Shchyogolev, Igor’ (Olegovich) #2 쇼골레프, 이고리 (올레고비치) #3 러시아

Щепкин, Михаил Семёнович #1Shchepkin, Mikhail Semyonovich #2 셉킨, 미하일 세묘노비치 #3 제정 러시아

Щербатской, Фёдор Ипполитови #1Shcherbatskoi, Fyodor Ippolitovich #2 셰르바츠코이, 표도르 이폴리토비치 #3 소련

<Э>

Эйзенштейн, Сергей Михайлович #1Eisenstein, Sergei Mikhailovich #2 예이젠시테인,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 #3 소련

Эйхенбаум, Борис Михайлович #1Eikhenbaum, Boris Mikhailovich #2 예이헨바움, 보리스 미하일로비치 #3 소련

Эльман, Михаил (Саулович) #1Elman, Mischa #2 엘먼, 미샤 #3 러시아 태생

Эренбург, Илья Григорьевич #1Erenburg, Il'ya Grigorevich #2 예렌부르크, 일리야 그리고리예비치 #3 소련

<Ю>

Южанов #1Yuzhanov #2 유자노프 #3 러시아

Юрий Владимирович Долгорукий #1Yuri Vladimirovich Dolgoruky #2 유리 블라디미로비치 돌고루키 #3 키예프의 대공후

Юрий Данилович #1Yuri Danilovich #2 유리 다닐로비치 #3 모스크바의 공후

Ющенко, Виктор (Андреевич) / Ющенко, Віктор (Андрійович) <우크라이나어> #1Yushchenko, Viktor #2 유셴코, 빅토르 #3 우크라이나

<Я>

Явлинский, Григорий А. #1Yavlinskiy, Grigory A. #2 야블린스키, 그리고리 #3 러시아

Якобсон, Роман (Осипович) #1Jakobson, Roman #2 야콥슨, 로만 #3 제정 러시아 태생

Яковлев, Александр Николаевич #1Yakovlev, Aleksandr Nikolayevich #2 야코블레프, 알렉산드르 니콜라예비치 #3 소련

Яковлев, Александр Сергеевич #1Yakovlev, Aleksandr Sergeevich #2 야코블레프, 알렉산드르 세르게예비치 #3 소련

Янукович, Виктор (Фёдорович) / Янукович, Віктор (Федорович) <우크라이나어> #1Yanukovych, Viktor #2 야누코비치, 빅토르 #3 우크라이나

Ярви, Пааво #1Järvi, Paavo #2 예르비, 파보 #3 에스토니아 출신

Ярема, Виталий (Григорьевич) / Ярема, Віталій (Григорович) <우크라이나어> #1Jarema, Vitalij 〔Yarema, Vitaly〕 #2 야레마, 비탈리 #3 우크라이나

Ярослав Всеволодович #1Yaroslav Vsevolodovich #2 야로슬라프 프세볼로도비치 #3 키예프의 대공, 블라디미르의 대공

Ярослав Мудрый #1Yaroslav Mudry #2 야로슬라프 무드리 #3 키예프 러시아 시기의 대공후

Ясин, Евгений Г. #1Yasin, Yevgeny G. #2 야신, 예브게니 #3 러시아 연방

Ясина, Ирина (Евгеньевна) #1Yasina, Irina (Evgen'evna) #2 야시나, 이리나 (예브게니예브나) #3 러시아

Яценюк, Арсений Петрович / Яценюк, Арсеній Петрович <우크라이나어> #1Jatsenjuk, Arsenij (Petrovych) 〔Yatsenyuk, Arseniy (Petrovych)〕 #2 야체뉴크, 아르세니 (페트로비치) #3 우크라이나

이상의 용례를 인용한 자료의 상세 정보는 다음과 같다.

- 국립국어원(2005), <외래어 표기 용례집(포르투갈어, 네덜란드어, 러시아어)>, 국립국어원, 233p.
- 국립국어원 홈페이지 (http://korean.go.kr). 외래어 표기 용례 자료 – 로마지명(2014.12.12.), 로마인명(2015.03.27.).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용례를 활용하도록 한다.

가) *가 붙은 표기는 “러시아어 외래어 표기법”에 맞지 않으나 관례에 따른 것이다.
나) 소련 해체 이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등의 인명은 러시아어보다는 자국어의 로마자 표기를 우선으로 하여 한글로 옮기기 때문에 “러시아어 외래어 표기법” 외에 일반적인 외래어 표기법 규정을 따르는 경우가 있다.
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의 인명은 러시아어 표기를 우선으로 하되, 자국어에서 유래한 인명은 “러시아어 외래어 표기법”이 아닌 일반적인 외래어 표기법 규정을 따르는 경우가 있다.
라) 색인의 편의를 위해 “성 – 이름 – (부칭)”의 순으로 표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한국에서 외국 인명은 “이름 – 성”의 순서로 표기하므로 “성, 이름”과 같이 “ , ”를 사용하여 성과 이름을 구분한다. 예를 들어, Толстой Лев Николаевич 는 “톨스토이, 레프 (니콜라예비치)”로 표기되어 있으나, 실제 한국어에서는 “레프 톨스토이”로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마) 추후 로마자 표기를 하나의 체계로 통일하기로 한다.

<참고 4> CIS(구 소련) 지명의 한글 표기 용례

장호종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이하의 용례는 <외래어 표기 용례집(포르투갈어, 네덜란드어, 러시아어)>과 국립국어원 홈페이지(http://korean.go.kr)에서 공개한 외래어 표기 용례 자료 파일에서 인용하였다. "러시아어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지속적으로 미비한 내용을 보충하고 잘못된 정보를 수정하기로 한다.

각 용례는 "러시아어 표기 / (원어 표기) #1: (영어) / 로마자 표기 #2: 한글 표기 #3: 국가"의 순서로 기술되었다.

<A>

Абакан #1Abakan #2 아바칸 #3 러시아
Абхазия #1Abkhaz #2 압하스 #3 조지아
Агинск Бурят #1Aginsk Buryat #2 아긴스크부랴트 #3 러시아
Аджария #1Adzhariya #2 아자리야 #3 조지아
Адыгея #1Adygeya #2 아디게야 #3 러시아
Азербайджан #1Azerbaidzhan #2 아제르바이잔 #3 소비에트연방
Азов #1Azov #2 아조프 #3 러시아
Айтеке-Би #1Ayteke Bi #2 아이테케비 #3 카자흐스탄
Академгородок #1Akademgorodok #2 아카뎀고로도크 #3 러시아
Акмола #1Akmola #2 아크몰라 #3 카자흐스탄. '아스타나(Astana)'의 옛 이름
Акмолинск #1Akmolinsk #2 아크몰린스크 #3 카자흐스탄. '아스타나(Astana)'의 옛 이름
Актогай #1Aktogai #2 악토가이 #3 러시아
Актюбинск #1Aktyubinsk #2 악튜빈스크 #3 카자흐스탄
Алдан #1Aldan #2 알단 #3 러시아
Александров #1Aleksandrov #2 알렉산드로프 #3 러시아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ий #1Aleksandrovsk-Sakhalinskii #2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키 #3 러시아
Алексин #1Aleksin #2 알렉신 #3 러시아
Алма-Ата #1Alma Ata #2 알마아타 #3 카자흐스탄. '알마티(Almaty)'의 옛 이름
Алмалык / Olmaliq <우즈베크어> #1Almalyk #2 알말리크 #3 우즈베키스탄
Алматы #1Almaty #2 알마티 #3 카자흐스탄
Алтай #1Altai #2 알타이 #3 러시아 →Gorno-Altail(고르노알타이)

Алтайские горы #1Altai Mountains #2 알타이 산맥 #3 러시아
Альметьевск #1Al’met’yevsk #2 알메티옙스크 #3 러시아
Амга #1Amga River #2 암가 강 #3 러시아
Амгунь #1Amgun’ River #2 암군 강 #3 러시아
Аму-Дарья #1Amu Darya River #2 아무다리야 강 #3 중앙아시아
Аму (река) #1Amu River #2 아무 강 #3 중앙아시아 →아무다리야(Amu Darya) 강
Амур #1Amur #2 아무르 #3 러시아
Амур (река) #1Amur River #2 아무르 강 #3 러시아
Анадырь #1Anadyr’ #2 아나디리 #3 러시아
Анапа #1Anapa #2 아나파 #3 러시아
Ангара #1Angara River #2 안가라 강 #3 러시아
Ангарск #1Angarsk #2 안가르스크 #3 러시아
Андижан #1Andizhan #2 안디잔 #3 우즈베키스탄
Анжу (Острова) #1Anzhu Islands #2 안주 제도 #3 러시아
Анива (мыс) #1Aniva, (Cape) #2 아니바 곶 #3 러시아
Апука #1Apuka #2 아푸카 #3 러시아
Аральское море #1Aral Sea #2 아랄 해 #3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Аргун (река) #1Argun River #2 아르군 강 #3 러시아, 조지아
Аргунь (река) #1Argun’ River #2 아르군 강 #3 러시아, 중국
Арзамас #1Arzamas #2 아르자마스 #3 러시아
Армавир #1Armavir #2 아르마비르 #3 러시아
Армения / Հայաստան <아르메니아어> #1Armenia #2 아르메니아 #3 소비에트연방
Арсеньев #1Arsen’ev #2 아르세니예프 #3 러시아
Архангельск #1Arkhangel’sk #2 아르한겔스크 #3 러시아
Астана #1Astana #2 아스타나 #3 카자흐스탄
Астаринский район #1Astara District #2 아스타라 구 #3 아제르바이잔
Астраханское ханство #1Astrakhan 한국 #2 아스트라한한국 #3 킵차크한국
Астрахань #1Astrakhan’ #2 아스트라한 #3 러시아
Атамурат #1Atamurat #2 아타무라트 #3 투르크메니스탄
Атбасар #1Atbasar #2 앗바사르 #3 카자흐스탄
Атрём #1Artyom #2 아르툠 #3 러시아
Афрасиаб / Afrosiyob <우즈베크어> #1Afrasiab #2 아프라시아브 #3 우즈베키스탄. 현대 지명으로는 아프로시요브(Afrosiyob / Афросиёб)
Ачинск #1Achinsk #2 아친스크 #3 러시아
Ашгабат #1Ashgabat #2 아시가바트 #3 투르크메니스탄
Аягуз / Аягөз <카자흐어> #1Ayaguz #2 아야구스 #3 카자흐스탄
Аян #1Ayan #2 아얀 #3 러시아

<Б>

Багратионовск #1Bagrationovsk #2 바그라티오놉스크 #3 러시아
Базардюзи #1Bazardyuzi 산 #2 바자르듀지 산 #3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Байкал (озеро) #1Baikal 호 #2 바이칼 호 #3 러시아
Байконур #1Baikonur #2 바이코누르 #3 카자흐스탄
Бактра #1Bactra #2 박트라 #3 중앙아시아
Баку #1Baku #2 바쿠 #3 아제르바이잔
Балаклава #1Balaklava #2 발라클라바 #3 우크라이나
Балаково #1Balakovo #2 발라코보 #3 러시아
Балашов #1Balashov #2 발라쇼프 #3 러시아
Балта #1Balta #2 발타 #3 우크라이나
Балтийск #1Baltiysk #2 발티스크 #3 러시아
Балтийское море #1Baltic Sea #2 발트 해 #3 북유럽
Балхаш #1Balkhash 호 #2 발하슈 호 #3 카자흐스탄
Барановичи / Баранавічы <벨라루스어> #1Baranovichi #2 바라노비치 #3 벨라루스
Баргузин #1Barguzin #2 바르구진 #3 러시아
Баренцево море #1Barrents 해. #2 바렌츠 해 #3 러시아, 노르웨이
Барнаул #1Barnaul #2 바르나울 #3 러시아
Батайск #1Bataysk #2 바타이스크 #3 러시아
Башкир / Башкирия #1Bashkir #2 바시키르 #3 러시아
Башкортостан #1Bashkortostan #2 바시코르토스탄 #3 러시아. →Bashkir(바시키르)
Белая (река) #1Belaya River #2 벨라야 강 #3 러시아
Белгород #1Belgorod #2 벨고로트 #3 러시아
Белогорск #1Belogorsk #2 벨로고르스크 #3 러시아 / 우크라이나
Белое (озеро) #1Beloye, (Lake 호) #2 벨로예 호 #3 러시아
Белое море #1Beloe more #2 벨로에모레 #3 러시아. '백해'의 러시아어 이름
Белорецк #1Beloretsk #2 벨로레츠크 #3 러시아
Белореченск #1Belorechensk #2 벨로레첸스크 #3 러시아
Белорусь #1Belarus #2 벨라루스 #3 소비에트연방
Белуха (гора) #1Belukha Mountain #2 벨루하 산 #3 러시아, 카자흐스탄
Беннетта, (Остров) #1Bennetta Island #2 벤네타 섬 #3 러시아
Бердичев #1Berdichev #2 베르디체프 #3 우크라이나
Березники #1Berezniki #2 베레즈니키 #3 러시아
Березово #1Berezovo #2 베레조보 #3 러시아
Беринга, (Остров) #1Beringa Island #2 베린가 섬 #3 러시아

Берингов пролив #1Bering Strait #2 베링 해협 #3 러시아, 미국
Берингово море #1Bering Sea #2 베링 해 #3 러시아
Бийск #1Biisk #2 비스크 #3 러시아
Биробиджан #1Birobidzhan #2 비로비잔 #3 러시아
Бишкек #1Bishkek #2 비슈케크 #3 키르기스스탄
Благовещенск #1Blagoveshchensk #2 블라고베셴스크 #3 러시아
Бобруйск / Бабруйск <벨라루스어> #1Bobruisk #2 보브루이스크 #3 벨라루스
Бодайбо #1Bodaibo #2 보다이보 #3 러시아
Большевик (остров) #1Bol'shevik Island #2 볼셰비크 섬 #3 러시아
Борзя #1Borzya #2 보르자 #3 러시아
Борисовка #1Borisovka #2 보리솝카 #3 러시아 / 카자흐스탄
Борисоглебск #1Borisoglebsk #2 보리소글렙스크 #3 러시아
Боровичи #1Borovichi #2 보로비치 #3 러시아
Бородино #1Borodino #2 보로디노 #3 러시아
Босфор, (Пролив) #1Bosporus Strait #2 보스포루스 해협 #3 아시아, 유럽
Братск #1Bratsk #2 브라츠크 #3 러시아
Брест-Литовск (река) / Брэст-Літоўск <벨라루스어> #1Brest Litovsk #2 브레스트리토프스크 #3 벨라루스. '브레스트(Brest)'의 옛 이름.
Брянск #1Bryansk #2 브랸스크 #3 러시아
Бугульма / Бөгелмә (타타르어) #1Bugul'ma #2 부굴마 #3 러시아
Бугуруслан #1Buguruslan #2 부구루슬란 #3 러시아
Будёновск #1Budyonovsk #2 부됴놉스크 #3 러시아
Бузулук #1Buzuluk #2 부줄루크 #3 러시아
Буковина #1Bukovina #2 부코비나 #3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Бурея (река) #1Bureya River #2 부레야 강 #3 러시아
Бурят-монгол #1Buryat Mongol #2 부랴트몽골 #3 러시아. '부랴트(Buryat)'의 옛 이름
Бурятия, (Республика) / Буряад Орон <부랴트어> #1Republic of Buryatia / Buryat #2 부랴트 #3 러시아
Бутурлиновка #1Buturlinovka #2 부투를리놉카 #3 러시아
Бухара #1Bukhara #2 부하라 #3 우즈베키스탄
Бухарское ханство #1Khanate of Bukhara #2 부하라한국 #3 우즈베키스탄

<B>

Вайгач (остров) #1Vaigach Island #2 바이가치 섬 #3 러시아
Валга #1Walk #2 발크 #3 러시아
Валдай #1Valdai #2 발다이 #3 러시아
Великая (река) #1Velikaya River #2 벨리카야 강 #3 러시아

Великие Луки #1Velikie Luki #2 벨리키예루키 #3 러시아
Великий Устюг #1Velikiy Ustyug #2 벨리키우스튜크 #3 러시아
Верноленинск #1Vernoleninsk #2 베르놀레닌스크 #3 우크라이나
Верхнеудинск #1Verkhneudinsk #2 베르흐네우딘스크 #3 러시아. '울란우데(Ulan-Uda)'의 옛 이름
Верхоянск #1Verkhoyansk #2 베르호얀스크 #3 러시아
Ветлуга (река) #1Vetluga River #2 베틀루가 강 #3 러시아
Вильна #1Vilna #2 빌나 #3 리투아니아. '빌뉴스(Vil'nyus)'의 옛 이름.
Вильнюс #1Vil'nyus #2 빌뉴스 #3 리투아니아
Вильчека, (Остров) #1Wilczek Island / Zemlya Wilczek #2 제믈랴빌체크 섬 #3 러시아
Вилюй (река) #1Vilyui River #2 빌류이 강 #3 러시아
Вилюйск #1Vilyuisk #2 빌류이스크 #3 러시아
Виндава / Ventspils <라트비아어> #1Ventspils #2 벤츠필스 #3 라트비아
Винница / Вінниця <우크라이나어> #1Vinnitsa #2 빈니차 #3 우크라이나
Витебск / Віцебск <벨라루스어> #1Vitebsk #2 비텝스크 #3 벨라루스
Витим #1Vitim River #2 비팀 강 #3 러시아
Вичуга #1Vichuga #2 비추가 #3 러시아
Владивосток #1Vladivostok #2 블라디보스토크 #3 러시아
Владикавказ #1Vladikavkaz #2 블라디캅카스 #3 러시아
Владимир #1Vladimir #2 블라디미르 #3 러시아
Волга (река) #1Volga River #2 볼가 강 #3 러시아
Волго-Балтийский водный путь #1Volga–Baltic Waterway #2 볼가발트 수로 #3 러시아
Волгоград #1Volgograd #2 볼고그라드 #3 러시아
Волжский #1Volzhskiy #2 볼시스키 #3 러시아
Вологда #1Vologda #2 볼로그다 # 러시아
Волхов #1Volkhov #2 볼호프 #3 러시아
Вольск #1Vol'sk #2 볼스크 #3 러시아
Воркута #1Vorkuta #2 보르쿠타 #3 러시아
Воронеж #1Voronezh #2 보로네시 #3 러시아
Ворошилов #1Voroshilov #2 보로실로프 #3 러시아. '우수리스크(Ussuriisk)'의 옛 이름
Ворошиловград #1Voroshilovgrad #2 보로실로브그라드 #3 우크라이나. '루간스크(Lugansk)'의 옛 이름
Ворскла (река) #1Vorskla River #2 보르스클라 강 #3 러시아, 우크라이나
Воскресенск #1Voskresensk #2 보스크레센스크 #3 러시아
Восток (атолл) #1Vostok Island #2 보스토크 (섬) #3 태평양
Воткинск #1Votkinsk #2 봇킨스크 #3 러시아

Врангеля (Остров) #1Wrangel Island / Vrangelya Island #2 브란겔랴 섬 #3 러시아
Выборг #1Vyborg #2 비보르크 #3 러시아
Выкса #1Vyksa #2 빅사 #3 러시아
Вытегра #1Vytegra #2 비테그라 #3 러시아
Вычегда (река) #1Vychegda River #2 비체그다 강 #3 러시아
Вышний Волочек #1Vyshniy Volochek #2 비시니볼로체크 #3 러시아
Вязьма #1Vyaz'ma #2 뱌지마 #3 러시아
Вятка #1Vyatka #2 뱟카 #3 러시아

<Г>
Гагарин #1Gagarin #2 가가린 #3 러시아
Галич #1Galich #2 갈리치 #3 러시아
Гатчина #1Gatchina #2 가치나 #3 러시아
Георгиевск #1Georgiyevsk #2 게오르기옙스크 #3 러시아
Гижига #1Gizhiga #2 기지가 #3 러시아
Гиндукуш #1Hindu Kush Range #2 힌두쿠시 산맥 #3 중앙아시아
Глазов #1Glazov #2 글라조프 #3 러시아
Горловка #1Gorlovka #2 고를로프카 #3 우크라이나
Горно-Алтай #1Gorno-Altai #2 고르노알타이 #3 러시아
Горно-Алтайск #1Gorno-Altaisk #2 고르노알타이스크 #3 러시아
Горький #1Gor'kii #2 고리키 #3 러시아. '니즈니노브고로드(Nizhni Novgorod)'의 옛 이름
Гродно / Гродна <벨라루스어> #1Grodno #2 그로드노 #3 벨라루스
Грозный #1Groznyi #2 그로즈니 #3 러시아
Грузия #1Georgia #2 조지아 #3 소비에트연방
Губкин #1Gubkin #2 굽킨 #3 러시아
Гурьев #1Gurev #2 구레프 #3 카자흐스탄. '아티라우'의 옛 이름
Гусев #1Gusev #2 구세프 #3 러시아
Гусь-Хрустальный #1Gus'-Khrustal'nyy #2 구시흐루스탈니 #3 러시아
Гыданский полуостров #1Gydan Peninsula #2 기단 반도 #3 러시아
Гюмри / Գյումրի <아르메니아어> #1Kumayri #2 쿠마이리 #3 아르메니아. '규므리'의 옛 이름
Гянджа / Gəncə <아제르바이잔어> #1Gandzha #2 간자 #3 아제르바이잔

<Д>
Дагестан #1Dagestan #2 다게스탄 #3 러시아
Дальнереченск #1Dal'nerechensk #2 달네레첸스크 #3 러시아
Даугавпилс #1Daugavpils #2 다우가프필스 #3 라트비아

Двина (река) #1Daugava River / Dvina River #2 드비나 강 #3 러시아, 벨라루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Двинск #1Dvinsk #2 드빈스크 #3 라트비아. '다우가프필스(Daugavpils)'의 러시아어 이름
Двинская губа #1Dvina Bay #2 드비나 만 #3 러시아
Де-Лонга, (Острова) #1De-Longa Islands #2 데론가 제도 #3 러시아
Дежнёв, (мыс) #1Dezhnyov (Cape) #2 데즈뇨프 곶 #3 러시아
Дербент #1Derbent #2 데르벤트 #3 러시아
Десна (река) #1Desna River #2 데스나 강 #3 러시아, 우크라이나
Джамбул #1Dzhambul #2 잠불 #3 카자흐스탄
Дзержинск #1Dzerzhinsk #2 제르진스크 #3 러시아, 우크라이나
Диксон (остров) #1Dikson Island #2 딕손 섬 #3 러시아
Димитровград #1Dimitrovgrad #2 디미트로브그라드 #3 러시아
Дмитров #1Dmitrov #2 드미트로프 #3 러시아
Днепр (река) #1Dnepr River #2 드네프르 강 #3 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Днепродзержинск / Дніпродзержинськ <우크라이나어> #1 #2 드네프로제르진스크. <우크라이나어> 드니프로제르진시크 #3 우크라이나
Днепропетровск #1Dnepropetrovsk #2 드네프로페트로프스크 #3 우크라이나
Днестр (река) #1Dnestr River #2 드네스트르 강 #3 우크라이나
Долинск #1Dolinsk #2 돌린스크 #러시아
Дон #1Don River #2 돈 강 #3 러시아
Донец (река) #1Donets River #2 도네츠 강 #3 러시아
Донецк #1Donetsk #2 도네츠크 #3 우크라이나
Донецкий бассейн #1Donets Basin #2 도네츠 분지 #3 러시아, 우크라이나
Дрогович #1Drogobych #2 드로고비치 #3 우크라이나
Дубна #1Dubna #2 두브나 #3 러시아
Душанбе #1Dushanbe #2 두샨베 #3 타지키스탄
Дюшамбе #1Dyushambe #2 듀삼베 #3 타지키스탄. '두샨베(Dushanbe)'의 옛 이름

<E>

Европа #1Europe #2 유럽 #3 유럽
Европейская часть России #1Europe Russia #2 유럽 러시아 #3 러시아
Егорьевск #1Yegor'yevsk #2 예고리옙스크 #3 러시아
Ейск #1Yeysk #2 예이스크 #3 러시아
Екатеринбург #1Ekaterinburg #2 예카테린부르크 #3 러시아

Екатеринодар #1Ekaterinodar #2 에카테리노다르 #3 러시아. ‘크라스노다르(Krasnodar)’의 옛 이름
Елабуга / Алабуга <타타르어> #1Elabuga #2 옐라부가 #3 러시아
Елец #1Yelets #2 옐레츠 #3 러시아
Енисей (река) #1Enisei River #2 예니세이 강 #3 러시아
Енисейск #1Eniseisk #2 예니세이스크 #3 러시아
Ереван / Երևան <아르메니아어> #1Erevan #2 예레반 #3 아르메니아

<Ж>
Жданов #1Zhdanov #2 주다노프 #3 우크라이나
Железногорск #1Zheleznogorsk #2 젤레즈노고르스크 #3 러시아
Житомир #1Zhitomir #2 지토미르 #3 우크라이나

<З>
Зайсан (озеро) #1Zaisan, (Lake) #2 자이산 호 #3 중앙아시아
Западная Двина #1Zapadnaya Dvina #2 자파드나야드비나 #3 러시아
Западный Буг (#1Bug River #2 부크 강 #3 우크라이나
Запорожье #1Zaporozhe #2 자포로제 #3 우크라이나
Зеленодольск #1Zelenodol’sk #2 젤레노돌스크 #3 러시아
Земля Франца Иосифа #1Zemlya Frantsa Iosifa #2 제믈랴프란차이오시파 #3 러시아
Зея (река) #1Zeya River #2 제야 강 #3 러시아
Зима #1Zima #2 지마 #3 러시아
Златоуст #1Zlatoust #2 즐라토우스트 #3 러시아
Зырянка #1Zyryanka #2 지랸카 #3 러시아

<И>
Ивано-Франковск / Івано-Франківськ <우크라이나어> #1Ivano-Frankovsk #2 이바노프란코프스크 #3 우크라이나
Иваново #1Ivanovo #2 이바노보 #3 러시아
Ивдель #1Ivdel’ #2 이브델 #3 러시아
Игарка #1Igarka #2 이가르카 #3 러시아
Ижевск #1Izhevsk #2 이젭스크 #3 러시아
Ижма (река) #1Izhma River #2 이즈마 강 #3 러시아
Или (река) / Іле <카자흐어> #1Ili River #2 일리 강 #3 카자흐스탄, 중국
Илимск #1Ilimsk #2 일림스크 #3 러시아
Ильмень (озеро) #1Il’men’, (Lake) #2 일멘 호 #3 러시아
Ильское ханство #1Ilkhanate #2 일한 #3 몽골
Имандра (озеро) #1Imandra (Lake) #2 이만드라 호 #3 러시아

Ингуш / Ингушетия #1Ingush #2 인구시 #3 러시아
Индигирка (река) #1Indigirka River #2 인디기르카 강 #러시아
Инта #1Inta #2 인타 #3 러시아
Йошкар-Ола #1Ioshkar-Ola #2 요시카르올라 #3 러시아
Ирбит #1Irbit #2 이르비트 #3 러시아
Иркутск #1Irkutsk #2 이르쿠츠크 #3 러시아
Иртыш (река) #1Irtysh River #2 이르티시 강#3 러시아
Искитим #1Iskitim #2 이스키팀 #3 러시아
Иссык-Куль (озеро) / Ысык-Көл <키르기스어> #1Issyk Kul, (Lake) #2 이식쿨 호 #3 키르기스스탄
Ишим #1Ishim #2 이심 #3 러시아

<K>

Кавказ #1Kavkaz #2 캅카스 #3 러시아. '코카서스(Caucasia)'의 러시아어 이름
Казаки #1Cossack #2 코사크 #3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Kazakhstan)'의 영어 이름
Казанское ханство #1Khanate of Kazan #2 카잔한국 #3 러시아
Казань #1Kazan' #2 카잔 #3 러시아
Казах #1Kazakh #2 카자흐 #3 카자흐스탄
Казахстан #1Kazakhstan #2 카자흐스탄 #3 소비에트연방
Казбек / ყაზბეგის მყინვარწვერი <조지아어> #1Kazbek, (Mount) #2 카즈베크 산 #3 러시아, 조지아
Калач-на-Дону #1Kalach-na-Donu #2 칼라치나도누 #3 러시아
Калининград #1Kaliningrad #2 칼리닌그라드 #3 러시아
Калмык / Калмыкия #1Kalmyk #2 칼미크 #3 러시아
Калуга #1Kaluga #2 칼루가 #3 러시아
Кама #1Kama 강 #2 카마 강 #3 러시아
Каменск-Уральский #1Kamensk-Ural'skiy #2 카멘스크우랄스키 #3 러시아
Каменск-Шахтиский #1Kamensk-Shakhtinskiy #2 카멘스크샤흐틴스키 #3 러시아
Каменское #1Kamenskoe #2 카멘스코예 #3 우크라이나. '드네프로제르진스크'의 옛 이름
Камчатка #1Kamchatka Peninsula #2*캄차카 반도 #3 러시아
Камышин #1Kamyshin #2 카미신 #3 러시아
Канаш #1Kanash #2 카나시 #3 러시아
Кандалакша #1Kandalaksha #2 칸달락샤 #3 러시아
Кандалакша #1Kandalaksha 만 #2 칸달락샤 만 #3 러시아

Кандыагаш / Қандыағаш <카자흐어> #1Kandyagash #2 칸디아가슈 #3 카자흐스탄
Канини полуостров #1Kanin 반도 #2 카닌 반도 #3 러시아
Канск #1Kansk #2 칸스크 #3 러시아
Кара-Богаз-гол #1Kara-Bogaz-Gol #2 카라보가스골 만 #3 투르크메니스탄
Кара #1Kara 해 #2 카라 해 #3 러시아
Караганда #1Karaganda #2 카라간다 #3 카자흐스탄
Карагинский (остров) #1Karaginskii Island #2 카라긴스키 섬 #3 러시아
Каракалпакия #1Karakalpak #2 카라칼파크 #3 우즈베키스탄
Каракорум (горная система) #1Karakoram range #2 카라코람 산맥 #3 중앙아시아
Каракумский канал #1Kara Kum Canal #2 카라쿰 운하 #3 투르크메니스탄
Каракумы #1Kara Kum Desert #2 카라쿰 사막 #3 투르크메니스탄
Караханиды #1Kara-Khanid Khanate #2 카라한 왕조 #3 중앙아시아
Карачаево-Черкесия #1Karachaevo-Cherkesskaya #2 카라차예보체르케스카야 #3 러시아
Карачаевск #1Karachayevsk #2 카라차옙스크 #3 러시아
Карелия #1Kareliya #2 카렐리야 #3 러시아
Карело Финн #1Karelo Finn #2 카렐로핀 #3 러시아. ‘카렐리야(Kareliya)’의 옛 이름
Каркалинск #1Karkalinsk #2 카르칼린스크 #3 카자흐스탄
Каркаралинск / Қарқаралы <카자흐어> #1Karkaralinsk / Karkaraly #2 카르카랄린스크 <카자흐어> 카르카랄리 #3 카자흐스탄
Карсакпай / Қарсақпай <카자흐어> #1Karsakpai #2 카르삭파이 #3 카자흐스탄
Карские Ворота #1Karskiye Strait #2 카르스키예 해협 #3 러시아
Карское море #1Karskoye Sea #2 카르스코예 해 #3 러시아
Карталы #1Kartaly #2 카르탈리 #3 러시아
Карши / Qarshi <우즈베크어> #1Karshi #2 카르시 #3 우즈베키스탄
Касимов #1Kasimov #2 카시모프 #3 러시아
Каспийское море #1Caspian Sea #2→카스피 해 #3 중앙아시아
Кашира #1Kashira #2 카시라 #3 러시아
Кашкадарьинская область / Qashqadaryo viloyati <우즈베크어> #1Kashkadarya Region #2 카슈카다리야 주 #3 우즈베키스탄
Кемерово #1Kemerovo #2 케메로보 #3 러시아
Кемь #1Kem’ #2 켐 #3 러시아
Кёнигсберг #1Königsberg #2 쾨니히스베르크 #3 러시아. ‘칼리닌그라드(Kaliningrad)’의 옛 독일어명
Керки #1Kerki #2 케르키 #3 투르크메니스탄. ‘아타무라트’의 옛 이름.

Керчь #1Kerch' #2 케르치 #3 우크라이나
Кеть (река) #1Ket’ River #2 케티 강 #3 러시아
Кзыл-Орда / Кызылорда #1Kzyl-Orda #2 크질오르다 #3 카자흐스탄
Киев #1Kiev #2 키예프 #3 우크라이나
Кижи #1Kizhi #2 키지 #3 러시아
Кизел #1Kizel #2 키젤 #3 러시아
Кизил-Кум / Кызылкум #1Kyzyl Kum #2 키질쿰 사막 #3 중앙아시아
Кизил #1Kyzyl #2 키질 #3 러시아
Кизляр #1Kizlyar #2 키즐랴르 #3 러시아
Кизыл-Арват #1Kyzyl-Arvat #2 키질아르바트 #3 투르크메니스탄. ‘세르다르(Сердар)’의 옛 이름
Кимовск #1Kimovsk #2 키몹스크 #3 러시아
Кимры #1Kimry #2 킴리 #3 러시아
Кингисепп #1Kingisepp #2 킨기세프 #3 러시아
Кинель #1Kinel’ #2 키넬 #3 러시아
Кинешма #1Kineshma #2 키네시마 #3 러시아
Киргыз #1Kirgiz #2 키르기스 #3 키르기스스탄(Kirgizstan).
Киргызстан / Кыргызстан #1Kirgizstan #2 키르기스스탄 #3 소비에트연방
Киренск #1Kirensk #2 키렌스크 #3 러시아
Киров #1Kirov #2 키로프 #3 러시아. ‘뱌카(Vyatka)’의 옛 이름
Кировабад #1Kirovabad #2 키로바바트 #3 아제르바이잔. ‘간자’의 옛 이름
Кирово-Чепецк #1Kirovo-Chepetsk #2 키로보체페츠크 #3 러시아
Кировоград #1Kirovograd #2 키로보그라드 #3 우크라이나
Кировск #1Kirovsk #2 키롭스크 #3 러시아
Кирсанов #1Kirsanov #2 키르사노프 #3 러시아
Киселевск #1Kiselevsk #2 키셀렙스크 #3 러시아
Кисловодск #1Kislovodsk #2 키슬로보츠크 #3 러시아
Кихчик #1Kikhchik #2 키흐치크 #3 러시아
Кишинёв #1Chişinău #2 키시너우 #3 몰도바. 구칭 키시뇨프. Kishinyov(1940~91)
Клайпеда / Klaipėda <리투아니아어> #1Klaipeda #2 클라이페다 #3 리투아니아
Клин #1Klin #2 클린 #3 러시아
Клинцы #1Klintsy #2 클린치 #3 러시아
Ключевская #1Klyuchevskaya Sopka #2 클류쳅스카야 산 #3 러시아
Клязьма (река) #1Klyaz’ma River #2 클랴지마 강 #3 러시아
Ковель #1Kovel' #2 코벨 #3 우크라이나
Ковно #1Kaunas #2 카우나스 #3 리투아니아

Ковно #1Kovno #2 코브노 #3 리투아니아. ‘카우나스(Kaunas)’의 러시아어 이름
Ковров #1Kovrov #2 코브로프 #3 러시아
Коканд #1Kokand #2 코칸트 #3 우즈베키스탄
Кокандское ханство #1Khanate of Kokand #2 코칸트한국 #3 우즈베키스탄
Кокчетав / Көкшетау <카자흐어> #1Kokchetav #2 콕체타프. <카자흐어> 콕셰타우. Kokshetau #3 카자흐스탄
Колгуев (остров) #1Kolguev Island #2 콜구예프 섬 #3 러시아
Коломна #1Kolomna #2 콜롬나 #3 러시아
Колпашево #1Kolpashevo #2 콜파셰보 #3 러시아
Колыма (река) #1Kolyma River #2 콜리마 강 #3 러시아
Кольский полуостров #1Kola Peninsula #2 콜라 반도 #3 러시아
Командорские острова #1Komandorskie Islands #2 코만도르스키예 제도 #3 러시아
Коми-Пермяцкий #1Komi-Perm #2 코미페름 #3 러시아
Коми #1Komi #2 코미 #3 러시아
Комсомолец (остров) #1Komsomolets Island #2 콤소몰레츠 섬 #3 러시아
Комсомольск-на-Амуре #1Komsomol’sk na Amure #2 콤소몰스크나아무레 #3 러시아 →Komsomol’sk(콤소몰스크)
Комсомольск #1Komsomol’sk #2 콤소몰스크 #3 러시아
Конотоп #1Konotop #2 코노토프 #3 우크라이나
Коноша #1Konosha #2 코노샤 #3 러시아
Коркино #1Korkino #2 코르키노 #3 러시아
Коростень #1Korosten’ #2 코로스텐 #3 우크라이나
Корсаков #1Korsakov #2 코르사코프 #3 러시아
Корф #1Korf #2 코르프 #3 러시아
Коряк #1Koryak #2 코랴크 #3 러시아
Корякская Сопка #1Koryak Sopka #2 코랴크 산 #3 러시아
Корякское нагорье #1Koryak Mountains #2 코랴크 산맥 #3 러시아
Кострома #1Kostroma #2 코스트로마 #3 러시아
Кострома (река) #1Kostroma River #2 코스트로마 강 #3 러시아
Котельнич #1Kotel’nich #2 코텔니치 #3 러시아
Котельный (остров) #1Kotel’nyy Island #2 코텔니 섬 #3 러시아
Котлас #1Kotlas #2 코틀라스 #3 러시아
Кранотурьинск #1Krasnotur’insk #2 크라스노투린스크 #3 러시아
Красноводск #1Krasnovodsk #2 크라스노봇스크 #3 투르크메니스탄. ‘투르크멘바시(Türkmenbaşy)’의 옛 이름
Краснодар #1Krasnodar #2 크라스노다르 #3 러시아
Красное #1Krasnoye #2 크라스노예 #3 러시아

Краснокамск #1Krasnokamsk #2 크라스노캄스크 #3 러시아
Краснококшайск #1Krasnokokshaisk #2 크라스노콕샤이스크 #3 러시아. '요시카르올라(Ioshkar-Ola)'의 옛 이름
Красноуфимск #1Krasnoufimsk #2 크라스노우핌스크 #3 러시아
Красноярск #1Krasnoyarsk #2 크라스노야르스크 #3 러시아
Красный #1Krasny #2 크라스니 #3 러시아. '키질(Kyzyl)'의 러시아어 이름
Красный Сулин #1Krasnyy Sulin #2 크라스니술린 #3 러시아
Кремль (Московский) #1Kremlin (Moscow) #3*크렘린 (궁전)
Кривой Рог #1Krivoi Rog #2 크리보이로크 #3 우크라이나
Крильон (мыс) #1Kril'on, (Cape) #2 크릴리온 곶 #3 러시아
Кронштадт #1Kronshtadt #2 크론시타트 #3 러시아
Кропоткин #1Kropotkin #2 크로폿킨 #3 러시아
Крым (полуостров) #1Crimean Peninsula #2 크림 반도 #3 러시아, 우크라이나
Крымское ханство #1Crimean Khanate #2 크림한국 #3 러시아, 우크라이나
Кубань (река) #1Kuban' River #2 쿠반 강 #3 러시아
Кубенское озеро #1Kubenskoye, (Lake) #2 쿠벤스코예 호 #3 러시아 볼로그다(Vologda) 주 중서부에 있는 호수. #4 용례집
Кузбасс #1Kuzbass #2 쿠즈바스 #3 러시아. '케메로보' 주(Kemerovo Region)의 옛 이름
Кузнецк #1Kuznetsk #2 쿠즈네츠크 #3 러시아
Куйбышев #1Kuibyshev #2 쿠이비셰프 #3 러시아
Кулунда #1Kulunda #2 쿨룬다 #3 러시아
Кунашир (остров) #1Kunashir Island #2 쿠나시르 섬 #3 러시아
Кунград / Qo'ng'irot <우즈베크어> #1Kungrad #2 쿤그라드 #3 우즈베키스탄
Кунгур #1Kungur #2 쿤구르 #3 러시아
Курган #1Kurgan #2 쿠르간 #3 러시아
Курильские острова #1Kuril Islands #2 쿠릴 열도 #3 러시아
Курск #1Kursk #2 쿠르스크 #3 러시아
Кустанай / Қостанай <카자흐어> #1Kustanai #2 쿠스타나이 #3 카자흐스탄
Кушка #1Kushka #2 쿠슈카 #3 투르크메니스탄
Кыпчакское ханство #1Kipchakkhan #2 킵차크한 #3 중앙아시아
Кяхта #1Kyakhta #2 캬흐타 #3 러시아

<Л>

Лабинск #1Labinsk #2 라빈스크 #3 러시아
Ладожское озеро #1Ladoga (Lake) #2 라도가 호 #3 러시아
Лаптевых море #1Laptev Sea #2 랍테프 해 #3 러시아

Латвия #1Latvia #2*라트비아 #3 소비에트연방
Лебапский велаят / Lebap welaýaty <투르크멘어> #1Lebap Region #2 레바프 주 #3 투르크메니스탄
Лена (река) #1Lena River #2 레나 강 #3 러시아
Ленина, (Пик) / Ленин Чокусу <키르기스어> #1Lenin Peak #2 레닌 산 #3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Ленинабад #1Leninabad #2 레니나바트 #3 타지키스탄. '호젠트(Zhozhent)'의 옛 이름
Ленинград #1Leningrad #2 레닌그라드 #3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Sankt Peterburg)'의 옛 이름
Лениногорск #1Leninogorsk #2 레니노고르스키 #3 러시아
Ленинск-Кузнецкий #1Leninsk-Kuznetskii #2 레닌스크쿠즈네츠키 #3 러시아
Ленинск #1Leninsk #2 레닌스크 #3 러시아
Ливны #1Livny #2 리브니 #3 러시아
Лиепая / Liepāja <라트비아어> #1Liepaya #2 리예파야 #3 라트비아
Липецк #1Lipetsk #2 리페츠크 #3 러시아
Лиски #1Liski #2 리스키 #3 러시아
Лисянского, (Остров) #1Lisianski Island #2 리시안스키 (섬) #3 태평양
Литва #1Lithuania #2 리투아니아 #3 소비에트연방
Ловать (река) #1Lovat' River #2 로바티 강 #3 러시아
Лопатка (мыс) #1Lopatka (Cape) #2 로팟카 곶 #3 러시아
Луга #1Luga #2 루가 #3 러시아
Луганск #1Lugansk #2 루간스크 #3 우크라이나
Лысьва #1Lys'va #2 리시바 #3 러시아
Львов / Львів <우크라이나어> #1L'viv #2 리비프 #3 우크라이나
Люберцы #1Lyubertsy #2 류베르치 #3 러시아
Ляховские острова #1Lyakhovsky Islands / Lyakhov Islands #2 랴호프 제도 #3 러시아

<M>
Магадан #1Magadan #2 마가단 #3 러시아
Магнитогорск #1Magnitogorsk #2 마그니토고르스크 #3 러시아
Майкоп #1Maikop #2 마이코프 #3 러시아
Макеевка #1Makeevka #2 마케예프카 #3 우크라이나
Малая Русь #1Little Russia #2 소러시아 #3 우크라이나
Малоярославец #1Maloyaroslavets #2 말로야로슬라베츠 #3 러시아
Мараканда #1Maracanda #2 마라칸다 #3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Samarkand)'의 옛 이름

Мари Эль #1Mari-Ell #2 마리옐 #3 러시아
Мариуполь #1Mariupol #2 마리우폴 #3 우크라이나
Марыйский велаят / Mary welaýaty <투르크멘어> #1Mary Region #2 마리 주 #3 투르크메니스탄
Маточкин Шар #1Matochkin Strait #2 마토치킨 해협 #3 러시아
Махачкала #1Makhachkala #2 마하치칼라 #3 러시아
Мая (река) #1Maya River #2 마야 강 #3 러시아
Медвежьегорск #1Medvezh'yegorsk #2 메드베지예고르스크 #3 러시아
Медвежьи острова #1Medvezh'i Islands #2 메드베지 제도 #3 러시아
Мезень #1Mezen' #2 메젠 #3 러시아
Мезень (река) #1Mezen River, Mezen' 강 #2 메젠 강 #3 러시아
Мелитополь / Мелітополь <우크라이나어> #1Melitopol #2 멜리토폴 #3 우크라이나
Мерв / Мары #1Merv #2 메르프 #3 투르크메니스탄
Миллерово #1Millerovo #2 밀레로보 #3 러시아
Минск / Мінск <벨라루스어> #1Minsk #2 민스크 #3 벨라루스
Минусинск #1Minusinsk #2 미누신스크 #3 러시아
Мирный (антарктическая станция) #1Mirny Station #2 미르니 기지 #3 러시아
Михайловка #1Mikhaylovka #2 미하일롭카 #3 러시아
Мичуринск #1Michurinsk #2 미추린스크 #3 러시아
Могилёв #1Mogilyov #2 모길료프 #3 러시아
Могоча #1Mogocha #2 모고차 #3 러시아
Можайск #1Mozhaysk #2 모자이스크 #3 러시아
Моздок #1Mozdok #2 모즈도크 #3 러시아
Мозырь / Мазыр <벨라루스어> #1Mozyr' #2 모지리 #3 벨라루스
Молдова #1Moldova #2 몰도바 #3 소비에트연방
Молотов #1Molotov #2 몰로토프 #3 러시아. '페름(Perm')'의 옛 이름
Монерон (остров) #1Moneron Island #2 모네론 섬 #3 러시아
Мончегорск #1Monchegorsk #2 몬체고르스크 #3 러시아
Мордовия #1Mordova #2 모르도바 #3 러시아
Моршанск #1Morshansk #2 모르샨스크 #3 러시아
Москва #1Moscow #2 모스크바 #3 러시아
Москва (река) #1Moskva River #2 모스크바 강 #3 러시아
Москвы, (Канал имени) #1Moscow Canal #2 모스크바 운하 #3 러시아
Московское княжество #1Grand Duchy of Moscow / Moskovskoe Velikoe Knyazhestvo #2 모스크바 대공국 #3 러시아
Мраморное море #1Marmara Sea #2 마르마라 해 #3 아시아, 유럽
Мста (река) #1Msta River #2 므스타 강 #3 러시아

Мунку-Сардык #1Munku-Sardyk #2 문쿠사르디크 #3 러시아, 몽골
Мурманск #1Murmansk #2 무르만스크 #3 러시아
Муром #1Murom #2 무롬 #3 러시아
Мытищи #1Mytishchi #2 미티시 #3 러시아

<H>
Набережные Челны #1Naberezhnyye Chelny #2 나베레즈니예첼니 #3 러시아
Наварин (мыс) #1Navarin, (Cape) #2 나바린 곶 #3 러시아
Нагорный Карабах #1Nagorno-Karabakh #2 나고르노카라바흐 #3 아제르바이잔
Назрань #1Nazran’ #2 나즈란 #3 러시아
Нальчик #1Nal’chik #2 날치크 #3 러시아
Наманган #1Namangan #2 나망간 #3 우즈베키스탄
Нарва #1Narva #2 나르바 #3 에스토니아
Нарва (река) #1Narva River #2 나르바 강 #3 러시아, 에스토니아
Нарвское водохранилище #1Narva Reservoir #2 나릅스코예 호 #3 러시아
Наро-Фоминск #1Naro-Fominsk #2 나로포민스크 #3 러시아
Народная (гора) #1Narodnaya (Mount) #2 나로드나야 산 #3 러시아
Нарын #1Naryn #2 나린 #3 키르기스스탄
Нарьян-Мар #1Nar’yan-Mar #2 나리얀마르 #3 러시아
Нахичеванская Автономная Республика / Naxçıvan Muxtar Respublikası <아제르바이잔어> #1Nakhchivan Autonomous Republic #2 나히체반 (자치공화국) #3 아제르바이잔
Находка #1Nakhodka #2 나홋카 #3 러시아
Небитдаг #1Nebit-Dag #2 네비트다크 #3 투르크메니스탄. ‘발카나바트’의 옛 이름
Нева (река) #1Neva River #2 네바 강 #3 러시아
Невинномысск #1Nevinnomyssk #2 네빈노미스크 #3 러시아
Нежин / Ніжин <우크라이나어> #1Nezhin #2 네진 #3 우크라이나
Неман (река) #1Neman River #2 네만 강 #3 벨라루스
Ненец #1Nenets #2 네네츠 #3 러시아
Нерчинск #1Nerchinsk #2 네르친스크 #3 러시아
Нерюнгри /Нүөрүҥгүрү <사하어> #1Neryungri / Нэрюнгри #2 네륭그리 #3 러시아
Нижегород #1Nizhegorod #2 니제고로드 #3 러시아
Нижневартовск #1Nizhnevartovsk #2 니즈네바르톱스크 #3 러시아
Нижнекамск #1Nizhnekamsk #2 니즈네캄스크 #3 러시아
Нижнеудинск #1Nizhneudinsk #2 니즈네우딘스크 #3 러시아

Нижний Новгород #1Nizhni Novgorod #2 니즈니노브고로드 #3 러시아
Нижний Тагил #1Nizhnii Tagil #2 니즈니타길 #3 러시아
Нижняя Тунгуска (река) #1Nizhnyaya Tunguska River #2 니즈냐야툰구스카 강 #3 러시아
Николаев #1Nikolaev #2 니콜라예프 #3 우크라이나
Николаевск-на-Амуре #1Nikolaevsk-na-Amure #2 니콜라옙스크나아무레 #3 러시아
Николаевск #1Nikolaevsk #2 니콜라옙스크 #3 러시아. '푸가초프(Pugachyov)'의 옛 이름
Никольск #1Nikolsk #2 니콜스크 #3 러시아
Никольское #1Nikol'skoye #2 니콜스코예 #3 러시아
Никополь #1Nikopol #2 니코폴 #3 우크라이나
Новая земля (острова) #1Novaya Zemlya Island #2 노바야제믈랴 섬 #3 러시아
Новая Сибирь (остров) #1Novaya Sibir' Island #2 노바야시비리 섬 #3 러시아
Новгород #1Novgorod #2 노브고로드 #3 러시아
Новгородская республика #1Novgorod Republic #2 노브고로드 공국 #3 러시아
Новозыбков #1Novozybkov #2 노보집코프 #3 러시아
Новоказалинск #1Novokazalinsk #2 노보카잘린스크 #3 카자흐스탄. '아이테케비(Айтеке-Би)'의 옛 이름
Новокузнецк #1Novokuznetsk #2 노보쿠즈네츠크 #3 러시아
Новомосковск #1Novomoskovsk #2 노보모스콥스크 #3 러시아
Новороссийск #1Novorossiysk #2 노보로시스크 #3 러시아
Новосибирск #1Novosibirsk #2 노보시비르스크 #3 러시아
Новосибирские острова #1New Siberian Islands / Novosibirskiye Islands #2 노보시비르스키 제도 #3 러시아
Новошахтинск #1Novoshakhtinsk #2 노보샤흐틴스크 #3 러시아
Ногинск #1Noginsk #2 노긴스크 #3 러시아
Норильск #1Noril′sk #2 노릴스크 #3 러시아
Нукус #1Nukus #2 누쿠스 #3 우즈베키스탄

<O>

Обнинск #1Obninsk #2 오브닌스크 #3 러시아
Обская губа #1Gulf of Ob' / Obskaya Gulf #2 옵스카야 만 #3 러시아
Обь (река) #1Ob' River #2 오비 강 #3 러시아
Оготайское ханство #1House of Ögedei / Ogotai Khanate #2 오고타이한국 #3 몽골

Одесса #1Odessa #2 오데사 #3 우크라이나
Озерновский #1Ozernovskii #2 오제르노프스키 #3 러시아
Оймякон #1Oimyakon #2 오이먀콘 #3 러시아
Оирот-Тула #1Oirot-Tula #2 오이로트툴라 #3 러시아. ‘고르노알타이스크(Gorno-Altaisk)’의 옛 이름
Ока (река) #1Oka River #2 오카 강 #3 러시아
Оксус #1Oxus River #2 옥수스 강 #3 중앙아시아. ‘아무다리야(Amu Dar’ya) 강’의 옛 이름
Октябрьский #1Oktyabr’skiy #2 옥탸브리스키 #3 러시아
Октябрьской Революции, (Остров) #1October Revolution Island / Oktyabr’skoy Revolyutsii Island #2 옥탸브리스코이레볼류치 섬 #3 러시아
Олёкма (река) #1Olyokma River #2 올료크마 강 #3 러시아
Оленёк (река) #1Olenyok River #2 올레뇨크 강 #3 러시아
Ольга (порт) #1Ol’ga #2 올가 #3 러시아
Олюторский (мыс) #1Olyutorskii, (Cape) #2 올류토르스키 곶 #3 러시아
Омолон (река) #1Omolon River #2 오몰론 강 #3 러시아
Омск #1Omsk #2 옴스크 #3 러시아
Онега #1Onega #2 오네가 #3 러시아
Онега (река) #1Onega River #2 오네가 강 #3 러시아
Онежское озеро #1Onega, (Lake) #2 오네가 호 #3 러시아
Онон (река) #1Onon River #2 오논 강 #3 러시아, 몽골
Орджоникидзе #1Ordzhonikidze #2 오르조니키제 #3 러시아 ‘블라디캅카스(Vladikavkaz)’의 옛 이름
Орджоникидзе #1Ordzhonikidze #2 오르조니키제 #3 우크라이나
Орёл #1Oryol #2 오룔 #3 러시아
Оренбург #1Orenburg #2 오렌부르크 #3 러시아
Орехово-Зуево #1Orekhovo-Zuyevo #2 오레호보주예보 #3 러시아
Орск #1Orsk #2 오르스크 #3 러시아
Орша #1Orsha #2 오르샤 #3 벨라루스
Оскол (река) #1Oskol River #2 오스콜 강 #3 러시아
Оссора #1Ossora #2 오소라 #3 러시아
Осташков #1Ostashkov #2 오스타시코프 #3 러시아
Островское #1Ostrovskoye #2 오스트롭스코예 #3 러시아
Оха #1Okha #2 오하 #3 러시아
Охотск #1Okhotsk #2 오호츠크 #3 러시아
Охотское море #1Okhotsk, (Sea of) #2 오호츠크 해 #3 러시아

<П>

Павловск #1Pavlovsk #2 파블롭스크 #3 러시아
Павлодар #1Pavlodar #2 파블로다르 #3 카자흐스탄
Палана #1Palana #2 팔라나 #3 러시아
Памир (горная система) #1Pamir Mountains #2 파미르 고원 #3 중앙아시아
Парамушир (остров) #1Paramushir Island #2 파라무시르 섬 #3 러시아
Партизанск #1Partizansk #2 파르티잔스크 #3 러시아
Певек / Пээкин <축치어> #1Pevek #2 페베크 #3 러시아 #4 보유 2
Пенжинская губа #1Penzhina Bay / Penzhinskaya Bay #2 펜진스카야 만 #3 러시아
Пенза #1Penza #2 펜자 #3 러시아
Первоуральск #1Pervoural'sk/Первоуральск #2 페르보우랄스크 #3 러시아
Перевальное / Перевальне <우크라이나어> #1Pereval'noe / Pereval'ne #2 페레발노예. <우크라이나어> 페레발네 #3 러시아, 우크라이나
Перекоп #1Perekop #2 페레코프 #3 러시아, 우크라이나
Переславль-Залесский #1Pereslavl'-Zalesskiy #2 페레슬라블잘레스키 #3 러시아
Пермь #1Perm' #2 페름 #3 러시아
Перовск #1Perovsk #2 페로프스크 #3 카자흐스탄. '크질오르다(Kzyl-Orda)'의 옛 이름
Петербург #1Peterburg #2 페테르부르크 #3 러시아 →Sankt Peterburg(상트페테르부르크)
Петра Великого, (Залив) #1Peter the Great Gulf / Petra Velikogo Gulf #2 페트라벨리코고 만 #3 러시아
Петра Великого, (Залив) #1Peter the Great Gulf / Pyotr Velikogo Gulf #2 표트르 대제 만 #3 러시아
Петровск-Порт #1Petrovsk-Port #2 페트롭스크포르트 #3 러시아. '마하치칼라(Makhachkala)'의 옛 이름
Петроград #1Petrograd #2 페트로그라드 #3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Sankt Peterburg)' 의 옛 이름
Петродворец #1Petrodvorets #2 페트로드보레츠 #3 러시아
Петрозаводск #1Petrozavodsk #2 페트로자보츠크 #3 러시아
Петропавловск-Камчатский #1Petropavlovsk-Kamchatskii #2 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츠키 #3 러시아
Петропавловск #1Petropavlovsk #2 페트로파블롭스크 #3 러시아. '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츠키(Petropavlovsk-Kamchatskii)'의 옛 이름
Печенга #1Pechenga #2 페첸가 #3 러시아
Печора (река) #1Pechora River #2 페초라 강 #3 러시아
Печорская губа #1Pechora Bay #2 페초라 만 #3 러시아
Печорское море #1Pechora Sea #2 페초라 해 #3 러시아

Пинега (река) #1Pinega River #2 피네가 강 #3 러시아
Пинск / Пінск <벨라루스어> #1Pinsk #2 핀스크 #3 벨라루스
Плесецк (космодром) #1Plesetsk Cosmodrome #2 플레세츠크 우주 기지 #3 러시아
Повенец #1Povenets #2 포베네츠 #3 러시아
Подкаменная Тунгуска (река) #1Podkamennaya Tunguska River #2 폿카멘나야툰구스카 강 #3 러시아
Подольск #1Podol’sk #2 포돌스크 #3 러시아
Покровск #1Pokrovsk #2 포크롭스크 #3 러시아
Полоцк / Полацк <벨라루스어> #1Polotsk #2 폴로츠크 #3 벨라루스
Полтава #1Poltava #2 폴타바 #3 우크라이나
Полярный #1Polyarnyi #2 폴랴르니 #3 러시아
Поронайск #1Poronaisk #2 포로나이스크 #3 러시아
Поти / ფოთი <조지아어> #1Poti #2 포티 #3 조지아
Прибалтика #1Baltic states #2 발트 삼국 #3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Прилуки #1Priluki #2 프릴루키 #3 우크라이나
Приморск #1Primorsk #2 프리모르스크 #3 러시아
Приморский #1Primorskiy #2 프리모르스키 #3 러시아
Приозерск #1Priozersk #2 프리오제르스크 #3 러시아
Провидения #1Provideniya #2 프로비데니야 #3 러시아
Прокопьевск #1Prokop’evsk #2 프로코피옙스크 #3 러시아
Прут (река) #1Prut River #2 프루트 강 #3 우크라이나, 몰도바, 루마니아
Псков #1Pskov #2 프스코프 #3 러시아
Псковско-Чудское озеро #1Peipus, (Lake) #2 페이푸스 호 #3 러시아, 에스토니아
Псковское озеро #1Pskov 호 #2 프스코프 호 #3 러시아, 에스토니아
Пугачёв #1Pugachyov #2 푸가초프 #3 러시아
Пушкино #1Pushkino #2 푸시키노 #3 러시아
Пятигорск #1Pyatigorsk #2 퍄티고르스크 #3 러시아

<P>
Ревда #1Revda #2 레브다 #3 러시아
Репино #1Repino #2 레피노 #3 러시아
Ржев #1Rzhev #2 르제프 #3 러시아
Рига #1Riga #2 리가 #3 라트비아
Рижский залив #1Riga, (Gulf of) #2 리가 만 #3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Ровно #1Rovno #2 로브노 #3 우크라이나
Рославль #1Roslavl’ #2 로슬라블 #3 러시아

Россия #1Russia #2 러시아 #3 소비에트연방
Ростов-на-Дону #1Rostov-na-Donu #2 로스토프나도누 #3 러시아
Ростов #1Rostov #2 로스토프 #3 러시아
Рубцовск #1Rubtsovsk #2 룹촙스크 #3 러시아
Рыбачий полуостров #1 Rybachy Peninsula / Rybachiy Poluostrov #2 리바치 폴루오스트로프 반도 #3 러시아
Рыбинск #1Rybinsk #2 리빈스크 #3 러시아
Рыбинское водохранилище #1Rybinsk Reservoir / Rybinsk Sea #2 리빈스크 호 #3 러시아
Рязань #1Ryazan' #2 랴잔 #3 러시아

<C>
Салехард #1Salekhard #2 살레하르트 #3 러시아
Сальск #1Sal'sk #2 살스크 #3 러시아
Самара #1Samara #2 사마라 #3 러시아
Самара (река) #1Samara River #2 사마라 강 #3 러시아
Самарканд #1Samarkand #2 사마르칸트 #3 우즈베키스탄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1Saint Petersburg / Sankt Peterburg #2 상트페테르부르크 #3 러시아
Сараи #1Sarai #2 사라이 #3 러시아
Саранск #1Saransk #2 사란스크 #3 러시아
Сарапуль #1Sarapul #2 사라풀 #3 러시아
Саратов #1Saratov #2 사라토프 #3 러시아
Сатка #1Satka #2 삿카 #3 러시아
Сафоново #1Safonovo #2 사포노보 #3 러시아
Саха #1Sakha #2 사하 #3 러시아
Сахалин #1Sakhalin #2 사할린
Саяны / Саянские горы #1Sayan Mountains #2 사얀 산맥 #3 러시아
Свердловск #1Sverdlovsk #2 스베르들롭스크 #3 러시아
Свободный #1Svobodnyy #2 스보보드니 #3 러시아
Севастополь #1Sevastopol #2 세바스토폴 #3 러시아, 우크라이나
Северная Двина (река) #1Severnaya Dvina River #2 세베르나야드비나 강 #3 러시아
Северная Земля #1Severnaya Zemlya #2 세베르나야제믈랴 제도 #3 러시아
Северо-Курильск #1Severo-Kuril'sk #2 세베로쿠릴스크 #3 러시아
Северо-Осетия #1Severo-Osetiya #2 세베로오세티야 #3 러시아
Северодвинск #1Severodvinsk #2 세베로드빈스크 #3 러시아
Североморск #1Severomorsk #2 세베로모르스크 #3 러시아
Сейм (река) #1Seym River #2 세임 강 #3 러시아

Семей #1Semey #2 세메이 #3 카자흐스탄
Семёнов-баши #1Semenov Mountain #2 세묘노프 산 #3 키르기스탄
Семипалатинск #1Semipalatinsk #2 세미팔라틴스크 #3 카자흐스탄. ‘세메이’의 옛 이름
Серафимович #1Serafimovich #2 세라피모비치 #3 러시아
Сергиев Посад #1Sergiev Posad #2 세르기예프포사트 #3 러시아
Сердоболь #1Serdobol #2 세르도볼 #3 러시아. ‘소르타발라’의 옛 이름
Серов #1Serov #2 세로프 #3 러시아
Серпухов #1Serpukhov #2 세르푸호프 #3 러시아
Сибирское ханство #1Khanate of Sibir #2 시비르한국 #3 러시아
Сибирь #1Siberia #2*시베리아 #3 러시아
Симбирск#1Simbirsk #2 심비르스크 #3 러시아
Симферополь #1Simferopol #2 심페로폴 #3 우크라이나
Сихоте-Алин #1Sikhote-Alin #2 시호테알린 산맥 #3 러시아
Славгород #1Slavgorod #2 슬라브고로드 #3 러시아
Славянск-на-Кубани #1Slavyansk-na-Kubani #2 슬라뱐스크나쿠바니 #3 러시아
Славянск #1Slavyansk #2 슬라뱐스크 #3 우크라이나
Смоленск #1Smolensk #2 스몰렌스크 #3 러시아
СНГ #1CIS #2 독립국가연합 #3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의 번역
Совет #1Soviet #2*소비에트 #3 소비에트연방
Советск #1Sovetsk #2 소베츠크 #3 러시아
Советская #1Sovetskaya #2 소베츠카야 #3 러시아
Советская Гавань #1Sovetskaya Gavan’ #2 소베츠카야가반 #3 러시아
Согдиана #1Sogdiana #2 소그디아나 #3 중앙아시아
Сокол #1Sokol #2 소콜 #3 러시아
Соликамск #1Solikamsk #2 솔리캄스크 #3 러시아
Соль-Илецк #1Sol’-Iletsk #2 솔일레츠크 #3 러시아
Сортавала #1Sortavala #2 소르타발라 #3 러시아
Сосна (река) #1Sosna River #2 소스나 강 #3 러시아
Сосьва (река) #1Sos’va River #2 소시바 강 #3 러시아
Сочи #1Sochi #2 소치 #3 러시아
Союз Советских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их Республик #1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2 소련 #3 소비에트연방
Спасск-Дальний #1Spassk-Dál’niy #2 스파스크달니 #3 러시아
Средний хребет #1Srednij Range #2 스레드니 산맥 #3 러시아
ССР #1SSR #2 에스에스아르 #3 소비에트연방
СССР #1USSR #2 유에스에스아르 #3 소비에트연방

Ставрополь #1Stavropol’ #2 스타브로폴 #3 러시아
Сталинабад #1Stalinabad #2 스탈리나바드 #3 타지키스탄. ‘두샨베(Dushanbe)’의 옛 이름
Сталинград #1Stalingrad #2 스탈린그라드 #3 러시아. ‘볼고그라드(Volgograd)’의 옛 이름
Сталино #1Stalino #2 스탈리노 #3 우크라이나. ‘도네츠크(Donetsk)’의 옛 이름
Сталинск #1Stalinsk #2 스탈린스크 #3 러시아. ‘노보쿠즈네츠크(Novokuznetsk)’의 옛 이름
Становой хребет #1Stanovoy Range #2 스타노보이 산맥 #3 러시아
Старая Русса #1Staraya Russa #2 스타라야루사 #3 러시아
Стародуб #1Starodub #2 스타로두프 #3 러시아
Старый Оскол #1Staryy Oskol #2 스타리오스콜 #3 러시아
Стерлитамак #1Sterlitamak #2 스테를리타마크 #3 러시아
Ступино #1Stupino #2 스투피노 #3 러시아
Суда (река) #1Suda River #2 수다 강 #3 러시아
Суздаль #1Suzdal’ #2 수즈달 #3 러시아
Сумгаит / Sumqayıt <아제르바이잔어> #1Sumgait #2 숨가이트 #3 아제르바이잔
Сумы / Суми <우크라이나어> #1Sumy #2 수미 #3 우크라이나
Сургут #1Surgut #2 수르구트 #3 러시아
Сухона (река) #1Sukhona River #2 수호나 강 #3 러시아
Сухуми / Аҟәа <압하스어> / სოხუმი <조지아어> #1Sukhumi #2 수후미 #3 조지아
Сызрань #1Syzran’ #2 시즈란 #3 러시아
Сыктывкар #1Syktyvkar #2 식팁카르 #3 러시아
Сыр-Дарья (река) #1Syr Dar’ya River #2 시르다리야 강 #3 중앙아시아
Сыр (река) #1Syr River #2 시르 강 #3 중앙아시아 →시르다리야(Syr Darya) 강

<T>

Тавда #1Tavda #2 타브다 #3 러시아
Тавда (река) #1Tavda River #2 타브다 강 #3 러시아
Таганрог #1Taganrog #2 타간로크 #3 러시아
Таганрогский залив #1Taganrog Bay #2 타간로크 만 #3 러시아, 우크라이나
Таджик #1Tadzhik #2 타지크 #3 타지키스탄
Таджикистан #1Tadzhikistan #2 타지키스탄 #3 소비에트연방
Таз (река) #1Taz River #2 타스 강 #3 러시아
Таймыр (река) #1Taimyr River #2 타이미르 강 #3 러시아

Таймырский автономный округ #1Taimyr Autonomous Okrug #2 타이미르 자치구 #3 러시아
Таймырский полуостров #1Taymyr Peninsula #2 타이미르 반도 #3 러시아
Тайшет #1Taishet #2 타이셰트 #3 러시아
Такла-Макан #1Taklamakan Desert #2 타클라마칸 사막 #3 중앙아시아
Талды-Курган / Талдықорған <카자흐어> #1Taldy-Kurgan #2 탈디쿠르간 #3 카자흐스탄
Таллин #1Tallinn #2 탈린 #3 에스토니아
Тамбов #1Tambov #2 탐보프 #3 러시아
Тамбовская область #1Tambov Oblast #2 탐보프 주 #3 러시아
Танну-Ола #1Tannu-Ola Mountains #2 탄누올라 산맥 #3 러시아, 몽골
Танну Тува #1Tannu Tuva #2 탄누투바 #3 러시아. ‘투바(Tuva)’의 옛 이름
Тарту #1Tartu #2 타르투 #3 에스토니아
Татар / Татария #1Tatar #2 타타르 #3 러시아
Татарск #1Tatarsk #2 타타르스크 #3 러시아
Татарский пролив #1Tatar Strait #2 타타르 해협 #3 러시아
Татарстан #1Tatarstan #2 타타르스탄 #3 러시아 →Tatar(타타르)
Ташкент #1Tashkent #2 타슈켄트 #3 우즈베키스탄
Тбилиси / თბილისი <조지아어> #1Tbilisi #2 트빌리시 #3 조지아
Тверь #1Tver’ #2 트베리 #3 러시아
Тельпосиз #1Tel'posiz Mountain #2 텔포시스 산 #3 러시아, 카자흐스탄
Темиртау / Теміртау <카자흐어> #1Temirtau #2 테미르타우 #3 카자흐스탄
Темрюк #1Temryuk #2 템류크 #3 러시아
Терек (река) #1Terek River #2 테레크 강 #3 러시아, 조지아
Термез / Termiz <우즈베크어> #1Termez #2 테르메스 #3 우즈베키스탄
Тернополь #1Ternopol' #2 테르노폴 #3 우크라이나
Терпения, (Залив) #1Gulf of Patience / Terpeniya, (Zaliv) #2 테르페니야 만 #3 러시아
Тикси / Тиксии <야쿠트어> #1Tiksi #2 틱시 #3 러시아
Тирасполь / #1Tiraspol’ #2 티라스폴 #3 몰도바
Тиса (река) #1Tisza, (Lake) #2 티서[1] 강 #3 우크라이나, 헝가리
Тифлис #1Tiflis #2 티플리스 #3 조지아. ‘트빌리시(Tbilisi)’의 옛 이름
Тихвин #1Tikhvin #2 티흐빈 #3 러시아
Тихорецк #1Tikhoretsk #2 티호레츠크 #3 러시아
Тобол (река) / Тобыл <카자흐어> #1Tobol River #2 토볼 강 #3 러시아, 카자흐스탄

[1] “헝가리어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 표기임.

Тобольск #1Tobol’sk #2 토볼스크 #3 러시아
Тольятти #1Tol’yatti #2 톨리야티 #3 러시아
Томск #1Tomsk #2 톰스크 #3 러시아
Торжок #1Torzhok #2 토르조크 #3 러시아
Троицк #1Troitsk #2 트로이츠크 #3 러시아
Туапсе #1Tuapse #2 투압세 #3 러시아
Тува #1Tuva #2 투바 #3 러시아
Тула #1Tula #2 툴라 #3 러시아
Тулун #1Tulun #2 툴룬 #3 러시아
Тура #1Tura #2 투라 #3 러시아
Тура (река) #1Tura River #2 투라 강 #3 러시아
Туран #1Turan #2 투란 #3 러시아
Туранская низменность #1Turan Depression #2 투란 저지 #3 중앙아시아
Туркестан / Түркістан <카자흐어> #1Turkistan #2 투르키스탄 #3 카자흐스탄
Туркмен #1Turkmen #2 투르크멘 #3 투르크메니스탄
Туркменабат / Түркменабат <투르크멘어> #1Türkmenabat #2 투르크메나바트 #3 투르크메니스탄
Туркменбашы / Türkmenbaşy <투르크멘어> #1Turkmenbashi #2 투르크멘바시 #3 투르크메니스탄
Туркменистан #1Turkmenistan #2 투르크메니스탄 #3 소비에트연방
Тюмень #1Tyumen’ #2 튜멘 #3 러시아

<У>
Углегорск #1Uglegorsk #2 우글레고르스크 #3 러시아
Удмуртия #1Udmurt #2 우드무르트 #3 러시아
Ужгород #1Uzhgorod #2 우주고로트 #3 우크라이나
Узбек #1Uzbek #2 우즈베크 #3 우즈베키스탄
Узбекистан / O'zbekiston <우즈베크어> #1Uzbekistan #2 우즈베키스탄 #3 소비에트연방
Украина / Україна <우크라이나어> #1Ukraina #2 우크라이나 #3 소비에트연방
Улан-Уде #1Ulan-Ude #2 울란우데 #3 러시아
Ульяновск #1Ul’yanovsk #2 울리야놉스크 #3 러시아
Урал #1Ural #2 우랄 #3 러시아
Урал (река) #1Ural River #2 우랄 강 #3 러시아, 카자흐스탄
Уральск / Урал #1Ural'sk #2 우랄스크 #3 카자흐스탄
Уральские горы #1Ural Mountains #2 우랄 산맥 #3 러시아, 카자흐스탄
Ургенч #1Urgench #2 우르겐치 #3 우즈베키스

Уруп (остров) #1Urup Island #2 우루프 섬 #3 러시아
Уса (река) #1Usa River #2 우사 강 #3 러시아
Уссури (река) #1Ussuri River #2 우수리 강 #3 러시아
Уссурийск #1Ussuriisk #2 우수리스크 #3 러시아
Уссурийский залив #1Ussuri Bay #2 우수리 만 #3 러시아
Усть-Абаканское #1Ust'-Abakanskoe #2 우스티아바칸스코예 #3 러시아. '아바칸(Abakan)' 의 옛 이름
Усть-Илимск #1Ust'-Ilimsk #2 우스티일림스크 #3 러시아
Усть-Камчатск #1Ust'-Kamchatsk #2 우스티캄차츠크 #3 러시아
Усть-Кут #1Ust'-Kut #2 우스티쿠트 #3 러시아
Усть-Нера #1Ust'-Nera #2 우스티네라 #3 러시아
Усть-Ордынский #1Ust'-Ordynskiy #2 우스티오르딘스키 #3 러시아
Усть-Ордынский Бурят #1Ust'-Ordynskiy Buryat #2 우스티오르딘스키부랴트 #3 러시아
Усть-Сысольск #1Ust'-Sysol'sk #2 우스티시솔스크 #3 러시아. '식팁카르(Syktyvkar)'의 옛 이름
Усть-Цильма #1Ust'-Tsil'ma #2 우스티칠마 #3 러시아
Устюрт (плато) #1Ustyurt Plateau #2 우스튜르트 고원 #3 중앙아시아
Утхолок (река) #1Utkholok River #2 웃홀로크 강 #3 러시아
Уфа #1Ufa #2 우파 #3 러시아
Уфа (река) #1Ufa River #2 우파 강 #3 러시아
Ухта #1Ukhta #2 우흐타 #3 러시아

<Ф>
Федченко, (Ледник) #1Fedchenko Glacier #2 페드첸코 빙하 #3 타지키스탄
Феодосия / Феодосія <우크라이나어> #1Feodosiya #2 페오도시야 #3 러시아, 우크라이나
Фергана #1Fergana #2 페르가나 #3 우즈베키스탄
Ферганская долина #1Fergana Valley #2 페르가나 분지 #3 중앙아시아
Форт-Шевченко #1Fort Shevchenko #2 포르트셉첸코 #3 카자흐스탄
Фрунзе #1Frunze #2 프룬제 #3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Bishkek)'의 옛 이름

<Х>
Хабаровск #1Khabarovsk #2 하바롭스크 #3 러시아
Хазария #1Khazar #2 하자르 #3 카프카스(Kavkaz)와 볼가(Volga) 강, 돈(Don) 강의 중간 지역. #4 편수지명, 용지
Хакас / Хакасия #1Khakas #2 하카스 #3 러시아
Хан-Тенгри #1Khan-Tengri Peak #2 한텡그리 산 #3 중앙아시아

Ханка (озеро) #1Khanka, (Lake) #2 한카 호 #3 러시아, 중국
Ханты-Манси #1Khanty-Mansi #2 한티만시 #3 러시아
Ханты-Мансийск #1Khanty-Mansiysk #2 한티만시스크 #3 러시아
Харьков #1Khar'kov #2 하리코프 #3 우크라이나
Хасавюрт #1Khasavyurt #2 하사뷰르트 #3 러시아
Хатанга #1Khatanga #2 하탄가 #3 러시아
Хатанга (река) #1Khatanga River #2 하탄가 강 #3 러시아
Херсон #1Kherson #2 헤르손 #3 우크라이나
Хета (река) #1Kheta River #2 헤타 강 #3 러시아
Хива #1Khiva #2 히바 #3 우즈베키스탄
Хивинское ханство #1Khanate of Khiva #2 히바한국 #3 중앙아시아
Хийумаа (остров) / Hiiumaa <에스토니아어> #1Khiuma Island #2 히우마 섬 #3 에스토니아
Хилок #1Khilok #2 힐로크 #3 러시아
Химки #1Khimki #2 힘키 #3 러시아
Ходжент #1Zhozhent #2 호젠트 #3 타지키스탄
Холм #1Kholm #2 홀름 #3 러시아
Холмск #1Kholmsk #2 홀름스크 #3 러시아
Хорезм #1Khorazm #2 호라즘 #3 중앙아시아
Хорог #1Khorog #2 호로크 #3 타지키스탄

<Ц>
Царицын #1Tsaritsyn #2 차리친 #3 러시아. '볼고그라드(Volgograd)'의 옛 이름
Целиноград #1Tselinograd #2 첼리노그라드 #3 카자흐스탄
Центральная Азия #1Central Asis #2 중앙아시아 #3 중앙아시아
Цимлянское водохранилище #1Tsimlyansk Reservoir #2 치믈랸스크 호 #3 러시아

<Ч>
Чагатайское ханство #1Chagatai Khanate #2 차가타이한국 #3 몽골
Чаны (озеро) #1Chany, (Lake) #2 차니 호 #3 러시아
Чапаевск #1Chapayevsk #2 차파옙스크 #3 러시아
Чарджоу / Чәрҗев <투르크멘어> #1Chardzhou #2 차르조우 #3 투르크메니스탄. '투르크메나바트'의 옛 이름
Чебоксары #1Cheboksary #2 체복사리 #3 러시아
Челюскин (мыс) #1Chelyuskin, (Cape) #2 첼류스킨 곶 #3 러시아
Челябинск #1Chelyabinsk #2 첼랴빈스크 #3 러시아
Черемхово #1Cheremkhovo #2 체렘호보 #3 러시아

Череповец #1Cherepovets #2 체레포베츠 #3 러시아
Черкесия / Адыгэ Хэку <아디게야어> #1Circassia #2 시르카시아 #3 러시아
Черкесск #1Cherkessk #2 체르케스크 #3 러시아
Чернигов #1Chernigov #2 체르니고프 #3 우크라이나
Чернобыль #1Chernobyl #2 체르노빌 #3 우크라이나
Черновцы #1Chernovtsy #2 체르노프치 #3 우크라이나
Черногорск #1Chernogorsk #2 체르노고르스크 #3 러시아
Чёрное море #1Black Sea #2 흑해 #3 아시아, 유럽
Черняховск #1Chernyakhovsk #2 체르냐홉스크 #3 러시아
Черские горы #1Cherski Mountains #2 체르스키 산맥 #3 러시아
Чечня #1Chechen #2 체첸 #3 러시아
Чёшская губа #1Chosha Bay / Cheshskaya Bay #2 체시스카야 만 #3 러시아
Чимкент / Шымкент <카자흐어> #1Chimkent #2 침켄트 #3 카자흐스탄
Чистополь #1Chistopol’ #2 치스토폴 #3 러시아
Чита #1Chita #2 치타 #3 러시아
Чкалов #1Chkalov #2 치칼로프 #3 러시아. ‘오렌부르크(Orenburg)’의 옛 이름
Чу (река) / Шу <카자흐어> #1Chu River #2 추 강 #3 카자흐스탄
Чуваш / Чувашия #1Chuvash #2 추바시 #3 러시아
Чудско-Псковское озеро #1Peipus, (Lake) #페이푸스 호 #3 러시아, 에스토니아
Чудское озеро #1Chudskoe, (Lake) #2 추트스코예 호 #3 러시아, 에스토니아
Чукотский автономный округ / Чукчи #1Chukotka Autonomous Okrug / Chukchi #2 축치 #3 러시아
Чулым (река) #1Chulym River #2 출림 강 #3 러시아
Чусовая (река) #1Chusovaya River #2 추소바야 강 #3 러시아
Чусовой #1Chusovoy #2 추소보이 #3 러시아

<Ш>

Шадринск #1Shadrinsk #2 샤드린스크 #3 러시아
Шантар (остров) #1Shantar Island #2 샨타르 섬 #3 러시아
Шантарские острова #1Shantar Islands / Shantarskie Ostrova #2 샨타르스키예 제도 #3 러시아
Шара-Мурэн #1Xar Moron River / Shira Muren River #2 시라무렌 강 #3 중앙아시아
Шахты #1Shakhty #2 샤흐티 #3 러시아
Шексна (река) #1Sheksna River #2 셱스나 강 #3 러시아
Шелагский (мыс) #1Shelagskiy, (Cape) #2 셸락스키 곶 #3 러시아

Шелихова, (Залив) #1Shelikhova Gulf #2 셸리호바 만 #3 러시아
Шелковый путь #1Silk Road #2 실크로드 #3 중앙아시아
Шикотан (остров) #1Shikotan Island #2 시코탄 섬 #3 러시아
Шимановск #1Shimanovsk #2 시마놉스크 #3 러시아
Шуя #1Shuya #2 슈야 #3 러시아
Шяуляй / Šiauliai <리투아니아어> #1Shaulyai #2 샤울랴이 #3 리투아니아

<Щ>
Щекино #1Shchekino #2 셰키노 #3 러시아
Щелково #1Shchelkovo #2 셸코보 #3 러시아

<Э>
Эвенкий #1Evenkiy #2 예벤키 #3 러시아
Элиста #1Elista #2 엘리스타 #3 러시아
Эльбрус (стратовулкан) #1El'brus, (Mount) #2 엘브루스 산 #3 러시아
Эмба (река) / Жем (өзен) <카자흐어> #1Emba #2 엠바 (강) #3 카자흐스탄
Энгельс #1Engel's #2 엔겔스 #3 러시아
Эстония #1Estonia #2 에스토니아 #3 소비에트연방

<Ю>
Южно-Сахалинск #1Yuzhno-Sakhalinsk #2 유즈노사할린스크 #3 러시아
Юрга #1Yurga #2 유르가 #3 러시아
Юрьев #1Yuriev #2 유리예프 #3 에스토니아. '타르투(Tartu)'의 옛 이름

<Я>
Яблоновый хребет #1Yablonoi Mountains / Yablonovyi Khrebet #2 야블로노비 산맥 #3 러시아
Яксарт #1Jaxartes #2 약사르테스 강 #3 중앙아시아. '시르다리야(Syr Dar'ya) 강'의 옛 이름
Якут / Якутия #1Yakut #2 야쿠트 #3 러시아. '사하(Sakha)'의 옛 이름
Якутск #1Yakutsk #2 야쿠츠크 #3 러시아
Ялта #1Yalta #2 얄타 #3 러시아, 우크라이나
Ялуторовск #1Yalutorovsk #2 얄루토롭스크 #3 러시아
Ямал (полуостров) #1Yamal Peninsula #2 야말 반도 #3 러시아
Ямало-Ненец #1Yamalo-Nenets #2 야말로네네츠 #3 러시아
Ямбург #1Yamburg #2 얌부르크 #3 러시아. '킨기세프(Kingisepp)'의 옛 이름
Яна (река) #1Yana River #2 야나 강 #3 러시아
Ярославль #1Yaroslavl' #2 야로슬라블 #3 러시아
Ярцево #1Yartsevo #2 야르체보 #3 러시아

이상의 용례를 인용한 자료의 상세 정보는 다음과 같다.

- 국립국어원(2005), <외래어 표기 용례집(포르투갈어, 네덜란드어, 러시아어)>, 국립국어원, 233p.
- 국립국어원 홈페이지 (http://korean.go.kr). 외래어 표기 용례 자료 – 로마지명(2014.12.12.), 로마인명(2015.03.27.).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용례를 활용하도록 한다.

가) *가 붙은 표기는 “러시아어 외래어 표기법”에 맞지 않으나 관례에 따른 것이다.
나) 소련 해체 이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등의 지명은 러시아어보다는 자국어의 로마자 표기를 우선으로 하여 한글로 옮기기 때문에 “러시아어 외래어 표기법” 외에 일반적인 외래어 표기법 규정을 따르는 경우가 있다.
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의 지명은 러시아어 표기를 우선으로 하되, 자국어에서 유래한 지명은 “러시아어 외래어 표기법”이 아닌 일반적인 외래어 표기법 규정을 따르는 경우가 있다.
라) 추후 로마자 표기를 하나의 체계로 통일하기로 한다.

<지명 관련 용어>

автономная область #1autonomous region #2 자치주
автономный округ #1autonomous okrug #2 자치구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й центр #1administrative center #2 주도
архипелаг #1archipelago #2 제도 / 군도
атолл #1atoll #2 섬 / 산호섬
бассейн #1basin #2 분지
водный путь #1waterway #2 수로
водохранилище #1reservoir #2 호 / 저수지
гора #1mountain #2 산
горная система #1range #2 산맥
город #1city #2 시
горы #1mountains #2 산맥

губа #1bay #2 만
залив #1gulf #2 만
канал #1canal #2 운하
край #1region #2 지방
ледник #1glacier #2 빙하
мыс #1cape #2 곶
нагорье #1highland #2 고원 / 고지
низменность #1lowland #2 저지
область #1region #2 주
озеро #1lake #2 호 / 호수
остров #1island #2 섬
острова #1islands #2 제도
пик #1peak #2 산 / 봉
плато #1plateau #2 고원
полуостров #1peninsula #2 반도
посёлок #1town #2 마을
пролив #1strait #2 해협
пустыня #1desert #2 사막
район #1district #2 구 / 군
река #1river #2 강
Республика #1Republic #2 공화국
село #1village #2 마을
сопка #1stratovolcano #2 산 / 화산
столица #1capital city #2 수도
федеральный город #1federal city #2 연방시
ханство #1Khanate #2 한 / 한국
хребет #1mountains #2 산맥
шар #1strait #2 해협

<참고 5> 참고문헌 작성 예시

ОБРАЗЕЦ ОФОРМЛЕНИЯ БИБЛИОГРАФИЧЕСКОГО ОПИСАНИЯ В СПИСКЕ ИСТОЧНИКОВ

December 10, 2018
Center for Korean Studies, KazUIR&WL

1. Панов М.В. Об аналитических прилагательных // Фонетика. Фонология. Грамматика: К 70-летию А.А. Реформатского. М.: Наука, 1971. С.240-253.
2. Пак Н.С.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в Казахстане: проблемы и перспективы. Алматы, 2005. 303с.
3. Холодович А.А. Очерк грамматик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М.: Издательство ЛКИ, 2010. 320с.
4. Борантаева Ф.Ж. Корея Республикасының «жұмсақ күш» саясатындағы Корей толқынының орны // Кореееведение Казастана 6. Алматы: Абылай хан атындағы ҚазХҚжӘТУ, Корейтану Орталығы, 2017. бб.126-133.
5. Баймолдаев Т.М. Білім беру жүйесін басқарудың әдіснамалық негізі: Білім беру ұйымдарының басшыларына және білім жүйесі қызметкерлеріне арналған. Алматы, 2013. 356бет.
6. 장호종. 카자흐스탄 한국학의 현황과 과제 // 카자흐스탄 한국학 8. 알마티: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 2018. pp.135-145.
7. 하치근. 우리말의 형태와 의미. 서울: 경진, 2009. 387p.
8. King, Ross. An Introduction to Soviet Korean // Language Research 23-2. Seoul: Language Education Institute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1987. pp.233-277.
9. Chomsky, Noam. Aspects of the Theory of Syntax. Cambridge, Massachusetts: MIT Press, 1965. 251p.
10. Хангыль // Википедия. https://ru.wikipedia.org/wiki/%D0%A5%D0%B0%D0%BD%D0%B3%D1%8B%D0%BB%D1%8C
11. Корей толқыны мен қазақ жастары // Yvision.kz. https://yvision.kz/post/327199
12. 고려말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327164&cid=46674&categoryId=46674

참고문헌은 위와 같이 . , : // - 외의 기호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Кроме знаков **. , : //** - принято за основное правило не использовать иные знаки препинания и символы**.**

목차

(R 은 러시아어, K 는 카자흐어, E 는 영어. 논문은 필자의 영어 알파벳 순.)

1. 악사날리예바 자밀랴, 톡타르바예바 아크바얀. 카자흐인과 한국인의 출산 의례 비교 연구: 전통, 신앙 및 문화적 상징성을 중심으로.....5
2. 바트터르 잠얀, 아이슬란 호무슈쿠. 한국과 몽골의 3.1 운동: 반식민 연계, 언론 담론, 외교 정책 선택 (R).....12
3. 빌린스카야 소피아, 김 알렉산드르. 미국의 대북 제재 정책: 메커니즘, 도구, 진화 (2001-2021 년) (R).....32
4. 보란타예바 파리자. 다종교 공간 맥락에서 한국 사회의 문화적 변혁 (K).....47
5. 부르키트바이 G, 리자베코바 ZH. 한국어와 카자흐어에서 시간 관계 표현 수단에 대한 비교 분석 (K).....60
6. 장호종. 중앙유라시아 한국학회의 필요성.....69
7. 정인숙. 한국어 학습자의 관용표현 학습 인식과 수업 요구.....78
8. 한 넬리. 서로 다른 구조를 가진 언어에서 공손성 범주의 기본 원리 (R).....90
9. 하사노프 카밀. 미국, 중국, 러시아의 전략적 경쟁 속 대한민국의 대외정책: 다극화된 국제질서에서의 이익 균형 (R).....103
10. 김 콘스탄틴. 글로벌 기술 경쟁 속에서 한국의 AI 외교 (R).....121
11. 김 울리아나, 박 넬리. 한국어, 고려말, 러시아어에서 행동 양식 표현 수단 (R).....134
12. 뭉흐나란 람후, 바트투야 라흐바둘람. 대한민국 재한외국인의 가족정책 동향-이주노동자와 유학생을 중심으로-.....149
13. 오혜정. 생성형 AI 를 활용한 카자흐인 한국어학습자의 쓰기 피드백 교수 방안 연구.....160
14. 오상호. 카자흐 민족 지식인 집단의 근대화 이념과 실천 - 주요 간행물 소개를 중심으로 -.....169
15. 로지보예프 일홈존. 현대 한국 사회에서 친족 용어의 축약과 함축적 변화 (E).....183
16. 사케노바 아이누르. 한국 외교정책 전략의 수단으로서 소프트 파워: 개념, 메커니즘 및 지역적 적용 사례.....196
17. 슬람가지예바 디아나. 현대 한국어에서 감정 어휘의 기능적 특징 (소셜네트워크 기반) (R).....220220
18. 틀레우자 아이게림. 한국어의 구절 동사 탐구: 언어학적 분석 (E).....23838

19. 독타르바예바 아크바얀, 카나피야 쿤디즈. 한국 사회의 과로: 원인과 결과 (R).....24646
20. 자일라우오바 아루잔. 한국어-러시아어 번역에서 신경망의 역할: 품질과 문제점 (R).....256

<참고 1> 표기 원칙.....266
<참고 2> 러시아어 외래어 표기법.....268
<참고 3> CIS(구 소련) 인명의 한글 표기 용례.....273
<참고 4> CIS(구 소련) 지명의 한글 표기 용례.....325
<참고 5> 참고문헌 작성 예시.....356
목차.....357

카자흐스탄 한국학 22

편집대표
박 넬리 (카자흐 아블라이 한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책임편집
장호종 (카자흐 아블라이 한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편집위원
백태현 (중앙아시아 한국대)
손영훈 (한국외국어대)
김 울리아나 (카자흐 아블라이 한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한 넬리 (카자흐 아블라이 한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쿠르만베코바 발렌티나 (카자흐 아블라이 한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보란타예바 파리자 (카자흐 아블라이 한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편집간사
악사날리예바 자밀랴 (카자흐 아블라이 한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자일라우오바 아루잔 (카자흐 아블라이 한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슬럄가지예바 디아나 (카자흐 아블라이 한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Korean Studies in Kazakhstan Vol. 22
Almaty: Center for Korean Studies of Ablai Khan University, 2026. 360 p.

ISSN 2415-7511

발 행 일: 2026년 5월 30일
발행기관: 카자흐 아블라이 한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학교 한국학센터
발 행 처: 카자흐 아블라이 한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학교 출판부
주 소: Muratbayev Str. 200, Kazakh Ablai Khan University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World Languages, Almaty, Kazakhstan

Center for Korean Studies

Kazakh Ablai Khan University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World Languages

카자흐 아블라이 한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

카자흐스탄 한국학 22

2026

"이 학술지는 2021년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진흥사업단)의 **해외한국학중핵대학육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AKS-2021-OLU-2250007)"